

Latin America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
박윤주
김영철
이상헌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 · 박윤주 · 김영철 · 이상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본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4개국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 4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상황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와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4개국에서 나타난 엘리트 형성과정이나 특징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엘리트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성과 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차후 다른 국가 엘리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엘리트 간의 통합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는 최근의 엘리트 연구 동향과는 다르다. 그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진출할 때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들 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다.

각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틀을 가진다. 먼저 각국의 엘리트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엘리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형성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식민지 권력의 강도, 독립 과정에서 토착 엘리트의 역할, 독립 이후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력한 지방 엘리트의 존재 여부, 지주 엘리트의 파위, 엘리트의 단일화 혹은 다원화 과정,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여부 등등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은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국 엘리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국 엘리트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각국 엘리트의 구조를 부문별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각 부문 엘리트가 가지는 파워의 크기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칠레와 페루에서는 경제 엘리트가 가장 강력하다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정치엘리트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규모가 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주지사 등 지방 엘리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페루와 칠레의 엘리트는 수도인 리마와 산티아고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페루에서는 군부 엘리트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혁명 이후 정치적 갈등을 제도화한 멕시코의 군부는 파워엘리트에 들지 못한다. 한편 엘리트가 단일화되어 있는 칠레에서 언론엘리트는 경제력, 정치력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페루나 브라질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교엘리트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와 페루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그들의 역할은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에서 특정 부문 엘리트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국 엘리트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의미 있는 부문의 엘리트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는 비록 그 파워의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군부엘리트, 언론엘리트, 지방엘리트, 종

교엘리트 등은 그들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다원적 엘리트론의 입장에서 사회 모든 부문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능과 관련된 그들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파워엘리트론의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각국 엘리트들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엘리트의 단일성이 특징인 칠레에서는 엘리트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원방식, 엘리트 간의 연합을 통한 통치방식 등을 분석한다. 페루에서는 주요 엘리트 그룹인 경제, 정치, 군부 엘리트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그들 간의 통합과 분열을 통한 통치과정을 살펴본다. 엘리트가 보다 다원화된 브라질에서는 각 부문 엘리트 간의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역할 분배에 따른 통치방식에 주목한다. 역시 엘리트가 다원화된 멕시코에서도 다양한 부문의 엘리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서로 통합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보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특징을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의 구조를 종합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이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이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1
■ 제2장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31
1. 서론	32
2. 칠레 엘리트의 형성	34
3. 현재 칠레 엘리트 그룹의 구성	63
4. 칠레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방식	90
5. 결론	114
■ 제3장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17
1. 서론	118
2.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	119
3.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132
4. 페루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 방식	168
5. 결론	173
■ 제4장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75
1. 서론	176
2.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변화	177
3.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구성	191
4.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과 통치방식	237
5. 결론	245

■ 제5장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253
1. 서론	254
2.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256
3.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270
4.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	300
5. 결론	311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315
1. 각국 엘리트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	316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329
■ 참고문헌	341
■ Executive Summary	355

표 차례

표 2-1.	칠레 37대 기업과 지배가문(1964/1966)	47
표 2-2.	6대 민간 은행(1964/1966)	49
표 2-3.	칠레 28대 기업과 지배가문(2005)	64
표 2-4.	칠레 주요 경제엘리트 그룹 순위(2005)	65
표 2-5.	칠레 대통령 출신 대학(1925~2012)	95
표 2-6.	출신학교에 따른 장관 및 국회의원 수(1925~99)	97
표 3-1.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950~68)	125
표 3-2.	방코 콘티넨탈의 주요 주주(1960~69)	134
표 3-3.	페루 대표 경제 그룹들(1986~2010)	144
표 3-4.	페루 ‘열두 사도’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기업들의 출현(1986~2004) ·	146
표 3-5.	페루의 10대 기업(2007)	147
표 3-6.	오안타 우말라 내각	155
표 3-7.	2011년 대선 참여 정당 및 후보	158
표 4-1.	민주화 이후 대통령	193
표 4-2.	브라질 관료 엘리트	197
표 4-3.	하원의 특채 공무원 채용인원	199
표 4-4.	현 브라질 주지사	202
표 4-5.	브라질 10대 부자	220
표 5-1.	멕시코의 지배 엘리트와 기술관료: 멕시코 기술 관료의 부상과 쇠퇴	266
표 5-2.	세디요 정권 시기 내각 구성원의 일반적 특징(1994~2000)	268
표 5-3.	현재 멕시코의 주요 정치 엘리트	273
표 5-4.	현재 멕시코의 주요 경제 엘리트	284
표 5-5.	페냐 니에토 정부 내각	292
표 5-6.	현재 멕시코 기타 집단 엘리트	295

표 5-7. 멕시코 경제 지배 엘리트의 네트워킹 원천	302
표 5-8. 멕시코의 정치가와 가족 전통	303
표 5-9. 멕시코 엘리트의 교육수준	305
표 5-10. 멕시코 엘리트와 유학	308
표 5-11. 멕시코 엘리트의 해외유학과 세대 차이	308
표 5-12. 멕시코 관료 엘리트의 해외 유학과 출신 학교	309
표 6-1. 라틴아메리카 주요 4개국 엘리트 특성 비교	329

제1장 서론



엘리트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다(위키 백과). 그런데 정의는 엘리트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실제 엘리트 개념의 범위는 학자들 각자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밀스(C. Wright Mills)는 엘리트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파워엘리트들이다. 밀스가 말하는 미국의 파워 엘리트에는 대회사를 지배하고, 국가기관을 운영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즉 그들은 국가 운영의 핵심인 경제·정치·군사 세 영역에서 정점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문·교회·대학 등은 중요하지만 위의 세 영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자율적인 권력중심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들 ‘열등한 제도’들은 단지 주요 삼대 제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도구, 즉 정당화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밀스에 따르면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인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통합된 200~300개의 거대 회사를 지배하는 소유주 그리고 그들과 어깨를 겨루는 회사 최고경영진, 비대하고 중앙집권화된 행정조직에서 각종 권한을 수중에 장악한 소수의 정치적 간부들, 정부에서 거대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조직체인 군부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통합참모 본부와 군부 상층의 주위에 모이는 군인정치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면서 미국의 엘리트 그룹을 구성한다(밀스 1979, pp. 15~2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엘리트의 범위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수의 핵심 엘리트로 제한된다.

반면 Higley와 Gunther는 엘리트를 “강력한 조직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결과에 정기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즉 “엘리트는 사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자원이 풍부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군사적, 전문적, 언론, 문화적 조직이나 운동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엘리트는 “강력한 반체제 조직이나 운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존재하는 사회, 경제, 정치 질서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양한(widely varying)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다”(Higley and Gunther 1992, p. 8). 이러한 엘리트의 정의에 따르면 엘리트의 범위는 제도 내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과워엘리트뿐만 아니라 야당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조직의 지도자도 포함한다.

엘리트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결국 엘리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엘리트의 범위를 둘 중 하나 선택한다면 이는 우리가 특정 엘리트 이론(단일적 엘리트론 혹은 다원적 엘리트론)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라틴아메리카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하게 엘리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각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연구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의 범위는 결국 연구의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트의 단일성이 강한 국가는 핵심 엘리트에 주목하고, 엘리트의 다원성이 강한 국가는 다원적 엘리트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엘리트와 관련한 이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변혁에서 엘리트들의 주체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언급한 엘리트의 단일성과 다원성의 문제이다. 먼저 엘리트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에서 지배적이었던 구조기능주의는 근본적으로 엘리트의 주체성을 부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의 변화는 사회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다.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도 엘리트의 주체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구조기능주의와 일치한다. 종속이론 또한 엘리트 혹은 대중의 자율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진적 구조주의였다(Peeler 2010, p. 232).

하지만 Cardoso와 Faletto(1986)는 종속의 구조 내에서도 지역 엘리트(민족 부르주아)의 역량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율적 발전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도 라틴아메리카가 근본적으로 종속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여전히 구조주의적이지만 그래도 지역 엘리트의 제한적이거나 자율적인 활동영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였다. 한편 Régis Debray(1970)가 제기한 포코 이론도 사회의 전반적 변화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혁명적 엘리트들의 전위적 활동으로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의 혁명적 엘리트이론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론은 근본적으로 구조주의적 정치경제학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군사정권의 도래는 군부 엘리트들의 자율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가 수입 대체산업화 모델에서 수출 지향적 모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치경제학적 결과였다(O'Donnell 1979). 그에 비해 Collier(1979)는 당시 군부정권의 도래가 자율적 행동 결정의 여지가 있는 엘리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엘리트에게 일정 역할의

공간을 부여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민주화와 관련된 이론에서 엘리트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Higley와 Gunter는 그들이 편집한 『라틴아메리카와 남유럽: 엘리트와 민주주의 공고화(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1992)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에는 엘리트 간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Higley와 Gunter가 보는 엘리트의 범위는 핵심 통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 노조 지도자 등을 포함하여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다원적 엘리트들의 합의가 안정적 민주주의 발전을 허용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반대파 엘리트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 그리고 권위주의 옹호자 엘리트 내의 강경파와 개혁파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민주화 발전의 정도를 평가한 세보르스키(1993)의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엘리트 이론의 한 예이다.

그에 대해 Remmer(1991)는 Higley와 Gunter의 엘리트 협상론이 이론적으로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엘리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근본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회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운동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결국 엘리트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엘리트 주체론은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민주화와 엘리트 협상론에 대한 비판은 좌파와 우파 이론가 모두에 의해 제기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민주화는 부르주아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의 강화라는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독립적 활동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ueschemeyer *et al.* 1992).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또

한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만큼이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경제정책 결정은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그러한 변수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엘리트는 사회변화의 한 요인이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Haggard and Kaufman 1995).

그에 대해 Dogan과 Higley는 엘리트 결정이론이나 대중결정이론 모두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리더와 엘리트는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따라서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역사적 증거를 보다 더 믿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Dogan and Higley 1998, p. 24). 그리고 계급적 혹은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도 “계급이나 다른 거대 집단은 결코 사회적 행위자가 아니다. 그 점에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조직에 기반을 둔 엘리트들은 계급, 종족 그룹, 지역, 혹은 종교단체 등을 대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조직의 다양한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Dogan and Higley 1998, p. 66).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엘리트의 사회변혁 주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사회변화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엘리트의 선택만이 사회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사회에서 엘리트의 역할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분명히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칠레에서 시카고보이스 없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생각할 수 없고, 브라질에서 지방 엘리트를 제외하고 그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멕시코

에서 엘리트들의 사적 그룹인 카마리아에 대한 이해 없이 그의 정치를 알 수 없다. 페루에서도 후지모리가 없었다라면 그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한참은 더 미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듯 엘리트는 사회변혁의 결정적 요인은 아닐지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변혁을 주도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엘리트 특성에 대한 본 연구도 바로 이런 엘리트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엘리트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단일성과 다원성의 문제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단일적 엘리트 이론은 모든 공동체에서 영향력의 행사는 극소수의 응집된 엘리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경우 엘리트 그룹은 단일하고 결속된 특징을 보인다. 다원적 엘리트 이론은 사회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대표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엘리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Lipset과 Solari(1967)의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Elites in Latin America)』는 196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과정에서 엘리트의 역할을 다원적 엘리트 이론에 입각해 분석했다. 15편의 독립적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장을 집필한 Lipset은 산업화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 엘리트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또 다른 한 장을 집필한 F. E. Cardoso는 라틴아메리카의 산업엘리트가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선진 산업국가 산업엘리트의 가치관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기능적 엘리트들(Functional Elites)」라는 이 책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정치엘리트, 종교엘리트, 문화엘리트, 군부엘리트, 노동엘리트, 농민운동 등

을 다루었다. 이 섹션에서 Robert Scott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정당의 위기는 정치엘리트가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정치 시스템 내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엘리트들의 타협과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Ivan Vallier는 신가톨릭 엘리트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사회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Henry Landsberger는 경제권력보다 정치권력을 많이 가진 노동엘리트들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혁명적 변화보다 안정적 변화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 Darcy Ribeiro는 학생운동과 학생엘리트들을 새로운 사회변혁의 한 주체로 강조했다.

이렇듯 이 책은 대부분 다원적 엘리트론의 입장에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모두를 한 권의 책에 묶은 것은 그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각각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Lipset과 Solari의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는 다원적 엘리트론에 기반함으로써 엘리트로 규정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엘리트의 경우에도 그러한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구성, 태도, 특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대부분 엘리트 자체보다 엘리트들이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에 미치는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 196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저술로는 앞서 언

급한 Higley와 Gunter의 것이 있다. 1992년에 처음 출판된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 엘리트 전반에 대한 최근의 저술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발전이 다양한 국내 엘리트(national elite)들의 통합이나 분열이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국내 엘리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당 지도자까지 포함하는 다원적 엘리트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엘리트들의 통합과 분열의 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역시 엘리트 자체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민주주의 이론이지 엘리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게다가 엘리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함에 따라 엘리트와 비엘리트 사이의 구분도 모호해졌고, 엘리트 내부에서 영향력 크기에 대한 평가도 없다. 따라서 이 책은 엘리트들 사이의 통합과 분열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지만 그의 연구 방향은 우리가 하려는 엘리트 특성에 대한 연구와는 사실 거리가 있다.

따라서 중남미 엘리트의 특성에 대한 본 연구의 방향은 오히려 밀스의 『파워엘리트』에 가깝다. 미국의 엘리트를 분석한 밀스는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정치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세력으로 대기업 소유주와 최고 경영진들, 최고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 최고 상층부의 군인들로 구성된 ‘파워엘리트’를 지목하고, 그들 각 영역 엘리트들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도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엘리트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그들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밀스의 연구

방향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권력이 대중사회에 있기보다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엘리트의 개념정의, 즉 범위 설정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다. 밀스 또한 이러한 엘리트 범위 설정 문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만약 현재 결론을 내려야 할 어떤 국가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권력이 완전히 평등하게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권력(파워)엘리트라고 하는 것 따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권력의 단계성과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오직 동일성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한 줌의 극소수 집단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력을 모두 독점 한다면 이때도 역시 권력의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 극소수 집단이 지배하는 세계와 그 아래에 놓여 있는 미분화된 피지배 대중이 존재할 뿐이다. 현대의 미국 사회는 이 양 극단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적 질서의 내부에는 권력의 단계가 존재하고 있다. (……) 따라서 권력엘리트를 정의하는 문제는, 사회 각 계층 중의 어느 단계에다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선을 훨씬 아래까지 내려 굿는다면 엘리트의 존재에 대한 걱정할 실체를 놓쳐 버리게 되고 또 이 선을 지나치게 위로 올리면 엘리트를 내려보려는 의도에서, 마치 목탄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된다. 즉 권력 엘리트라는 것은 서로 중복되고 복잡한 관계에서 있는 한 무리의 파벌이며, 적어도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그룹을 뜻한다. 국가적인 문제의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권력 엘리트란, 곧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밀스, 1979, pp. 35~36).

밀스의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는 누구인가? 그 전에 라틴아메리카에 그러한 단일성을 가진 파워엘리트 그룹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이러한 질문에 일반적 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 엘리트 그룹이 단일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다원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그룹은 어떤 국가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될 엘리트의 범위를 선불리 미리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거쳐 국가별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 4개국을 대표적 사례로 선정했다. 멕시코는 북중미와 카리브의 대표 국가로, 페루는 남미 안데스 유역 국가의 대표로, 칠레는 남미 코노수르(Cono Sur) 지역의 대표로, 그리고 브라질은 포어권의 대표로 각각 선정했다. 그것은 이들 국가 엘리트가 이 지역 국가 엘리트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혹은 지역적 중요성 등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칠레와 페루를 각 지역의 대표 국가로 선정한 이유도 바로 이들 국가가 우리와 FTA 협정을 맺고 가장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본 연구의 원래 목적이 바로 그러한 정책적 실용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 기준 자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국가 엘리트의 구성과 특징이 여기서 분석하

지 않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엘리트의 구성과 특징을 대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로서 큰 틀에서 유사성이 없지는 않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200년 이상을 개별 국가로서 발전해옴으로써 지리적, 인종적 조건 등에 따라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멕시코 엘리트의 특징이 과테말라 엘리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듯이, 칠레 엘리트와 페루 엘리트의 구성과 특징이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엘리트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위의 4개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의 지배 그룹, 즉 엘리트 집단에 관한 것이다. 즉 “누가 통치하는가?” 또 “어떻게 통치하는가?”라는 문제는 한 국가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수 주제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그룹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무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중 핵심적 부분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정치 연구에 드러나는 이러한 공백을 채움으로써 이 지역 정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통치 그룹과 통치방식에 대한 연구는 결국 한 나라의 정책결정을 어떤 그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는 한 국가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이나 비즈니스 협상 혹은 투자 결정에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 측면에서 대외관계를 구축하고 외교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인맥을 파악하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경제엘리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자의 경우에는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정책결정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와 무역 콘택트 포인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이슈와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 이슈와 쟁점을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식민시대는 현대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구성에서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국가별 차이는 어떠한가? 식민시대, 혁명, 산업화, 군부 쿠데타, 경제구조조정 등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적 이벤트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국 엘리트의 단일성과 다원성의 문제, 그리고 엘리트 간의 분열과 통합의 문제를 평가해볼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집중한다. 칠레 엘리트 들의 상호긴밀성은 인구규모가 큰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이 있는가? 페루에서는 엘리트 형성에 인종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가장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

은 브라질은 인구나 국토의 규모가 브라질 엘리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중앙과 지방의 엘리트 사이에 어떠한 특성과 구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는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상관관계에서 제도혁명당 중심의 조합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멕시코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이 국민행동당 집권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엘리트 집단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을 통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다양한 정치적 변혁 과정을 거쳐 엘리트집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등의 역사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모순의 땅’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신(新)과 구(舊), 종속과 자립, 변혁과 안정, 그리고 변영과 빈곤이 공존하는 시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모순의 땅’에서 엘리트 집단은 역사 발전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등장하고 소멸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라틴아메리카 최초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다양한 정치적 변혁 과정을 통해 엘리트집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실재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4개국의 다양한 엘리트 그룹을 구분하고, 각 엘리트 그룹의 특징과 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정치엘리트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들의 변화 과정과 영향력 수준에 주목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시대부터 과두지배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한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런 과두지배체제가 지속되면서 지배

집단이 높은 결속력을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정치의 많은 부분은 과두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엘리트는 보다 다원화되는 경향이다. 지방엘리트뿐만 아니라, 노조엘리트, 야당엘리트까지 정치엘리트의 범주에 흔히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의 분열과 통합은 각국 정치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치엘리트 집단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경제엘리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엘리트는 식민시대의 대농장주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적 과두 지배체제도 경제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다. 심지어 이들 대농장주들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경제엘리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무역자유화를 거치면서 산업 혹은 상업 엘리트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의 경제활동은 전통적 경제 엘리트들이 제한하고 있다. 경제 엘리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라틴아메리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정치 엘리트와 경제엘리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종교엘리트, 관료엘리트, 군부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룬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관료엘리트들이 새로운 엘리트 그룹으로 등장했다. 외국에서 습득한 전문적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기반을 구축한 이들 새로운 관료엘리트 그룹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발전정책 결정에 핵심 세력이 되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흐름에서 이들 그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

종교 엘리트의 사회적 영향력은 정치·경제 엘리트의 그것과 비교될 정도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종교인 가톨릭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일반적으로 정치·경제 보수 엘리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언론인, 지식인, 예술인도 엘리트 계층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문화적 엘리트 집단에 대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지역 엘리트와의 폭 넓은 인적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군부엘리트 또한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 군부는 엘리트 그룹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별로 이런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흥미롭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국가에서 연구의 첫 장은 엘리트의 형성과정을 다룰 것이다. 그것은 식민지시대부터 최근 신자유주의까지 각국의 엘리트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왔는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식민지 권력의 크기에 따른 지역 엘리트 형성 과정의 특이점, 상이한 부분에서 엘리트 간의 갈등과 통합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엘리트 형성 과정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결정짓는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트의 역사적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장은 현재 엘리트의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현재 ‘누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기서는 주로 현재의 엘리트를 경제엘리트,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 종교엘리트, 군부엘리트 등등 부문 별로 나누어서 다룬다. 그러나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엘리트의 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엘리트는 모든 국가에서 다 다루지만, 다른 분야의 엘리트들은 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겠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예로 종교엘리트는 칠레에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겠지만, 멕시코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반면 마약엘리트는 멕시코에서만 주요하게 언급될 뿐 다른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장은 현재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엘리트의 단일성이 강한 칠레에서는 엘리트의 단일성을 중심으로 엘리트 충원 방식의 동질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들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엘리트들끼리 연합하여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페루에서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표적 엘리트인 경제엘리트, 정치엘리트, 군부 엘리트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통합과 분열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페루 정치에서 불안정성의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엘리트의 다원성에 따른 각 엘리트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들의 분열과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역시 다원적 엘리트 구조를 가진 멕시코에서도 엘리트들의 분열과 통합 양상을 살펴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엘리트 그룹의 공통적 특징도 엘리트 충원과 구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러한 내용들을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레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둘째, 칠레 역사를 통하여 뿌리 내린 다양한 분야의 칠레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실재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칠레 엘리트를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 시카고보이스가 중심이 된 관료엘리트, 언론엘리트, 종교엘리트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칠레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단일화된 엘리트 층원방식의 특징, 언론이나 연구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의 지배를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악, 엘리트 간의 연합을 통한 통치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페루에 대한 연구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장에서는 우선 식민 시대를 거쳐 형성된 페루의 엘리트와 페루의 토착 엘리트 사이의 갈등, 그리고 토착 엘리트의 붕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독립과 19세기 및 20세기에 걸쳐 페루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엘리트집단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현재 다양한 엘리트 집단의 구성을 파악할 것이다. 페루에서는 경제엘리트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오랜 전통과 권력을 자랑하는 지주 엘리트와 산업화와 함께 부상한 산업 엘리트를 주로 다룬다. 그리고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격변하는 정치사 속에서 성장한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세 번째 장에서는 페루 엘리트집단의 특징을 검토하고 나아가 각 엘리트 그룹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페루 엘리트 집단의 인종적 특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브라질 사회는 독립 이후, 공화혁명, 신국가체제(Estado Novo), 권위주의 통치를 겪으면서도 오랫동안 지배 엘리트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었

다. 장기 통제력을 지닌 지배엘리트는 식민과 함께 고착된 귀족적 지배엘리트, 군부의 정치 개입과 직접적 지배로 형성된 군부 엘리트,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관료 엘리트,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종교 엘리트, 대농장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엘리트(Classe A), 올리가르키아(과두 지배체제)에서 비롯된 정치 엘리트로 구분된다. 각 영역의 지배엘리트들은 독립 영역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연합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엘리트는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했다. 특히 룰라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은 전통적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에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장에서 브라질 엘리트의 형성과정을, 두 번째 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를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들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각각 다룬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는 첫 장에서 우선 혁명 패밀리가 구성한 ‘카마리아’라 불리는 전통적 정치 엘리트 그룹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그룹과 국가의 조합주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함께 부상한 기술 관료엘리트 그룹, 카를로스 슬림으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 그룹, 또 하나 멕시코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지적 엘리트 그룹의 구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멕시코 각 엘리트 그룹의 특징과 엘리트 그룹의 정치권력과의 관계와 같은 네트워크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성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2장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칠레 엘리트의 형성
3. 현재 칠레의 엘리트 그룹의 구성
4. 칠레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1. 서론

칠레는 한때 라틴아메리카의 ‘양키’라고 불렸을 정도로 독특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나라이다.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 계급에 기반한 정당정치 의 발전, 낮은 부패지수, 신자유주의 개혁의 조기 안정적 실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칠레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상당히 다른 예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예외성은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칠레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이다.

칠레 엘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엘리트의 단일성이다. 따라서 칠레 엘리트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행한 Zeitlin과 Ratcliff(1988)도 칠레 지배계급에 속하는 다양한 엘리트들(지주엘리트, 산업엘리트, 금융엘리트)의 혼인관계 등을 통한 단일성에 주목했다. 칠레 엘리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연구는 Eduardo Silva(Silva 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비록 다원적 엘리트론에 입각해 엘리트 간의 갈등과 합의가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지만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 기업가 엘리트와 지주엘리트, 즉 핵심 경제엘리트였다. 그는 칠레의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에서 테크노크라트 그룹을 포함하는 국가와, 기업가와 지주를 포함하는 경제엘리트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즉 정치적 연합에 주목했다. 그리고 관료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합의가 시장경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칠레 엘리트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그의 이론적 입장이 어떠하든 모두 핵심 엘리트에 주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칠레에서 야당이나 노조 등에 소속된 다원적 엘리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칠레 신자유주의 개혁이나 민

주화에서 이러한 세력의 역할은 분명 일정 수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의 목적은 칠레의 정치 경제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 즉 핵심 엘리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Silva의 다원적 엘리트론이 민주화와 시장경제 개혁을 위해 다양한 엘리트들의 갈등과 합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주된 초점이라면, 이 글의 목적은 칠레의 엘리트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Silva보다는 Zeitlin과 Ratcliff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Zeitlin과 Ratcliff가 금융엘리트, 광업엘리트, 기업엘리트, 지주 엘리트 등 경제 엘리트들의 통합에만 치중한 반면, 이 글은 피노체트 이후 칠레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엘리트로 경제엘리트 뿐만 아니라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 언론엘리트, 종교엘리트까지를 포함한다.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부, 언론, 종교 부문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따라서 칠레의 핵심엘리트를 분석하면 경제엘리트,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뿐만 아니라 언론엘리트와 종교엘리트까지 당연히 영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모든 엘리트들은 가문이라는 연결고리로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 글은 2절에서 우선 칠레 엘리트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엘리트들의 혼인관계 등을 통한 통합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3절에서는 피노체트 집권 이후 새롭게 편성된 칠레의 엘리트 그룹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경제엘리트 외에, 관료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그리고 언론 엘리트와 종교 엘리트들 살펴본다. 물론 초점은 가문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이들 엘리트들의 단일

성이다.

4절에서는 이러한 신엘리트 그룹의 특징과 통치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우선 칠레 엘리트 층원에서의 동질성을 먼저 분석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칠레의 엘리트들이 정당정치 시스템을 넘어 어떤 다양한 통치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칠레 엘리트의 형성

가. 식민지 시대: 카스티야-바스크 지주엘리트

식민지시대 초기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소수의 스페인 귀족 가문과 하급귀족(hidalgos) 출신들, 그리고 일부 정복자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신분 출신으로 구성된 스페인 정복자들은 모두 엘리트가 될 수는 없었다. 정복자들 중에서는 정복 과정에서 특별한 공을 세움으로써 카빌도(cabildo: 왕실 관료주의에 대응하는 아메리카 식민지 지역 엘리트의 자치적 대표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스페인 국왕이 부여하는 엔코미엔다(encomienda: 왕실이 식민자에게 위탁한 토지와 노동력)를 소유한 자만이 식민지시대 초기 엘리트가 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엔코미엔다는 명예와 부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일부 정복자와 엔코미엔다 소유자로 구성된 식민지시대 초기(16~17세기)의 귀족 엘리트들은 사치와 태만으로 쇠퇴했고, 전쟁이나 수도원 생활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시대 말인 18세기부터 칠레에 들

어와 3, 4세대에 걸쳐 상업이나 광업으로 부를 축적한 이민자 출신들이 전통적 엘리트층을 흡수하거나 대체했다. 칠레는 18세기에 밀 경제의 발전으로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주로 바스크와 나바로 출신의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근검절약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본국과 연결된 상업적 고리를 기반으로 상업, 금융, 광산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를 기반으로 토지를 획득하고 귀족 작위를 매입했으며, 나아가 카스티야 출신 귀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칠레에는 이들 카스티야-바스크 귀족 가문에 의한 새로운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 새로운 엘리트들은 상인이나 기업가 출신으로 상업가적 마인드를 갖추고, 돈벌이를 중시하며, 분별력 있고, 근검절약하며, 사리판단이 빠른 부르주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축적된 부를 통해 스스로 귀족이 되었다. 칠레의 '부르주아 귀족'들은 유럽의 부르주아 계급과 달리 기존 귀족들로부터 경멸이나 모욕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과도한 특권의 희생양이 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이들은 계급 평등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계급적 우월성에 빠져들었고,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지주가 되었으며, 봉건적 사회구조를 오히려 유지하고자 했다. 귀족 출신이 아닌 식민지시대 이민자 출신 엘리트의 최대 희망은 귀족이 되는 것이었다. 즉 칠레의 부르주아 엘리트는 귀족 계급을 누르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주 귀족 엘리트가 됨으로써 봉건적 사회를 유지시켜나갔다(Stabili 2003).

그중에서도 특히 성에 에르레(rr)와 테기(tegui)를 가진 바스코 출신 이민자 가문들은(Aguirre, Undurraga, Errázuriz, Larráin, Amunátegui) 칠

레 엘리트 그룹에 자유주의와 귀족주의 정신을 남겼다. 18세기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에서도 가장 자율적이고 귀족적 전통이 강한 곳이었다. 바스크 사람들은 스페인 왕실의 중앙집권에 끝까지 저항할 정도로 자율성을 고집했으며, 법적으로 하급귀족 이달고였던 그들은 비록 가난한 초가집에 살지라도 가문의 문장을 자랑스럽게 내거는 사람들이었다. 바스크인들의 이러한 귀족적 자유주의(liberalismo aristocrático)는 봉건적 영주 권력의 전통에 익숙한 안달루시아 출신의 백인들과 그들과 원주민 사이에서 탄생한 혼혈인들에 의해 생성된 칠레 대중문화에 자유주의와 귀족주의에 기반을 둔 독특한 엘리트 문화의 전통을 남겼다(Edwards 1928: 11-12).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스페인 북부지역 사람들(vascos, navarros, montañeses, gallegos, castellanos)은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 그에 따른 카스티야-바스크 지주 엘리트 그룹은 1817년 귀족 작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852년에는 장자상속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20세기 초반까지 칠레를 사실상 지배했으며,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카스티야-바스크 지주 엘리트 중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Errázuriz가와 Matte가를 들 수 있다. 이들 가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칠레 엘리트의 근간을 이루는 카스티야-바스크 지주 엘리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rrázuriz가: 1733년 칠레에 첫발을 디딘 최초의 에라수리스는 나바로 출신의 바스크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라수리스 라라인(Francisco Javier Errázuriz Larraín)이었다. 지주로서 농촌을 지배하게 된 에라수리스는 곧 산티아고 중앙 정치도 장악하였다. 지금까지 네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산티아고 대주교, 그리고 수많은 의원과 법관을 탄생시킨 에라수리스가는 칠레의 바스크 출신을 대표하는 가문 중 하나로서 19세기 칠레를 지배한 20대 가문 중 하나에 속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에라수리스가문의 존재는 여전한데(현재 칠레 10대 가문 중 하나에 속한다), 특히 산티아고 대주교이자 추기경을 지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라수리스와 유통업 Unimarc와 와이너리, 과일 수출, 임업, 금융업(그가 운영했던 Banco Nacional은 1989년 Said 그룹의 BBVA에 매각되었다) 등을 운영하는 같은 이름의 에라수리스가 두드러진다. 특히 Frafrá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가 에라수리스는, 장남은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가문의 전통을 깨고 기업인이 되었으며,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Matte가: 마테가는 칠레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귀족가문이다. 칠레에서 마테 가문과 비교할 수 있는 집안은 에드워드 가문 정도이다. 1775년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 산탄데르에서 칠레로 이주해온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마테(Francisco Javier Matte)가 칠레 마테 가문의 시조이다. 마테 가문의 사람들은 초기에 상업과 섬유업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55년에는 발파라이소에 은행을 개업했다. 그에 따라 마테가는 이미 19세기에 칠레 최대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20세기에도 마테 가문은 재산 유지를 넘어 점점 더 부를 확대해나갔다. 특히 1920년 제지회사인 CMPC(Compañía Manufacturera de Papeles y Cartones)를 설립하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CMPC는 친족관계로 연결된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전 대통령의 아들 호르헤 알레산드리가 경영을 맡으면서 1940년까지 거의 네 배로 성장했다. 당시 CMPC는 칠레의 인쇄(신문 인쇄를 포함해서)와 포장에 위한 종이 수요의 거의 전부를

공급했다. 따라서 신문 인쇄용지 공급 독점을 기반으로 언론도 통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CMPC 그룹은 최근 통신, 금융 서비스, 항만, 임업 등에도 다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2005년 마테 가문의 자산은 27억 달러로 42억 달러의 룩식(Luksic) 가문과 29억 달러의 안젤리니(Angelini) 가문에 이어 칠레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2005년 칠레 전체 기업 중 7위인 CMPC 외에, 16위인 광산업의 Minera Valparaíso, 그리고 프랑스 Suez사의 자회사인 벨기에 Tractebel과 공동 운영하는 전자회사 Colbún, 2005년부터 우르타도 비쿠냐와 페르난데스 레온 그룹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칠레 2위의 통신업체 Entel 등이 있다. 보험업에도 진출해 칠레 3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Bice Vida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마테 가문이 국가 권력 그룹 내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CMPC가 매년 개최하는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는 수많은 면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모임에는 매년 현직 대통령(콘세르타시온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을 포함한 칠레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모임의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은 칠레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마테 가문은 다양한 연구,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자유시장경제 철학과 칠레 엘리트의 전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 연구기관으로는 공공연구센터(CEP: Centro de Estudios Públicos)와 자유와 발전기구(ILD: Instituto Libertad y Desarrollo)가 있다. 이들은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파정당과 기업을 위한 전략적

분석을 제공한다. 마테 가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연구기관인 시민평화재단 이사회(Directorio de la Fundación Paz Ciudadana)는 범죄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제 주요 관심사는 ‘좌파 테러리즘’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18개 초등학교와 사립대학 Finis Terrae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부문에서도 마테 가문은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텔레비전 채널 중 하나인 가톨릭교회 소속의 칠레가톨릭대학 텔레비전 방송국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가조합의 제조업진흥협회(Sofofa: Sociedad de Fomento Fabril) 18명 이사 중 5명이 마테 가문 사람이고, 목재업 동업조합(Corma: Corporación de la Madera)에서는 엘리오도로 마테가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마테 가문의 명성은 단지 그들의 부로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들은 칠레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문으로서 가족을 중시하고, 근검절약하는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엘리오도로가 기사 없이 다니고, 그의 누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알려질 만큼 이들의 이런 소박한 삶의 태도는 잘 알려져 있다. 칠레 엘리트 그룹의 이러한 근검절약 정신은 그들의 부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기반이기도 하다. 종교적으로도 마테 가문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칠레 엘리트 가문의 전통에 따라 도그마적이고 전투적 성격의 보수 가톨릭 조직인 오푸스 데이(Opus Dei)나 그리스도의 군단(Legionarios de Cristo)에 소속되어 있다. 보수적인 종교적 가치의 실천도 근검절약 정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를 정당화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마테 가문은 정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정치부문의 참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칠레 경제 엘리트의 정

치 참여는 마테 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칠레 최고의 정치인 가문인 알레산드리 가문과의 연결은 매우 돈독하다. 물론 마테 가문의 사람들도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 엘리트의 정치 참여라는 칠레 엘리트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UP) 정부 시절에 마테 그룹의 CMPC는 과두지배층을 상징하는 기업으로서 국유화 일 순위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에 대해 마테 가문의 베르나르도 마테(Bernardo Matte)는 우파인 국민당(PN: Partido Nacional)에 소속되어 좌파 투사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 후 그는 피노체트 정부 아래서 다양한 우파 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현재 우파 정당 두 축 중 하나인 자유주의 성향의 국민개혁당(RN: Renovación Nacional) 설립에 참여했다. 한편 그룹의 리더인 엘리오도로 마테는 피노체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극우파 보수정당인 민주독립연합(UDI: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독립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부르주아-지주 엘리트 그룹

카스티야-바스크 지주 엘리트 그룹은 독립 이후에도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했다. 19세기 동안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지주 엘리트 그룹과는 다른 독창성과 활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독립적이고 엄격했으며, 귀족적 오만함과 동시에 부르주아적 근검성과 절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문을 중시하고 가족적 응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 추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실천적이고도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역적으로 칠레의 귀족 엘리트는 대부분 수도 산티아고 출신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시대부터 지금까지 칠레 정치는 주로 산티아고 출신의 지주 귀족엘리트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독립 직후 이들의 지배에 대응해 남부 콘셉시온 출신의 카우디요(caudillo: 무력집단의 우두머리)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남부 콘셉시온은 마푸체 원주민들과 접경하는 지역으로 칠레 군부의 본거지이다. 특히 콘셉시온과 인근한 시로서 콘셉시온시의 발생지인 펜콘(Pencón)은 오히긴스(O'Higgins), 프레이레(Freire), 프리에토(Prieto), 불네스(Bulnes), 크루스(Cruz) 등 19세기 칠레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카우디요의 출신지이다. 따라서 칠레 정치에서 문민주의 대 군국주의 혹은 귀족적 의회주의 대 독재적 권위주의의 갈등은 모두 산티아고 대 콘셉시온 갈등의 산물이었다. 산티아고 지주 출신의 포르탈레스(Portales)가 펜콘 출신 장군인 프리에토를 대통령에 앉힌 것도 결국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불네스와 크루스가 대통령이 된 것도 물론 독립 이후 펜콘 출신 카우디요 엘리트들의 이러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칠레 정치에서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칠레의 부르주아 혁명은 식민지시대에 평화적으로 실현되었다. 칠레의 부르주아 계급은 전통적 귀족을 흡수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부르주아이면서 동시에 귀족인 이중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칠레에서는 부르주아와 봉건귀족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칠레의 독립은 왕권주의자들과 귀족 엘리트들 사이에 투쟁의 산물이었고, 결과적으로 독립하면서 귀족 엘리트 세력이 강화되었다.

물론 칠레에서도 독립 이후 귀족 가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주제를 지지하는 오히긴스와 같은 카우디요들이 정권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실권은 산티아고의 부르주아-지주 귀족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를 반대하면서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성격의 귀족지배체제를 원했기 때문에 카우디요들과는 계속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티아고의 부르주아-귀족 엘리트들은 이런저런 카우디요들을 번갈아 지지함으로써 카우디요 일인의 독재적 지배체제를 견제했다. 당시에는 펜콘 출신의 카우디요와 부르주아-귀족 엘리트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칠레 엘리트 그룹의 최대 과제였다.

군부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지주 귀족 엘리트 출신의 포르탈레스는 카우디요들이 원하는 절대군주제도 아니고, 귀족 엘리트들이 원하는 과두지배체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독재가 불가능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였다. 카우디요의 독재와 정치적 혼돈을 모두 피하기 위해 산티아고의 부르주아-지주 귀족 엘리트들은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850년경 정치적 혼돈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부르주아-지주 귀족 엘리트들은 대통령 절대주의를 반대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세력은 ‘태평양 전쟁’(당시 볼리비아 소유였던 현 칠레 북부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페루와 볼리비아 대 칠레가 벌인 전쟁) 승리 이후 초석 광산 붐을 틈타 상업, 금융업, 광산업 등으로 새롭게 부를 획득한 신흥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산티아고 지주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완화하는 의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통령 궁이나 산티아고 사교클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치에 익숙한 산티아고의 전통 지주 엘리트의 일부도 에라수리스를 중심으로 의회주의에 동참했다.

이때부터 칠레 엘리트 그룹은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부르주아-지주계급이라는 공통의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는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의 스타일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보수 가문 출신의 라파엘 아구스틴 구무시오(Rafael Agustín Gumucio)에 따르면 보수당과 관련된 사람은 부모의 절대적 권위를 존중하고, 허영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경제적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보수적 집단들 사이에서만 매우 제한적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자유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유럽문화를 지향하고, 유행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세속적 정치세력에 보다 열린 자세를 취하며, 삶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쓸 줄 알고,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꺼리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한 가족 내에서도 삶의 스타일 차이에 따라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Gumucio 1994).

그러나 보수당과 자유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각각의 종교적 입장에서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보수당은 교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수당은 그들의 프로그램과 행동을 결정할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교회도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호소했다. 또한 보수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한마디로 보수당은 교회당이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반 보수당 지도부의 42%가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자유당 지도부는 단지 2%만이 칠레가톨릭대학을 다녔다(Drake 1992). 반면 자유당은 유럽의 실증주의 영향으로 반교회적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입장에 보다 열린 태도를 가졌다.

정당의 조직 구조에서도 보수당은 위계질서와 규율을 중요시하여 각자의 영향력은 당내 서열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의 나아갈 방향도 전당대회보다는 당 지도부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자유당은 당내 서열이 엄격하지 않았다. 자유당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당내 서열보다는 개인의 부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맥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자유당 내부에서는 가문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그것이 당의 내부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과 자유당은 20세기 초반까지 부르주아-지주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실제 그들은 인척관계, 우정, 전통, 취미 등을 통해 하나로 묶인 단일 지배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 또한 자본주의와 개인소유를 방어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이해관계도 공유했다.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자유당과 보수당의 엘리트 그룹은 지적, 물질적, 도덕적 수준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차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지배 엘리트 그룹의 양보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공유했다. 따라서 20세기 초까지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비록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단일적이고도 결속된 동질적 엘리트 집단이었다.

다. 20세기 초부터 피노체트 이전까지: 전통 지주 엘리트와 광산 엘리트, 산업 엘리트, 금융 엘리트의 통합

칠레 엘리트 계급 내부의 가장 은밀한 구조적 비밀은 기업가, 금융업

자, 지주 간의 긴밀한 관계이다. 특히 이들 간의 친족 관계는 엘리트 그룹 내부의 통합과 역사적 지속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친족 간의 자유로운 결혼을 통해 가문의 자산을 가족 혹은 친족 단위 내에서 소유하고 통제하였다. 실제 칠레의 대기업은 경영진이 운영하기보다 특별한 가문 혹은 서로 연결된 친족그룹이 통제하였다. 그것은 가문 간의 공동소유, 복잡한 상호출자, 서로 맞물린 관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Zeitlin과 Ratcliff(1988)는 공동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인척관계로 맺어진 칠레 엘리트 계급 내의 불가분한 사회적 관계를 ‘친족경제그룹(kinecon group)’이라 부른다. 이는 인척관계와 소유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이런 관계는 현존하는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칠레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친족 간의 다각적 연결고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경영자와 소유자가 하나의 응집력 있는 계급을 형성한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주요 은행은 주요 자본가 가문들 그리고 엘리트 그룹 전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복잡한 기업 간 연결 시스템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칠레의 기업 뒤에는 가문이 먼저 존재한다.

칠레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혼인 등을 통한 유착관계를 형성해 공동의 지배체제를 유지해왔다.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지배의 기반이기도 한 대규모 토지도 자본이나 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 칠레 자본가는 대지주와 결혼 등을 통해 확대된 친족 그룹을 형성했다. Zeitlin과 Ratcliff(1988, p. 161)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 금융 엘리트 가문의 43%, 기업엘리트 가문의 36%가 자신의 친족 그룹에 대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친족 그룹은 따라서 칠레 최대의 친족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 그룹들이 밀스(1979)가 말하는 파워 엘리트의 중핵(inner core)이 되었다. 실제 칠레에서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유착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둘을 다른 계급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나아가 이들은 외국자본과도 결탁하여 이를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성곽으로 삼았다. 칠레 엘리트 그룹은 외국기업과 지분 참여, 합작기업, 프랜차이즈 계약 혹은 외국기업 고위직 진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공적 관계 혹은 클럽과 같은 사교모임, 해변 휴양지 등에서의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외국 다국적 기업들과 관계를 형성했다.

물론 칠레 엘리트 그룹 내부에서 외국기업과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토지개혁 지지에 대해 반대하는 지주계급과 외국인 기업의 진출로 붕괴할 위기에 놓인 국내 제조업자들은 외국기업들의 칠레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칠레 엘리트들은 외국기업과의 관계가 손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들에게 국내 산업의 육성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였다. 따라서 외국자본과 맞서기보다 그들과 동맹하는 것이 보다 쉽고 얻는 것도 많다는 것이 칠레 엘리트 다수의 판단이었다. 특히 외국자본과 연결을 맺는 가문은 자본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탁월한 지배 엘리트 그룹 내부에서도 핵심 엘리트 가문들이었다.

특히 외국자본과 연결은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연합을 넘어 사회적 관계, 개인적 친분, 심지어 결혼 등을 통해 국내 엘리트 가문과 외국기업들을 보다 밀접하게 엮어놓았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피상적 관계를 넘어 깊은 국제적 엘리트 동맹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Zeitlin과 Ratcliff(1988)는 아옌데 정부 이전 1960년대 산업부문의 칠레 37대 기업을 지배하는 주요 가문들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들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은 복잡한 인척관계를 통해 통제된다. 인척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경영은 아주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넘어 먼 일가 친족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친족 네트워크, 즉 ‘친족경제 그룹’으로 실현된다.

금융부문에서도 주요 가문이 지배하는 소수의 민간 은행들이 자본 흐름을 통제한다. 그런데 금융을 지배하는 가문은 대부분 산업 엘리트 가문과 유사하다. Cortés가, Cousiño가, Yarur Banna가, Vial가, MacAuliffe가, Edwards가 등은 모두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가문이다. 칠레의 6대 은행과 37개 기업은 상호 연결된 소유와 경영 구조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들은 대부분 금융과 산업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 가문들이 통제하고 있다. 민간 은행의 경영진이 대기업의 경영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표 2-1. 칠레 37대 기업과 지배가문(1964/1966)

순위	기업	지배가문	순위	기업	지배가문
1	Pacific Steel Co.(CAP)	CORFO (국가기구)	20	"Pasaje Matte" Urban Rental Association	Matte
2	Paper and Cardboard Mfg. Co.(CMPC)	Matte	21	Caupolicán Textiles	Yarur Banna
3	"El Melón" Industrial Enterprises	Cortés	22	Glassware of Chile	Corning-PPG (다국적기업)
4	South America Steamship Co.(CSAV)	Vial, MacAuliffe	23	National Distributing Co.(CODINA)	Schmutzer, Edwards, Claude
5	Sumar Products	Sumar	24	Penco National Ceramics Factory(FANALOZA)	Díaz

표 2-1. 계속

순위	기업	지배가문	순위	기업	지배가문
6	United Breweries Co.	Edwards	25	Enamelware Factory (FENZA)	Briones
7	General Industries Electricity Co.	Claro	26	Zig-Zag Publishing Enterprises	Helfmann
8	Petroleum Company of Chile(COPEC)	지배 가문 없음	27	Saíd Rayon and Chemicals Industries(RAYONSAID)	Saíd
9	Tierra del Fuego Cattle	Braun-Mené ndez	28	Bella Vista-Tomé Cloth Factory	Yarur Asfura
10	Lota-Schwager Coal	Cusiño, Claude, Cortés	29	Tomé National Fabrics	Furman
11	Mantos Blancos Mining Enterprises	Mauricio, Hochschild	30	Petroleum Navigation Corp.	Braun-Mené ndez, Vial
12	Yarur Chilean Cotton Products	Yarur Banna	31	Chile Interoceanic Navigation Co.	Braun-Mené ndez
13	Hirmas Cottons	Hirmas	32	Progreso Textiles	Yarur Kazakía
14	The Industrial Co.(INDUS)	Edwards	33	Saavedra Bénard	Bank of Chile (중앙은행)
15	Copper Products (MADECO)	Simonetti	34	Universo Printing & Lithography	Helfmann
16	Vía del Mar Sugar Refining Co.(CRAV)	Edwards, Claude	35	Oruro Mining Co.	CORFO
17	Metal Mfg.(MADEMSA)	Simonetti	36	Tamaya Mining Co.	CORFO
18	Santiago Gas Consumers Co.(GASCO)	Claudio, Troncoso	37	Coronel Shipping	Cousiño, Claude
19	"El Mercurio" Journalism Enterprises	Edwards			

자료: Zeitlin and Ratcliff(1988), pp. 46-48.

또한 이들 ‘친족경제 그룹’은 토지와 자본의 모순을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배가문이 됨으로써 사실상 칠레를

표 2-2. 6대 민간 은행(1964/1966)

순위	은행	지배 가문
1	Bank of Chile	Cortés, Cousiño
2	Spanish Bank of Chile	García, Pico
3	Bank of Credit and Investments	Yarur Banna, Prieto
4	South American Bank	Vial, MacAuliffe
5	Bank of Edwards	Edwards, Lyon
6	Bank of Osorno and the Union	Sotta, Barros

자료: Zeitlin and Ratcliff, 1988: 120.

모든 방면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되었다.¹⁾

특히 칠레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대토지 소유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토지개혁 요구 등이 거세지면서 대토지 소유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지만 그 이전까지 토지는 칠레 엘리트 계급에 가장 확고한 경제적 나아가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37대 기업의 최고 경영진 중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원의원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영자는 8%, 대토지를 소유한 경영자는 23%, 상원의원의 경우 전자가 5%, 후자가 23%, 장관 중에서는 전자가 7% 후자가 20%, 정당 지도부 중에서는 전자가 9% 후자가 20%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한 경영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영자에 비해 공직 참여도가 확실히 높

1) 칠레에서는 엘리트 가문의 성만 가지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칠레에서는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은 자동적으로 남들보다 빼어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정치에서도 가문의 힘은 막강해서, “칠레에서는 일단 익숙한 이름이 후보자에 오르기만 하면 평범한 시민은 무조건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수잔 로라프, 로라 카마초 2005, pp. 74~75) 그 결과 알레산드르나 프레이 가문은 가문의 명성만으로도 두 세대에 걸쳐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수 세대에 걸쳐 배출한 가문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친족 그룹으로 확대하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가문의 구성원 중 앞서 언급한 고위 공직에 진출한 사람을 가진 가문의 비율을 보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산업 엘리트 가문은 25%, 대토지를 소유한 산업 엘리트 가문은 60%에 이르렀다(Zeitlin and Ratcliff 1988, pp. 197~198).

이는 토지 소유가 정치적 지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로 인해 대토지를 소유한 자본가 그룹이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함으로써 칠레 엘리트 그룹의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칠레에서는 경제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지배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칠레 엘리트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1960년대까지 칠레의 국가 정책은 결국 이들 소수의 동질적 지배 엘리트 그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Lagos(1962)는 칠레에서 이렇게 산업, 금융, 토지를 모두 지배하는 핵심 엘리트 가문은 약 11개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주요 기업과 은행에 상호출자 하거나 사적으로 결혼과 같은 친족관계를 맺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그룹을 형성하는 가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다.

Linda Ann Ewen(Ewen, 1971)은 이러한 엘리트 가문의 상호 연결로 형성된 1960년대 칠레의 3대 그룹으로 Yarur-Said-Grace 그룹, Edwards-Eastman 그룹, Matte-Larraín-Vial 그룹을 들고 있다. 한편 Ratcliff (1973)은 이러한 그룹을 Claro-Matte-Vial, Edwards, Braun-Menéndez, Helfman, Yarur-Said, Simonetti, Hochschild 일곱 그룹으로 나누기도 한다.

다음의 에드워드 가문의 사례는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반부터 피노

체트 시절까지 칠레 지배계급의 행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에드워드가: 1804년 에드워드가 칠레에 도착한 이래 에드워드 가문은 7대에 걸쳐 칠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다. 칠레에 도착한 최초의 에드워드는 영국인 의사 조지 에드워드 브라운(George Edwards Brown)이었다. 그는 칠레 지주의 딸과 사랑에 빠져 칠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병원을 관두고 광산업에 종사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빚만 남겼다.

에드워드 가문을 오늘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 사람은 그의 여섯번째 아들 호세 아구스틴 데 디오스 에드워드 오산돈(José Agustín de Dios Edwards Ossandon)이었다. 사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호세 아구스틴 I세는 30세에 이미 거대 광산업자들과 거래할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남미에서 세 번째로 건설되는 철도 건설 사업에도 투자해 많은 돈을 벌었다. 1866년에는 Antofagasta 초석회사를 설립했으며, 1867년에는 개인은행을 설립했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가문의 출발점은 금융업과 광산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아들 아구스틴 에드워드 로스(Agustín Edwards Ross, 아구스틴 II세)는 현금, 금광, 에드워드 은행 등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를 기반으로 아구스틴 II세는 에드워드 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1879년 그는 보수적 지주 엘리트인 라라인 가문으로부터 발파라이소의 신문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 인수함으로써 언론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가문에서 최초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상원의장과 재무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언론, 금융, 상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에드워

드 제국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아들 아구스틴 에드워드 맥클루어(Agustín Edwards MacClure, Agustín III)는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아버지가 기반을 다진 제국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 칠레 제일의 에드워드 가문을 만든 인물이다. 특히 그는 언론에 열정을 가지고서 1990년 산티아고에 『엘 메르쿠리오』를 개업했고, 자매지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스(Las Últimas Noticias)』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발간함으로써 언론제국을 건설했다. 그로 인해 현재 칠레에서 에드워드 가문은 언론기업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는 또한 킬로타에 산이시드로 아시엔다를 구입함으로써 지주로의 길도 열었다. 사실 농업에 종사했던 스페인의 카스티야-바스크 이민자들과 달리 영국인 후손인 에드워드 가문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구스틴 III세의 토지 구입은 가문의 역사에 거의 예외적 사건이었다. 정치적으로 그는 재무부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특히 외무부 장관으로서 태평양 전쟁 이후 볼리비아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구스틴 V세인 아구스틴 에드워드 이스트먼(Agustín Edwards Eastman)은 가장 많은 부침을 겪은 아구스틴이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가문의 위기가 주로 엘리트 간에 벌어진 투쟁의 결과였다면 아구스틴 V세는 엘리트 지배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적 흐름과 마주쳐야 했다.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의 등장과 그의 국유화 정책은 그룹 수익의 감소 차원이 아닌 그룹 기반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실질적 위협이었다. 이 시기에 아구스틴 V세는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또한 그는 1991년 민주화 이후 그의 아들 크리스티안이 납치당하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최근 에드워드 가문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왔던 기업들 중에서 『엘 메르쿠리오』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을 매각했다.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은행과 맥주회사 Cervecerías Unidas가 룩식 가문에, 보험회사 La Chilena Consolidada가 스위스계 그룹에 각각 매각되었다.

그러나 언론부문에서는 『엘 메르쿠리오』,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와 더불어 『라세군다(La Segunda)』, 그리고 13개 지방지 등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언론제국을 유지하고 있다. 에드워드의 언론제국에 도전할 수 있는 칠레의 또 다른 언론사는 Saeih 가문의 『라테르세라(La Tercera)』뿐이다. 칠레의 언론은 사실 이 두 제국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드워드가의 후손은 앞 시대의 에드워드들과 달리 언론에 대한 열정이 없다. 아구스틴 V세의 아들 펠리페 에드워드 델 리오가 『엘 메르쿠리오』의 부사장을 맡고 있고, 장남인 아구스틴 VI세가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를 운영하는 정도이다.

에드워드 가문은 최초의 조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칠레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칠레의 전통 스포츠인 로데오(Rodeo)를 좋아하고, 칠레 카우보이 우아소(Huaso)의 복장을 즐겨 입으며, 칠레식 축제를 즐긴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구스틴 V세는 영어를 스페인어보다 잘하며,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하는 국제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드워드 가문은 외국자본과 맞서기보다는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문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특히 1920년대까지는 영국, 그 이후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의 아구스틴 V세는 아옌데가 집권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 그곳에서 웹시콜라 국제 부회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자유주의파로서 교회와 일정 거리를 두었던 에드워드 가문은 크리스티안의 납치를 계기로 가톨릭과 밀접하게 되었다. 사제를 납치범과의 중개인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아들 석방을 위한 미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유야 어쨌든 최근 칠레 엘리트들의 가톨릭에 대한 재접근은 일반적 경향이고, 여기에 에드워드 가문도 예외는 아니다(Millas 2005, p. 201).

칠레의 대표적 엘리트 가문인 마테가와 에드워드가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두 가문 모두 경제적 부를 넘어 정치적 권력도 동시에 차지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가문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든 이들 친족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요직에 오르거나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어 이들 가문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배적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칠레 엘리트 그룹은 확고한 단일성을 띠게 되었다.

둘째, 이들 가문은 모두 문화적으로도 세력을 확대하여 그것을 그들의 지배를 외곽에서 정당화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에드워드 가문은 언론재벌이 되었고, 마테 가문도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P나 ILD와 같은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최근 이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가톨릭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특히 오프스 데이와 같은 보수적 가톨릭과 이들 가문의 연결은 종교적 보수성을 칠레 엘리트 그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만들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칠레 엘리트 그룹 내에서 전통적 엘리트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을 벗어나 중도파로 접근하려는 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엘리트 그룹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Alessandri 가문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대통령을 지냄으로써 20세기 칠레 정치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가

문 중 하나인 프레이(Frei) 가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프레이 가문의 사례를 동질성이 특징인 칠레 엘리트 그룹의 예외적 사례로서 여기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Frei)가: 스위스 국적을 가진 독일계로서 오스트리아에서 칠레로 이민 온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Eduardo Frei Montalva는 칠레 가톨릭 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수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파시즘 운동인 Falange의 영향을 받아 1938년에는 자신이 직접 Falange Nacional을 창당했다. 그리고 Falange Nacional은 1957년 칠레 기독교민주당(PDC)으로 발전했다. Frei Montalva는 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후 1964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자유와 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쿠바혁명의 대안으로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진보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개혁 정책의 결과는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아옌데 인민연합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 과정에서 Frei Montalva는 아옌데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한 우파 Alessandri 후보와 동맹을 거부함으로써 아옌데 정권의 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옌데 정권이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되자 그와 PDC는 1973년 아옌데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지지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정부에서 그는 군부정권과 그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되었다. 이 때문에 프레이가 1982년 수술 중 사망하자 그것이 피노체트 정부 암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그의 아들 Eduardo Frei Ruiz-Tagle은 칠레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1958년 PDC에 가입했다. 민주화 직후인 1989년에는 전국 최

다득표로 산티아고 상원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93년 PDC 소속으로서 콘세르타시온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아버지에 이어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임기 후에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종신상원의원에 임명되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2005년에 선거를 통해 다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9년 대선에서 콘세르타시온의 후보로 다시 도전했으나 피네라 현 대통령에게 패했다.

프레이 가문의 사례는 분명 단일성이 특징이었던 칠레 엘리트 그룹의 분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칠레 엘리트 그룹이 다원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칠레의 정책결정이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엘리트 그룹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레이 사례에도 불구하고 피노체트 이후 칠레는 소수의 단일한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지배하는 통합적 권력구조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라. 피노체트 이후: 신엘리트 그룹의 형성

피노체트 이후 엘리트 그룹의 가장 큰 변화는 관료 엘리트 그룹의 등장이다. 이른바 시카고보이스라 불리는 신관료 엘리트 그룹은 피노체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성장했다. 1960년대까지는 칠레의 관료 엘리트들이 대부분 칠레 대학 법학부 출신이었다. 그들의 상당수는 토지 소유자 가문 출신 혹은 그들의 친척이었다. 지주엘리트 가문들은 자식 중 한 명을 법대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법학 교육은 박식함과 교양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관료가 되거나 정치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칠레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는 것은 당시 엘리트의 기본 조건이었다 (Bauer 1975, p. 41).

지주 가문 출신의 법률가들은 1960년대까지 경제관료 엘리트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법률가 엘리트 집단 내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법률가 출신들의 발전 기회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가문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전문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은 포드 재단과 USAID 등이 지원하는 경제학의 전문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포드 재단과 USAID는 CEPAL 중심의 구조주의 경제학에 대응하는 통화주의 경제학을 전파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등과 손을 잡고 칠레의 대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액이 거의 두 배에 달했음에도 칠레 대학에 대한 지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반면 칠레 가톨릭대학에 대한 지원은 효과를 거두었다. 칠레가톨릭대학에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칠레 대학 법학부의 지배에 대응해 주도적 지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칠레 가톨릭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2007, pp. 208~209).

“1955년 이전에 가톨릭대학은 사실 회계 교육에 치중하고 파트타임제 교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지배하는 상업학교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경제학은 레비네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던 칠레 대학이 더 두드러졌다”(Valdés 1995, pp. 117~118). 그러나 동부 IVY 리그 대학에 맞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구축하려고 한 시카고 대학과 앞서 언급한 목적을 가진 칠레 가톨릭대학은 서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수교환,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관계의 시작은 1959년 4월 시카고 대학과 칠레 가톨릭 대학 간의 교류협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협정은 당시 총장인 Alfredo Silva

Santiago 주교의 요청에 따라 칠레가톨릭대학의 경제학대학장인 Julio Chaná가 주도했다. 이 협정은 시카고 대학 교수들을 방문교수 자격으로 칠레가톨릭대학에 보내고, 가톨릭 대학 학생이나 젊은 교수들을 시카고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초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과정에서 칠레가톨릭대학은 시카고 대학의 학문적 경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 초기에 칠레가톨릭대학을 방문한 교수 중 가장 두드러진 사람으로는 Arnold Harberger가 있고, 시카고 대학을 방문한 칠레 사람으로는 Pablo Baraona와 Sergio de Castro 등이 두드러진다.

1967~68년 기독교민주당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칠레가톨릭대학 개혁의 결과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하고 칠레가톨릭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경제학자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들은 학교를 떠나 사회경제연구센터(CESEC: Centro de Estudios Socioeconómicos)에 가입했다. CESEC은 당시 칠레 제1의 엘리트 경제그룹인 에드워드 그룹과 그들이 운영하는 언론사 『엘 메르쿠리오』와 연결된 연구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엘 메르쿠리오』와 그의 사장인 Hernán Cubillos를 통해 칠레 군부와 가까운 그룹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CESEC의 원장인 Emilio Sanfuentes는 『엘 메르쿠리오』의 경제국장이 되었다. 시카고보이스는 1970년에는 호르헤 알레산드리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제 프로그램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전통적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등장 이후 시카고보이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 엘리트들은 경제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관료엘리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업조합주의자

(Gremialistas)들도 피노체트 이후 부각된 새로운 엘리트 그룹이다. 그들은 1970년부터 칠레가톨릭대학에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칠레 보수당의 한 축인 UDI로 발전했다. 피노체트 군사 정부 이후 ‘시카고보이스’ 그룹이 경제를 통제했다면, 동업조합주의자는 정치부문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했다. 군사정부 동안 그들 회원이나 동조자는 정치영역에서 가장 높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칠레 정치를 특징짓는 1980년 헌법은 바로 이들의 작품이다.

동업조합주의자는 1967년 칠레가톨릭대학교 법학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이메 구스만 에라수리스(Jaime Guzmán Errázuriz)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피노체트 정부가 군부 내의 민족주의자와 케인즈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정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도 바로 구스만이었다. 동업조합주의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과 연결해 경제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정착을 지원했다.

구스만의 전략은 당시 칠레 전통 엘리트 가문과 중산층 일부의 우려를 반영하였다. 그들은 기독교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구조개혁 특히 토지개혁이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형태를 붕괴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보다 넓게는 쿠바 혁명 이후 전개된 사회의 전반적인 급진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급진화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했다. 실제 초기의 동업조합주의는 칠레 사회의 보수적 입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칠레가톨릭대학 법대 학생들 주축의 운동이었다. 구스만도 거의 파시스트적인 스페인 Falange의 설립자 José Antonio Primo de Rivera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동업조합주의는 기독교민주당의 급진화에 반대하는 칠레 가톨릭

대학 학생들의 반개혁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업조합주의는 질서를 중요시하고, 위계질서를 존중하지만 형식적으로 정치적 담론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처음부터 개인소유를 방어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급진적 방향의 근대화를 반대하는 등 정치적으로 우파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러한 우파적 담론보다 마르크스 좌파와 기독교민주당의 급진화에 대한 반감이었다.

한편 피노체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엘리트 그룹으로 시카고보이스 중심의 관료엘리트와 동업조합주의자 중심의 정치엘리트와 함께 신기업 엘리트가 있다. 1980년대부터 칠레에는 민주화 바람과 함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기업엘리트 그룹이 등장했다. 물론 이전 기업엘리트와 지속성이 없진 않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업 엘리트 그룹들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 경제엘리트 가문 출신도 아니며, 그들과 가족적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이들 신경제 엘리트의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성장했다. 신기업인 그룹은 금융자본에 부의 기초를 두고서 1980년대에 민영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급속히 성장하였다. 또한 이들 새로운 기업 그룹 경영자는 미국 등에서 해외 학위를 받은 좋은 학벌의 소유자들로서 피노체트 정부 아래에서 중요한 공직을 수행한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199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존적이고, 국내시장 지향적이며, 사회와 고립되고, 가족에 기반한 칠레의 전통적 기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보호주의와 국가의 특혜로만 성장했던 비효율적 기업은 파산했다.

새로운 기업은 무엇보다 국가 개입이 최소화된 자유경쟁시장에 적응하고, 세계시장을 향해 수출을 증대하며, (자선기관이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사회와 열린 소통을 하고, 보다 근대적이고 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창출해야 했다.

새로운 기업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가 그룹은 피노체트 체제하의 1985년경 에너지, 통신, 임업, 금융업 등에서 시작된 민영화를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콘세르타시온 정부 아래에서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되었다.

물론 이들 새로운 기업가 그룹이 과거 토지와 연결된 전통 엘리트 가문들을 상당 부분 대체하기는 했지만, 이들 새로운 그룹이 과거의 칠레 전통 엘리트 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라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성격을 띤 친족경제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는 과거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기본 구조에는 큰 변함이 없다. 기업 뒤에 존재하는 가문과 인척관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Sofofa의 전 리더이자 신엘리트를 대표하는 안젤리니 그룹의 핵심 인사인 Felipe Lamarca는 전통 엘리트 가문 출신인 Ricardo Claro의 옆에서 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다. 또한 Eliodoro Matte의 조카이자 마테 가문을 대표하는 Bernardo Larráin Matte 또한 그들과 함께 한다. 따라서 그룹의 주력회사인 해운회사 CSAV는 칠레 3대 부자 엘리트 가문인 안젤리니, 마테, 클라로를 하나로 묶고 있다. 게다가 핵심 경영진에 속하지는 않지만 Marín가도 이사로서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신기업 엘리트 그룹도 과거와 같은 엘리트 가문 간의 복잡한 인척관계 구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엘리트 가문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엘리트의 단일성은 여전히 칠레 엘리트 그룹의 특징으로 남아 있다.

몇몇 금융·산업 그룹에 의한 기업 소유의 집중도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경제력의 집중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 기업에서 12명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중이 45.5%였다면, 2004년에 비중은 85.8%로 증가했다. 한 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균 비중은 55%이다. 따라서 칠레 전체 주식회사의 69%에서 한 명의 대주주가 회사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세 명의 대주주가 50%를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전체 주식회사의 90%를 넘는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비중도 회사당 평균 33%에 불과하다.(멕시코와 브라질은 평균 70%에 달한다). 네 회사 중 세 곳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칠레 주식시장 자산의 62%가 각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 친족 그룹의 소유이다. 따라서 칠레에서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공동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기업 뒤에는 여전히 소수의 가문이 존재한다(Fazio Rigazzi 2005, pp. 29~30).

게다가 신경계 엘리트 그룹들은 심지어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토지 매입으로 전통과 연결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예로 최근 신기업가 그룹들 사이에서 비록 취미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농장을 구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칠레 엘리트 그룹의 토지에 대한 향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3. 현재 칠레 엘리트 그룹의 구성

가. 신경제 엘리트

[표 2-3]에서 보듯이 2000년대 주요 기업과 그의 지배 가문들을 [표 2-1]의 1960년대 기업가 그룹과 그의 지배 가문과 비교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외국기업들의 증가와 국영기업의 소멸이다. 1960년대에는 37대 기업 내에 CAP, Oruro Mining Co., Tamay Mining Co.와 같은 국영기업이 있었으나 2000년대 28대 기업 중에 국영기업은 하나도 없다. 대신 Banco Santander, Enersis와 같은 스페인 기업이 28대 기업 중 일곱 개나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프랑스 기업도 각각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가문의 부침도 두드러지는데 특히 1960년대까지 칠레 최대의 엘리트 가문이었던 에드워드 가문이 언론을 제외한 자신의 소유 기업들을 대부분 매각함으로써 28대 기업 지배 가문에서 사라졌다. 반면 1960년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안젤리나와 룩식 가문이 전통의 마테 가문과 함께 칠레 3대 기업가 가문에 올랐다. 196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여전히 주요 경제 엘리트 가문으로 이름을 올린 가문은 마테(Matte)가, 클라로(Claro)가, 사이드(Said)가, 야루르(Yarur)가 정도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가문은 안젤리나나 룩식처럼 새로 이름을 올린 가문들이다. 현 대통령 (Sebastián Piñera)와 언론계에서 에드워드가와 맞설만큼 성장한 Alvaro Saieh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인맥을 획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수성가(self made)한 전형적인 신경제 엘리트이다. 그 외 2000년대 주요 기업의 지배 가문으로 새로 이름을 올린 신경제 엘리트 가문으로는 유통업의 Solari가(Falabella사). Paulman가

표 2-3. 칠레 28대 기업과 지배가문(2005)

순위	기업	소유가문 혹은 국가
1	Empresas Copec	Angelini
2	Banco Santander	스페인
3	Enersis	스페인
4	Falabella	Solari
5	Endesa	스페인
6	AntarChile	Angelini
7	CMPC	Matte
8	Banco Chile	Luksic
9	CTC-A	스페인
10	Cencosud	Paulmann
11	Lan	Piñera, Cueto
12	BCI	Yarur
13	Entel	Matte, Hurtado, Fernández
14	D&S	Ibáñez Scott
15	Vapores(CSAV)	Claro
16	Minera Valparaíso	Matte
17	SQM	Ponce Lerou, 캐나다
18	CGE	Del Real, Marín, Pérez Cruz, Almeida
19	Embotelladora Andina	Said
20	Aguas Andinas	스페인, 프랑스
21	CCU	Luksic
22	Chilectra	스페인
23	CAP	Roberto de Andraca
24	Quiñenco	Luksic
25	Corpbanca	Saeih
26	Colbún	벨기에, Matte
27	BBVA	스페인
28	Concha y Toro	Guilisasti

자료: Fazio Rigazzi(2011), p. 133.

표 2-4. 칠레 주요 경제엘리트 그룹 순위(2005)

순위	그룹	순위	그룹
1	안젤리니 그룹	11	Cruzat 그룹
2	마테 그룹	12	Penta 그룹
3	룩식 그룹	13	Bofill 그룹
4	Errázuriz 그룹	14	Ibáñez Scott 그룹
5	Claro 그룹	15	Larraín 그룹
6	Guilisasti 그룹	16	Vender-Romero 그룹
7	Yarur 그룹	17	Yuraszeck-Larraín Vial 그룹
8	Urenda 그룹	18	Briones 그룹
9	Calderón 그룹	19	Solari 그룹
10	Saieh 그룹		

(Cencosud사, 대형마켓 Jumbo사), Ibáñez Scott가(D&S사), 통신업에서 Matte가와 함께 Entel에 참여한 Hurtado Vicuña가, Fernández León가, 그밖에 LAN에 피네라와 함께 참여한 Cueto가, 칠레 최대의 와인회사 Concha y Toro를 일으킨 Guilisasti가 등이 있다.

지주 엘리트 등 전통적 경제엘리트까지 모두 포함하여 2000년대 칠레 최고 경제엘리트 가문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Fazio Rigazzi 2005, pp. 363~371).

그중 대표적 신경계 엘리트인 안젤리니가와 룩식가에 대해 살펴보자.

Angelini가: 안젤리니 가문은 칠레 신기업인 엘리트 가문의 대표적 사례이다. 아나클레토 안젤리니(Anacleto Angelini)가 칠레에 이민 온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48년이다. 이탈리아 북부 페라라 출신인 안젤리니(당시 34세)는 17, 18세기에 온 이민자 가문과는 달리 이민 당시 이미 충분한 자본과 사업 경험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이탈리아를

떠나 칠레로 온 안젤리니는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하던 페인트 사업으로 시작했다. Pinturas Tajamar는 그가 초기에 설립한 유명한 페인트 회사이다.

다음으로 그가 열정을 쏟은 사업은 건설업이었다. 그를 위해 안젤리니는 같은 국적의 Antonio Franchini와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안젤리니는 같은 국적의 이탈리아인과만 사업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에드워드 가문과 달리 그의 이러한 문화적 폐쇄성은 그의 스페인어 구사능력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칠레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지만 아직도 스페인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는 1950년대에 이탈리아인 동업자와 함께 집과 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전념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농업에도 관심을 보여 쿠리코에 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산티아고 시에 열쇠공장을 설립했다.

1959년에는 이탈리아인의 딸인 칠레 국적의 마리아 노세다 삼브라(María Nosedá Sámbrá)와 결혼했다. 그리고 1950년대 초에는 자신의 막내 동생인 지노(Gino)를 불러들여 자신의 사업에 참여시켰다. 지노가 산티아고에 예술가의 카페(Café del Artista)를 개업하는 동안 아나클레토는 칠레 북부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기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분사업에 투자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안젤리니는 당시 초석광산의 쇠퇴로 황폐화된 북부 지역에서 어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 그 결과 그는 칠레 제1의 어분 수출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노체트 정부가 부과한 관련 규정이나 페루와의 경쟁으로 어분 수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동생 지노에게 어분 수출업을 맡겨두고 자신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안젤리니가 관심을 가지게 된 사업은 에너지 산업과 임업이었다. 임업에는 이미 1960년대

부터 출구안 압축목재회사(Maderas Prensadas Cholguán) 주식을 매입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경에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석유유통회사 COPEC(Compañía de Petróleos de Chile)의 주식 41%를 인수하여 에너지 산업에도 진출했다. 그것은 안젤리니가 1994년 칠레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가지고자 했던 회사이다. COPEC은 칠레 최대의 석유유통회사이자 수익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다. COPEC은 석유유통업이 전문이지만 그를 소유한 AntarChile 지주회사는 석유유통업 외에도 임업, 수산업, 서비스업 등에도 진출하였다. AntarChile의 매출 중 석유유통업의 비중은 약 60% 정도이며 임업이 약 33%, 수산업이 약 1%, 나머지 서비스업이 약 4% 정도를 차지한다. 석유유통업과 함께 임업에서도 안젤리니는 Celulosa Arauco y Constitución(Celarauco) 회사를 통해 90만 헥타르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Celarauco 신설 공장 개업식에 참여해서 안젤리니가 칠레 수출경제에 미친 기여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칠레 3대 부자 중 한 명인 한 안젤리니는 자식이 없다. 따라서 후계자는 동생 지노의 아들 로베르토 안젤리니(Roberto Angelini)가 될 예정이다. 로베르토는 지노가 수산업을 위해 칠레 북부에 가 있을 때 삼촌인 아나클레토와 함께 산티아고에 있으면서 칠레가톨릭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현재는 임업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다. 로베르토의 아버지 지노가 전형적 이탈리아인으로서 외향적이고 삶을 즐기는 데 관심이 많다면, 로베르토는 삼촌 아나클레토와 닮아서 근면하고 허영심이 없다. 이러한 태도는 칠레 기업인의 전통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Moraga 2003, p. 198).

안젤리나는 비교적 최근인 1940년대에 이주하여 1994년에야 겨우 칠레 국적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기존 칠레의 전통적 경제엘리트 그룹과는 다르다. 그리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전통적 경제엘리트 그룹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근검절약이라는 칠레 기업인들의 전통적 가치를 공유하며, 가족 중심 경영이라는 형태도 칠레 전통적 기업인들의 경영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Luksic가: 룝식 그룹을 설립한 Antonio Andrónico Luksic Abaroa는 칠레 안토파가스타에서 볼리비아인 어머니와 1910년 칠레에 도착한 크로아티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법학을 공부한 룝식은 광업에 관심을 가지고서 1950년대부터 광산업에 투자해서 광산업을 통해 성장했다. 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팽창한 것은 피노체트 정부하에서였다. 1980년에는 안토파가스타와 볼리비아를 잇는 철도회사의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또 다시 크게 성장했다. 그 이후 룝식은 주로 동광산업을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켜 나갔다. 1986년에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안테스의 Los Pelambres 광체를 인수하기도 했다. 룝식의 광산업은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광물 가격이 상승하여 큰 이익을 올렸다. 그로 인해 그의 Antofagasta 사는 세계적인 동 생산회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2004년 3월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0대 우량기업지수인 FTSE 100에도 가입되었다. 이렇게 룝식 그룹은 주로 광산업에만 전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칠레 경제엘리트 그룹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룝식 그룹도 비광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칠레 최대 지주회사 중 하나인 Quiñenco를 통해 룝식 그룹은 칠레 최대의 맥주회사인 CCU(Compañía de Cervecerías Unidas)와 Banco de

Chile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이 1960년대 이전 칠레 최대 기업가 가문인 에드워드 가문의 소유였다는 점에서 이 인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외에도 식음료업, 호텔 산업, 통신업, 소매 유통업 등에도 진출했다.

과거 전통 경제엘리트 그룹과 달리 룩식 가문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우파 정당과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는다. 대신 룩식 가문은 아옌데로부터 피노체트를 거쳐 콘세르타시온 정부까지 다양한 성향의 정치 리더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 pp. 15~16).

이와 같이 안젤리니와 룩식으로 대표되는 신경제 엘리트가 과거의 전통 경제엘리트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통 경제엘리트 가문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부나 의회의 중요한 직위를 차지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보호했다. 반면 20세기 들어서 이민 온 신경제 엘리트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우파만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들은 피노체트부터 콘세르타시온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신경제 엘리트들이 모두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경제엘리트들이 동시에 정치엘리트가 되는 현상은 칠레에서도 많이 줄어들었다. 어쨌든 정치에 직접 참여하든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신경제 엘리트들 중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arlos Alberto Délano: Prenta 기업을 소유하며 기업인들이 설립한 개발대학(Universidad del Desarrollo) 설립자 중 한사람으로 UDI와 밀접한 관계이다. 또 그는 라빈을 UDI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했다.
2. Luksic가 형제들: 그들은 주변에 거의 대통령 후보 수준으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군단이 운영하는 피니스 테라에 대학(Universidad Finis Terrae)과도 밀접한 관계이다.
3. José Said: 전통적 경제 엘리트 가문에 속하는 그는 우파 연구기관 CEP 이사회를 통해 기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Lagos나 Frei와 같은 콘세르타시온 정부의 대통령들, 그리고 그의 핵심 관료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4. José Yuraszек: 피노체트 정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영화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운영하게 된 그는 칠레 대학을 다녔음에도 그곳에서 우파 학생운동을 조직한 경험을 기반으로 UDI에 가입했다. UDI에서 그의 공식적 직위는 없지만 배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Ibáñez가 형제들: 소매업(D&S)으로 부를 축적하고(최근에 D&S의 지분을 매각함) 아돌프 이바네스 대학(Adolfo Ibáñez)을 운영하는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칠레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업인이다.
6. Matte가 형제들: 칠레의 가장 보수적인 전통 경제 엘리트 가문에 속

하는 Eliodoro Matte와 Bernardo Matte는 칠레의 대표적 친기업 연 구기관인 CEP을 통해 기업인들의 총체적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바로 이를 통해 나온다.

7. Jorge Awad: 그는 Frei Montalva 정부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후에 기업 활동에 뛰어 들어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그는 기독교민주당(DC)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우파 기업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8. Horst Paulman: 1949년 독일에서 이민 와서 소매업(Jumbo)을 거쳐 대기업가로 성장한 그는 기업인들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그의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9. Andrés Navarro: 피네라나 Saeih처럼 단지 자신의 재능과 기술혁신만으로 성장한 그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 윤리를 방어하고 전과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주로 DC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정치세력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피네라 대통령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Chilevisión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나. 관료 엘리트 그룹: '시카고보이스'

아옌데와 인민연합의 승리는 막 성장하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들에게도 실질적 위협이었다. 그러나 시카고보이스는 기업 그룹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정책의 기획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은 1960년대 에두아르도 프레이 정부에서 형성된 과감하고 도전적인 성격의 청년 기업가 그룹 ('Pirañas'라고도

블림)2)과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에드워즈 그룹과 『엘 메르쿠리오』 그리고 BHC 소유 가문이 중심이 된 월요 클럽(Monday Club)은 아옌데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들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그의 붕괴 이후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시카고보이스들에 주어졌다.

1973년 9월에 발생한 쿠데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은 군부와의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1974년 중반부터 국가 경제정책의 중추적 위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1974년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의 Jorge Cauas가 국가경제기획의 최고책임자인 재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고, 시카고 대학교 출신의 Sergio de Castro가 경제부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그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은 군부정권의 경제 도그마가 되었다. 1960년대 이전 칠레 엘리트 그룹의 지배 정당성의 근거가 법률과 가문의 전통에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경제적 전문지식과 해외 네트워크에 있게 되었다.

이때 시카고보이스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또 다른 미국 유명 대학 출신 경제학자들이 합류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경제적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Valdés 1989).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학 출신의 신자유주의 경

2) Javier Vial과 Ricardo Claro가 지배적 소유자인 BHC는 금융업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공격적 경영을 시도함으로써 ‘피라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들은 전통적 기업 활동에서 벗어나 급속한 시장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했다. 그를 위해 시장경제에 전문인 시카고보이스의 인물들을 고용했는데 그중 Manuel Cruzat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기업과 시카고보이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쿠데타 이후 Cruzat는 사촌인 Fernando Larraín과 함께 Cruzat-Larraín 그룹을 설립했다. 그리고 시카고보이스를 대표하는 판료 중 한 명인 Sergio de Castro도 Cruzat와 친한 사이이다(드잘레이, 가스 2007, pp. 266-267)

제학자 그룹은 칠레 최근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 중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군부 체제 아래에서 시카고보이스는 알레산드리 정부의 기업인들과는 달리 경제구조를 변형하기 위한 절대적 권력과 무한한 시간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국제적 환경도 시카고보이스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 이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들의 기획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세계시장도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넘쳐나는 오일달러로 개도국의 외화 가용성도 증가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시카고보이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경제 모델을 보다 심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화 이후 콘세르타시온 정부 아래에서도 시카고보이스는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경제 관련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시카고보이스의 경제 모델은 이제 단순히 어떤 한 정부의 정책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굳건한 경제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피네라 정부에서 이들은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했다. 칠레의 경제 관료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궁 라모네다(La Moneda) 이 층의 비서실 사람들이다. 장관들도 이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며 주요 공직 임명, 대통령 일정, 각종 특혜들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은 제도적 차원에서 칠레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함께 칠레의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자리로는 재무부장관, 재무부 산하의 예산국장, 중앙은행(Banco Central)장을 들 수 있다.

피네라 정부 아래에서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자유주의 경제관료 그룹이 장악하고 있다. 피네라 정부 아래에서 경제관료 그룹들은 하버드 출신의 현 재무부 장관인 Felipe Larraín과 경제 및 관광부 장관인 시카고 대학 출신의 Juan Andrés Fontaine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엄격한 의미에서 시카고 대학 출신의 ‘시카고보이스’에는 방금 언급한 Andrés Fontaine 외에도 외교부 장관 Alfredo Moreno, 대통령 비서실장 Cristián Larroulet, 전 UDI 대선 후보이자 현 사회개발부 장관 Joaquín Lavín 등이 포진함으로써 피네라 정부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다. 정치 엘리트: 동업조합주의자(Gremialistas)

동업조합주의의 1세대에는 이미 언급한 하이메 구스만 외에도 Ernesto Illanes, Manuel Bezanilla, Sewrgio Gutiérrez I., Hernan Larraín F., Maximiano Errázuriz 등이 있다. 이들은 1969년 개혁주의 학생운동에 대한 가톨릭 대학 내부의 불신 분위기를 이용하여, 칠레가톨릭대학의 학생 자치기구인 FEUC(Federación de Estudiantes de l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를 장악하고, 1970년 대선에서 우파 호르헤 알레산드리 후보의 지지 운동을 벌였다. 구스만은 그의 측근 자문위원을 지냈다.

인민연합의 승리 이후에 동업조합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한 가장 커다란 반대 세력이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대기업을 지배하는 경제엘리트 그룹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조합에까지 미쳤고, 1972년 10월의 자본가 파업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때 칠레가톨릭대학을 졸업한 Tomás Irrarrázabal, Javier Leturia, Atilio Caorsi, Alberto

Hardessen, Arturo Fontaine Talavera와 같은 젊은이들이 운동에 가입하여 지도부의 핵심이 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구스만은 인민연합에 반대하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우파 지도자로서 성장했다.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과거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도자 대부분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따라서 그를 대신해 군부정권에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물론 군부정권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과거 우파 정당의 인물이 오른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군부정권을 정치적으로 움직인 주요 인물들은 하이메 구스만을 비롯한 신정치 엘리트인 동업조합주의자들이었다.

쿠데타 이후 구스만을 비롯한 동업조합주의 지도자들은 즉각 정부의 자문위원 등으로 영입되었다. 그들은 군사정부가 민주주의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당시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그 효력이 다한 시스템이라고 간주했다(Gazmuri 2000, p. 115). 어쨌든 동업조합주의자들은 피노체트 정부 아래에서 국가기구의 핵심 지위들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그 후 경제에서는 ‘시카고보이스’, 정치에서는 동업조합주의자라는 틀을 형성했다.

Sergio Fernández F., Javier Leturia, Francisco Bartolucci, Claudio Arteaga, Carlos Bombal, Jovino Novoa, Luis Cordero, Juan Antonio Coloma와 같은 동업조합주의들과 그의 동조자들은 피노체트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 주요 차관, 시장 등 정치적 요직들을 맡았다. 특히 구스만은 초기에 Leigh 장군, 나중에 피노체트 장군의 비공식 자문위원을 맡는 외에도, 내무부 장관 Sergio Fernández F.를 통해 1980년 헌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쿠데타 직후부터 구스만은 군사위원

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가톨릭 조합주의 원칙에 따라 군부의 권력 장악과 집행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군부는 구스만에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Renato Cristi(Cristi 2000)는 쿠데타 이후 칠레 정치의 틀을 다진 1980년 헌법의 핵심은 구스만이 만들었다고 확인한다.

구스만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새로운 정당 UDI는 과거 보수당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과거 보수당과 같이 교회의 실질적 지배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톨릭 정신에 따라 규율과 위계질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거 보수당과 성격을 같이한다.

한편 피노체트 정부하에서 우파 국민당(PN)의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1980년대 민주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치신인들과 힘을 합쳐 또 다른 우파 정당인 국민개혁(RN: Renovación Nacional)을 설립했다. RN은 20세기 중반 자유당이 가졌던 교회나 대통령과 같은 그 어떤 권위에도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자율성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UDI는 RN에 비해 더 이데올로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조금 더 권위적이고, 지지기반이 더 대중적이며, 도덕적으로 더 보수적이다(Melnick y Hales 2009, p. 156).

또한 이들 두 우파 정당의 당원들은 출신학교와 세대에서도 차이가 난다. Joignant Navia(2003)의 조사에 따르면 UDI 하원의원의 70%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특히 그들 중 3분의 1은 San Ignacio와 Sagrados Corazones 두 학교 출신이다). 반면 RN의 하원의원들은 단지 45%만이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반대로 UDI 하원의원 중 공립 고등학교 출신은 25% 이하이지만, RN에서 그의 비중은 40%에 달한다. 대학을 보면 UDI 하원의원의 30%가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인 반면, RN에서 그의 비중은 20% 이하이다. 한편 UDI 하원의원의 10% 이하가 칠레 대학 출신인데 비해, RN 하원의원 중에 칠레 대학 출신은 40%에 달한다. 정당 구성원의 세대로 보더라도 UDI 하원의원의 3분의 2가 1950~6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인데 RN에서는 그 세대 사람의 비중이 반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UDI가 RN에 비해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응집력이 보다 강하다.(Correa Sutil 2011, p. 328~329).

현재 양당을 주도하는 핵심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UDI에서는 1970년대부터 하이메 구스만과 동업조합주의를 함께한 Pablo Longueira(UDI 다수와 리더), Juan Antonio Coloma(현 UDI 대표), Jovino Novoa(상원의장, 당의 실세, 칠레 국회의원들이 뽑은 칠레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Andrés Chadwick(현 상원의원)과 같은 강경파 원칙주의자와 Joaquín Lavín(당의 대선 후보), Hernán Büchi(피노체트 정부의 경제관료 출신, 당의 대선 후보), Cristián Larroulet(Büchi의 오른팔, 현 ILD 원장, UDI를 비롯해 칠레 우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등 경제 관료 출신들을 꼽을 수 있다.

한편 RN에서는 당 대표인 Carlos Larraín과 당 재정을 맡고 있는 Roberto Palumbo와 같은 과거 정치인들과 Andrés Allamand, Sebastián Piñera, Alberto Espina, Lily Pérez와 같은 더 근대적 정치인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후자 그룹에 속하는 현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RN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에서 1860년 칠레의 라세레나로 이민 온 스페인계 이민자의 후손이다. 그는 독

일게 신부가 운영하는 El Colegio del Verbo Divino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칠레가톨릭대학을 나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 호세(José) 피네라는 기독교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으며, 그의 삼촌인 베르나르디노(Bernardino)는 피노체트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이 있는 주교였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세바스티안은 칠레 대학과 칠레가톨릭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나, 그의 주된 활동은 기업운영이었다. 그는 산티아고 은행(Banco Santiago)을 소유한 지인 Manuel Cruzat를 통해 금융업에 들어섰고, 카드 회사 Bancard를 설립해 Visa와 Mastercard의 칠레 대리권을 따냄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항공회사 LAN을 인수했다. 그리고 25년 만에 자신의 부를 5,000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키웠다. 그는 현재 남미 최대의 항공사인 LAN과 방송사 Chilevisión을 소유하고 있으며, 칠레의 명문 축구 클럽 Colo Colo의 주요 지분 참여자이며, 생태 공원 Chiloé를 소유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현재 마테가, 룩식가, 안젤리니가에 이어 칠레 네 번째 부자이기도 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테가, 룩식가, 안젤리니가의 부가 가문의 소유라면, 세바스티안의 부는 개인 소유라는 점이다. 피네라 가의 형제들은 서로 협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 관계이다 (Millas, 2005: 480).

정치적으로 피네라 가문은 기독교민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통령을 지낸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와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그의 삼촌은 피노체트 체제를 비판한 주교였다. 그리고 세바스티안이 설립한 교육, 연구, 자선사업 재단인 미래재단(Fundación Futuro)과

출판사 Editorial Andes의 운영을 맡은 그의 여동생 마그달레나는 현재 기독교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의 형 페페가 피노체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냄으로써 기독교민주당은 피네라 가문을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은 1978년, 1980년, 1988년 국민투표에서 군사체제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후에 콘세르타시온의 멤버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 기독교민주당의 급진화에 반대해 그와는 일정 거리를 두었다. 그로 인해 세바스티안은 기독교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대신 피노체트 독재에 협조한 과거의 인연으로 민주화 이후 위기에 처한 우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RN을 설립하고 그의 자유주의 분파를 이끌었다.

라. 언론 엘리트: 『엘 메르쿠리오』와 『라 테르세라』

칠레 엘리트 그룹 공동의 이해관계와 세계관은 칠레 최고 경영자들의 동업자 조직인 상공인연합(CPC: Confederación de la Producción y del Comercio)를 통해 반영되고, 『엘 메르쿠리오』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다. 『엘 메르쿠리오』는 1827년 자유당의 Pedro Félix Vicuña가 창간했다. 그리고 1879년 에드워드 가문이 인수해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만들었다. 현재에도 『엘 메르쿠리오』는 명실상부한 칠레 제1의 유력 일간지다.

『엘 메르쿠리오』는 비록 주식회사이지만 소유와 통제는 전적으로 칠레 최대의 엘리트 가문인 에드워드가의 손에 달려 있는 명백한 가족기업이다. 『엘 메르쿠리오』는 19세기 교조주의적 언론 형태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언론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칠레 최대

의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성장했다. 기사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논평이나 의견은 사실란을 활용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사실 또한 편파성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1960년대까지 칠레 최대의 엘리트 가문인 에드워드가가 운영한 『엘 메르쿠리오』는 사실 처음부터 수익성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의 설립 목적은 여론의 형성이었다. 『엘 메르쿠리오』는 어떤 정당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따라서 객관적 언론으로서의 명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합리성과 상식의 대변자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엘 메르쿠리오』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데 기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엘 메르쿠리오』는 엘리트 그룹과 자본주의 질서의 가치를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서 방어했다. 그들에게 엘리트 그룹의 이익과 발전관은 국가의 발전 나아가서 구 기독교 문명의 발전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엘 메르쿠리오』는 그와 같은 인식을 통해 결국 합리성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방식으로 『엘 메르쿠리오』는 엘리트 계급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고,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산층을 포용하는 가장 효과적 도구의 역할도 담당했다.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분파적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국가 비전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엘리트 그룹의 이러한 공동의 비전은 『엘 메르쿠리오』를 통해 효과적으로 유포되었다.

『엘 메르쿠리오』가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함에 따라 그가 피노체

트 정부의 정치적 기획에 직접 참여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쿠데타 직후 『엘 메르쿠리오』의 사장이었던 Fernando Léniz는 군사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을 주도할 최초 민간인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인민연합 정부 시기 CPC의 회장이자 『엘 메르쿠리오』 편집국장의 동생인 Jorge Fontaine Aldunate도 피노체트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

한편 『엘 메르쿠리오』는 1967년 보수의 거점인 칠레가톨릭대학에서 탄생한 급진 가톨릭 정치운동인 민중통합행동운동(MAPU: Movimiento de Acción Popular Unitaria)이 ‘거짓말쟁이, 엘 메르쿠리오’라고 내건 대자보 사건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의 이미지에 처음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그 후 피노체트 독재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엘 메르쿠리오』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위를 사실상 상실했다. 게다가 다양한 언론 매체의 발전으로 『엘 메르쿠리오』는 현재 과거와 같은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자매지인 『라 세군다』*La Segunda*(보다 논쟁적인 성격의 석간신문으로 사회 지도층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와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스』*Las Ultimas Noticias*(연예 문화 관련 신문, 낮은 사회계층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와 함께 여전히 칠레 제1의 언론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엘 메르쿠리오』와 함께 칠레를 대표하는 신문인 『라 테르세라』*La Tercera*[대중지 『라 쿠아르타』(*La Cuarta*)도 같은 언론사에 속함]도 역시 아랍계 경제 엘리트인 Alvaro Saieh 가문의 소유이다. Saieh 가문은 에드워즈 가문과 같은 언론에서의 전통은 없지만 그가 소유한 언론사는 사회의 새로운 경향과 기술과 미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칠레 사회에서 『엘 메르쿠리오』와 거의 유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두 회사의 관계가 어쨌든 『엘 메르쿠리오』의 위상 약화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신문과 텔레비전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주요 신문을 모두 소유하였으며, 국영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텔레비전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최소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핵심 엘리트 그룹의 세계관을 유포하는 도구이다.

현재 칠레 언론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은 여전히 에드워드 가문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서 『엘 메르쿠리오』의 소유자인 Agustín Edwards Eastman과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스』를 운영하는 장남 Agustín Edwards VI세,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튼(Wharton)에서 MBA를 하고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편집부에서 일한 후 현재 칠레에 돌아와 엘 메르쿠리오 부회장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아들 Cristián이 칠레 언론에서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Melnick and Hales(2009, pp. 195-199)는 Agustín Edwards Eastman과 그의 장남 Agustín Edwards del Río(Agustín Edwards VI세)을 각각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2명 중 한 명으로 꼽았다.

Edwards 가문 다음으로 칠레 언론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역시 『라 테르세라』의 소유자인 Alvaro Saieh이다. 아랍계 콜롬비아 태생으로 전통 경제 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신경계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Saieh는 1980년대 중반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을 인수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졌고, 현재는 언론사 Copesa와 금융업 외에도 소매업, 부동산업, 호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다른 신경계 엘리트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기본적으로는 우파이지만 중도파와 좌파에

도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며, 정부 관료나 기업가 연합의 리더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텔레비전 부문에서는 Chilevisión과 Canal 11를 소유한 현 대통령 피네라가 이 부문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간주된다. Daniel Fernández는 국영방송 Televisión Nacional de Chile(TVN)의 국장으로 현 정부의 신뢰를 받아 사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Mercedes Ducci는 칠레에서 영향력 있는 텔레비전 채널인 Canal 13의 국장이다. 그러나 Canal 13의 실질적 영향력은 그의 소유주인 가톨릭 교회와 칠레 가톨릭 대학 그리고 Opus Dei와 연결된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Canal 13의 숨은 실력자이자 최종 결정자는 Matte 가문 소속의 또 다른 국장 Eliodoro Rodríguez Matte이다. Baltasar Sánchez는 칠레 최초의 민간 텔레비전 방송사이자 대중적 성향을 가진 메가(Mega)의 사장으로서 그의 소유주인 Claro 가문의 Ricardo Claro Valdés가 사망한 이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Canal 11의 국장으로 피네라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Jaime de Aguirre, 『엘 메르쿠리오』의 국장인 Cristián Zegers Ariztía, 『라 테르세라』의 국장인 Cristián Bofill, 『라 세군다』의 국장인 Pilar Vergara 등이 칠레 언론계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칠레 정치에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인터넷 신문 『엘 모스트라도르(El Mostrador)』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Federico Joannon도 칠레 언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칠레의 언론은 대부분 여전히 에드워즈가, 사이에(Saieh)가, 피네라가, 가톨릭 교회 혹은 마테가, 클라로(Claro)가 등 경제 엘리트

가문의 지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립성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언론은 대부분 이들 경제 엘리트들의 정치와 경제 비전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칠레의 경제 엘리트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과 도구적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틀에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칠레 엘리트 그룹에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칠레의 중도좌파 정부인 콘세르타시온이 시장경제와 도구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을 유지한 것은 그의 좋은 예이다. 언론을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악은 1980년대 이후 칠레 엘리트 그룹의 가장 큰 성과이다.

마. 종교 엘리트

가톨릭 교회도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이다. 20세기 초반까지 교회는 정치에 직접 간섭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1925년 비록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교회의 그러한 특권은 사라졌지만 칠레는 아직까지 가톨릭 국가로 규정될 만큼 교회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피노체트 정부 초기에 교회는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그 후 독재에 반대하고 반정부 조직을 보호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 개입을 자제하라는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정치에 직접 관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신 이혼과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보수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이다. 가톨릭 교회는 엘리트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등에 칠레 최고의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등 교육기관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예수회가 발행하는 『멘사헤(Mensaje)』와 같은 교회 발행 출판물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칠레 주교단 회의의 선언문은 매번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Sigmund 2000, p. 192).

교회의 영향력은 최근 칠레 엘리트들의 교회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이다. 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는 칠레 교회를 공식 대표하는 산티아고 대주교이자 추기경인 Santiago Javier Errázuriz Ossa와 오소르노 주교이자 칠레 주교단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Alejandro Goic Karmelic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공식적 인물보다 실제 칠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그룹은 Opus Dei와 그리스도 군단(La Legión de Cristo 혹은 Los Legionarios de Cristo)과 같은 보수적 가톨릭 단체이다. Opus Dei는 1950년 칠레에 들어와서 그의 보수성, 엄격한 규율, 엄격한 회원 자격, 회원 간의 긴밀한 상부상조 등의 방식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급진화에 반대하는 보수적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 세력을 확대했다. 경제 엘리트와 밀접하게 연결된 Opus Dei는 초기에 회원 명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히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개로 활동하고 있다.

Opus Dei 조직의 핵심 인물은 산 베르나르도 주교인 Juan Ignacio González와 Sergio Boetsch Matte를 들 수 있다. Opus Dei에 소속된 정

치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두 번이나 UDI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Joaquín Lavín이 있다. Opus Dei는 교육 사업을 위해 안데스 대학(Universidad de los Andes)을 운영하며, 주요 고등학교로는 Los Andes(1969년 설립, 학생 수 1,000명), Tabancura(1970년 설립, 학생 수 1,240명), Huelén(1978년 설립, 학생 수 847명), Cordillera(1981년 설립, 학생 수 840명), Los Alerces(1992년 설립, 학생 수 1,300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데스 대학은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이 단지 양질의 교육이라는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 멀지않아 칠레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Angélica Thumala 2007, p. 212).

그리스도의 군단은 예수회처럼 ‘군단’이라는 군사적 가치에 기반을 둔 엄격하고 보수적인 조직과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교회의 빈곤층을 향한 진보화에 반대하고 보수적 가치를 선호하는 사회 지배 엘리트 그룹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도의 군단은 엘리트 그룹 회원들에게 엄격한 신앙심과 그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요구한다. 현재 그리스도의 군단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일랜드 사제 John O'Really이다. 그가 설립한 고등학교 Cumbres(1986년 설립, 학생 수 2,500명)는 현재 칠레 엘리트들이 자신의 자식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이다. 그 외 그리스도 군단은 Everest(1993년 설립, 학생 수 1,600명), Highlands(2001년 설립, 학생 수 570명)와 같은 사립 고등학교와 Universidad Finis Terrae와 같은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가톨릭 교회 단체인 예수파의 뿌리도 여전히 매우 깊다. 예를 들어 그들이 설립한 San Ignacio de Santiago 고등학교는 칠레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³⁾이다. 그럼에도 예수파는 좌경

화로 인해 중도파인 기독교민주당과 가까워짐으로써 칠레 지배 엘리트 그룹과는 다소 소원해졌다.

한편 살바도르 아옌데와 피노체트 등 다수의 칠레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프리메이슨 조직은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자유당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주로 급진당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칠레에서 프리메이슨은 현재의 보수 우파 지배 엘리트 세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Melnick and Hales(2009, pp. 255-258)에 따르면 현재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위 및 인물 30인의 명단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위가 더 의미 있으면 직위를, 인물이 더 의미 있으면 인물을 각각 앞에 내세웠다. 여기에는 칠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핵심 엘리트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 같은 다원적

3) 칠레의 3대 사립 고등학교는 모두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엘리트들이 다니는 배타적 사립 교육기관이다. 그중 하나인 Colegio de San Ignacio(학생 수, 약 1,200명)는 1856년 예수회가 설립한 것으로 칠레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교이다. 다른 두 학교는 산타크루스회(Congregación Santa Cruz)가 1936년에 설립한 Saint George's College(학생 수, 약 2,640명)와 말씀의 선교수도회(Congregación del Verbo Divino)가 1950년에 설립한 Colegio del Verbo Divino(학생 수, 약 2,340명)이다. 현 대통령 피네라는 Colegio del Verbo Divino 출신이며, UDI의 실세 Jovino Novoa는 Saint George's College 출신이다. 특히 Saint George's College는 1970년대 초 해방신학 계열의 Gerardo Whelan 신부가 맡아 진보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그의 일화는 2004년 'Machuca'라는 영화로 소개된 적이 있음) 그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분리하여 Opus Dei가 이끄는 Tabacura를 설립했다. 그 후 Saint George's College는 칠레 엘리트 학교로는 드물게 진보적 사회정치 활동가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고등학교는 Opus Dei나 그리스도의 군단이 설립한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엘 메르쿠리오』가 최근 발표한 PSU(Prueba Selección Universitaria: 칠레 대학 입학시험) 점수에 따른 칠레 고등학교의 순위를 보면 Saint George's College와 Verbo Divino가 각각 35위와 48위를 한 것에 비해, Opus Dei가 설립한 Cordillera, Los Andes, Tabancura, Los Alerces는 각각 4위, 5위, 6위, 18위를, 그리스도 군단이 설립한 Everest와 Cumbres는 각각 3위와 22위를 차지했다(El Mercurio 2012.01.04).

차원의 엘리트도 일부 포함했다.

1. 칠레 대통령: 현 Sebastián Piñera
2. 라 모네다 궁 ‘이층’(segundo piso: 비서실을 상징함)
3. 재무부 장관: 현 Felipe Larraín Bascuñan(하버드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4. 내무부 장관 겸 부통령: 현 Rodrigo Hinzpeter(변호사 겸 정치인, 피네라의 최측근)
5. Agustín Edwards Eastman: 『엘 메르쿠리오』 소유주
6. Alvaro Saieh: *La Tercera* 소유주
7. Francisco Javier Errázuriz Ossa: 산티아고 대주교 겸 추기경
8. CPC 의장: 현 Lorenzo Constans Gorri(기업인, 건축업)
9. 룩식 가문 삼형제(Andrónico, Guillermo, Jean Paul): 기업인
10. 이바네스 가문 삼형제(Nicolás, Gonzalo, Felipe): 기업인, 대학 소유
11. 마테 가문 형제(Eliodoro, Bernardo): 기업인, CEP 운영
12. Andrés Navarro: 기업인, 칠레 IT와 통신 산업의 상징적 인물
13. 중앙은행장: 현 Rodrigo Vergara Montes(칠레 가톨릭 대학과 하버드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14. 경찰청장: 현 Gustavo González Jure(변호사 출신)
15. Luis Riveros Cornejo: 현 칠레 프리메이슨 조직 지도자
16. Cristián Zegers: 『엘 메르쿠리오』 사장
17. José Cardenas: 그리스도 군단 지도자
18. Baltazar Sánchez: 기업인이자 경영인, 안젤리니 가문과 클라로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방송사 Mega 운영

19. Gutenberg Martínez: DC당 소속의 정치인
 20. 금융감독원장
 21. 대법원장
 22. Juan Ignacio González: 산페르나르도 주교
 23. Sergio Boets Matte: 칠레 Opus Dei 지도자
 24. Camilo Escalona: 좌파 정치인
 25. Ricardo Lagos Escobar: 정치인, 전 대통령
 26. Cristián Larroulet: UDI의 전 대통령 후보 Hernán Büchi의 오른팔, 현 ILD 원장이자 Universidad de Desarrollo 총장, UDI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27. Eduardo Frei: 정치인, 전 대통령
 28. 예산국장: 현 Rosanna Costa(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 경제학자)
 29. Cristián Bofill: *La Tercera* 사장
 30. Pablo Longueira: UDI 강경파 리더, 차기 유력 대선 후보
-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 30인 중 기업인 출신의 경제 엘리트가 일곱 명, 경제학 혹은 다른 전공의 관료 엘리트가 여덟 명, 정치 엘리트가 여섯 명, 언론 엘리트가 네 명, 종교 엘리트가 다섯 명이다. 이들이 소속된 부문과 각 부문의 수를 보면 칠레의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4. 칠레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방식

가. 엘리트 층원의 동질성: 칠레 대학과 칠레 가톨릭 대학

칠레 엘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질성이다. 이는 칠레 엘리트의 대부분은 칠레 대학이나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이라는 엘리트 층원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최근에는 칠레 가톨릭 대학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칠레의 신경제 엘리트 그룹에는 자본가 그룹과 고위 경영진 그룹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45세에서 60세 정도의 연령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중상류층 이상 가정 출신들로,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거쳐, 학부는 주로 가톨릭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는 주로 미국 대학에서 획득했다. 물론 광범위한 의미에서 칠레 엘리트는 양적인 측면에서 칠레 대학 출신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피노체트 이후 신기업가 엘리트 그룹을 포함해 칠레의 정치와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들은 대부분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이다.

칠레 공화국 전체 역사에서 칠레대학은 분명히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특히 공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의 경우에 그러한 사실은 보다 명확하다. 따라서 칠레 대학을 칠레 공화국 문화의 중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칠레 가톨릭 대학(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이 칠레 대학의 그런 역할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했다. 칠레 가톨릭 대학은 1888년에 설립되었지만, 재원 부족과 보수당과 밀접한 연결, 제한된 학생 수, 학문적 전통의 부족, 극단적인 종교적 성격 등의 요인으로 엘리트 양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지배적이었던 과학적 실증주의로 종교적 성격의 교육기관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칠레 가톨릭 대학은 엘리트 층원에서 칠레 대학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실증주의가 쇠퇴하고, 가톨릭 사상도 근대화에 따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칠레에서도 실증주의 사상의 메카였던 칠레 대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칠레가톨릭대학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또한 칠레가톨릭대학은 이 시기에 중산층의 능력 있는 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따라서 교회가 설립한 사립 가톨릭 중고등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출신도 칠레가톨릭대학에 입학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다원적 엘리트 양성을 위한 기반 확대의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해 1930년대부터 칠레 가톨릭 대학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성인과 탁월한 정치인이 배출되었다. 기독교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Eduardo Frei를 비롯해, 호르헤 알레산드리 정부에서 외무부, 경제부, 농업부, 법무부 장관을 두루 지낸 Julio Philippi, 칠레 가톨릭 역사학파의 대표 주자인 Jaime Eyzaguirre, 20세기 칠레의 대표적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인 Mario Góngora, 기독교 민주당원으로서 알레산드리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Bernardo Leighton, 현 대통령의 삼촌으로 라 세레나 대주교이자 칠레 사제단장을 지낸 Bernardino Piñera 등이 이 세대의 주요 인물들이다. 특히 이 세대의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들이 주도한 정치적 지성적 주요 운동 중에서 Falange 운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후에 기독교민주당 설립의 핵이 되었다(Gayson 1968).

Falange 운동 외에도 당시 칠레가톨릭대학 출신들은 이른바 ‘사회적 동맹(Liga Social)’이나 전국가톨릭학생연합(ANEC: Asociación Nacional de Estudiantes Católicos) 등을 조직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Jaime Eyzaguirre 중심으로 모인 신 보수적 이스파니스타(hispanista) 그룹은 『에스투디오스(Estudios)』, 『피니스 테라에(Finis Terrae)』와 같은 잡지를 발간하면서 당시 칠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Eyzaguirre의 ‘칠레의 이념(Idea de Chile)’은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우파와 중도우파 지식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가톨릭 대학 2세대 그룹은 칠레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에 가톨릭 대학에서 시작된 세 그룹, 즉 동업조합주의자들(Gremialistas), 이른바 ‘시카고보이즈’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 민중통합행동운동(MAPU: Movimiento de Acción Popular Unitario)가 대표적이다. MAPU는 1962~63년 칠레가톨릭대학 가톨릭학생연합에서 시작되었다. Tomás Moulian이나 Rodrigo Ambrosio와 같은 사회학과 출신들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Marta Harnecker나 Althusser와 같은 학자로부터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받고서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칠레로 돌아와서 기독교민주청년회(JDC: Juventud Demócrata Cristiana)의 급진파에 가입해서 정치적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를 이끌게 된다. 여기서 이들은 1세대 가톨릭대학 출신인 Eduardo Frei 정부를 ‘배반된 혁명(revolución traicionada)’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이런 급진화는 쿠바 혁명과 세계적인 대학개혁운동, 그리고 칠레의 대학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1968년부터 기독교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급진적인 MAPU를 설립했다. 물론 MAPU는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칠레 대학이나 다른 대학 출신들도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이데올로기, 역사적 기획, 현실분석에서는 칠레가톨

릭대학 출신들이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Gazmuri 2000, p. 111).

1970년 아옌데의 인민연합 정부가 들어선 이후 MAPU의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정이나 국영기업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그러나 MAPU의 탁월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학계 특히 칠레가톨릭대학에 남아서 경제학을 제외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을 통제했다. 동업자조합이나 시카고보이스에 비해 MAPU는 칠레가톨릭대학의 직접 산물은 아니지만 그의 지도부의 핵심이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으로서 그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칠레가톨릭대학이 다원적 엘리트 양성에 미친 영향력을 말해준다.

핵심 파워엘리트에 속하는 시카고보이스라 불리는 미국 대학 출신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은 대부분 칠레가톨릭대학 경제학과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시카고보이스의 탄생은 1959년 칠레가톨릭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교류협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이들 그룹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이후에도 이들은 칠레가톨릭대학 경제학과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칠레가톨릭대학 경제학과는 칠레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위한 지성의 전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사상을 칠레 모든 대학들에 전파하는 역할도 맡았다.

정치적 영역에서 또 다른 핵심 엘리트를 형성하는 동업조합주의자들의 모태도 또한 칠레가톨릭대학이다. 이들은 주로 이 대학 법대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1973년 이후 칠레가톨릭대학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동업조합주의자들의 칠레 가톨릭 대학 통제는 198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해에 칠레가톨릭대학의 총장인 Juan de Dios Vial C.는 비

록 자신이 동업조합주의자의 동조자였지만 대학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완화시켰다.

한편 칠레 대학 졸업생들은 칠레생산진흥공사(CORFO: 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de Chile)를 중심으로 공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CORFO를 설립한 공학도 그룹은 피노체트 이전에는 ‘시카고보이스’나 동업주의자들만큼이나 칠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엘리트 그룹이었다. 칠레 대학 졸업생들은 CORFO의 초기 수 십 년 동안 그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다. 나아가 CORFO와 그의 자회사들은 피노체트 쿠데타 이전까지 칠레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칠레 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CORFO를 형성한 Guillermo del Pedregal, Desiderio García, Rodolfo Jaramillo, Raúl Simón Bernard, Carlos Ramírez, Edmundo Delcourt와 같은 사람들은 주로 카를로스 이바녜스(Carlos Ibáñez) 1기 정부에 재무부 장관이던 Pablo Ramírez의 결정적 지원으로 공직을 맡기 시작했다.

이들 모든 전문가들은 칠레 대학과 연결되어 있었다. CORFO의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이바녜스 정부 1기 동안 재무부 장관 Pablo Ramírez의 팀에 가입한 Desiderio García가 주도했다. 그리고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포기되었던 CORFO 설립안이 Gustavo Ross 대통령 후보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그가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결국 그 안을 구체화 한 것은 인민전선 정부였다. 인민전선 정부는 국가발전의 모델로서 국가 주도의 중공업과 제조업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CORFO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실현할 능력과 재원을 가진 주체는 국가뿐이었다. 어쨌든 칠레 대학 출신의 CORFO 형성 그룹들은 1920년대에 시작해 1930년대까지 칠레 국가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

은 당시 칠레의 진보적, 민족주의적 근대화라는 정치적 미션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전자, 석유, 철강, 일부 식료품 부문의 국영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 칠레 대학은 칠레가톨릭대학과 달리 CORFO 그룹만큼 응집력 있고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룹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지 못했다. 물론 팔랑히스타스나 MAPU에도 칠레 대학 출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칠레가톨릭대학 출신들의 ‘시카고보이스’나 동업조합주의자와 같은 응집력 있는 그룹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1940년대부터 칠레의 응집력 있는 엘리트 그룹은 모두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핵심 엘리트 차원이 아니라 다원적 엘리트 차원에서 일반적인 수적 통계로만 보면 상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표 2-5]에서 보듯이

표 2-5. 칠레 대통령 출신 대학(1925~2012)

이름	재임 기간	출신 대학
Emiliano Figueroa	1925~1927	칠레 대학
Carlos Ibáñez	1927~1931, 1952~1958	사관 학교
Juan Esteban Montero	1931~1932	칠레 대학
Arturo Alessandri Palma	1932~1938	칠레 대학
Pedro Aguirre Cerda	1938~1941	칠레 대학
Juan Antonio Ríos	1942~1946	칠레 대학
Gabriel González Videla	1946~1952	칠레 대학
Jorge Alessandri Rodríguez	1958~1964	칠레 대학
Eduardo Frei Montalva	1964~1970	칠레 가톨릭 대학
Salvador Allende	1970~1973	칠레 대학
Augusto Pinochet	1973~1990	사관 학교
Patricio Aylwin	1990~1994	칠레 대학
Eduardo Frei Ruíz-Tagle	1994~2000	칠레 대학
Ricardo Lagos	2000~2006	칠레 대학
Michelle Bachelet	2006~2010	칠레 대학
Sebastián Piñera	2010~현재	칠레 가톨릭 대학

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필자가 정리.

1925년 신헌법 이후 6개월 이상 재임한 16명의 칠레 대통령 중 사관학교 (Escuela Militar)를 졸업한 Carlos Ibáñez와 Augusto Pinochet, 그리고 칠레가톨릭대학을 졸업한 Eduardo Frei Montalva와 현 대통령 Sebastián Piñera 네 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칠레 대학 출신이다.

장관이나 의원의 수를 보더라도 칠레 대학의 수적 우세는 마찬가지이다.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1925년부터 1999년까지 장관 출신 학교를 보면, 칠레 대학이 199명(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군사관학교가 66명(13%)이고, 칠레가톨릭대학은 57명(12%)로서 세 번째이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35명(7%)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공군사관학교도 13명(3%)로 그 뒤를 잇는다. 그 외에는 발파라이소 대학이 두명, 콘셉시온 대학이 1명 정도를 배출했을 뿐이다.

국회의원 수를 보아도 칠레 대학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 중에서 칠레 대학 출신은 476명(36%)으로 단연 선두이고, 다음으로 칠레 가톨릭 대학이 159명(12%)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콘셉시온 대학이 47명(4%)으로 그 뒤를 잇는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각각 26명(2%), 14명(1%)으로 의원 수에서는 미약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수적인 면에서 칠레의 다원적 엘리트 그룹은 장관직과 의원직을 평균하여 약 40% 정도가 칠레 대학 출신이며, 다음으로 11%가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콘셉시온 대학이 각각 5%, 3%, 3%의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칠레 다원적 엘리트 그룹은 칠레 대학과 칠레 가톨릭 대학이 사실상 지배하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콘셉시온 대학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나누어가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출신학교에 따른 장관 및 국회의원 수(1925~99)

학교	장관		국회의원	
	명	비율(%)	수	비율(%)
상급학교: Colegio Superior(CS)	1	0.20	13	0.97
재정과정: Curso Fiscal(o de Leyes)(CF)	6	1.22	21	1.57
기초교육과정: Educación Básica(EB)	2	0.41	20	1.49
중등교육과정: Educación Secundaria(ES)	16	3.26	151	11.27
농업학교: Escuela Agrícola(EA)	0	0.00	5	0.37
공군사관학교: Escuela de Aviación(Eav)	13	2.65	3	0.22
경찰학교: Escuela de Carabineros(Ecar)	10	2.04	3	0.22
육군사관학교: Escuela Militar(Emil)	66	13.44	26	1.94
해군사관학교: Escuela Naval(Enav)	35	7.13	14	1.04
사범학교: Escuela Normal(EN)	0	0.00	35	2.61
기술학교: Escuela Técnica(ET)	1	0.20	24	1.79
해외학교: Estudios en el Extranjero(EE)	8	1.63	28	2.09
기술전문학교: Instituto Técnico Profesional(ITP)	0	0.00	32	2.39
칠레가톨릭대학: P.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PUC)	57	11.61	159	11.87
세미너리: Seminario(Sem)	0	0.00	2	0.15
자료 없음: Sin datos(s/d)	69	14.05	229	17.09
무학 혹은 독학: Sin Estudios(o autodidacta)(s/e)	0	0.00	3	0.22
칠레 아우스트랄 대학: Univ. Austral de Chile(UAus)	0	0.00	1	0.07
테무코 가톨릭 대학: Univ. Católica de Temuco(UCTe)	0	0.00	1	0.07
발파라이소 가톨릭 대학: Univ. Católica de Valparaiso(UCV)	1	0.20	14	1.04
노르테 가톨릭 대학: Univ. Católica del Norte(UCN)	0	0.00	1	0.07
아타카마 대학: Univ. de Atacama(UAtac)	0	0.00	1	0.07
콘셉시온 대학: Univ. de Concepción(UCo)	2	0.41	47	3.51
코피아포 대학: Univ. de Copiapó(UCop)	0	0.00	1	0.07
칠레 대학: Univ. de Chile(UCh)	199	40.53	476	35.52
칠레 산티아고 대학: Univ. de Santiago de Chile(Usach)	0	0.00	14	1.04
탈카 대학: Univ. de Talca(UTalca)	0	0.00	1	0.07
탈카 우아노 대학: Univ. de Talcahuano(UTal)	0	0.00	1	0.07
발디비아 대학: Univ. de Valdivia(UVald)	0	0.00	1	0.07
발파라이소 대학: Univ. de Valparaiso(UV)	4	0.81	11	0.82
페데리코산타마리아 기술대학: Univ. Téc. Federico Sta. María(UTFSM)	1	0.20	2	0.15
총계	491	100	1,340	100

자료: Gazmuri(2000), p. 124.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피노체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장관직(두 학교 합쳐서 전체의 38%)을 맡았을 뿐, 민주화 이후에는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콘셉시온 대학도 민주화 이후 장관직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으나 의원직은 20명으로 9% 정도를 차지했다. 칠레가톨릭대학도 피노체트 정부 시절에 장관직을 차지한 비중이 전체의 21%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7%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의원직 비중은 15%로 여전히 높다. 반면 피노체트 시절 장관직의 19%만을 차지했던 칠레 대학은 민주화 이후 그 비중이 거의 76%로 올랐다. 의원직 비중도 민주화 이후 40%로 매우 높다(Gazmuri, 2000, p. 125).

반면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의 피네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은 다원적 엘리트 그룹에서도 수적으로 다시 크게 부상했다. 피네라는 경영인 시절 Bancard와 Citi 은행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어서도 장관직을 임명할 때 칠레가톨릭대학의 제자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그의 참모로 활용했다. 그에 따라 22명의 장관 중에서 17명을 칠레가톨릭대학출신으로 임명했다. 그 비중은 전체의 약 77%에 달한다(*La Tercera*, 2010.12.26).

결론적으로 칠레대학은 1925년부터 지금까지 칠레의 다원적 엘리트 배출에서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정부 아래서 그들의 지배적 역할은 수적으로 보다 공고화되었다. 물론 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우파인 피네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이후 칠레 정치 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엘리트는 대부분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이다. 경제적으로 가톨

릭대학 출신 시카고보이스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룹은 칠레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이끌어왔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이후 오늘날까지 칠레 정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1980년 헌법을 기안한 사람들도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의 동업조합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현재 칠레 최대의 정당이자 칠레 정치를 사실상 리더하는 UDI의 핵심 구성원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프로젝트를 가지기보다 이들 칠레가톨릭대학 출신의 시카고보이스와 동업조합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기획을 뒤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한편 도덕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칠레가톨릭대학 출신들이 칠레 사회의 정신적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Opus Dei나 그리스도군단과 같은 보수적 가톨릭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칠레 사회의 보수적 도덕성을 주도하고 있다.

나. 칠레 엘리트의 통치방식

칠레 엘리트 그룹은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세력도 도전할 수 없는 헤게모니 권력을 유지했다. 칠레 엘리트의 정치적 헤게모니는 19세기 말 중산층을 대변하는 급진당과 민주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위협받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또한 엘리트 지배구조를 흔들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칠레의 엘리트 지배구조도 서서히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929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사회주의나 조합주의를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칠레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자체에 위협을 가했다. 그에 따라 엘리트 그룹에서도 대중에 호소하는 세력들이 등장했고, 엘리트 그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칠레 엘리트들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실상 주도적 대안 없이 방어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기에 다양한 도전을 받았음에도 개혁에 제동을 걸었으며, 대토지소유제를 유지했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력을 오히려 확대해왔다. 그들은 비록 대통령을 자신의 그룹에서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개혁세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그들과 협상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엘리트 그룹은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행정부 권력은 상실했지만 의회에서 자유당과 보수당 합쳐서 40%가 넘는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보존할 수 있었다. 물론 아옌데 정부의 실질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칠레 엘리트 그룹은 무력에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이후 칠레 엘리트는 유효하고 잠재력 있는 자본주의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이제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의 전면에서 경제 사회 질서를 새롭게 편성하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었다. 최근 칠레 정치를 특징짓는 1980년 헌법과 경제를 대표하는 신자본주의 모델이 바로 칠레 신엘리트 그룹의 주도적 개입의 산물이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 하이메 구스만을 중심으로 한 신엘리트 그룹이 추구한 가치는 가톨릭의 정치적 전통과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구스만은 기존의 조합주의도 포기했다. 그는 국민주권을 뛰어넘는 상위의 가치를 추구했다. 그것은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러한 가치는 경제적으로 신자본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시장경제를 위해서 정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에 제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1980년 헌법의 지명 종신 상원의원제(보통선거의 공평한 대표성과 위배되고, 민중의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최근에 폐지됨)와 양당제 선거제도(3분의 1을 조금 넘는 득표율로 의회에서 반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공산당과 같이 반체제적인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헌법은 정치질서를 군부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군부에 제도의 최종 보증인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구스만이 실제로 설립한 제도는 군부정권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핵심 엘리트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열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기회였던 1982~83년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피노체트 이후 신정치 엘리트로 등장한 동업조합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신헌법을 통해 제도를 확립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이식을 확고히 한 후, 구스만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피노체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민주화 일정을 계획하고 그를 위한 정당을 조직했다. 그의 목표는 그들 뒤에 칠레 우파 엘리트를 결집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독립민주연합(UDI: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1983년 그의 정치적 동지들과 그의 가톨릭 대학 법과대학 제자들(그는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중단하지 않았다)을 중심으로 UDI를 설립했다. UDI는 가톨릭 정신에 기반을 두고 후원자적 관계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다

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UDI는 1991년 구스만의 암살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동료와 학생들이 통제했다. 따라서 UDI는 아직까지도 구스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UDI는 구체적 정책에서 실용적 입장을 취함에도 시장경제와 도구적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틀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UDI의 실용주의도 그러한 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1973년 이전 엘리트 정당들은 개혁주의의 압력에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 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명백한 계급 이익을 가지면서도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혁주의와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방어해왔다. 그들은 사회의 변화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명을 피하기 위해서 개혁주의와의 타협과 양보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아시엔다 체제, 기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회에서의 대표성 확보라는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는 한 필요한 모든 것을 타협할 수 있었다.

한편 UDI를 설립한 신엘리트 정치인들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압력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과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필수조건만 유지되는 한 정치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과거의 우파 엘리트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고수했다면, 피노체트 이후 우파 엘리트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 군부를 마지막 카드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권위적 성격을 띤다.

군부에 의존하지 않았던 과거의 우파는 의회를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정치 장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통 엘리트 정치인들도 1964년 이후 의회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정치

적 방안을 찾게 되었다. 새로이 설립한 국민당(PN: Partido Nacional)을 통해 대중동원에 호소했고, 혁명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중산층을 새로운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결국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칠레 엘리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국가 엘리트에 비해 다시 높게 나타난다. 민주주의가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한 엘리트들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지지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비록 한때 쿠데타를 지지했지만 제도적 틀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한 기본적으로 민주적 제도의 틀을 선호한다.

실제로 피노체트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정치 엘리트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엘리트에 비해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 성향이 비교적 낮다. Stevens 등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 칠레의 엘리트가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엘리트는 칠레 엘리트보다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았다(Stevens, Bishin and Barr 2006, p. 610).

한편 다른 시대의 칠레 기업가 그룹과 달리 피노체트 이후 새로운 경제 엘리트 그룹은 발전모델에 대한 명백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1990년대 칠레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근대화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역할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은 단지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가치적 범주에까지 확산된다. 그들은 또한 칠레 사회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과 모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라고 믿고 있다. 성장은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기업이라는 생각이다. 1980년대 말부터 GDP의 약 80%를 기업이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발전도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칠레의 신엘리트 그룹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국가의 역할 감소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이러한 정치경제관에 따라 정치적으로 대다수의 칠레 신엘리트 그룹은 기본적으로 우파 정당을 지지한다. 그것은 대다수 엘리트들의 피노체트에 대한 지지로도 명백히 드러났다. 정당에 대한 경제 엘리트들의 전반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파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물론 신경제 엘리트의 일부는 우파 정당과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지지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정치로부터 독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안젤리나나 룩식 가문과 같은 신경제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우파를 선호하고 우파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성향의 정치세력과의 유연하게 손을 잡는다. 칠레의 전통적 경제 엘리트들은 우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칠레 신경제 엘리트들은 더 이상 우파만 지지하지는 않는다. 197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 변화는 칠레 경제 엘리트들과 정치의 관계를 바꾸어놓았다. 현재 칠레 경제 엘리트들 중에는 콘세르타시온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한때 자본주의와 기업가의 이익에 반대하는 좌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없지 않다(Melnick y Hales 2009, p. 119).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칠레 경제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우파 정당이다. 과거 칠레의 경제, 언론, 종교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주로 보수당이나 자유당과(혹은 일부 급진당과도)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이들 정당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관직이나 의회와 정당에서 주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지배 엘리트가 되었다.

실제로 과거 경제 엘리트 조직의 위원들 중에는 우파 정당의 지도부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45년 전국지주연합(SNA: Sociedad Nacional Agricultura)의 85명의 이사들 중에서 여섯 명은 보수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었고, 세 명은 자유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었으며, 한 명은 급진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었다. 또한 이사들 중 두 명이 장관이 되었으며, 여섯 명이 상원의원 되었고, 13명이 하원의원이 되었다(Carrière 1981).

특히 기업가 조직들 중에서 Sofofa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에 따라 Sofofa의 초기 세 명의 회장인 Agustín Edwards Ross, Ramón Barros Luco, Domingo Matte Pérez는 모두 산업, 금융, 상업, 농업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Ramón Barros Luco는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Agustín Edwards Ross는 상원의원과 재무장관을 지냈고 칠레 최대의 일간지 『엘 메르쿠리오』를 소유했다. 한편 Domingo Matte Pérez의 아들 Arturo Matte Larraín은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 20세기에 세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알레산드리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Arturo Matte는 재무부장관과 상원의원을 거쳐 1952년 우파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Arturo Matte 자신을 포함해 그의 친족그룹

구성원은 1920년부터 1970년까지 50년 사이 치른 대선에서 일곱 번이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엘리트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기업가 조직을 통한 로비나 압력, 주요 정부 요직에의 진입, 그리고 언론과 주요 싱크탱크의 지배를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악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상당수의 신경제 엘리트들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비즈니스에만 몰두한다. 또 어떤 기업인은 정치보다는 기업가 조합 조직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경제 엘리트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가 조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 현재 칠레 경제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가 최대 조직은 CPC이다. CPC의 설립은 사실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레의 경제 엘리트들은 당시 증대하는 노조의 힘에 맞서고, 보다 개입이 늘어나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 엘리트 조직들을 통합하는 CPC를 설립했다. 당시 그들은 정치적 지지를 우선하는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조직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에 따라 CPC를 설립했다.

CPC의 설립은 경제 엘리트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라 SNA 회원의 다수는 상업이나 산업, 금융업, 광산업에 관심을 가졌고 은행이나 기업을 직접 소유하기도 했다. 한편 Sofofa 회원의 다수는 기업가인 동시에 대지주였다. 각 부문 경제 엘리트들의 이러한 상호연결은 결과적으로 경제 엘리트들을 핵심적 안전에 대해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물론 보호주의나 관세 등 구체적 사안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의 경제개입, 세

제문제, 노동운동의 통제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칠레의 부문 경제 엘리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 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지배계급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우선했다. 따라서 현재 CPC는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CPC는 산하에 여섯 개 조직을 두고 국내 모든 생산과 서비스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여섯 개 조직은 1838년에 설립된 전국지주연합(SNA), 1883년에 설립된 전국광산업자연합(SNM: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역시 1883년에 설립된 제조업촉진연합(Sofofa), 1951년 설립된 칠레건설업자회의소(CCC: Cámara Chilena de la Construcción), 1958년 설립된 전국상인회의소(CNC: Cámara Nacional de Comercio), 은행 및 금융기관 협회(ASIF: Asociación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as)이다. 이들 하부 조직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은 2,500개 기업, 38개 부문별 단체, 8개 지역별 기업 조합으로 구성된 Sofofa이다. Sofofa는 다른 조직에 비해 기업가들의 이익을 공적으로 대변하는데 여전히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칠레의 기업가 연합 조직들은 단순히 이익단체라기보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다. 심지어 과거에는 경제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들 엘리트 그룹들에 법적인 대표성을 부여했다. 1970년대 말까지 각 직업군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 각 엘리트 조직들은 이런 기능을 맡기 위해 물론 자신들이 각 경제 부문에서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대표기관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를 위해 이들 조직들은 회원을 확대했다. 물론 새로운 회원의 영입으로 인해 조직의 과

두 지배체제적 성격이 변하지는 않았다(Correa Sutil, 2011, pp. 39-40).

기업인들이 정부 핵심 요직에 참여하는 일을 과거부터 매우 흔한 일이었다. 최근에도 피네라 정부에서 기업 관련 인물들의 행정부 참여가 확대되었다. 피네라 정부의 경제관료 그룹들은 기업인 경제 엘리트 그룹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기업인 출신인 피네라 대통령 자신이다. 외교부 장관인 Alfredo Moreno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Banco Prenta의 부행장과 Del Río 그룹의 지주회사인 Dersa의 부회장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칠레 기업합리화연구소(Icare: Instituto Chileno de Racionalización de Empresas) 소장을 맡기도 했다. 그를 통해 그는 기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피네라 정부 경제정책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Felipe Larraín과 Juan Andrés Fontaine도 주요 경제 그룹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Larraín은 칠레 최대 기업가 그룹인 안젤리니 그룹의 지주회사인 AntarChile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Fontaine는 또 다른 칠레 대표 기업가 그룹인 룩식 가문의 지주회사인 Quiñenco의 이사직을 맡았다. 그는 또한 금융자문회사 Fontaine & Paul을 설립해 수많은 기업들을 위해 일하기도 했다.

2011년 개각에서도 기업과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발탁되었다. 통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Pedro Pablo Errázuriz는 LAN의 주주이자 Lan Express의 경영자였으며, 또 관광회사 Tur Bus의 고문이기도 했다. 에너지 장관에 임명된 Ricardo Raineri는 이탈리아계 다국적기업 Endesa와 Matte 그룹을 위해 일했다.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를 대신해 에너지 장관직을 겸임하게 된 광업부 장관 Laurence Golborne는 또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 Guacolda에서 이사직을 수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기업

인들이 설립한 대학 설립자 중 한 사람인 Joaquín Lavín이 임명되었다면, 보건부 장관에는 칠레 부유층을 위해 가장 배타적인 사립병원인 라스콘데스 병원(CLC: Clínica Las Condes)의 원장인 Jaime Mañalich가 임명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네라 정부는 ‘기업인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피네라 정부의 관료들은 또한 피노체트 정부의 전 관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대표적으로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Cristián Larroulet은 피노체트 정부의 가장 유능한 재무부 장관이었던 Hernán Büchi의 오른 팔로서 ILD를 함께 설립하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정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Büchi는 은행감독원장 시절 당시 중앙은행연구소장으로 있던 Fontaine와의 인연을 계기로 그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Büchi는 피네라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1989년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피네라는 그의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피네라가 Büchi와 사전 모임을 가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Büchi는 피네라의 정책이 우파의 전통적 처방과 다르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우파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Büchi 중심의 전통 우파와 피네라 중심의 신우파로 나누어져 있다(Fazio Rigazzi 2011, p. 36).

경제 엘리트들의 정치력은 그들의 동질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로비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 엘리트들의 언론과 주요 싱크탱크 지배를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악이다.

칠레 엘리트 그룹의 언론 지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했다.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언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모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지원한다. CEP이나 자유와발전연구소(ILD: Instituto Libertad y Desarrollo)는 그의 대표적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Matte 그룹이 재정을 지원하는 CEP은 학문적 연구기관으로서 기업가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엘 메르쿠리오』 편집장의 아들인 Arturo Fontaine Talavira가 주도한 CEP은 엘리트 그룹의 대표적 싱크탱크이다. CEP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이후 1990년대에 걸쳐 FLACSO와 같은 중도좌파 싱크탱크와 다양한 세미나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ILD도 신자유주의 사상 정착과 피노체트의 유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Büchi의 영향 아래에 있는 ILD는 피네라 정부 관료 그룹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ILD는 약 20년 전 콘세르타시온 정부가 출범할 무렵 Büchi를 중심으로 피노체트 정부의 내무부 장관이던 Carlos Caceres와 Cristián Larroulet, Luis Larrain(현 연구원장) 등이 설립했다. ILD의 설립목적은 처음부터 Büchi의 정통파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확산을 위한 것이었다. 피네라 정부가 들어서자 ILD 간부의 상당수가 정부로 이동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언급한 비서실장 Cristián Larroulet 외에도 정부 대변인 Ena von Baer, 경제기획부 장관 Felipe Kast, 경제부 차관 Tomás Flores, 예산국장 Rosanna Costa 등이 피네라 행정부로 들어갔다. 그에 따라 ILD는 Patricio Aylwin 정부에서 Cieplan, Michelle Bachelet 정부에서 Expansiva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만큼 피네라 정부에

미치는 Büchi의 영향력도 강력하다.

피네라 정부 아래서 요직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또 다른 우파 연구기관으로는 ‘칠레를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이메 구스만 재단(Fundación Jaime Guzmán)과 피네라의 선거 캠페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탄타우코 그룹(Grupo Tantauco)을 이끈 María Luisa Brahm을 비롯해 현재 모네다 궁 이층 비서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자유연구소(Instituto Libertad)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배후에서 엘리트 그룹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나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거나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피네라 정부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중도우파로 향하는 경향을 보여줌에 따라 최근 우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그것은 내무부 장관 Hinzpeter와 비서실의 Brahm을 중심으로 하는 신우파 그룹들과 정통파 경제 처방의 원칙을 강조하는 전통 우파 그룹이다. 전통 우파 그룹의 리더는 앞서 언급한 Hernan Büchi 외에도 ILD의 원장인 Luis Larraín, UDI의 강경파 리더 Pablo Longueira, UDI 대표인 Hernan Larraín, UDI 전 대표이자 현 상원의원인 Jovino Novoa 등이다.

Luis Larraín이 최근 『엘 메르쿠리오』(2012.07.07: C4)에 발표한 한 칼럼에는 전통 우파의 기본 정치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정치적 지지를 위한 실용적 정책보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소수의 권리와 자유기업의 원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러한 원칙 아래에서 개인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덕목이며,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정치 혹은 정당은 인기보

다는 그러한 원칙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대해 UDI의 강경과 리더이면서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Pablo Longueira는 RN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원칙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치는 대중의 인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과 원칙을 가진 정치인들이 합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El Mercurio* 2012.07.07: C2).

이처럼 칠레의 전통 우파는 집권보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사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들의 목적은 비록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언론, 연구소, 기업가 조직 등 다양한 압력 기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칠레 사회에서 엘리트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를 통해 체제를 유지한다. 칠레 엘리트의 통치 방식은 바로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집권을 하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칠레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과정을 통제하며 따라서 칠레를 사실상 지배하는 세력은 UDI이다(Belmar 2012).

결론적으로 칠레의 신엘리트 그룹들은 초등교육기관부터 전문적 학계에까지, 동업자 조합에서부터 정당까지, 종교계에서 행정부까지, 언론에서부터 연구기관까지를 포함하는 다각적 연결고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런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격이든 어떤 조직을 통해서이든 엘리트 그룹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Contreras 2002, pp. 46-47).

신경제 엘리트들은 정치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사법적, 학문적 지배층과 여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기업적·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부문에 정부나 의회에 다각적 접근

통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군부나 경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피노체트 체제 아래서 맺은 군 고위층과의 우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도 신경제 엘리트들은 전통적 경제 엘리트 그룹과 마찬가지로 Opus Dei나 그리스도의 군단과 같이 극히 보수적인 가톨릭 단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사립대학을 운영하거나 산학협력 정책 등을 통해 대학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신경제 엘리트 그룹은 다양한 세력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필터를 거치지 않는 정치적 의제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다양한 세력들과의 관계는 주로 배타적 사교클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클럽 가입은 단지 재산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엘리트 가문의 성을 가지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문의 사람을 대부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권위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견해도 같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향도 같아야 하며, 행동방식도 유사해야 한다. 신경제 엘리트 그룹들은 정치적 유연성과 같은 측면에서 비록 과거 전통 경제 엘리트 그룹과 다소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하지만 종교적 보수성, 가문 중시, 엘리트적 행동양식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전통적 엘리트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칠레를 실제로 지배하는 세력은 가문 중심의 경제 엘리트 그룹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익은 정치적으로 UDI, 경제적으로는 흔히 ‘시카코 보이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방어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들의 지배는 『엘 메르쿠리오』와 *La Tercera*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 UDI나 ILD와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교회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런 구조를 통해 칠레의 엘리트 지배 사회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하고 있다.

5. 결론

칠레 엘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성이다. 그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초기의 전통적 귀족 엘리트가 소멸되고, 18세기 이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새로운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은 주로 상업이나 광업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다, 스스로 토지를 매입하고 귀족 작위를 받거나, 카스티야 귀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존의 지주 귀족 엘리트를 대신해 새로운 지주 귀족 엘리트가 되었다. 이때 형성된 이른바 카스티야-바스크 지주 엘리트 그룹은 20세기 초반까지 칠레 사회를 사실상 지배했으며,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칠레 엘리트 그룹은 이들을 중심으로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독립 직후 산티아고 중심의 지주 엘리트는 식민지 시대부터 마푸체 접경 지역으로 군대가 집중되어 있던 펜콘, 즉 콘셉시온 출신의 카우디오들의 도전을 받았다. 그들은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고, 독립 직후에는 대통령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도 지주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펜콘 출신 정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실질적 지배 엘리트는 여전히 산티아고 중심의 지주세력들이었다.

독립 직후의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일부 산티아고 지주 엘리트와, 초석광산의 붐을 타고 새롭게 부를 획득한 신흥 엘리트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의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이때 엘리트 그룹은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차이라기보다 단순한 삶의 스타일 차이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은 지속적으로 분열하기보다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혼 등 다양한 인적 관계를 통해 하나로 결속된 동질적 엘리트 그룹을 형성해나갔다.

칠레에서는 기업보다 그 뒤에 존재하는 가문이 더 중요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금융, 상업, 광업, 제조업 등으로 부를 획득한 가문들은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광범위한 친족 경제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이들은 전통 지주엘리트 가문들과도 인척관계를 맺는데 그를 통해 형성된 약 10개 정도의 가문이 20세기 칠레 엘리트의 중핵부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엘리트 가문들은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지배가문이 되었다. 즉 칠레에서는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가 같등하고 경쟁하기보다 하나의 단일한 권력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였다. 피노체트 정부 이후 콘세르타시온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한 신경제 엘리트 그룹은 과거와 같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는 감소했지만, 다양한 인맥과 방법을 동원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 엘리트 그룹은 신경제 엘리트 그룹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의 신정치 엘리트들은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민주당의 급진화에 반대하는 칠레가톨릭 대학 법학부의 보수적 학생들이 주축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칠레의 전통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언론도 전통 경제 엘리트 가문인 에드워드가와 Saieh가 지배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흥 경제 엘리트 가문인 세바스티안 피네라가 언론계의 영향력 있는 새 인물로 등장했다.

또한 칠레의 엘리트 그룹들은 보수적 가톨릭 교육기관을 통해 보수적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심어주고, 그들끼리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동질적 그룹의 특징을 유지했다. 그러한 모습은 고등교육의 엘리트 층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칠레 엘리트의 대부분은 칠레 대학과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들이다. 특히 피노체트 이후 핵심 엘리트들은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칠레엘리트의 단일성을 보다 강화한다.

게다가 칠레의 엘리트 사회는 매우 폐쇄적이다. 칠레 엘리트 사회는 배타적이라는 의미에서 봉건 귀족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배타성이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그의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부르주아적이다. 따라서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봉건적 귀족과 근대적 부르주아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칠레 엘리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신 최근에 칠레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특히 미국 일류 대학에서의 석박사)의 교육 과정을 통한 인맥 형성과 전문적 지식의 획득이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획득한 엘리트 그룹의 '우수성'이라는 일반적 믿음은 이들이 칠레 사회를 지배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통한 엘리트의 층원이라는 방식이 엘리트 그룹의 다원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기회의 제한성으로 엘리트 사회의 단일성을 강화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칠레 엘리트 사회의 단일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제3장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
3.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페루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1. 서론

페루의 엘리트 집단은 주로 리마를 중심으로 거주하지만 최근 그 밖의 다른 주요 도시로도 영향력을 넓히며 페루의 정치 및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식민시대의 권력구조가 독립 이후에도 유지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루 역시 식민시대의 권력구조 특히 엘리트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 혹은 메스티소에 비하여 스스로를 ‘교육 받은(educado)’ 혹은 ‘문명의(culto)’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원주민 및 메스티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였다. 이후 근대 페루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

오늘날 페루 엘리트는 여전히 페루의 리마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지만, 페루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밀림 지역에서도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다. 페루 엘리트의 주요한 특징은 회원제 사교클럽과 경제인 모임들을 통해 정치 및 경제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 또한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들의 권력은 식민 시기부터 소유해온 막대한 양의 토지에서 기원하였으나 1960년대 농민들의 토지 점거 그리고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이들의 토지점유율은 감소하였다. 토지개혁으로 농지를 빼앗긴 엘리트들은 농지개혁과 함께 추진된 페루 산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페루의 산업부문을 장악해나갔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광산업은 물론 이후 발달한 제조업과 금융업도 페루 엘리트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79개의 가문이 1989년 당시 12개의 주요 보험 및 은행들을 장악하였으며, 이들 가문의 거의

절반이 유럽계 백인 가문이라고 보고되었다(U.S. Library of Congress). 이렇듯 경제권력을 확고히 한 페루의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페루 엘리트들의 대한 본 연구를 통해 페루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정치·경제의 두 분야에서 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분야 외에서 형성된 군부 엘리트들 역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페루 엘리트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

가. 식민시대

식민시대와 함께 잉카 제국은 무너지고 기존의 사회 구조는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다. 우선, 잉카 제국의 붕괴와 식민화는 기존의 권력구조가 붕괴하고 인종에 기반을 둔 계급구조를 개편해 식민 시스템을 고착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인종구조는 당시 식민지의 토지를 분배하는 기준이 되었다. 잉카의 전통적 엘리트는 무너지고,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온 식민주의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식민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최고의 지도자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잉카 제국에서도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스스로를 스페인에서

은 새로운 문명의 지도자로 칭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잉카 황제들의 대를 잇는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페인 국왕뿐 아니라 잉카 제국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지도자로 군림하고자 하였다(Rosas 2010, pp. 109-111).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예인 크리오요(Criollo)은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에서 파견된 유럽계 백인인 페닌슐라레스(Peninsulares)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 엘리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들은 교육과 종교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페닌슐라레스와의 갈등도 격화되었다(Rosas 2010, pp. 111-112). 크리오요는 페닌슐라레스가 독점하던 교회에 대한 통제에 도전하였고, 그 결과 교회 내에서의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았다. 나아가 크리오요들은 페루의 가장 오래된 대학인 산 마르코스 대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학 교육 기관들을 세우고, 학술단체들 역시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갔다. 이를 통해 크리오요들은 식민시대부터 이미 페루 사회에 대한 경제·정치적 지배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갔고, 이후 독립운동에서 필요한 사상적 틀을 마련해나갔다(Rosas 2010, pp. 136-139).

나. 독립과 19세기

페루의 독립운동은 크리오요와 메스티소가 함께 페루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은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식민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한 다양한 식민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당시 크리오요들은 이미 식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었으며, 교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정치력 또한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회와 대학을 장악하고 학계를 주도해나간

크리오요들이 이들 제도를 통해 크리오요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스페인은 식민지에 대한 다양한 지배 강화, 특히 교회와 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응했다(Miller 1982, pp. 97-98).

대부분의 페루 크리오요들은 스페인의 이러한 통제 강화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이 스페인 국왕에 대한 불만으로 직접 연결된 계기는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이었다. 이를 목도한 페루 부왕은 페루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화책을 도입하였다. 페루 독립운동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스페인의 식민지 통제에 대해 페루 크리오요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음에도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산마르틴에 의해 독립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페루 크리오요들이 다른 어떤 지역의 크리오요들보다 스페인의 지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며, 오늘날 페루의 엘리트들의 갖는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Rosas 2010, pp. 156-159).

독립과 함께 페루 사회는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페루 크리오요들은 독립과 함께 페루의 새로운 부르주아지로 성장했다. 이들은 강력한 수출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페루가 보유한 자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과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리마를 중심으로 한 페루의 해안 지방 출신들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페루 엘리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30~40개의 가문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으며, 가문 간의 결혼을 통해 이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같은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함으로써 긴밀한 학연 또한 구

축되었다. 이들은 이 시기부터 시민당(el Partido Civil), 엘 클럽 나시오날(el Club Nacional), 라 베네피시엔시아(la Beneficiencia) 및 국회와 페루의 대표 대학인 산 마르코스 대학을 장악했고, 은행, 언론사, 무역협회 그리고 소시에다드 나시오날 아그리아(Sociedad Nacional Agraria) 등의 국가 주요 조직들을 운영하고 통제하였다. 이 시기 주요 엘리트 집단을 구성했던 가문은 아스피야가스(Aspillagas), 파르도스(Pardos), 프라도스(Prados) 그리고 미로 케사다스(Miró Quesadas) 가문이며, 이들은 모두 클럽 나시오날(Club Nacional)의 주요 구성원들이었다(Miller 1982, pp. 98-100).

1985년부터 1919년까지는 이른바 ‘귀족적 공화정(República Aristocrática)’이라고 불리는 시기로 이 시기 페루의 경제 및 정치의 토대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농업과 광업에 기반을 둔 수출 중심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설탕과 은 중심의 식민시기 수출산업이 쇠퇴했다. 나아가 식민시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은행 및 금융업이 리마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급격히 성장한 수출 산업 뿐 아니라 금융업 또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이 시기에 구축되었다(Miller 1982, pp. 100-102).

해안지역 특히 리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엘리트 그룹과 함께 또 다른 엘리트의 축을 형성하는 그룹은 구아노와 초석을 생산하던 지방의 광산업자들이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당시까지 강력한 정치력을 포함하여 페루의 지배적 엘리트 계급을 형성했으나 이후 리마를 중심으로 성장한 신흥 엘리트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 시기 소수의 경제 엘리트들이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페루 경제를

좌지우지했다면, 정치 부문 역시 일반 대중은 소외된 채 몇몇 정치 엘리트가 주도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독립 이후 페루 정치를 지배했던 계급은 전통적인 지주계급이나 독립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계급이 아니라 경제부분과 마찬가지로 리마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민당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비교적 견고한 엘리트 구조를 완성한 경제부문과는 달리 정치부문에서 엘리트의 권력은 끊임없이 분화했고, 그 결과 갈등의 요소가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Miller 1982, p. 101).

이 시기 정치권력이 불안정했던 원인은 엘리트들이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 혹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리마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장악한 정치 엘리트들은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국정 장악력 특히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리마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 내의 갈등을 봉합할 만한 계기 또한 마련되기 어려웠다. 1895년 이후 페루의 정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페루의 이른바 민간 정부 구성은 시민당과 피에롤라(Piérola)가 이끄는 민주당(Democrata)의 연합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1902년에 들어서야 이들 연합은 확장되어 다른 정치 엘리트 그룹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정하나마 유일한 정치 연합이 완성되자마자 1904년 대선을 앞두고 이 연합은 파기되고 만다. 1904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도(Pardo) 정부 하에서 이러한 분열은 극복되는 듯 보였으나, 1908년 레기아(Leguía)

정부가 들어서자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 시작된 정치권 엘리트의 분열과 갈등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고, 이러한 엘리트 간의 갈등과 제도권 정치의 불안정성은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도 페루 정치 엘리트의 가장 강력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Miller 1982, pp. 103-105).

다. 20세기

20세기 들어서도 앞에서 언급한 엘리트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페루의 정치 및 경제 질서가 고착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 그룹이 독점한 경제 및 정치 부문에 대한 불만 또한 커져갔다. 특히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노조운동과 개혁적 정당들이 소수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두제를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엘리트들은 이러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으며, 정치 및 사회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가 더 이상 그들의 독무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Reyna 1997, p. 32).

이후 점차 사회 갈등은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의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zsco Albarado) 장군이 일으킨 쿠데타이다. 이 사건으로 소수 엘리트들의 오랜 권력은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쿠데타의 주역들이 꿈꾸었던 이상, 즉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 엘리트들의 오랜 권력을 소멸시키리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들이 상상했던 바와는 달리 낡은 과두 세력은 사라졌으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 엘리트들이 성장했고 이들

은 리마 중심의 오랜 엘리트 구조 속에서 잉태되었다. 특히 1990년대 신 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의 등장으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구조는 약화되었으나 산업 엘리트들의 권력과 경제구조에 대한 지배는 강화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화와 함께 출현한 신흥 엘리트는 벨라스코 정권에서 추진한 농지 개혁의 결과로 토지 소유 및 농업보다는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특히 광업, 금융업, 어업 및 건설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 페루 정부가 벨라스코 정부에서의 농업개혁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 양상은 좀 달라졌으나, 신흥 엘리트들은 농업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산업화와 함께 새로 등장한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은 이전의 엘리트들과는 달리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해외 자본과는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yna 1997, pp. 32-22).

벨라스코 정권의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은 재빨리 쿠데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 결과 무역협회가 새 정권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 엘리트들은 철

표 3-1.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950~68)

(단위: %)

구분 \ 연도	1950	1955	1960	1965	1968
농업	22,6	21,5	20,9	16,9	15,0
어업	0,4	0,6	1,6	1,7	2,1
광업	4,5	5,1	7,1	6,0	6,0
제조업	12,5	14,8	16,6	18,5	20,2
기타	58,9	58,0	53,8	56,9	56,7

자료: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저하게 소외되었다. 당시 정권과 경제 엘리트 간의 소통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조직인 페루 경영연구소(IPAE: Instituto Peruano de Administración de Empresas)는 1959년에 설립되어 ‘페루 경영문화의 과학화’(Durand 1998, p. 259)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이후 IPAE는 매년 기업인 총회(CADE: Conferencia Anual de Ejecutivos)를 주최했는데, 총회를 통해 기업인들은 정부의 주요 인사 특히 군부 인사들과 인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리마를 중심으로 이미 성장하기 시작했던 베르케메에르(Berkemeyer), 페레로(Ferrero), 아울로(Ayulo), 프라도(Prado) 그리고 미로 케사다(Miró Quesada)와 같은 엘리트 가문들이 총회를 통해 군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Durand 1998, p. 259).

그 결과, 이른바 경제 엘리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으며, 수출과 관련 없이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페루 경제 엘리트들이 강세를 보이던 목재, 맥주, 음료수 부문을 장악했고 이어 의류 산업에도 진출했다. 니콜리니(Nicolini), 도오노피리오(D’Onofirio)는 식료품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룹이었고, 사르파티(Sarfati)와 롤라스(Lolas)는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그리고 오스톨라사(Ostolaza)는 목재와 가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의 창업주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1세대이었는데, 이들은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Ferner 1979, pp. 272-274).

군부와 산업 엘리트 간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코 정권의 공식적인 담론 속에서 엘리트 그룹은 정권의 ‘적’으로 지칭

되곤 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벨라스코 정권의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그 결과 벨라스코의 혁명은 ‘모호한 혁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Vasque H. 2000, p. 44).

하지만 벨라스코 정권과 산업 엘리트 간의 밀월 관계는 1970년 벨라스코 정권이 페루 경제 엘리트들과 해외 자본가들이 소유하던 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냉각되었다. 금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 법률은 해외 자본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 및 몇몇 페루 경제 엘리트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갖고 있던 막강한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이 조치를 통해 국가는 외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몇몇 경제 그룹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그 결과 기업인들은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민간부문은 벨라스코 정권의 개혁조치가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였다(Vasquez H. 2000, p. 45).

1970년대 말 군부의 위기와 사회운동 세력의 성장은 페루 엘리트들이 결속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 벨라스코 정권이 물러나고 뒤를 이어 집권한 프란시스코 모랄레스(Francisco Morales) 장군은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페루 경제 엘리트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 주요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일례로 페루의 가장 큰 건설재벌의 총수인 왈테르 피아사(Walter Piazza)는 1977년 입각하여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다. 페루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모랄레스 정권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군부와 경제 엘리트 간의 밀월을 즉각 중단하고 IMF식 구조조정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군부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왈테르 피아사를 해임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중단한다.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발을 조직했던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또한 강화한다(Durand 1998, p. 261).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경제 엘리트는 물론 노동자 등 사회운동 세력과의 갈등을 빚음으로써 정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모랄레스 정부는 1977년 국내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을 대표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중도 및 우파 정치인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이들과 다양한 합의들을 도출해낸다. 그 결과 선거를 실시했고 동시에 그동안 소원했던 국제기구들과 관계도 회복하였다. 경제 엘리트들과 합의 내용은 벨라스코 정권 이래로 추진된 개혁정책을 점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 엘리트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정치 엘리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랄레스 정부는 1978년 5월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선거 실시를 약속했다. 우선 국내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과 관계를 회복한 정부는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과도 협상을 시작했다(Durand 1998, p. 261).

하지만 국내 엘리트들과 관계 회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군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무엇보다도 국내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은 끊임 없이 군부의 의도를 의심했으며, 동시에 노동자 계층을 포함한 사회운동 세력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졌다. 나아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 모델이 갖고 있던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해 페루 경제는 살인적인 외채의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군부의 오랜 독재는 무너지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페루 사회에 도래하였다(Vasquez H. 2000, pp. 53-54).

벨라운데 민주정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그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안에 정치 및 경제 엘리트는 없었다. 벨라운데

정부는 특히 경제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남달랐다. 그들은 경제 엘리트들과의 어떠한 협상이나 소통도 시민사회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해했다. 그 결과 정부와 경제 엘리트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정부는 경제 엘리트들을 대표적인 부패세력으로 여겼고, 경제 엘리트들은 정부를 경제 과탄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현실은 벨라운데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벨라운데 내각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곤 했다. 그 결과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더욱더 어려워졌다(Vasquez H. 2000, pp. 55-56).

특별한 개혁도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채 벨라운데 정부는 끝이 나고 1985년 알란 가르시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벨라운데 정부와는 달리 페루의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들을 비정통적인 경제위기 극복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파트너로 여겼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주도로 페루의 12개 주요 경제 그룹은 정부와 투자 및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있는 지 불과 1년 만에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민간 상업은행을 국유화하며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정부와 경제 엘리트들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Vasquez H. 2000, p. 61). 하지만 알란 가르시아의 정책 또한 실패하여 페루는 1988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다.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매우 극단적인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고 이는 페루 경제 엘리트들은 물론 페루 민중들의 삶의 수준을 동시에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Reyna 1997, p. 34).

알란 가르시아 정권 말기에 페루 사회는 개혁적인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벨라스코 혁명 정부 이후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었

던 정부들은 알란 가르시아 정부를 포함하여 모두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페루의 경제 및 정치 엘리트 집단 또한 그동안의 정부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특히 페루의 경제를 장악한 경제 엘리트와 페루의 정치를 지배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 간의 불화는 점점 심해져 갔다. 이러한 환경에서 1990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가장 전형적인 페루 엘리트를 대표하는 바르가스 요사의 패배와 말 그대로 예상 밖의 후보인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승리는 페루의 엘리트 그룹을 다시 한 번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지모리가 성공한 비결은 기존 정치 및 경제 엘리트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이미지였다. 그는 이러한 이미지를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을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이 페루 사회의 변혁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지모리의 이러한 주장은 오랜 세월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저소득층은 물론 인종적 소수자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해야 했던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후지모리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곧바로 매우 급진적이고 가혹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환율과 기본 소비재 가격을 자유화했고, 이러한 충격요법으로 당시 7,000%에 육박하던 인플레이션을 10%대로 끌어내렸다(Reyna 1997, p. 35).

후지모리의 경제정책은 페루 엘리트 그룹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루의 엘리트 구조에서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간극은 점점 더 확장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후지모리 정권의

정치적 의미는 민주주의 제도 특히 정당정치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며 기존 정당과 정치 세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정치 엘리트들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Dietz 1992, p. 249). 정당, 국회, 정부를 초월한 개인주의적 통치 행태를 통해 제도, 절차, 정당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후지모리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페루의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들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은 후지모리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으로 떠올랐다. 일례로 1992년 후지모리의 친위 쿠데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이었다. 이 쿠데타를 통해 후지모리는 국회를 폐쇄하고 헌정을 중단했으며 군부에 게릴라 그룹을 소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주었다. 정치적 엘리트를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 정치 엘리트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경제 엘리트는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환영했다(Dargent B. 2009, pp. 86-89).

라. 21세기, 후지모리 그 후

후지모리에 이어 톨레도 그리고 알란 가르시아에 이르기까지 후지모리가 시작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 경제적 엘리트들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힘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정권 간의 뚜렷한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엘리트의 위치와 상황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Durand 2010, pp. 61-78). 경제 엘리트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

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페루의 경제적 엘리트들은 제도적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정치 엘리트들은 후지모리 정권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제도 민주주의 혹은 정당 정치로 인해 그들의 세력을 공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Dargent가 지적한 바와 같이 페루의 엘리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제도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쉽게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치적 엘리트들의 입지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09, pp. 27-30).

3.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앞서 페루 엘리트 형성의 역사를 고찰했다면 이 장에서는 현대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변화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페루 엘리트 집단을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 그리고 군부 엘리트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현대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및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요소를 알 수 있었다.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특히 다양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이고 정치에서는 후지모리의 등장과 퇴진이었다.

가. 경제 엘리트

최근 페루 경제 엘리트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페루의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 그룹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루 역시 오래된 경제 엘리트들은 대부분 유럽계 이주민들로 식민시기부터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페루의 경제 엘리트로 성장했다. 페루 경제 엘리트들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페루의 대표적인 경제 그룹들의 생성과정 및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페루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특히 후지모리 정권이 추진할 경제 개방과 민영화 정책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1) 로메로 그룹(el Grupo Romero)

로메로 그룹은 페루에서 식용유, 밀가루 그리고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엘리트이다. 일례로 1995년 페루 의회는 이러한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 로메로 그룹이 Bunge & Born이라는 식료품회사와 합의한 인수 합병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1987년 로메로 그룹의 총수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당시 APRA 출신 대통령 후보인 알란 가르시아를 지지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9년 이 그룹이 통제하던 해외자본의 크기는 페루 상업은행들이 운용하던 자금보다 큰 규모였다(Vasquez Huaman 2000, p. 105).

로메로 그룹의 창시자는 스페인에서 페루로 이주한 칼릭스토 산토스로 메로 이 헤르난데스로 그가 라틴아메리카로 왔을 당시 나이는 불과 열여섯 살이었다. 그가 처음 무역을 하기 위해 정착한 지역은 중미였다. 이후 1883년 사업차 페루의 카타카오스와 아레키파를 최초로 방문했고 곧 페루에 매료되어 1888년 푸에르토리코를 떠나 페루에 정착한다. 페루의 카타카오스에서 만났던 사업 동료이자 친구인 마누엘 토레스와 함께 칼

릭스토 산토스 로메로는 페루에서 일명 ‘파나마 모자’라고 불리는 밀짚모자 사업을 시작한다(Grupo Romero 2012).

‘파나마 모자’ 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칼릭스토 로메로는 1922년 C. Romero & Co.를 설립하고 면화사업에 뛰어든다. 1922년 그는 카타카오스에 ‘산타아나’라고 불리는 대농장을 인수했고, 이를 통해 로메로는 페루 면화 수출 산업의 주도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 면화의 씨로 식용유를 생산하는 사업까지 장악하면서 페루의 면화시장 및 식용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이렇게 쌓인 노하우와 자본을 이용해 C. Romero & Co.는 페루의 여러 대농장을 인수하여 페루 면화사업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장악력 또한 키워갔다(Vasquez Huaman 2000, p. 108)

C. Romero & Co.가 본격적으로 로메로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은 1951년부터의 일이다. 1951년 로메로 그룹은 몇몇 리마 출신 회사들과 합자하여 방코 콘티넨탈(Banco Continental)을 설립하면서 금융업에 뛰어든다. 당시 방코 콘티넨탈의 출자액은 4,500만 솔(sol)에 달했다. 로메로 그룹과

표 3-2. 방코 콘티넨탈의 주요 주주(1960~69)

(단위: 주식보유율, %)

주주	1960	1965	1966	1968	1969
Romero	n.a.	10.59	0.33	0.17	n.a.
Pardo Heeren	6.62	1.56	1.58	2.52	2.3
Albrecht Seeger	18.81	3.81	3.59	-	-
Álvarez Calderón	13.31	3.68	2.07	-	-
Carlos Sutter	3.24	1.67	1.82	-	-
Chase Manhattan	-	51.00	50.66	51.00	51.05
M.G. patrick	-	-	10.36	9.29	10.96

자료: Reaño y Vásquez(1988), Vásquez Huamán(2000) 재인용.

함께 이 은행 설립에 참여한 회사들은 조지 베터 도날드슨(George Bertie Donaldson: 영국), 펠리시아노 델 캄포(Feliciano del Campo Romero: 스페인), 카를로스 엔리케 수테르 모도리(Carlos Enrique Sutter Modorri: 스위스), 카를로스 디아스 우파노 슈츠(Carlos Díaz Ufano Schutz: 페루), 엔리케 파르도 에에렌(Enrique Pardo Heeren: 페루) 그리고 마누엘 마리아 이사가 페레스(Manuel María Ísaga Pérez: 페루)이다.

로메로 그룹은 방코 콘티넨탈을 설립하여 당시 페루의 주요 경제 엘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페루의 대표적 경제 엘리트로 성장했다. 1950년대 로메로 그룹의 목표는 방코 콘티넨탈 내의 지분을 확장하고 의사결정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표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5년에는 로메로 그룹이 방코 콘티넨탈의 주식 10%를 확보했다(Vasquez Huaman 2000, pp. 119-120). 이후 로메로 그룹은 체이스 맨해튼과 협상하여 은행의 지분을 매각한다.

방코 콘티넨탈 이후로도 로메로 그룹은 계속해서 금융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나갔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코 데 크레디토 델 페루(Banco de Crédito del Perú)의 주식을 인수했고, 보험업에도 투자했다. 그 결과 1953년 당시 보험업의 선두를 달리던 엘 파시피코 콤파니아 데 세구로스 이 레아세구로스(El Pacífico Compañía de Seguros y Reaseguros) 주식 4.8%를 확보했고 이후 이 회사 주식의 21.5%를 소유하는 대주주로 떠오른다(Vásquez Huamán 2000, p. 122).

벨라스코 정부에서 경제에 대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들 개혁 중 로메로 그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농지개혁이었다. 1969년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로메로 그룹은 전체 자산의 50%를 잃

어버릴 수 있었다. 정부는 대농장이 소유한 경작지 중 10,032 헥타르를 몰수하고 대신 농장주들에게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농업채권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이 법은 농장주들이 수확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육성하면 농지 몰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농업채권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로메로 그룹은 1972년 피우라 지역에 면사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었다(Vásquez Huamán 2000, pp. 124-125). 결국 로메로 그룹의 페루 면화 및 식용유 산업에 대한 장악력은 오히려 군부독재하에서 강력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부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군사정권은 금융개혁을 통해 해외자본의 역할을 대폭 제한했다. 그 결과 금융업에 이미 진출해 있던 페루의 국내자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로메로 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처럼 군부독재하에서 로메로 그룹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 경제정책의 혜택을 통해 페루 내에서의 경제 장악력을 다각도로 강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로메로 그룹은 페루에서 가장 강력한 농업자본으로 성장한다.

군부독재 이후 로메로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1986년 페루 경제인연합회의 대표를 맡은 로메로 그룹은 당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대통합에 적극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계 지도자들과 사적인 교류 또한 활발했다. 그 결과 1987년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금융업의 독점 해소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때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당시 그룹이 소유권을 행사하던 은행 주식을 미리 사원들에게 분배

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로메로 그룹은 알란 가르시아 정부와 긴밀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페루 우파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들어선 후지모리 정부는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만들었던 은행 국유화 법안을 폐기했고, 로메로 그룹은 다시 자신들이 소유했던 은행들의 지분을 회복했다(Vásquez Huamán 2000, pp. 129-134).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과 함께 로메로 그룹의 성장은 두드러진다. 거대한 식료품 회사인 니콜리니(Nicolini)와 아르헨티나 Bunge & Born이 소유했던 페루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로메로 그룹은 식료품업계의 거인으로 떠올랐다. 이후 페루 최대의 식료품회사인 알리콧(Alicorp)을 만들고, 이 회사의 확장을 위해 바쿠스(Backus)의 주식을 매각했으나, 곧 프리마(Prima)라는 회사를 세워 연금시장에 복귀한다(Durand 2010, p. 136).

로메로 그룹의 또 다른 성장의 계기는 페루 남쪽의 마타라니(Matarani) 항 민영화였다. 로메로 그룹은 페루에서 두 번째로 큰 이 항구를 인수하여 페루에서 가장 큰 농업 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009년 로메로 그룹의 총수인 디오니시오 로메로(Dionisio Romero)는 알리콧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기업의 세습을 안정적으로 이뤄냈다. 2009년 로메로 그룹은 안콘(Ancon) 항의 사용권 또한 획득하면서 항만업에서도 강자로 등극했다. 또한, 피우라 지역의 농지 2,000 헥타르를 매입하고 페루뿐 아니라 남미의 여러 기업(에콰도르의 Eskimo, 아르헨티나의 TVB, 콜롬비아의 Propersa)을 인수 합병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Durand 2010, p. 136).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하에서

승승장구하던 로메로 그룹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속에서 매독스(Madox)에 대한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 브레시아 그룹(EI Grupo Brescia)

브레시아 그룹은 페루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그룹으로 포르투나토 브레시아(Fortunato Brescia)가 설립했다. 포르투나토 브레시아(Fortunato Brescia)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889년 페루에 도착하였다. 페루에서 그는 작은 농장을 구입, 밀과 유제품을 생산하여 리마에서 직접 도매업을 시작했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하자 리마 근교의 땅을 사들여 사업을 확장했다. 1930년 리마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가 사둔 리마 근교의 토지 가격이 급등했다. 이후 브레시아는 토지에 투자하기 시작한다. 1940년대 프라도 정부는 브레시아가 소유한 리마 근교의 토지 중 일부를 몰수하여 공항을 건설한다. 단기적으로 이 토지 몰수로 브레시아는 경제적 손해를 보았으나, 이후 공항 주변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 번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증식을 경험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그는 부동산 회사인 우르바니사도라 하르딘(Urbanizadora Jardín)을 세우고, 이후 브레시아 그룹의 대표 사업은 부동산업이 된다(Tatsuya 2004, p. 24; Vásquez Huamán 2000, pp. 139-141).

포르투나토 브레시아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인 페드로(Pedro Brescia)와 마리오(Mario Brescia)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확장시킨다. 부동산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산업과 광업에 투자한다. 1950년대 말, 수산업은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에 쓰이는 생선살의 생산 붐이 일자 브레시아 형제는 리마 근교에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 1970년대 국제시장에서 광물 가격

이 폭등하자 브레시아 그룹은 이미 소유한 광산들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수산업과 광업의 붐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Tatsuya 2004, p. 14).

로메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브레시아 그룹도 벨라스코 정권하에서 토지를 몰수당했으나, 토지 몰수의 대가로 받은 농업채권 및 정부의 산업 발전 정책의 혜택으로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벨라스코 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활용하여 금융업, 보험업에 진출했으며, 광산을 사들여 광업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시켜나갔다.

구체적으로는 벨라스코 정권하에서 로메로 그룹과 함께 방코 크레디토(Banco Credito)에 대한 지분을 늘렸으며, 콤파니아 데 세구로스 리막(Compañía de Seguros Rímac)과 콤파니아 인테르나시오날 데 세구로스 데 페루(Compañía Internacional de Seguros de Peru)에 대한 지분 참여도 늘렸다. 동시에 브레시아 그룹은 미국계 회사인 더블유 알 그레이스(W.R.Grace)가 소유했던 광산인 시아 미네라 아타코차(Cia Minera Atacocha)와 민수르(Minsur)를 인수해 그룹의 광업 장악력을 높였으며, 영국계 회사인 브리티시 던컨 폭스(British Duncan Fox)가 소유했던 파브리카 데 테히도스 라 유니온(Fabrica de Tejidos la Unión)을 인수해 섬유 산업에도 진출했다(Vásquez Huamán 2000, pp. 143-155). 그 결과 1970년대 말, 브레시아 그룹은 부동산, 금융, 보험, 섬유, 화학, 광업 부문에 두루 진출한 거대 경제 엘리트로 성장했다. 특히 파브리카 데 테히도스 라 유니온(Fabrica de Tejidos la Unión)은 페루의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하면서 1980년대 페루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브레시아 형제가 사장과 부사장의 직함을 유지하였으나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맡았다. 하지만 그룹의 내부자 거래에 따른

손실이 커지자 브레시아 형제는 경영 일선에서 은퇴했다. 1990년대에 들어 무역자유화와 함께 저렴한 수입품들이 섬유시장에 유입되자, 브레시아 그룹은 수입품과 버거운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브레시아 형제는 파브리카 데 테히도스 라 유니온(Fábrica de Tejidos la Unión)을 매각한다.

1990년대 브레시아 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다. 브레시아 그룹은 스페인계 은행인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Banco Bilbao Viscaya)와 함께 방코 콘티넨탈(Banco Continental)의 민영화에 참여한다. 비록 브레시아 그룹이 은행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했으나, 경영은 BBV가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브레시아 그룹은 광산업, 특히 민수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고, 민수르를 세계에서 가장 큰 주석 생산지로 만들었다. 나아가 브레시아 그룹은 1990년대 관광업에도 진출하여 페루의 주요 도시에서 5성급 호텔 체인을 운영했다(Tatsuya 2004, p. 15).

브레시아 그룹의 팽창은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기존의 부동산, 광산, 금융, 호텔, 섬유, 그리고 보험에서의 사업 확장을 가속화했다. 특히 스페인계 은행인 BBV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 지분을 활용하여 BBV가 이미 공동 소유하고 있던 방코 콘티넨탈의 지분까지 확보했다. 또한, 수산업체인 시페사(Sipesa)를 1억 달러에 인수하고 2009년에는 엑스플로시보스(Explosivos S.A.)가 운영하던 석유화학회사인 친차(Chincha)와 칠레계 시멘트회사를 인수하였다. 그 결과 브레시아 그룹은 명실상부 페루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엘리트로 떠올랐다. 페드로 브레시아(Pedro Brescia)와 그의 사촌 알렉스 포트 브레시아(Alex Fort Brescia) 및 마리오 브레시아(Mario Brescia)의 세 아들들에 대한 공동 사업 승계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포르투나토 브레시아 모레이라(Fortunato Brescia Moreyra)는 민수르의 경영권을, 마리오 주니어는 수산업 분야를, 페드로 브레시아는 호텔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Durand 2010, p. 137).

3) 벤틴 그룹(EI Grupo Bentín)

벤틴 그룹의 창업주인 카를로스 벤틴(Carlos Bentín)은 영국인으로 19세기 초 스페인을 통해 페루로 이주하였다. 그는 리마의 유력 가문의 딸인 마누엘라 마르틴 라 푸엔테 이 라 팔로메라(Manuela Martín la Fuente y la Palomera)와 결혼하면서, 리마 엘리트의 일원이 되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안토니오 벤틴(Antonio Bentín)은 광산업으로 부를 축적했고, 이후 페루 민주당(Partido Demócrata)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벤틴 그룹은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초기 멤버들이 정계에 깊숙이 간여하여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을 만들고 정계에 입문했으나, 동시에 가업인 광산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력 산업이었던 광산업이 은광의 쇠퇴와 함께 어려움을 겪자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게 된다(Vasquez Huaman 2004, pp. 210-21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조, 유리, 광산, 농업 제조업에 투자했으며 유리 생산에서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벤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업적 시도는 1957년 맥주생산회사인 바쿠스 존슨 양조장(la Cervecería Backus & Johnston)의 매입이다. 이후 이 기업은 벤틴 그룹의 핵심으로 성장한다.

바쿠스(Backus)는 19세기 말 리마 근교에 제이콥 바쿠스(Jacob Backus)와 하워드 존스턴(Howard Jonston)이 설립한 맥주 제조 회사였다. 1950

년대 바쿠스가 영국계 자본에 매각되었을 때 리카르도 벤티(Ricardo Bentin)은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이후 그는 사장에 취임하였고, 바쿠스의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주류 생산과 수출에 전념하게 된 벤티 그룹은 군부의 경제정책이나 개혁정책과는 비교적 무관한 발전을 이룬다. 하지만 1970년대 말 경제위기는 벤티 그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내 시장에서 양조를 위한 충분한 맥아 확보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보리의 수입가 또한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1980년대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강력한 내수시장 부양책과 함께 극복되었다(Vasquez Huaman 2004, pp. 220-243).

1980년대 벤티 그룹과 로메로 그룹은 사적 및 공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쌓게 된다. 특히 혼인으로 인맥을 확장했으며, 방코 데 크레디토(Banco de Credito)에 함께 투자,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벤티는 바쿠스의 주식을 방코 데 크레디토(Banco de Credito)에 참여한 경제 그룹들, 특히 로메로, 브레시아, 라포(Raffo) 그룹에 팔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의 결과는 벤티의 바쿠스에 대한 경영권 약화로 귀결되었다. 1984년, 벤티는 바쿠스사의 지분 중 14%를 소유한 반면 브레시아, 로메로 그리고 라포 그룹은 총 19%의 지분을 확보한다(Tatsuya 2004, pp. 17-18).

2002년 말 바쿠스 주식회사(벤티 그룹의 대표 기업)가 콜롬비아계 및 베네수엘라계 자본의 합작회사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페루 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빠져들었다. 페루의 유력지 『라 레프블리카(La República)』는 이 사건을 ‘경제적 지진’이라고 표현했다. 2003년 초, 콜롬

비아의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 가문의 소유인 바바리아 그룹은 바쿠스사에 대한 M&A를 마무리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고, 경쟁사인 베네수엘라 기업이 2대 주주가 되었다. 페루인들이 가진 바쿠스 주식의 비중은 소수로 낮아졌다. 그 결과 바쿠스의 경영진들은 모두 퇴진했고, 바바리아 그룹은 바쿠스가 남미의 여러 국가에 갖고 있던 양조장들을 미국계 기업인 SAB Miller사에 매각했다(Durand 2010, p. 115).

매각 이전까지 바쿠스는 페루 기업의 성공적인 신자유주의 모델 전환의 상징이었다. Cristal, Pilsen, Cusqueña, Arequipeña 등의 맥주 브랜드를 개발하여 페루는 물론 남미 전역에 양조장을 건설하고 기업 확장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언론에 비친 성공 스토리 뒤에는 민영화, 무역자유화 및 해외투기자본의 유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Durand 2010, p. 116).

이들 대표 경제 그룹 이외에도 페루에는 다양한 경제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식민시대 혹은 독립 시기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의 자손들로, 페루의 다양한 산업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 대부분 백인이며 유럽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인종 그룹이다. De la Cadena(2001)에 따르면 이들 그룹은 강력한 백인문화를 추구하며, 페루의 조용한 인종주의(Silent Racism)의 핵심 주체이기도 하다(위의 경제 그룹 이외의 페루 경제 엘리트들의 리스트와 최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표 3-3]을 참조할 것).

표 3-3. 페루 대표 경제 그룹들(1986~2010)

경제그룹/모기업	1986	1996	2010
Banco de Credito del Peru(BCP, el Pacifico Inversiones Centenario)	페루 제1의 상업은행. 금융 및 보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 행사	제1은행 지위 유지. Credicorp 구성	여전히 제1은행의 입지 유지. El Santander Ccentral Hispano 매입. Prima를 통해 연금부문에 진출. 해외 투자에 매진. 성공적인 세습 완료
Benavides de la Quintana(Buenaverntura, Yanacocha)	페루 주요 광산업체(은) 및 광산 기술업체	광맥 민영화에 참여. Yanacocha 광산 개발(금)에 Newmont 회사와 43%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 참여	Julcani광산은 폐광되었으나 Yanacocha에서의 금생산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룸. Cerro Verde 광산(9.2%)과 Brocal 광산(33%)에 각각 투자. 해외 광산에도 투자 중
Bentín(Backus)	최대의 맥주 양조 기업(Cristal, Lima)	CNC와 Cerveza del Sur 흡수 합병. AFP 진출	Grupo Santodomingo de Colombia에 매각됨. 2004년 Carlos Bentin 퇴진
Brescia(Minsur, Tejidos la Union, Exsa, Intursa, Banco Continental)	다변화된 그룹(광업, 상업, 산업, 호텔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	다양한 기업들을 매각함. 동시에 민영화에 참여	BBVA와 함께 Banco Continental 인수. Seguros Rimac에 투자 확대. 다른 두 보험회사와 합병. 수산업에 재진출. 칠레의 최대 시멘트 회사 인수
Delgado Parker(Canal 5와 Radio Panamericana, Canal 13)	Panamericana TV(Canal 5)는 가장 중요한 TV 채널이었음	South Bell과 합작투자사 설립. 형제 중 한 명의 사망과 함께 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남	Canal 5를 매각하고 이후 Canal 13을 개국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South Bell에 팔림. 이후 Canal 5를 다시 회복했으나 2009년에 다시 매각함
Ferreyros(E. Ferreyros)	중장비 및 의약품 수입	의약 수입 회사 매각	광산업 활황으로 성장 유지.
Nicolini(Nicolini Hnos., Seguros)	페루 최초의 재분단지 건설	BCP에의 채무로 경영에 난항을 겪음. Romero 그룹에 재분단지 매각.	Alicorp의 군소 주주로 전략. Chavimochic에 농산업 단지에 투자.
Raffo (Textil San Cristóbal, Los Portales)	섬유 및 건설업에 집중함. BCP에 참여.	해외수출 시장에 집중. 건설업에 투자 확대	1993년 두 개의 섬유생산단지를 통합. 기업승계에서의 문제를 세대교체와 함께 해결함. San Cristobal을 매각하고 LP Holding에 주력함
Romero(Alicorp, Textil Piura, Ransa)	BCP를 주도함. 식료품, 의류, 통관 서비스 부문 주도.	AFP에 진출. La Fabril을 인수하여 Alicorp 형성. Credicorp 형성. Matarani 및 다양한 민영화 프로젝트에 참여	Alicorp은 식료품계의 거대 기업으로 자리 잡음. Matarani와 Ancon을 연결하는 항만-수출 단지 성장. 칠레 경제 그룹들과 협력 관계 강화. 2009년에 성공적인 그룹 승계 이루어짐. 뉴욕 주식시장에서 투기성이 강한 Madox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봄

알란 가르시아는 1980년대 정권을 창출한 이후 페루 경제의 ‘열두 사도’라고 불리는 12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당시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던 페루 경제의 ‘열두 사도’들은 이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속에서 해체 혹은 매각되거나 혹은 성장했다. 특히 후지모리 정부 이후 페루 경제에 적용된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은 페루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던 일련의 보호조치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해외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공격적 M&A의 대상이 되었다.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페루의 대기업들과 경제 엘리트들은 2004년 들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열두 사도라고 불렀던 주요 대기업들 중 2004년에는 다섯 개의 기업만 남게 된다. 20대 기업 중 도산하거나 약화된 기업은 10개로 절반 정도가 경제개방을 버텨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들이 경제개방과 함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제개방과 함께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페루의 경제 엘리트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Durand 2004).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페루의 10대 기업은 [표 3-5]와 같다.

[표 3-4]와 [표 3-5]를 비교해보면 페루 제1기업이었던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는 스페인과 멕시코 기업들에 밀려 전체 랭킹 4위로 물러났고, 전체 순위 2위의 벤틴 그룹은 매각되었다. 전체 10대 기업 중 다섯 개 기업이 외국계이거나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회사이다. 이러한 외국계 자본의 페루 진출과 성공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 또한 존재하며, 이는 페루계 경제 엘리트들의 위기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페루의 주요 개별경제 그룹 및 명문 경제 엘리트 가족을 살

표 3-4. 페루 '열두 사도'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기업들의 출현(1986~2004)

	1986	1996	2004
Los Doce Apóstoles:			
1. Benavides (Buenaventura) (asociado a EMN)	x	x	x
2. Bentin (Backus) por Bavaria	x	x	comprado
3. Brescia (Minsur, Rimac) EMN)	x	x	x (asociado a
4. Delgado Parker (Panamericana) debilitado)	x	x	x (muy
5. Ferreyros (E. Ferreyros)	x	x	x
6. Nicolini (Nicolini Hnos.)	x	absorbido por Romero	
7. Lanata Piaggio (Pilsen)	x	absorbido por Bentin	
8. Olaechea (Tacama, Bco de Lima) vende banco	x	x	
9. Picasso Salinas (Vista Alegre) parcial	x	x	quiebra
10. Raffo (San Cristobal)	x	x	x
11. Romero (BCP, Alicorp)	x	x	x
12. Wiese (AF. Wiese, Bco Wiese) quiebra banco	x	x	
Otros GPE peruanos:			
13. Arias (San Ign. de Morococha) comprado por EMN	x	x	
14. Galski (Sindicato Pesquero)	x	x	debilitado
15. Graña y Montero	x	x	debilitado
16. Lucioni (Carsa) banco	x	x	quiebra
17. Piazza (Cosapi)	x	x	debilitado
18. Rodriguez (Gloria)	x	x	x
19. Wong (E. Wong, Paramonga)	x	x	x
20. Wu (Yi Chang)	x	x	x

자료: Durand(2004).

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페루 산업협회(SNI: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전국민간기업연맹(Confiep: Confederación Nacional de Instituciones Empresariales), 페루중소기업연맹(Apemipe: Asociación Perudana de Empresas Medianas y Pequeña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 단체는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특히 알란 가르시아 정부 이래로 정치에 깊이

표 3-5. 페루의 10대 기업(2007)

순위	기업이름	종목	국적
1	REPSOL	석유화학	스페인
2	Southern	광업	멕시코
3	Telefónica	통신	스페인
4	Buenaventura	광업	페루
5	Brescia	식품, 금융	페루
6	Credicorp	금융	페루
7	BBVA	금융	스페인/페루
8	ROMERO	유통, 연료	페루
9	Gloria S.A.	유제품	페루
10	Endesa	전기	스페인

자료: Patriu(2007).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르시아는 이들 경제인 단체들과 협상하기보다는 직접 개별 경제 엘리트들 특히 페루 경제의 열두 사도라 불리는 12명의 대표 기업인들과 대화와 협상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1기 가르시아 정부는 페루 산업협회와는 대화하지 않고 경제 엘리트의 열두 사도들과 대화해 기업 정책을 수립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알란 가르시아가 페루 은행들을 국유화하자 가장 강력하게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단체가 바로 페루 산업협회이다. 이후 이 단체는 바르가스 요사의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전임 페루 산업협회 회장인 프란시스코 파르도(Francisco Pardo)와 리카르도 베가 요나(Ricardo Vega Llona)는 각각 정치에 입문하여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페루 역사상 이러한 경제단체들이 페루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별 그룹, 혹은 경제 엘리트 가문이

정계에 직접 입문하거나 정계의 인맥을 활용하는 일이 더욱 흔하기 때문이다.

나. 정치 엘리트

페루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늘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제도정치, 정당정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Levitt 2012; Dargent Bocanegra 2011, Melenez 2011).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치의 미성숙은 후지모리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 정치의 붕괴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 후지모리 체제가 만들어낸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정치 능력에서의 우월성에 대한 담론은 페루 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알베르토 후지모리 한 사람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후지모리 정권의 붕괴와 이후 터져 나온 각종 부패 스캔들 및 인권 유린의 사례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생산함으로써 이미 쇠약해진 페루의 제도 정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에 비해 페루의 정치 엘리트들의 이력을 조사,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국립페루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페루의 정치 엘리트는 페루 사회에서 경제 엘리트에 비해 그 영향력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제도화 되지 못한 정치 시스템 속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Vasquez 2012; Seminario 2012).

따라서 페루의 정치 엘리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쉽게 사라지고 생겨나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주요 인물들을 고찰하기보다는

전임 대통령들, 그리고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의 측근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11년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과 함께 입각했거나 혹은 입각하지 않았지만 우말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인사들을 살펴보겠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페루 정치권력의 지형을 가늠해보았다.

1) 오얀타 우말라와 그 측근들⁴⁾

가) 오얀타 우말라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은 1962년 노동 변호사인 이삭 우말라(Issac Humala)의 아들로 태어났고, 1982년에 군대에 들어가 육군 중위가 된다. 1992년 그는 센데로 루미노소 진압 작전에 참여하고, 3년 후 페루와 에콰도르 간에 벌어진 세네파(Cenepa) 전쟁에도 참전한다. 2000년에는 후지모리 정권에 반대하며 39명의 군인들과 함께 페루의 남부 도시 타크나(Tacna)에서 실패에 그친 쿠데타를 시도하고 구속된다. 하지만 이후 후지모리 정권의 몰락과 함께 국회의 사면으로 복권된다.

2005년 그는 페루국민당을 결성하고 2006년 대선에 출마한다. 1차 선거에서 30.62%의 득표율을 거두며 알란 가르시아와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에서 우말라는 52.62%의 득표율을 보인 알란 가르시아에게 47.47%의 득표율로 패배했다. 그러나 이후 페루 정치계에 주요 인물로 급부상하여 2011년 치러진 대선에서는 후지모리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

4) 이 부분은 페루의 다양한 뉴스 미디어와 PODER 360의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지모리와 결선 투표 끝에 승리를 거두어 같은 해 7월 28일 페루의 제5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오안타 우말라는 2006년 대선부터 페루에서 가장 이념적이며 심지어는 근본주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오안타 우말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장 중시한다고도 평가 받는다. 오안타 우말라의 이러한 성향을 규정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인종민족주의(etnocacerismo)’ 즉 인종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이다. 그의 아버지는 마르크스주의자인 동시에 페루 민족주의자로 페루의 역사와 발전의 근본을 잉카 문명에서 찾고, 페루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사상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우말라는 정치에서 필요한 협상이나 협력이라는 덕목에 대한 이해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원칙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상을 남겼다(Poder 360 2012).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성향은 2011년 대선에서는 희석된 듯 보인다. 2011년 대선에서 우말라는 원칙을 존중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다. 또한 주변 인사들도 이념과 원칙이 비슷한 동지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을 두루 기용했다. 따라서 우말라의 측근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반면, 흑자는 주요한 결정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나머지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한 측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말라 대통령 또한 제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성숙보다는 기존의 페루 정치 시스템의 특징인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 루이스 파브레

루이스 파브레(Luis Favre)는 신비 속에 싸인 인물이다. 그가 트로츠키 주의자였던 전력을 기억하는 페루인들은 매우 드물며, 브라질 언론만이 그를 기억한다. 그는 아르헨티나계 프랑스인으로 상파울루에 있는 FX Comunicações라는 정치 마케팅 회사의 대표로 브라질 노동당과 관련이 있다. 그는 2006년 우말라의 선거를 도왔던 스페인계 자문들을 대체하며 2011년 그의 선거를 도왔다.

이미 우말라를 돕던 많은 페루 지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파브레는 우말라의 신임을 조금씩 얻어 2010년 12월에는 이미 우말라의 모든 연설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말라는 2009년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파라분도 마르티 국민해방전선의 대선 전략에 감동했으며 이미 룰라식 선거 모델에 대해서도 깊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2010년 말 루이스 파브레는 급진적인 우말라의 선거 구호들을 온건한 중도로 포장할 수 있었고, 브라질 룰라의 모델을 페루에 이식할 수 있었다.

우말라는 선거 캠페인 담당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후보였다. 그의 대국민 이미지는 급진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민족중심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루이스 파브레는 그런 우말라를 페루의 룰라로 만들었다. 루머에 따르면 룰라의 연설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말라의 승리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 루이스 파브레는 브라질로 돌아가지 않고 페루에 남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우말라와 직접 대화하는 몇 안 되는 인사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비록 그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말라의 최측근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우말라의 부인인 나디네 에레디아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 살로몬 레르너

살로몬 레르너(Salomón Lerner)의 내각 책임 총리 임명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야당인사들마저 우말라 내각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카드였다.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레르너를 눈치 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온건한 중도와 사업가 정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그는 현재 우말라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조연자로 성장했다.

내각의 책임총리라는 직함을 그가 맡게 되리라고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레르너 자신도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우말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좌파 시민조직이자 본인이 설립 멤버이기도 한 Ciudadanos por el Cambio와 상의 끝에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임명된 것은 2006년 우말라 대통령의 첫 선거 때부터 함께 했다는 역사와 그 기간에 쌓인 믿음과 충성심이 배경이다. 그는 또한 단순한 오른팔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오랜 정치계 활동을 통해 협상과 타협에 능숙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식인부터 기업가들까지 그리고 유대인 커뮤니티까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주변 인물을 정리하면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그룹은 좌파 지식인 그룹이다. 둘째 그룹은 기업가 그룹이고 셋째 그룹은 유대인 커뮤니티이다. 이 세 그룹은 모두 레르너의 정치 및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의 좌파 지식인 친구들의 영향을 매우 지대하다. 레르너는 기업가로서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친분을 나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매우 독특한 기업인이다. 그는 수산업으로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동료 기업인들과의 회의보다는 NGO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설명회에 더 자주 나타나곤 했다. 그는 1994년 시민청렴성운동회의를 설립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조직의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그가 독재자의 가족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스캔들이 황색저널로부터 터져나오자 사임했다.

이후 그는 Ciudadanos por el Cambio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쌓아나갔다. 레르너와 함께 우말라와 2006년부터 함께한 좌파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다. 알베르토 아드리안센(Alberto Adrianzen), 카를로스 타피아(Carlos Tapia), 펠리스 히메네스(Feliz Jimenez), 에드문도 무루가라(Edmundo Murrugarra). 이들은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뉴에이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으며, 급진적인 노선이 아닌 온건한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1년 10월 살로몬 레르너의 총리직 사임은 오얀타 우말라 정부의 성향이 좀 더 우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캐나다계 자본의 콩가 금광 프로젝트에 관련한 사회운동 세력 특히 환경운동 세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말라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의 중단 없는 진행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 간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2011년 10월 레르너의 사임 및 우말라 정부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가져왔다.

라) 아드리안 비야푸에르테

우말라의 군 경력을 통해 얻은 측근 중 한 명으로는 아드리안 비야푸에르테(Adrian Villafuerte)가 있다. 그는 현재 퇴역 장성으로 그와 군 동

료가 우말라의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강직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2006년 대선부터 줄곧 우말라의 주변을 지켰다. 두 번의 대선 기간에 그는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우말라의 경호를 책임졌다. 그럼에도 비야푸에르테가 우말라와 교분을 쌓은 시기가 1990년대 우말라가 극단적 민족주의 애국운동을 위해 군인들을 조직하려 했던 시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우말라와는 형제 이상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말라는 비야푸에르테를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안보 담당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와 승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다니엘 아부가타스

2011년 선거 기간에서 다니엘 아부가타스(Daniel Abugattas)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는 페루 민족주의정당(el Partido Nacionalista Peruano)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우말라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성실한 국정활동으로 인해 그는 지난 대선 때 리마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 결과 그는 페루 민족주의 당 연합의 대변인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했으며, 최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아부가타스는 국회와 우말라를 연결하는 고리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페루 민족당을 연결하는 연결책이기도 하다. 이 당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국정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2) 내각 분석

앞서 우말라 대통령의 측근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우말라 정부의 내각에 입각하여 정책 결정의 과정을 주도하는 각료들을 분석해보자. 우말라 내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6. 오안타 우말라 내각

직책	이름	주요 경력
대통령	오안타 모이세스 우말라 타소 (Ollanta Moises HUMALA Tasso)	전 육군중령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 정치학 석사
제1부통령	마리솔 에스피노사 크루스 (Marisol ESPINOZA Cruz)	전 국회의원(국민당)
제2부통령	공석	-
국무총리	후안 페데리코 히메니스 마요르 (Juan Federico JIMENEZ Mayor)	변호사 (헌법, 국제법, 인권)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 전 법무장관
외교장관	라파엘 론카글리올로 오르베고소 (Rafael RONCAGLILO Orbegoso)	사회학자, 언론인, 대학교수 작가 Santiago Roncagliolo의 아버지
국방장관	페드로 카테리아노 벨리도 (Pedro CATERIANO Bellido)	변호사 문학박사(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전 법무차관 전 국회의원(자유운동)
경제재무장관	루이스 미겔 카스티야 루비오 (Luis Miguel CASTILLA Rubio)	경제학 박사(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 재무차관
내무장관	윌프레도 페드라사 시에라 (Wilfredo PEDRAZA Sierra)	변호사(형법과 치안)
법무장관	에다 아리아나 리바스 프란치니 (Eda Ariana RIVAS Franchini)	변호사, 교수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 전 법무차관
교육장관	파트리시아 살라스 오브라이언 (Patricia SALAS O'Brien)	사회학자 Universidad Nacional San Agustín de Arequipa(UNSA) Universidad Católica Santa María 사회과학 박사 국가교육자문회의 대표

표 3-6 계속

직책	이름	주요 경력
보건장관	미도리 무스메 데 아비치 로스피글리오시(Midori Musme DE HABICH Rospigliosi)	보건 분야 사회과학 전문가
농업장관	밀톤 본 헤세 라 세르나 (Milton VON HESSE La Serna)	경제학자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 경제재무부 관료
노동장관	테레사 난시 빅토리아 라오스 세세레스 (Teresa Nancy Victoria Laos Cáceres)	변호사(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법무 전문가
생산장관	글라디스 트리베노 찬 한 (Gladys TRIVENO Chan Jan)	전 중소기업과 산업 차관 변호사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무역관광장관	호세 루이스 실바 마르티노트 (Jose Luis SILVA Martinot)	경영학 석사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대학교수 수출연맹 대표
에너지공업 장관	호르헤 움베르토 메리노 타푸르 (Jorge HUMBERTO Merino Tafur)	이학석사 (Ohio State University) 전 Centromin Perú S.A 대표이사
교통통신장관	카를로스 파레데스 로드리게스 (Carlos PAREDES Rodriguez)	기업 전문경영인 전 Alimentos Procesados S.A 대표이사
주택장관	레네 코르네호 디아스 (Rene CORNEJO Diaz)	경영 컨설턴트 및 프로젝트 매니저
여성과 사회발전장관	아나 하라 벨라스코 (Ana JARA Velasquez)	변호사(Universidad Nacional San Luis Gonzaga de Ica) 현 국회의원
환경장관	마누엘 풀가르-비달 (Manuel PULGAR-VIDAL)	변호사, 환경법 전문가
문화장관	루이스 알베르토 페이라노 팔코니 (Luis Alberto PEIRANO Falconi)	인문학 박사(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대학교수
사회통합과 발전장관	카롤리나 트리벨리 아빌라 (Carolina TRIVELLI Ávila)	경제학자(빈곤, 사회정책, 농촌발전) 농업경제석사(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페루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IEP) 연구원

자료: 페루 대통령공 웹사이트(<http://www.presidencia.gob.pe/ministros>)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오안타 우말라 내각의 구성원들은 전문 정당 정치인들은 아니다. 부통령은 정당 정치인이지만 제1부통령을 제외하고 정당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료 출신은 네 명이며, 여섯 명의 변호사가 내각에 합류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교수, 학자, 전문 경영인들이 내각이 포함되어 내각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안타 우말라 자신이 대선 기간에 쌓은 아웃사이드 이미지가 내각에서도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내각 인사들이 정치 엘리트로 거듭날 것 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 이들을 지금 단계에서 페루 사회의 정치 엘리트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들의 세력과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오안타 우말라 내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경제 관련 주요 보직에 전문 경영인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것이다. 생산장관, 무역관광장관, 에너지광업장관, 교통통신장관 및 주택장관 등 각종 경제적 이권이 주로 발생하는 부서의 장관들은 각각 수출연맹 대표, 전 Centromin Perú S.A 대표이사, 전 Alimentos Procesados S.A 대표이사, 경영 컨설턴트 및 프로젝트 매니저로 앞서 지적했던 경제 엘리트의 정치 지배가 오안타 우말라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2011년 대선 후보군을 중심으로 본 정치 엘리트

우말라의 측근들은 페루의 오랜 전통인 중앙집권적 정부의 형성을 통해 페루의 정치 엘리트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은 우말라와의 교섭 채널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 권력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대선 출마 등 활

발한 정치 활동을 통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지난 대선의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3-7. 2011년 대선 참여 정당 및 후보

정당 혹은 선거 연합	직위	후보
Solidaridad Nacional	대통령	Luis Casta eda Lossio(변호사)
	제1부통령	Augusto Ferrero Costa(변호사)
	제2부통령	Carmen Rosa Núñez(기업인)
Alianza Electoral Per	대통령	Alejandro Toledo(경제학자)
	제1부통령	Carlos Bruce(경제학자)
	제2부통령	Javier Reátegui(행정가)
Fuerza 2011	대통령	Keiko Fujimori(행정가)
	제1부통령	Rafael Rey(엔지니어)
	제2부통령	Jaime Yoshiyama(엔지니어)
Gana Per	대통령	Ollanta Humala(군인)
	제1부통령	Marisol Espinoza(기자)
	제2부통령	Omar Chehade(변호사)
Alianza por el Gran Cambio	대통령	Pedro Pablo Kuczynski(경제학자)
	제1부통령	Máximo San Román(기업인)
	제2부통령	Marisol Pérez Tello(변호사)
Fuerza Social	대통령	Manuel Rodríguez Cuadros(외교관)
	제1부통령	Vladimiro Huaroc(인류학자)
	제2부통령	Elva Quiñones(산부인과 의사)
Partido Político Adelante	대통령	Rafael Belaúnde(지리학자)
	제1부통령	Luis Destefano(생물학자)
	제2부통령	Sixto Vilca(광산노조 지도자)
Partido Fonavista del Per	대통령	José Ñique de la Puente(변호사)
	제1부통령	Andrés Alcántara(시민운동가)
	제2부통령	Irma Grados(간호사)
Despertar Nacional	대통령	Ricardo Noriega Salaverry(변호사)
	제1부통령	Martin Portocarrero(예술가)
	제2부통령	Roberto Villar Gamboa(변호사)
Fuerza Nacional	대통령	Juliana Reymer(기업인)
	제1부통령	Julio Macedo(교수)
	제2부통령	Sergio Gallardo(기업인)
JUSTE	대통령	Humberto Pinazo(변호사)
	제1부통령	Wilson Barrantes(군인)
	제2부통령	Victor Girao(변호사)

자료: Meléndez(2011).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 혹은 선거연합은 11개에 달한다. 이들 정당들 중에 상당수는 2011년 대선을 위해 급조된 정당 혹은 선거연합으로 페루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엘리트들의 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당은 정치 엘리트를 배출하는 기관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이러한 기능 또한 페루가 갖는 제도 정치의 취약함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우말라 정부의 내각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들 정당이 낸 후보들 중 정치가 출신이 극도로 적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당들이 오랜 경험과 전통을 통해 배출한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밖에 있던 이른바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후보로 지명되는 현상은 다수의 정당이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페루 정치 엘리트의 힘을 보여준다고보다는 정치 엘리트의 약세를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오안타 우말라 대통령의 측근, 우말라 정부 각료들 그리고 2011년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페루 정치 엘리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안정한 제도 정치의 영향으로 굳건한 정치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페루 정치 엘리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세미나리오(Seminario 2012)는 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정당들, 당선되고 사라지는 정치인들,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따라 공천을 받는 현 정치 시스템 내에서 진정한 정치 엘리트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페루에서 정치 엘리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꼽았다. 바로 알란 가르시아와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다. 이 두 대통령은 현재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이 아직도 페루의 현실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4) 정치권 밖의 진정한 정치 엘리트들

가) 알란 가르시아

2012년 여름 페루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인터뷰한 학자, 기자, 일반인들의 대다수가 페루의 정치 엘리트라면 생각나는 인물로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를 꼽았다. 이는 그가 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의 당과 정치 조직을 통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알란 가르시아를 거론하였다.

알란 가르시아는 1949년 리마에서 태어났다. 변호사이자 사회학자이며 페루의 대표 정치 엘리트이다. 그는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임기는 1985년부터 1990년이었고, 두 번째 임기는 2006년에서 2011년이었다. 대통령이었으며 또한 그는 오랜 기간(1978~79, 1980~85, 1990~92) 페루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아프리카 당의 설립자인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의 직속 후계자로서 아프리카 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훌륭한 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동시에 협상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5년 대선에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 그의 임기는 최악의 경제위기와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 그리고 센데로 루미노소 그룹의 게릴라 활동으로 어수선했다. 결국 그는 1991년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1992년 헌정 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정치 보복을 피해 콜롬비아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후지모리 정권의 붕괴와 함께 귀국한 가르시아는 대선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 대선에서 정치 초년병인 알레한드로 톨레도에게 패하고 야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2006년 다시 대선에 뛰어든 알란 가르시아는 당시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오얀타 우말라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알란 가르시아의 정치 경력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어머니인 니타 페레스는 카마나(Camana) 지역 아프라 당 창당 멤버이며 그의 아버지 카를로스 가르시아 론세로스는 마누엘 A. 오드리야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아프라당 사무총장이었다. 그 결과, 알란 가르시아의 아버지 역시 구속되었으며 5년 동안 수감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알란 가르시아는 이미 연설의 중요성을 배웠다. 아직 청소년에 불과하던 그는 이미 아프라 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했으며 당원증을 소지한 아프라 당원이 되었다. 이러한 오랜 당 활동은 그를 아프라 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엘리트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라 당의 발전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미지 또한 만들고 있다.

나) 알베르토 후지모리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는 1938년 페루 리마에서 태어났다. 농공학자인 그는 1990년 7월 28일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0년 11월 21일까지 재임하였다. 후지모리는 페루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이다. 본 연구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를 정치 엘리트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의 영향력이 아직도 견재하다는 것이 지난 대선을 통해 여실히 증

명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이른바 후지모리주의자들로 결성된 Fuerza 2011은 대선에서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가 결선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저력을 발휘했으며, 37명의 위원을 당선시키며 페루 국회의 제2정당 자리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페루의 정당정치 및 제도적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이 후지모리시모(Fujimorismo)라고 불리는 정치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알페르도 후지모리를 정치 엘리트에 포함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그는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페루 사회의 선택을 받았다. 일본계 페루인이라는 독특한 인종적 특성뿐 아니라 농공학자라는 배경,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및 정치 혐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무려 여섯 개의 정치 정당/조직을 구성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회복해온 전력은 아무리 연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이다.

현재 후지모리는 인권유린 및 부패 혐의로 2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 독재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1992년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마비시킨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1990년 Movimiento Cambio 90 전선을 구축하여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이 조직은 당시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조직이었다. 1990년 그는 20%의 득표율을 얻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와 결선투표에 나섰으며, 결선 투표에서 기득권을 상징하던 요사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후지모리즘(Fujimorism)을 기치로 내걸고 2011년 대선에 참여한 Fuerza 2011은 그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를 대통령 후보로 내면서 오안타 우말라와 결

선에게까지 이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에서 나타난 Fuerza 2011의 지지세는 리마와 비(非)리마 지역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동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드를 자처한 오안타 우말라와 페루 정치의 아웃사이드 담론을 정착시킨 장본인인 후지모리의 대리자인 게이코 후지모리의 결선 대결은 역설적이게도 페루 정치 엘리트의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다. 군부 엘리트

페루의 군부는 경제·정치 엘리트와 더불어 페루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엘리트 그룹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페루는 매우 잦은 군사 쿠데타를 겪어왔으며, 페루 군부는 페루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력으로 여겨져 왔다. 19세기 말, 군부는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이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군사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여 좌파 세력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Bourricaud 1970). 하지만 1920년대 이후 군부 세력은 더 이상 경제 엘리트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한다. 이는 192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APRA를 중심으로 한 페루의 좌파 정당운동과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 덕분이다.

1968년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페루의 오랜 군부 전통에 의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APRA를 비롯한 페루 정당들의 국정 운영 능력 및 장악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했고, 급진적인 좌파들은 게릴라 운동

을 시작했을 정도로 정국이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민간인들의 비효율적인 정치 행태를 빌미로 정치에 개입해온 군부로서는 1968년 상황은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이었다. 하지만 1968년 벨라스코의 쿠데타가 놀라웠던 이유는 쿠데타의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에 추진된 정책의 내용이다 (Dietz 1992, pp. 239-240).

벨라스코와 그 당시 그를 지지했던 군부 엘리트는 페루 사회에 전반적인 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군부 엘리트가 내놓았던 기존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아니었다. 이른바 ‘군부에 의한 혁명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벨라스코 정권은 농지 개혁, 국가의 의한 계획 경제 그리고 민중 동원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 노력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농지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고, 가장 가난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지 않았다. 혁명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 빈곤층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농업조합’ 형태의 농지 공유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거시경제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벨라스코 정부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Dietz 1992, p. 240).

벨라스코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를 주도한 또 다른 군부 엘리트는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이다. 그가 페루 군부 엘리트의 역사에 기여한 바는 벨라스코의 그것 못지않다. 그는 군부 내 이른바 ‘제도주의자’로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결과,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으나 군의 본분은 정치가 아니며, 정치는 민간인들의 영역이라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벨라스코 정권하에서 불만을 토로하던 경제 엘리트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벨라스코 정권에서 추진되었

던 많은 정책들을 폐기했고, 정치 엘리트들이 원하는 민주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약속했다(Dietz 1992, p. 241).

민주정부로의 권력 이양 이후 군부 엘리트들의 주요 관심사는 센데로 루미노소와의 전투였고, 센데로 루미노소 게릴라 그룹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對)반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후지모리 정권에서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센데로 루미노소의 체포에 공을 세울 수 있었고, 이후 1995년 잠시 발발했던 에콰도르와의 전쟁에서도 군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민주 정권 이양기 이후 군부 엘리트의 페루 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후지모리 정권하에서 후지모리의 친위 쿠데타를 도왔으며, 센데로 루미노소를 척결하고 에콰도르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권력은 유지 혹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후지모리 정권이 붕괴되자 후지모리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군부 역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후지모리 이후 들어선 발렌틴 파니아구와 및 톨레도 정부는 모두 후지모리 정권에서 군부가 저지른 권력 남용, 특히 부패와 인권 유린 사례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군부 엘리트의 대표 주자들이 다양한 부패 및 인권 유린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특히 브라드미르 몬테시노와 관련 있었던 10여 명의 군장성들은 구속되었다. 톨레도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로 군부에 대한 민간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군부의 규모를 줄이되 내실을 기하는 개혁안을 상정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은 군부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Economist 2003).

2002년 12월 급기야 톨레도 정부는 240명의 군 장성을 은퇴시켰으며,

군부 예산의 20%를 삭감했다. 예산 부족으로 병사들의 식비가 부족하여 주말에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자, 툼레도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한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툼레도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군부가 저지른 다양한 인권 유린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 시기 일어났던 수천 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또한 검찰은 군부에 의한 게릴라의 총살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수사하기도 하였다(Economist 2003).

그 결과 군부의 불만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Economist(2003)의 보도에 따르면 한 군 장성은 “왜 한때 국가적 영웅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피고인석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군부들의 불만은 그러나 민주 정부하에 본격적으로 표출되지는 못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에서도 군부 엘리트 권력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 장성 출신의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당선과 그를 둘러싼 군 장성 출신 측근들의 잇단 정계 진출로 군부 엘리트의 정치 개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친군부 성향은 그가 쿠스코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그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입대할 것을 독려하며 군대야말로 빈곤층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기술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했다(Sanborn 2011).

하지만 이러한 오얀타 우말라의 군인 경력, 그리고 전역한 장성들로 구성된 내각 및 측근들이 곧 오얀타 우말라를 페루 군부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군부 엘리트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듯하다. Sanchez(2006)

에 따르면 군부 엘리트는 오안타 우말라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2000년 그의 쿠데타 시도는 군기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스스로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에 저지른 일로 폄하되었다. 게다가 오안타는 상대적으로 하급 장교였다. 페루의 73명 대통령 중 51명이 군 장교였으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군들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오안타 우말라의 대위 계급은 군부 엘리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군부 엘리트는 역사 이래로 페루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며 때로는 경제 엘리트와 결탁하고 때로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하여 페루 사회를 지배해왔다. 이러한 페루 군부 엘리트의 위상은 후지모리 정부 이후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블라디미르 몬테시노의 부패와 인권유린에 가담한 군부 스캔들로 인해 정치 위에 군림하며 질서를 지켜왔다고 자부한 페루 군부는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툴레도 및 가르시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군부 엘리트의 영향력 약화 작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군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군인의 수도 줄어들었다. 이는 군부 엘리트들의 몰락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Sanchez 2005; Dietz 1996).

하지만 오안타 우말라 정부는 그동안의 군부 약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군에 대한 더 많은 지원, 특히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다. 오안타 우말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레토릭을 활용하여 페루의 국경, 특히 향만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Sanborn 2011). 이는 곧 페루 군사력의 강화와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 참정권이 허용된 2006년 대통령 선거부터 군부의 정치적 선택이 제도화됨에 따라 군부 엘리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제 군부는 쿠데타와 같은 비전통적 방법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페루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페루 군부 엘리트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집단적으로 지지했다는 보고는 없다. 군부의 정치 참여가 용인되자 오히려 군부 엘리트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페루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 방식

본 연구에서 페루의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을 살펴보았다. 페루의 경제 엘리트는 몇몇 명문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부분 유럽계 이주민들의 후예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페루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우 견고한 인맥 구조와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최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시장 자유화의 여파로 해외 자본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민영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오히려 페루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엘리트들의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유럽계 이주민이라는 점은 페루의 인종 관계 속에서 백인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한 경제 엘리트와는 달리 페루의 정치 엘리트는 굳건한 전통이나 제도에 기반을 둔 집단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카리스마가 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측근 혹은 지지자들로 구성된 매우

느슨하고 비제도적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이 끊임없이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경제 엘리트처럼 본인들의 권력이 세습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페루에서는 알란 가르시아와 후지모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인은 때로는 정당과 제도를 초월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적 권력 이양을 통한 정치 엘리트들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기보다는 끊임없는 신당 창당, 그리고 이를 통한 바람몰이를 통해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 페루의 정치 엘리트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며, 페루 사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거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정당성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군부 엘리트는 벨라스코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초부터 페루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와 같이 기존 엘리트 구조에 반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군부는 특히 페루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핵심 요소로서 스스로를 ‘(페루의) 수호자 기관’이라고 칭하며 정치 및 경제를 포함한 페루 시민정치 위에 군림했다. 그 결과 페루에서 가장 오랜 동안 쿠데타 없이 시민의 정부가 유지된 기간은 불과 12년(1980~92)이다. 이처럼 군부의 오랜 정치 개입의 역사로 인해 군부뿐 아니라 시민들마저도 군부를 정치적 갈등의 해결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Mauceri 2004, p. 161). 이처럼 군부의 위상이 강화된 두 가지 사건은 벨라스코에 의한 1968년 쿠데타와 후지모리 정권에서의 친위 쿠데타이다. 벨라스코 정권에서의 쿠데타가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포함한 다소 좌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군부의 후지모리 친위 쿠데타 지지는 센데로 루미노소를 포함한 페루 좌파 척결과 우파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후지모리 정부를 거치면서 군부 엘리트의 정치적 장악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는 후지모리 정부하에서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이 강화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엘리트 구조의 지역 분할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모두 리마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페루의 역사 속에서 리마는 스페인에서 페루를 점령하기 위해 세운 스페인계 식민주의자들의 수도인 반면, 쿠스코는 잉카의 수도로 이러한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원주민들의 수도였다. 페루 엘리트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리마 중심성은 아직도 페루의 사회구조가 식민시기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페루 엘리트들 특히 경제 엘리트들의 리마 집중 현상은 리마가 식민 시기에 단순히 페루 부왕청의 행정수도가 아니라 정치, 종교, 경제 그리고 사회 권력이 집중된 수도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스페인인들과 이후 스페인인들의 후예인 크리오요는 원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내륙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해안 지역을 선호했고, 그 결과 거대도시인 리마를 형성하고 오늘날까지도 리마에 남아 있다. 20세기에 일어난 정치·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해 리마로의 권력집중현상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페루의 산업 및 금융 권력은 리마에 집중되어 있으며, 페루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페루에 거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리마에 형성된 경제 엘리트들은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들은 리마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중앙집권적인 정부 조직을 파고들어 정

부 관료들로부터 각종 특혜와 정보 그리고 기금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부기관은 경제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Mauceri 2004, p. 160).

이러한 페루 엘리트들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왜 페루가 후지모리의 ‘국가 재정비(re-engineering)’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엘리트들이 이를 적극 지지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후지모리가 권위주의적 정권을 세우고 사회에 ‘질서’를 되찾는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금융권 및 관료조직은 후지모리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빌려올 수 있도록 국제 금융기구와 대화 채널을 확보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적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후지모리 정권의 모든 경제 관료들은 재계의 주요 인사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모두 국가의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후지모리 정부는 노동부문을 개혁하여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농업부문 역시 개혁하여 토지소유의 집중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페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좌파의 지지기반을 약화하려는 노력이었다.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은 이러한 후지모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1992년 친위 쿠데타를 지지했고, 1995년과 2000년 후지모리의 재선을 위해 강력한 경제적 후원을 마다하지 않았다(Mauceri 2004, pp. 160-162).

이렇듯 페루의 경제 및 군부 엘리트들은 페루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후지모리 시기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 혹은 기존의 제도 민주주의는 페루 엘리트들에게 불필요하고 거주장스러운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 엘리트들에 비해

항상 불안정한 권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제 엘리트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페루 정치 엘리트의 불안정성은 이미 1820년대 독립 시기부터 있었던 페루 엘리트 구조의 특징이다. 그 결과 경제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세력과 결탁했다. 따라서 경제 엘리트들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살펴보면, 페루 경제 엘리트들은 APRA를 지원하고, 벨라스코 정부와 협조하며, 이후 후지모리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는가 하면 톨레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수복에 앞장서거나 오얀타 우말라와 경제정책을 조율한다. 다시 말해서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뚜렷한 고민이나 선호가 없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들의 경제 권력이 강화된다면 군사독재, 1인 독재, 민중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등 어떠한 정치적 형태와도 협상 및 협조가 가능하다. 그 결과 페루의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립과 발전이 더욱 더더지는 결과를 가져왔다(Dargent 2011, pp. 79-98).

페루 사회에서 절대적 파워를 지니는 엘리트로 성장한 경제 엘리트들의 중요성은 최근 집권한 오얀타 우말라 정부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강력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를 표방하며 페루의 룰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우말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파적 발전주의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그는 집권 4개월 만에 내각을 개편하여 좌파적 성향의 각료들을 경질하고 우파 혹은 군부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의 정치부장인 다이나 세미나리오(Diana Seminario)에 따르면 오얀타 우말라 집권 초기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의 행보를 지켜보기만 했으나 그가 원래 주장하던 좌파정책을 꺾

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이후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미나리오(2012)에 따르면 이는 다시 한 번 페루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경제 엘리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페루의 엘리트 집단을 경제·정치·군부로 구분하여 고찰해보았다. 페루 엘리트 집단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 집단의 특성 및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페루 엘리트 집단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경제 엘리트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유연하게 정치권력과 협조함으로써 시대와 정권을 관통하는 견고한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했다. 물론 최근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몇몇 전통 경제 엘리트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페루의 엘리트들 중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경제 엘리트에 비하여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인 페루의 정치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정당정치는 매우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는 대통령 1인과 그의 측근들로 정치 엘리트가 구성되고 정당들은 이러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당인으로서의 정치 커리어를 쌓는 것보다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 아웃사이더로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 권력의 약화는 후지모리

정권을 통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 엘리트에 비해 약한 권력을 갖게 된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 엘리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 경제 엘리트들의 뜻을 대변하는 집단 혹은 정치인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페루는 전통적으로 군부가 강력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부의 권력은 후지모리 정부를 거쳐 약화되었다. 후지모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군부 엘리트들은 후지모리 정부의 붕괴와 함께 각종 스캔들과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는 군부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후 정권을 잡은 톨레도는 군부 권력의 약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으며 이미 후지모리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동조하면서 정당성을 잃었던 군부는 톨레도와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시민정부들의 군부 축소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인 오안타 우말라의 등장으로 군부 엘리트들의 강화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으나, 우말라가 장성급 군인이 아니었다는 점, 전통적 군부 엘리트들도 우말라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우말라 정부에서 군부 엘리트의 부상이 회의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현 페루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는 엘리트는 경제 엘리트이다. 이들은 강력한 가족 중심으로 대기업을 소유하고 페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권력이 신자유주의로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우말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으로의 노선 변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엘리트들이 페루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정치 및 군부 엘리트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변화
3.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과 통치방식
5. 결론



1. 서론

브라질 사회는 독립 이후 오랫동안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서 식민기간 형성된 사회체제가 유지되었다. 포르투갈 왕실이 리우로 천도해 무혈혁명으로 독립하면서 지배 엘리트 계층에서 큰 변동없이 왕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공화혁명, 신국가체제(Estado Novo),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지배 엘리트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장기간 통제력을 지닌 지배 엘리트들은 식민과 함께 고착된 귀족적인 지배 엘리트, 군부의 정치 개입과 직접 지배로 형성된 군부 엘리트,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관료 엘리트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종교 엘리트, 대농장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엘리트(Classe A), 올리가키에서 비롯된 정치 엘리트로 구분된다. 각 영역의 지배 엘리트들은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연합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은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했다. 특히, 룰라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은 정치 엘리트 집단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 엘리트 집단은 기존의 집단들과는 출신 계층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정치적 지향점에서도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배방식과 지배연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트 집단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넘어 브라질 사회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엘리트들은 단일 경작 경제, 수입대체산업화 경제, 발전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제발전

모델의 변경에 따른 민영화, 탈규제 등으로 새로운 자본과 산업 유형들이 형성되고,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지배연합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치, 경제 엘리트 집단의 변화는 1994년 ‘Plano Real’ 이후 안정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제반 사회 영역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새로운 연대와 전략을 형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을 통해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역별 엘리트 집단들이 어떤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들을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종교 엘리트, 군부 엘리트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통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변화

브라질 엘리트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국가 형성, 제도 수립과 개혁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 이런 관계에서 살펴보면 브라질 엘리트들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엘리트를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정치체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사회에도 그 정도에 따라 유사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 다양한 형태와 질적 수준에 따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도 정치 체제의 특성에 정의된다.

브라질은 정치적 변혁을 기반으로 역사적 흐름을 구분하면, 식민기, 왕정기, 제1공화정, 신국가체제, 제2공화정, 군부지배, 재민주화와 민주주의 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정치적 변화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지고 엘리트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엘리트들은 식민기 포르투갈의 지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적 열등감 콤플렉스, 문화적 모조품, 헤게모니 국가들에 의한 인정이나 수용적인 태도, 정책결정의 자율성 부족, 경제정책 구축 전략, 국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불완전한 국가 건설, 불충분한 경제성장, 불균형적인 소득 분배, 약간의 실질적 정치 발전을 이룬 것이 전부였다.

독립과 함께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정적과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충돌도 감수했다. 왕정기간 정치권력을 쥐고 있던 엘리트 집단은 상업 부르조아, 대농장주, 19세기의 가산 관료, 커피 농장 부르주아지, 산업 부르주아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업·가부장 부르주아지는 식민 기간을 지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포르투갈 왕정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왕정기와 제1공화정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가산 관료들은 대농장주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라질의 모든 지식층들이 이 계층에서 나왔다. 왕정 초기에는 상업·가부장 부르주아지와 연합했으나 후반에는 커피농장주들의 방계 가족이 관료로 임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력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30년대 바르가스가 집권하면서 현대적인 관료체제가 도입되고 가산 관료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현대적 의미의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 현재 브라질 관료체제의 토대가 마련된 시점도 이때이다. 서구 세계의 경제

위기와 세계대전으로 커피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대신에 정부의 수입 대체산업화 추진으로 커피농장주들은 점진적으로 중앙무대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산업 부르주아지들이 차지하면서 지배연합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커피 부르주아지는 19세기에 등장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1930년대 이후 점점 쇠퇴했는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 부르주아지는 가장 늦게 등장한 사회 계급인데 19세기 말에 상과 울루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산층의 이민자 집단에서 성장했고 커피 수출로 자본을 축적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더불어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상업, 산업과 커피 대농장주와 같이 자산에 기초한 엘리트 집단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가부장적 부르주아지와 커피 농장주들은 농촌 비즈니스맨, 금융과 서비스 그룹과 통합되었다. 상업과 근대적 자본가 계급의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대신에 분야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중·고 부르주아지로 나누어진다. 산업화되면서 세습 관료들은 부분적으로 근대 국가 관료로 전환되거나, 중간계급에 통합되기도 했다. 이들이 1970년대 기술관료로 성장했다.

가. 식민시대

포르투갈의 식민은 미국의 ‘정착 식민’과 달리 ‘상업적 수탈’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사탕수수 경작이었다. 이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금광 주기가 이어지면서 상업적 수탈 경제는 계속 진행되었다. 포르투갈인들이 식민 정책을 위해 세습봉토제와 총독제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상위 엘리트 집단은 포르투갈 왕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던 관료들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식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농장주들이었으며, 이들과 산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던 커피 수출업자들이 대외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영주(Capitância)나 총독은 식민지에서 포르투갈 왕실을 대신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정치, 행정, 군사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가진 집단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 대농장주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독을 대신한 지역에서는 총독이 가진 행정력과 군사력의 일부를 갖고 있어 지방에서 누리는 권력은 매우 대단했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업 엘리트들은 대외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국내 경제에서는 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사탕수수 산업호황기에 네덜란드의 침입 이후 유럽 수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 남동부의 금광 주기가 살아나기 전까지 짧은 기간은 영향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식민 초기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토지였다. 토지 소유구조가 권력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세스마리아스(Sesmarias)의 요청이 토지 양도와 서비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지역 정복과 원주민과의 전쟁 참여, 기타 유럽 정착자들과 공공사업 참여가 세스마리아를 신청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방 직책과 기능주의적인 직위를 가질 수 있었다(Ricupero 2008, pp. 18-19). 한편 브라질 식민은 왕정과 영주들 간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다. 식민 기간 초기에는 세습봉토를 운영하던 영주들이 실질적인 관리자였는데, 그 중에는 동양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은 두아르테 꼬엘류(Duarte Coelho), 프란시스쿠 빼레이라 꼬우징뉴(Fernando Pereira Coutinho)

등이 포함되었다(Ricupero 2008, p. 21). 영주들 다음으로는 선한 사람들이 지배 관리자와 식민 지배 집단을 구성했다. 엘리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 소유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엘리트가 사회와 정부 엘리트가 되었다. 결국 식민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책과 보상은 엘리트층을 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의 기초가 되었다.

식민 엘리트들은 1530년부터 17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이 기간 상비센트(São Vicente)에서 벨렝(Belém do Pará)에 이르는 해안선 확보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 노예를 포획했으며 새로운 직책을 장악하면서 식민지 엘리트의 형성과 지위가 강화되었다. 직책 장악, 은급 지급, 자산 확보 등을 통한 엘리트 형성은 1530년부터 1630년까지 약 10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집단이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었다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엘리트들도 함께 등장했다. 포르투갈은 대항해를 통해 가톨릭의 전파를 꿈꾸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로 개척, 정복과 식민지 개척을 위한 선단이나 군대를 꾸릴 때는 반드시 가톨릭 신부가 함께했다. 특히, 스페인 로올라 신부에서 시작된 예수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수회 신부들은 식민사회에서 가톨릭의 전파를 통해 식민사회의 정신세계와 도덕 관념들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예수회가 주장하는 선임 신부의 성경 해석을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구조와 포르투갈의 가부장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브라질 사회 전체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수용되면서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엘리트층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통합적인 측면

에서 살펴보면 포르투갈에서 파견된 관료들을 별개로 정리하면 식민지 엘리트들은 대농장주들로 정의할 수 있다. 식민기간 크리오요들인 대농장주들이 형성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농장주인 아버지를 둘러싸고, 아들이 군사력을 지닌 사령관이거나 종교적인 권력을 지닌 신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식민사회는 농업 중심 경제였으며 대농장과 노예로 구성된 사회였기 때문에 농촌 귀족이 엘리트 집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산 관료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나. 독립과 왕정기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자 포르투갈 왕실은 영국 함대의 도움으로 리우로 천도한다. 갑작스러운 포르투갈 왕실 천도로 브라질은 이제 식민 본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왕실 귀족과 관료들이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등장했다. 식민행정을 담당하면서 최고의 권위와 정치력을 행사하던 총독과 까삐만시아는 왕정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었다. 리우 천도는 엘리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총독과 대농장주로 대표되던 정치 지형에 새로운 엘리트들이 형성된 것이었다. 특히 관료 엘리트들은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지만, 문화적·기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기존의 엘리트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다르게 보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관료 엘리트의 등장은 향후 관료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증폭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포르투갈 왕실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브라질에는 코잉브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관료로 등용되었던 집단이 정치를 장악했다. 포르투갈 왕실의 리우 천도

기간은 독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관료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 그리고 개혁에 따른 상업자본 성장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독립 유지와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현안이었으나 제1왕정과 섭정기간은 정치적 위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산 관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포르투갈의 가산관료체제(Patrimonial Bureaucracy)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가산 관료제는 국가가 군주의 사적인 재산으로 취급되고 관료는 개인적인 종속자로 여겨진다. 몇 가지 특징 중에는 공사구분이 없고, 상하 관계의 전인격 지배가 이루어지고 관료의 특권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브라질의 왕정체제는 이런 가산관료제로 운영되었다.

포르투갈의 가산관료는 평민과 귀족 출신으로 구분되는데, 귀족 출신들은 대부분이 가산관료이다. 따라서 독립 이후 포르투갈의 가산관료체제가 브라질에 이식되었다. 엘리트 집단들은 정치인, 고위 관료들로 구성되어었는데 변호사, 박사, 성직자와 일부 군장교들이다. 특히 제1왕정기 가산관료는 리우의 노예무역업자 출신을 포함한 구 부르주아지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주제 보니파시우(José Bonifácio)와 디오구 페이조(Diogo Feijó)가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였다. 제2왕정기 들어 커피 농장주들이 참여했으며,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페드루 2세(Pedro II)의 집권기는 여전히 군주제였으나, 집행과정에서는 권력 배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력은 페드루 2세에 집중되었고, 군부 권력은 지방 반란을 제압했던 플로리아누 페이쇼투(Floriano Peixot)가 장악하고 군부의 정치 참여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왕정기는 대내외적인 정치 안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기간에 경제 권력은 마우아(Mauá) 백작에게 집중되었다. 가산관료 엘리트들은 시대적 사명이었던 국가 건설과 발전에 실패했다. 대신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았고, 라티퐁디오 경제는 쇠퇴했다. 교육수준이 낮아 문맹률이 높았으며 산업 활동도 활발하지 못했다.

왕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엘리트들의 활동이다. 독립 이후 국정 운영에 난맥상이 나타나 지방 세력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자 북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지방 정치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 때 지방에서 무장반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 세력들이 득세했음에도 지역 단위의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 지방 반란이 전개되면서 군대의 필요성과 군 장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치 엘리트들로서의 군인이 등장했다. 군인의 등장은 제1왕정기에는 지방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했고, 제2왕정기에는 파라과이 전쟁을 거치면서 영향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진보와 질서’라는 정치사상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다. 제1공화정

군부가 주도한 공화혁명은 군부의 정치참여 확대와 과두제체제 확립으로 귀결되었다. 파라과이 전쟁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내 정치안정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군부는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커피 재배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남동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커피 경작자와 목축업자들 간의 정치적 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제1공화정은 ‘밀크커피 정치(Café com Leite)’라는 과두제를 구축했

다. 커피를 생산하는 상파울루 주와 리우데자네이루 주, 목축업자들이 중심이었던 미나스제라이스 주 출신들이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장악했다. 다른 지방 출신의 엘리트들은 중앙 정치에서 입지가 매우 약해졌다. 북동부는 왕정기까지만 하더라도 사탕수수를 바탕으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공화혁명 이후에는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사라졌다. 과도적인 정치연합은 커피 농장주와 가산관료들 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연합이었다.

구 공화국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192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전에 캄푸스 살리스(Campos Sales)가 브라질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밀크커피 정치 시스템이 유지되었고, 이후부터 1930년까지는 과두제체제가 신흥 집단의 등장으로 붕괴되는 시기이다. 특히, 문화적으로는 현대예술주간 개최, 정치적으로는 소장장교운동(Tenentismo)의 반란으로 시작된 1922년을 기점으로 과두체제의 붕괴가 견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과두제는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라이스에서 번갈아가며 대통령을 맡기도 했지만 상파울루 주 출신이 대통령이면 미나스제라이스 주 출신은 부통령을 맡는 식이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앙 정치는 주지사들의 정치(Política dos Governadores)라고 할 수 있었다. 즉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주지사들의 합의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각 주에서는 개인적으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코로넬들의 정치(Coronelismo)였다. 이들은 주로 지방 프리메이슨의 지도자이면서 대농장주이고 코로넬이었는데 시민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코로넬들이 정치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었다.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현대예술주간은 브라질 모더니즘의 결정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24년에 상파울루 주에서 이지도루 지아스 로페스(Isidoro Dias Lopes), 주아레스(Juarez)와 조아킹 따보라(Joaquim Távora)가 이끄는 혁명이 발생하여 상파울루 시를 점령했다. 그리고 1927년에는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에서는 루이스 까를루스 프레스쥬스(Luís Carlos Prestes)가 군단을 이끌고 1927년까지 리우를 향해 진군하는 프레스쥬스 행진(Coluna Prestes) 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구 공화국에 불만을 품은 소장장교 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비밀투표, 공공교육, 모든 국민들의 초등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혁명들은 브라질 사회가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계층들이 폭넓게 형성되어 기존의 정치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엘리트들 간의 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자본주의 계급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간계층이 나타났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상파울루와 리우지자네 이루의 정치적 담합을 반대하던 주들이 저항 운동을 주도했다. 엘리트 연합이 붕괴된 원인을 보면 중간계층의 성장이 가장 크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던 군부 내에 개혁을 요구하는 소장장교 운동이 등장했다. 이들은 진급과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초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고용 노동자들 중에 상당한 지식과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엘리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이 정

치적인 문제와 맞물려 1930년 혁명으로 발전했고, 결국에는 바르가스
의 신국가체제를 가져왔다.

라. 신국가체제

1930년 혁명으로 ‘민중주의 협약’이라는 새로운 정치동맹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내수 시장을 지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가와 가산관료
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 관료들이 참여했다. 산업가들은 국내 출신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과 레바논의 후손들이 많았다. 내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다.⁵⁾ 1890년대 이후 상파울루주의 커피농장주들이 산
업자본가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커피농장주들은
여전히 농업자본으로 정체되었다. 물론 일부 농장주들은 산업자본으로 전
환했지만 대부분은 농업자본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농업 엘리트들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도시 산업자본가들이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등
장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 산업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노동
자들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계급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으로 성장했다.

바르가스 집권기간은 대농장주 중심의 농촌 엘리트들이 산업화에 따라
산업 엘리트로 경제 권력이 이동하기도 했지만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라이
스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권력이 남부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히우그란지
두술 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바르가
스 집권기간에는 권력의 분산 효과가 매우 작은 규모로 진행된 측면이 있

5) Luiz Carlos Bresser-Pereira(2000).

었다. 집권 이후 바르가스를 추종하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전과 다른 권력구조를 형성했다.

군부 내의 정치권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바르가스는 1929년 자유연맹(Aliança Liberal)을 결성한 소장 장교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했다. 지역으로 보면 바이아 주에서는 주라시 마갈랑이스(Juracy Magalhães), 뻬아우이 주에서는 란지르 살리스(Landri Sales), 마라냐옹 주에서는 마갈랑이스 아우메이다(Magalhães Almeida), 빠라 주에서는 마갈랑이스 바라타(Magalhães Barata) 등이 참여했다. 1930년 혁명을 통해 기득권이던 장군들을 퇴위시키고 소장 장교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군부권력이 재편되었다. 바르가스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소장 장교들의 성향이 다시 나뉘어 바르가스를 퇴위시키는 데 참여한 장교들도 있었다.

근대적인 국가 관료들은 양적으로 점점 성장했으며 국가의 역할이 팽창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권한이 주어졌다. 1936~3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이 발표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집행을 책임지는 관료들에 대한 기본지침은 반드시 필요했다.

마. 군부정권과 민주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군부정권은 새로운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했는데 정치연합에는 부르주아지와 새로운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정통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국가 관료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던 군인들이었다. 경제위기 극복과 거시경제 기초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까스텔루 브랑꾸

정부의 선택이었다.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면 좌익 세력을 축출하고, 의회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행정부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oares 1979, p. 114). 이런 정책적 선택에 따라 의회를 양당체제로 구성하고, 제도법령을 통해 정적들을 축출했고, 기술 관료들을 등용해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1968년에 정권을 잡은 코스타 이 시우바(Costa e Silva)는 다시 수입대체산업화 혹은 국내 발전주의 전략을 추진했다. 군부정권 초기의 정책방향성과는 달랐지만 국가-외국자본-국내자본의 삼각동맹은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권위주의적 관료와 자본가가 연합하는 엘리트 집단도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정치적 자유화, 국내 경제 상황 악화,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집단의 등장으로 부르주아지 연합은 차츰 붕괴되었다. 군부정권을 특성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과 지배연합의 변화가 거의 일치한다(Castro 2001, pp. 4-5).

197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북동부에서 남부 지역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집중되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엘리트들의 지역적인 한계선도 이렇게 형성되었다. 당시의 엘리트 계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엘리트층이 사회 모든 계층에서 나왔다. 엘리트의 분석대상을 대농장주, 산업자본가와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출신성분별 계층적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엘리트의 지역적인 집중도가 낮았다.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 출신들이 중앙 관료로 임용되면서 거주 지역을 옮겼기 때문이었다. 셋째는 출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남부 지

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산업화가 상파울루를 비롯한 남동부에 집중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넷째는 북동부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역시 산업화에서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브라질 엘리트층은 규모와 사회적 층위가 매우 협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ller & Godfrey 1981).

1980년대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발전주의 전략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 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다양한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노조지도자의 등장이었다. 매우 협소한 지배 엘리트들에게는 저항 세력이었지만 일반대중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의 등장이었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런 태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물론 군부 엘리트들은 자유화를 통해 통제된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경제 엘리트들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민주화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외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Wells 2010, p. 665). 또한 사회적 엘리트로서 노조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1980년대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트 지배 연합의 붕괴였다.

3.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구성

가. 정치 엘리트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 집단은 연방·주·지방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지방 정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브라질의 주류 엘리트로 성장하는지를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 목적이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수준에서 정치권력의 지형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라스웰(Lasswell)은 정치 엘리트를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가치들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으로 정의했는데 대표적 가치로 존경(deference), 수입(income), 안전(safety)을 꼽았다. 엘리트들은 첫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이고, 둘째, 사회체계의 기본 가치들 체계의 유지에 대한 하나의 합의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며, 셋째,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한 합의권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정치 엘리트를 정의한다면 연방정부를 둘러싼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을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브라질 정

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에 따라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들은 행정부 관료,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운동과 NGO 활동이 성장하고 있어 사회운동가들도 정치 엘리트 집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 엘리트이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 관료를 비롯한 정치 집단이 구성되며 국가발전 비전과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은 전통적인 보수 엘리트 집단 출신들이 아니다. 심지어 마치 불문율처럼 유지되어 오던 남동부 지역 출신도 아니다. 룰라 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은 노동운동에서 출발해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엘리트로 성장했고 지역적으로 구분하자면 북동부와 남부 출신이다.

민주화 이후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룰라 전 대통령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이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기존의 정치 엘리트 집단 출신들로 출신 지역 엘리트 층원과정을 거쳐 성장했다.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땅크레두 네비스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지는 못했지만 미나스제라이스의 정치 엘리트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대통령 후보로 추대될 때 이미 미나스제라이스 주지사 재임 중이었다.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로 성장했고, 이후 손자인 아에시우 네비스(Aécio Neves)가 2003~10년 미나스제라이스 주지사를 거쳐 현재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 사르네이 전 대통령은 마라냐옹에서

표 4-1.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	임기	정당	출생지역	활동지역
탕크레두 네비스 (Tancredo Neves)	1985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	미나스제라이스	미나스제라이스
주제 사르니 (José Sarney)	1985 ~1990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	마라냐옹	마라냐옹
페르난두 콜로르 (Fernando Collor)	1990 ~1992	국가재건당(PNR)	히우지자네이루	알라고아스
이따마르 프랑꾸 (Itamar Franco)	1993 ~1994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	살바도르	미나스제라이스
페르난두 앙리끼 까르도주 (Fernando Henrique Cardoso)	1994 ~2001	브라질 사회민주당 (PSDB)	히우지자네이루	상파울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우바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2 ~2009	노동자당(PT)	빠레남부꾸	상파울루
지우마 호세피 (Dilma Rouseff)	2010 ~현재	노동자당(PT)	미나스제라이스	히우그란지두술

출생한 작가출신 정치인으로 1966~71년 사이 마라냐옹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1954년 하원의원에 선출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아버지가 출생 지역의 검사로 일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지수성가형의 정치인이다. 페르난두 콜로르 전 대통령은 알라고아스 주의 정치 신인으로 보수정치집단의 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콜로르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따마르 프랑꾸 대통령이 승계했는데, 부통령으로 지명되었던 이유가 정치력을 지닌 미나스제라이스 주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정권 모두 보수적인 정치 엘리트 집단의 지지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페르난두 앙리끼 까르도주 전 대통령은 리우에서 태어나 상파울루에서 자란 사회학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아버지가 군부 출신으로 가끔 그가 196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 칠레로 추방당한 사건이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까르도주는 브라

질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는 좌파 사회학자로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따마르 프랑꾸 집권기에 재무장관에 임명되어 성공적인 경제정책(Plano Real)으로 국민의 기대를 받았다. 1986년에 브라질 민주운동당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브라질 사회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기존 엘리트 출신들이 많은 상파울루이고, 계층적으로도 상층 출신이었다. 또한 정치 활동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존 보수 엘리트 집단과 정치연대를 형성하면서 체제 유지적인 특성을 보였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속노동자 출신으로 민주화를 주도했고, 노동자당을 창당하여 제도권 정치로 진입한 이후 네 번의 대선 도전 끝에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와 같이 룰라 전 대통령은 기존의 엘리트 집단 출신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정치적 텃밭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한 대표적인 엘리트이다. 때문에 기존의 엘리트 집단과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보수 엘리트 집단의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은 미나스제라이스에서 태어났지만 정치활동은 주로 히우그란지두술에서 했다. 1964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과 게릴라운동을 주도하여 수감되었다가 1972년에 석방되어 뽀르뚜알레그리에서 까를루스 아라우주(Carlos Araújo)와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주정부 행정관료로서의 경력도 쌓았으나 2000년 두뜨라(Dutra) 주정부와 내부 분쟁으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노동자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와 같이 정치적 성향은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출발했지만 제도권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실용주의적 좌파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기존 정치 엘리트 집단 출신과 사회운동 출신으로 구분된다. 민주화 이후 페르난두 엔리끼 까르도주 대통령 집권기까지 기존 엘리트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 대통령 당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당시 브라질에는 대통령을 만드는 두 세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 하나는 보수 정치 엘리트 집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바이아 출신의 안토니우 까를루스 마갈랑이스(ACM)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질의 여론 형성을 담당했던 언론 재벌인 글로부 방송(O Globo)이었다. 안토니우 까를루스 마갈랑이스 상원의원이 의장일 때 아들은 하원의장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글로부 방송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 브라질인들에게 좌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치 메커니즘은 톨라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변화했다. 하원의장이었던 아들의 사망 이후 안토니우 까를루스 마갈랑이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반좌파적인 성향도 다소 희석되었다. 또한 글로부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수 언론이 가진 정치적 보수성을 뛰어넘는 성향들이 등장했다. 특히, 노동자당의 약진으로 좌파 정치인들이 악마적 형상이거나 브라질의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들 좌파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2) 정부 주요 관료 엘리트

정부 주요 관료 엘리트는 임명직이 아닌 「공무원제도 개혁법」이 정하는 최고위 직급을 가리킨다. 임명직은 임기 동안만 재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신 정치 엘리트들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책임감, 충성도, 능력이 뛰어나다. 각 부처와 청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임명(‘AS’appointees)된다. 「공무원법(Regime Juridico Unico)」에 따르면 연방공무원은 베버리언 모델을 수용하여 종신고용제가 기본이다. 경력직은 26개가 있는데 높은 임금을 받는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된다. 1995년 이후 경력직들의 능력개발이 공공관리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주요 부처에서 핵심 인력이 되기 위해 경력직들은 세무행정, 공공재정, 회계감사와 무역 분야에 유리하게 되었다. 특히, 외교와 국방과 같은 분야에는 전통적으로 경력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직들은 특정한 고위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치조직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 공공서비스 조합주의가 강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위급 및 전문가 위원회(DAS: Comissão de Direção e Assessoramento Superior)가 중앙 관리방식을 통해 각 부처 장관 아래 주요 고위직 관리나 고문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역할을 맞는다. 임명직은 정년보장도 연금도 보장되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특채 공무원(Cargo de Natureza Especial)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치 엘리트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료 엘리트에는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하원의 특채 공무원은 하원의장이 46명을 채용할 수 있고, 하원의 일곱 개 위원회의 위원장도 각각 33명, 네 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1명을 임용하여 총 321명을 채용할 수 있다.

2012년 7월에 기획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급 및 전문가 위원회는 현재 22,209명으로 나타났다(Secretaria de Gestão Público 2012).⁶⁾ 이 그룹은 여섯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속한 모두가 관료 엘리트라고 할 수 없다. 5등급과 6등급은 높은 임금수준, 특별 채용 혹은 계약직 형태로 임용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이 대통령실의 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2012년 브라질 공무원 중에 5등급과 6등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은 5등급 1,053명, 6등급 222명으로 총 1,275명이다. 특히 6등급 공무원은 브라질 관료계에서 엘리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정책 집행능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틀라 정권 초기 행정부 구성원 중에 신입 직무가 77,000명이었다. 이

표 4-2. 브라질 관료 엘리트

구분	인원	평균 나이	평균 연봉	학사 비율	성비
DAS 5	1,053명	48세	20,519,60헤알	95.8%	28.8%
DAS 6	222명	52세	22,021,83헤알	96.4%	21.6%

자료: Boletim Estatístico de Pessoal, 195호, p. 141 편집.

6) 기획, 예산 관리부에서 발간하는 『인사통계보고서(Boletim Estatístico de Pessoal)』가 연방정부의 고위급 및 전문가 위원회와 특채 공무원의 인원, 보수, 학력,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에 26%에 해당하는 약 20,000명이 정치적 임명이었는데 DAS의 등급에 따라 여섯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그중에 1,200명이 장관과 차관 바로 아래 직위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정부 부처 내에서 정책과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전략적인 역할, 관리, 조정과 권고를 하는 역할을 했다. 신입 직책은 자유롭게 임용되고 해직되기 때문에 고위급 및 전문가 위원들은 공식적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 따라 채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정부 여당이 의회 내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승인을 이끌어내거나 정당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 협상카드(Bargaining chips)로 활용되기도 한다.⁷⁾

틀라 전 대통령의 관료 임용을 분석해보면 DAS 5, 6등급 고위직에 높은 학력, 다양한 직업 경력(교육, 기술직과 컨설팅), DAS 업무경력, 전통적인 직업군이거나 경제학자, 행정관료, 엔지니어, 변호사와 의사 외에 사회과학자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틀라 정부의 고위 관료들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주로 고위관료에 임명되는 학계 인물은 경제학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틀라 정부에서는 사회과학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여성의 고위직 채용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와 에너지 장관 출신인 지우마 호세피 전 장관을 들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인종 출신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넷째, 자신의 고향인 북동부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 및 시장 출신보다는 의원 출신들의 등장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런 다양성이 확보되어 현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D'Araujo 2009).

7) Maria(2009).

지우마 호세피 정부의 정치적인 임명직은 2011년 21,870개에서 2012년 22,000개로 증가했다. 이 중에 공공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정치적 임명은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Globo 2012.11.16). 임명직의 증가는 곧 정부예산 확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임명직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정책시행에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의 임명 패턴은 틀라 정부 때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하원에서 고용한 특채 공무원의 숫자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94명에 달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채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신임을 통해 임용된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력을 유지하고 정치관계를 조율하는 데 특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하원의 특채 공무원 채용인원

특채 공무원 등급	2011/08/31	2012/08/31	증감률(%)
특채-04	1	1	0
특채-07	236	253	7.20
특채-09	245	259	5.71
특채-10	60	64	6.67
특채-11	151	162	7.28
특채-12	80	84	5.00
특채-13	205	218	6.34
특채-14	85	95	11.76
특채-15	229	258	12.66
합계	1,292	1,394	7.89

자료: [http://www2.camara.leg.br/transparencia/recursos-humanos/quadro-remuneratorio\(2012/11/01\)](http://www2.camara.leg.br/transparencia/recursos-humanos/quadro-remuneratorio(2012/11/01)).

3) 주지사

전통적 엘리트(지방:미나스제라이스) 집단은 과두제 지배를 위해 정치적 온정주의,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배 정당에 대한 과두적 지배, 정치적 경쟁 제한의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Frances Hagopin 1987, p. 4). 또한 이들은 엘리트 집단과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정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충원을 통제하고, 정책 통합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은 지방 정치 무대에서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동시에 제한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엘리트와 그들에 의해 인정된 정치인만이 참여하는 정치구조를 형성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분권화를 진행하면서 점차적 실질적인 권한을 주정부와 시정부로 이관하고 있다. 지나친 분권화가 연방주의 정책 집행능력과 같은 행정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의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연방정부는 「재정책임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를 통해 주정부와 시정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 여러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주지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1889년 제1공화정기부터 시작해서 주지사들은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민주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정부의 자율성만큼이나 주지사의 대표성도 잘 유지되고 있다.

주지사가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근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입법부 의원들에

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브라질은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을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 후보들이 대통령보다는 주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정당의 공천권이 중앙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정당에 있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요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선거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지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지사의 영향력이 상원이나 하원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헌법이 정하는 세금 징수권인데 헌법이 점진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주정부와 시정부로 이관하면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주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주지사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8년 헌법은 정치인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행태를 취하도록 브라질 정치와 의회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주지사들은 의회, 정당, 대통령, 입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주지사의 권한이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선거와 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의회의원들이 하위정부에서 자리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주지사들은 브라질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정부에서 주지사의 권력은 의회에 대표(Bancadas dos governadores)를 파견할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 그래서 연방정부 정책보다도 주정부의 논리가 앞선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는 ‘주정부 의회(Assembly of States)’라고 할 수 있다. 27개 주 대표들은 정당정치로부터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지사들의 권력은 주정부 포크배럴(pork barrel) 자금과 주정부 관료들에게서 나온다. 주지사는 연방자본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조정하고

표 4-4. 현 브라질 주지사

주별	주지사	정당	취임	비고
아끄리	Tião Viana	PT	2011.1.1	Jorge Viana('99-07)의 동생
알라고아스	Teotônio Vilela Filho	PSDB	2007.1.1	재선
아마빠	Camilo Capiberibe	PSB	2011.1.1	
아마조나스	Omar Aziz	PSD	2010.3.31	재선
바이아	Jacques Wagner	PT	2007.1.1	재선
세아라	Cid Gomes	PSB	2007.1.1	재선 대선후보 Ciro Gomes의 동생
연방특별구	Agnelo Queiroz	PT	2011.1.1	
이스빠리두산투	Renato Casagrande	PSB	2011.1.1	
고이아스	Marconi Perillo	PSDB	1999.1.1~2006.3.31 2007.1.1~현재	재선 2회
마라냐웅	Roseana Sarney	PMDB	1995.1.1~2002.4.5 2009.4.17~현재	재선 2회 주제 사르네이의 딸
마두그로수	Silval Barbosa	PMDB	2010.3.31	재선
마두그로수두술	André Puccinelli	PMDB	2007.1.1	재선
미나스제라이스	Antônio Anastasia	PSDB	2010.3.31	재선
빠라나	Beto Richa	PSDB	2011.1.1	
빠라이바	Ricardo Coutinho	PSB	2011.1.1	
빠라	Simão Jatene	PSDB	2003.1.1~2007.1.1 2011.1.1	재선
빠르남부꾸	Eduardo Campos	PSB	2007.1.1	재선
빠아우이	Wilson Martins	PSB	2010.4.1	재선
하우지자네이루	Sérgio Cabral Filho	PMDB	2007.1.1	재선 2009년 100인 선정
하우그란지두노르찌	Rosalba Ciarlini	DEM	2011.1.1	여성
하우그란지두술	Tarso Genro	PT	2011.1.1	
훈돈니아	Confucio Moura	PMDB	2011.1.1	
호라이마	José de Anchieta Júnior	PSDB	2007.1.1	재선
산따까따리나	Raimundo Colombo	PSD	2011.1.1	
세르지삐	Marcelo Déda	PT	2007.1.1	재선
상파울루	Geraldo Alckmin	PSDB	2001.3.6~2006.3.20 2011.1.	3선
또깡핑스	Siqueira Campos	PSDB	1989.1.1~1991.3.15 1995.1.1~1998.4.4 1999.1.1~2003.1.1 2011.1.1~현재	4선

해당 주에서 연방정부 기관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한다. 주지사가 정치적 자원을 통제하여 하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원이 주지사에게 반대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 수준에서 주지사가 대출 분배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할 수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은 주지사가 하원의원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지사는 지방시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정부의 교부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일정 정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세수와 연방정부 교부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주정부의 교부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장들이 브라질리아 연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주지사가 시정부의 많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분배 통제권을 갖고 있다. 주지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정치적인 입장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들은 주지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원의원도 주지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지사가 하원의원의 지역구 시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취소 혹은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원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지역구 시정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 해당 시장은 주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지역구 내의 다른 후보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주지사가 주 하원과 시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의회 엘리트

메센베르그(Messenberg 2007, p. 311)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브라질의 상하원 의원들 중에 입법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직

과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지, 전문 분과가 있는지, 구성원이 리더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의원들을 구분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의원들을 의회 엘리트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의회 엘리트는 의원들이 이익집단을 대표하면서 의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하는 의원들 중 선택된 집단이다.

의회 엘리트르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의회에서 전략적인 지위(의장, Mesa Diretoras 총서기, 정당대표, 정부 대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정활동 기간 혹은 CPIs 기간 법 개정 초안을 작성했는지, CPIs,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인지, 설문에 응한 의원의 전체 혹은 다수가 엘리트르로 추천하는지를 비판적 요소로 선정해서 실시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해서 매년 상위 100명의 의원들을 발표한다. 의정활동 평가가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지역별 의원 분포와 분과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브라질의 의정사무국은 위의 조건들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발표하는데 벌써 19회째이다. 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지역구에서도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주에서 오랜 동안 연방 상원이나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2012년 영향력 있는 의원 발표내용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선정된 현 의원을 선정하여 의회 엘리트 집단으로 구분할 것이다. 가능한 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을 남동부, 북동부, 중서부, 남부, 북부권으로 분석했다.

우선 남동부 지역은 정치,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정치적 변화가 비교적 많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남동부권 내에서도 주별로 큰

소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는 다섯 명이 영향력 있는 의원 100명에 선정되었고, 10회 이상 선정된 의원도 세 명이나 된다. 현재 세 명은 현직 의원이 아니라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고, 브라질 사회민주당의 빠울루 아비아케우(Paulo Abi-ackel) 하원의원이 5회에 걸쳐 영향력 있는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아버지 이브라임 아비아케우(Ibrahim Abi-Ackel) 의원이 주앙 피게이레두(João Figueiredo) 집권기간 사법부 장관을 지냈고 일곱 차례나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정치가문 출신이다.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남동부 지역에 있지만 전통적인 정치가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데, 브라질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니파시우 안드라다 이 시우바(Bonifácio Andrada e Silva) 가문을 비롯해 민주화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네비스(Neves) 집안도 포함된다. 특히, 안드라다 이 시우바 가문은 독립이후 약 200년 동안 여섯 세대를 거쳐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상파울루(São Paulo) 주에서는 21명이 선정되었다. 정치활동이 가장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주로 특정 정치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당의 에두아르두 수플리시(Eduardo Suplicy), 마르타 수플리시(Marta Suplicy) 상원의원이 각각 19회, 5회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 뽑히면서 정치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다. 에두아르두 수플리시는 이탈리아 이민자 후손으로 수플리스 카페라고 하는 커피기업의 상속자이다. 노동자당 창당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1991년에 노동자당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현재는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히우지자네이루(Rio de Janeiro) 출신 의원은 모두 일곱 명이 선정되었다. 프란시스꾸 도르넬리스(Francisco Dornelles) 상원의원, 미루 떼이세이라(Miro Teixeira), 호

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하원의원은 각각 14회, 17회, 11회 선정되었다. 호드리구 마이아 의원은 히우 그란지 두 노르찌(Rio Grande do Norte)의 마이아(Maia) 가문 출신으로 전통적인 표밭에서 벗어나 리우에서 하원에 당선되었다. 프란시스꾸 도르넬리스 상원의원은 헌법, 정의와 시민권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루 페이세이라 의원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1988년 헌법 규정 조항 평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동부권은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큰 변화 없이 장기간 선출된 곳이라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된 의원이 가장 많은 권역이기도 하다. 알라고아스 주 출신인 헤낭 깔레이루스(Renan Calheiros) 상원의원은 16회나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알라고아스 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주 하원의원을 거쳐, 1982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되었고, 1994~2002년, 2002~2010년, 2010~18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11년부터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의 상원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알라고아스 주에서는 깔레이루스 가문에 버금가는 꼴로르 이멜루(Collor e Melo) 가문 출신으로 페르난두 꼴로르(Fernando Collor) 상원의원도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알라고아스 주의 정치 엘리트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주제 사르니(José Sarney) 전 대통령은 아마빠 주의 전통적인 정치인으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다. 영향력 있는 의원에 무려 19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여전히 브라질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딸인 호제아나 사르니(Roseana Sarney)도 연방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활동하다 현

재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다. 아들인 사르니 필류(Sarney Filho)도 환경부장관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가문을 이루고 있다. 바이아(Bahia) 주는 과두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안토니우 까를루스 마갈랑이스(ACM: Antonio Carlos Magalhães)가 12번째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ACM은 바이아 주의 정치 가문으로 한 때 자신은 상원의장으로 사망한 아들이 하원의장을 맡으면서 연방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특히, 페르난두 엔리케 까르도주 대통령 당선과 국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정치인으로 바이아뿐만 아니라 북동부 지역을 대표한다. 바이아 주에서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의 주따히 주니오르(Jutahy Júnior) 하원의원이 13번이나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역시 바이아에서 ACM 가문과 함께 정치 명문가를 이루는데, 할아버지인 주라시 마갈랑이스(Juracy Magalhães)가 바이아 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또 한 명의 바이아 주 출신의 의회 엘리트는 와우페르 뽕네이루(Walter Pinheiro) 상원의원이다. 노동자당 소속으로 14번이나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전국중앙노동자연맹(CUT)의 재무담당과 주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8년 하원의원 시절 과학, 기술, 통신과 정보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정부와 기업 간의 브로드밴드 사업을 중재했다. 세아라(Ceará) 주 출신의원 다섯 명이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는데, 브라질 공산당(PCdoB)의 이나시우 아후다(Inácio Arruda) 의원이 14차례 선정되었다. 1981년에 브라질 공산당에 입당하고 1988년에 포르탈레자 시의원에 당선되어 주 하원을 거쳐 1994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 세아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이것은 1946년 루이스 까를루스 프레스지스(Luis Carlos Prestes) 이후 처음이

었다. 상원에서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세아라 주는 고미스(Gomes) 가문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루 고미스(Ciro Gomes) 전 의원은 세아라 주 주지사, 포르탈레자 시장과 연방하원에 진출했으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다. 현재 세아라 주지사가 시지 고미스(Cid Gomes)이다. 빠라(Pará) 주와 빠라이바(Paraíba) 주 출신 의원은 올해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브라가(Braga) 가문이 빠라이바의 전통적인 정치가문이다. 윌송 레이쥬 브라가(Wilson Leite Braga) 전 의원은 주앙빠소아 시의원, 시장을 거쳐 빠라이바 주지사를 거쳐 연방하원에 당선되었다. 이와 더불어 빠라이바에는 쾀냐 리마(Cunha Lima) 가문이 정치에 많은 영향력 미치고 있다. 페르남부쿠(Pernambuco) 주 출신의원 중에는 무려 아홉 명이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페르남부쿠는 아하에스(Arraes) 가문이 일가를 이루는 곳인데, 이번 회기에서도 아나 루시아 아하에스 지 알렌카르(Ana Lúcia Arraes de Alencar)가 하원에 진출했다. 이노센시우 올리베이라(Inocêncio Oliveria) 하원의원이 19차례나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출되어 정치력을 키우고 있다. 사실 이노센시우 올리베이라 의원은 이따마르 프랑꾸 집권기에 하원의장 자격으로 헌법적인 대리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 히우그란지두노르찌(Rio Grande do Norte) 주에서는 앙리끼 에두아르두 아우비스(Henrique Eduardo Alves) 하원의원과 주제 아그리빠누 마이아(José Agripino Maia) 상원의원이 13번째 선정되었다. 두 의원은 히우그란지두노르찌의 전통적인 정치 가문 출신이다. 앙리끼 에두아르두 아우비스는 아우비스(Alves) 가문 출신으로 하원에 진출해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주제 아그리빠누 마이아는 마이아 가문 출신으로 나따우(Natal) 시장, 주지사를 거쳐 상원의원에 당

선되었으며 현재 민주당 대표이다. 두 가문이 히우그란지두노르찌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뻬아우이(Piauí) 주에서는 노동자당의 웰링톤 지아스(Wellington Dias) 상원의원이 선정되었는데 2011년부터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외 세르지뻬(Sergipe) 주에서는 브라질 사회당의 안토니우 까를루스 발라다레스(Antonio Carlos Valadares) 상원의원, 또강쟁스(Tocantins) 주에서는 브라질 사회민주당의 에두아르두 고미스(Eduardo Gomes) 하원의원, 사회민주당의 까찌아 아브레우(Kátia Abreu) 상원의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중서부권은 연방정부가 위치한 브라질리아 연방특별구(Distrito Federal)가 속한 권역으로 직접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력이 높은 권역은 아니다. 연방특별구에서는 노동민주당의 끄리또방 부아르끼(Cristovam Buarque), 브라질 노동자당의 짐 아르젤루(Gim Argello), 브라질 사회당의 호드리구 롤렘베르그(Rodrigo Rollemberg) 상원의원, 이스뻬리투상투(Espírito Santo) 주에서는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호지 지 프레이따스(Rose de Freitas) 하원의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고이아스(Goias) 주에서도 역시 5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에 조바이르 아란찌스(Jovair Arantes), 호나우두 까이아두(Ronaldo Caiado), 산드루 마베우(Sandro Mabel) 의원이 각각 12회, 14회, 13회 선정되었다. 호나우두 까이아두는 고이아스 주의 정치인이자 농장주 가문 출신이며 2009년 2월부터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산드루 마베우 하원의원은 정치인이자 기업인으로 고이아스에 본사를 둔 마베우 그룹(Grupo Mabel) 경영주의 가족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고이아스 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부권은 현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을 쌓은 지역으로 노동자당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다.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상·하원 여덟명이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특히, 노동자당의 빠울루 빠임(Paulo Paim),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페드루 시몽(Pedro Simon) 상원의원은 나란히 조사가 이루어진 때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마치 히우그란지두술의 경쟁자들이 중앙정치에서도 경쟁하듯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빠울루 빠임은 카노아(Canoa) 철강 노조운동가 출신으로 의회에서 사회위원회와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저임금, 퇴직연령 조정과 같은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페드루 시몽은 레마논 이민 후손으로 사회위원회와 헌법, 정의와 시민권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보수적인 정치인이다. 파라나(Paraná) 주 출신 의원 중에는 여섯 명이 선정되었다. 그중에 민주당의 아베라르두 루삐온(Abelardo Lupion) 하원의원이 선정되어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많은데 농목축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산타까따리나(Santa Catarina) 주 출신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산타까따리나주는 본하우젠과 콘데르(Bornhausen e Konder) 가문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북부권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상·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고, 아직 특정한 정치 가문이 장기간 장악하지 않은 지역이다. 혼돈니아(Rondônia) 주 출신 중에는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바우지르 하우빠(Valdir Raupp) 상원의원, 호라이마(Roráima) 주에서도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호메루 주까(Romero Jucá) 상원의원이 선정되었다.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민주당(DEM)의 빠우데르네이 아벨리누(Pauderney Avelino) 하원의원이 선정되었는데, 10회에 걸쳐 영향력 있는 의원에 선정되었다. 5

선 의원으로 마나우스가 지역구이며 민주당의 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지속적인 득표를 통해 상·하원에 선출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동부와 북부권역의 사례가 이런 장기집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영향력 있는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5) 시민사회 및 NGO 부문의 엘리트

브라질의 사회운동은 크게 노동자총연맹(CUT: 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중심의 노조운동, 토지소유 구조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무토지노동자운동(Movimento dos Trabalhadores Sem Terra), 아마존 보존 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환경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다양한 운동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 특성을 잘 설명하고 운동적 성향이 활발하여 브라질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위의 구분을 기준으로 사회 엘리트들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먼저 현 정부의 뿌리이며 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노조운동을 들 수 있다. 브라질의 노조운동은 노동자당 출범의 근간이다. 노동자당의 당명이 노동자당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브라질의 노조운동은 노동자총연맹이 1983년에 창립되어 상파울로 ABC 지역의 자동차 공장의 파업을 이끌면서 민주화의 마지막 단계를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

했다. 현재는 자동차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의 노조들이 포함되어 약 75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세계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다. 노동자총연맹은 민주사회주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며 과거에 노조에서 활동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노동자당의 당원이다. 노총은 실질적으로 의장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움직여 의장인 바그네르 프레이타스 지 모라이스(Vagner Freitas de Moraes)와 사무총장인 세르지우 노브리(Sérgio Nobre)의 성향에 따라 노조운동의 강도가 결정된다. 노동자총연맹의 정치적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바그네르 프레이타스는 1987년 브라데스꼬(Bradesco) 은행에 입사해 금융노동자로 일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맹의 재무행정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상파울루 은행 노조위원장과 연맹의 금융분과 노동위원장을 동시에 맡아보면서 은행과 금융, 자본시장 노동자, 대출조합노동자,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온 노조지도자로서 노동자총연맹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노조보다는 연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금속노동자 출신인 세르지우 노브리를 임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파울루 ABC지역 금속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1986년에 성베르나르두(São Bernardo)의 페르세테스 벤츠사에 입사해 공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지역위원으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노브리는 노조 중에서 가장 연성인 금융노조 출신이 위원장을 받아 조직과 노조운동이 약화될 것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사무총

장을 맡을 당시 인터뷰에서 한 말과 같이 금속노조가 가진 투사적 상징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ABC지역의 노사 갈등을 전국적인 이슈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처럼 노동자총연맹은 브라질 민주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당과의 정치적 연대관계 때문에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무토지노동자운동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운동 단체로 브라질 26개 주 중에 24개 주에 산재하며 비공식적으로 약 15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무토지노동자운동은 우선 노동자들의 토지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다음으로는 토지개혁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균등, 인종주의, 성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무토지노동자운동은 조직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단위나 혹은 지역 단위의 조직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지도자들 중에 경제학자이며 사회활동가로서 이론적인 토대와 투쟁 방식에 대해 많은 전략을 제시하는 주앙 빠드루 스테질리(João Pedro Stedile)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주앙 빠드루는 자신이 소농의 자식으로 성장한 배경으로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휴경지나 대토지 소유주의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그는 히우 그란지 가톨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친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활동가로서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1987년에 무토지노동자운동에 참여하여 히우그란지두술 포도생산자협회, 히우그란지두술 농촌노동자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브라질의 농업 문제: 농지개혁 프로그램 1946-2003 *A Questão Agrária no Brasil*

Programas de Reforma Agrária: 1946-2003』 등과 같은 저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론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전략가이다.

또한 환경운동에서 성장하여 전체적인 환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정치체제에 뛰어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사회 영역의 엘리트로 등장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가 있다. 마리나 시우바는 아끄리 주에서 쉬꾸 멘지스(Chico Mendes)와 함께 아마존 보호운동을 전개했던 환경운동가인데, 1994년에 아끄리 주 상원의원에 선출되어 1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 노동자당의 발전과 환경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초기 정치활동은 브라질 공산혁명당(PRC)에서 시작했으나 1985년에 노동자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2008년 룰라 정부가 추진하는 아마존 개발정책에 반대하면서 맡고 있던 환경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노동자당을 탈당하고 녹색당에 입당했다. 그해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3위를 차지했다. 마리나 시우바는 여전히 환경문제 분야에서는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도를 인정받았으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닌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브라질 정치사에서 환경문제와 같은 단일한 어젠다를 통해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 경우는 매우 드문데 마리나 시우바의 정치력은 이런 입지전적인 그녀의 성장과정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제 엘리트

피얼슨(Margret M. Pearson)은 경제 엘리트(business elite)를 경제적 위계 내에서의 지위(position), 소득, 교육, 명망 등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그룹으로 정의했다. 이 중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조직과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조직 내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경제적 위계 내에서의 위치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다음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유용하다. 경제소득 규모를 절대적인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만 엘리트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 위계 내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인으로서의 명망은 자신이 가진 경제규모에 따라 형성될 수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경제적 여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명망은 무형적인 자산이라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 현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 엘리트는 경제 관료, 대기업 경영자(국영기업 및 민간기업)과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업 경영자를 좀 더 나누어보면 산업자본가, 금융자본가, 상업자본가와 대농장주 등의 엘리트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경제 관료들은 행정 관료의 하위 범주이므로 여기서는 특정한 영역의 경우로 제한한다.

1) 공기업 경영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영기업들이 브라질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금융을 담당하는 브라질 개발은행, 심해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로 기업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브라질 석유공사(Petrobras), 브라질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브라질 전력공사,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었음에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공

기업으로 남아 있는 브라질 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이다. 투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를 시행하는 기관이라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브라질 개발은행장은 루시아누 까우마옹 꼬우징뉴(Luciano Galvão Coutinho)인데 상파울루 대학교 출신으로 감베나스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산업과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데 주로 산업정책에 대해 연구했으며, 경영컨설팅 회사인 LCA Consulting를 공동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2007년에 이 회사를 떠나 브라질 개발은행으로 이직했다. 꼬우징뉴 역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투자운영을 하는 시장 전문가이다. 꼬우징뉴 사장은 룰라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룰라 후보가 승리하면서 기획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거부했었다. 2007년 사장에 취임할 당시 1960년대 학생운동 동료였던 주제 지레세우(José Direceu) 정무장관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룰라 전 정부와 호세피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브라질 생산발전정책(PDP)과 성장촉진정책(PAC)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룰라 전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속되는 산업발전정책으로 지우마 호세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석유공사(Petrobras)의 CEO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석유공사가 많은 유조선과 시추선을 발주하면서 조선

분야의 법 규정이 변경될 정도로 관련 산업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석유공사 CEO인 마리아 다스 그라스 시우바 포스페르(Maria das Graças Silva Foster)는 2012년 『타임』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75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위에 선정되었다. 최초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피가 82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것이다. 미나스제라이스 까라쟁가스(Caratingas)에서 태어나서 히우지자네이루의 변두리인 파벨라에서 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플루미넨스 연방대학을 졸업하고, 히우 연방대학 석사와 제폴리우 바르가스 재단 박사를 마쳤다. 석사와 박사과정은 경제 엘리트들이 거치는 과정을 밟았다. 197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빼뜨로브라스에 입사해, 다양한 직책을 거쳐 2005년 화학 담당부의 대표 및 투자관계 부서 담당 이사, 2006년 유통 담당부 대표를 거쳐 2007년에 가스 및 에너지부 이사로 발탁되었다. 2012년 2월 9일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의 지명으로 빼뜨로브라스의 CEO에 취임했다. 포스페르는 석유계에서 철의 여왕으로 불린다.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과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호세피 대통령이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에너지 부문 서기관으로 재임할 때 빼뜨로브라스 볼리비아-브라질 라인 매니저로 만났다. 그리고 룰라 전 정부의 호세피가 에너지 및 광업 부문을 담당할 때 포스페르를 석유 및 천연가스 담당부 서기관 및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 협력부 코디네이터로 지명하면서 둘의 관계가 확고해졌는데, 이때부터 포스페르의 빼뜨로브라스의 CEO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브라질은 산업시설 확충 등으로 전력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

황이다. 브라질 전력공사인 일레뜨로브라스(Eletrobras)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일레뜨로브라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이면서 세계적으로도 10위 권내에 있는 기업이다. 최근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주제 다 꼬스따 까르발류 네투(José da Costa Carvalho Neto)로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다. 미나스제라이스의 브라질 민주운동당 정부에서 미나스제라이스 에너지회사(Companhia Energética de Minas Gerais) 대표를 역임했고, 노동자당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주제 세하(José Sarra)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2011년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과 광업 에너지 자원부 장관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선임 당시 배경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며 동시에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공항 인프라 공사(Empresa Brasileira de Infraestrutura Aeroportuária, Infraero)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유치로 브라질은 항공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항 67개, 비행지원단 80개, 항공화물터미널 32개를 관리한다.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은 무릴루 마르께스 바르보자(Murilo Marques Barbosa) 사장인데, 리우 출신으로 항공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 분야 기술 관료라고 하기 어렵다. 히우자네이루 주의 정보통신국, 브라질 원자력공사(Nuclebrás)와 핵에너지국가위원을 지냈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많은 직무 중에 브라질 공항 인프라 공사 재무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바르보자의 경력을 보았을 때 공항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과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주영기업으로 구분된다. 국영기업 체제가 유지될 때는 주마다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도 항만관리 회사는 주마다 설치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장관이 추천 임명하는 DAS와 NES를 통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관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대자본가

전통적으로 농장주들이 농산물 무역을 통해 상업자본으로 성장하고 다시 산업화에 편승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고 금융자본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 상파울루 커피 대농장주들이 성공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통해 대자본가들이 양산되었다. 물론 자본 성격의 변화없이 농업자본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있지만 대농장주의 자본으로 지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브라질 경제를 움직이는 재계 순위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이미 전통적인 자본가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산업 영역에서 대자본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계 1위인 에이끼 바찌스파(Eike Batista)는 EBX Group 회장이며 약 300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순위에서는 7위이다. EBX Group은 상파울루 주식시장에 석유와 가스 사업을 하는 OGX,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MPX, 물류 산업을 주도하는 LLX, 광업에 투자하

표 4-5. 브라질 10대 부자

순위	성명	주력사업	자산규모
1	Eike Batista	석유와 광업	R\$ 30,26 bilhões
2	Jorge Paulo Lemann	맥주와 투자	R\$ 29,30 bilhões
3	Joseph Safra	은행업	R\$ 25,97 bilhões
4	Antônio E. de Moraes	다품종	R\$ 21 bilhões
5	Marcel Telles	맥주와 투자	R\$ 13,43 bilhões
6	Roberto Irineu Marinho	통신	R\$ 12,86 bilhões
7	Carlos Alberto Sicupira	맥주와 투자	R\$ 11,87 bilhões
8	Norberto Odebrecht	건설과 석유화학	R\$ 9,10 bilhões
9	Francisco Ivens de Sá Dias Branco	식품	R\$ 7,32 bilhões
10	Abilio Diniz	소매	R\$ 6,80 bilhões

고 있는 MMX, 그리고 offshore 분야와 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OSX 등을 거느리고 있다. 에이키 바찌스파는 주앙 굴라(João Goulart), 페르난두 콜로르(Fernando Collor) 정부에서 광업에너지 장관을 역임했고, 브라질 최대 철강회사인 발리 두 히우 도시(Vale do Rio Doce)의 사장을 지낸 엘리테제르 바찌스파 다 실바(Eliezer Batista da Silva)의 아들이다.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는 에이카 빠찌스파는 1980년 초반에 유럽에서 돌아와 금과 다이아몬드 무역에 뛰어들어 아마존 지역에서 구매해 브라질 남동부와 유럽에 내다팔았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브라질과 캐나다에 여덟개 금광회사와 칠레의 은광에서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EBX 그룹은 미나스제라이스와 마투그루수두술(Mato Grosso do Sul)에서 철광석을 생산하고 상용 태양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이 그룹이 투자한 금액이 155억 달러에 이르는데 히우지자네 이루의 상주앙다바하(São João da Barra)에 LLX가 Açú 항구, 이따과이(Itaguaí)에는 MMX가 남동부 항구를 건설하고 있고, 마라냐옹의 이따끼

(Itaqui)와 세아라의 빠셈(Pecém)에 온열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와 같이 이 그룹은 인프라와 천연자원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르지 파울루 레망(Jorge Paulo Lemann)은 스위스 이민자의 후손으로 재계 순위 2위이며 약 1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1971년에 세 명의 동업자와 함께 투자은행인 가란찌아 은행(Banco Garantia)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에 뛰어들었다. 나중에 동업자들과 양조업에 투자해서 암베브(AmBev)로 성장시켰다. 이 회사는 2003년에 매출이 27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세전 수익이 35%에 달했다. 당시 브라질 맥주 시장의 65%,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볼리비아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3G Capital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투자은행을 근간으로 출발한 조르지 파울루 레망은 맥주 회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은행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조세피 사프라(Joseph Safra)는 은행과 투자 왕국 사프라(Safra) 그룹 회장이다. 조세피는 오트만 제국기에 알레포(Aleppo)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와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카라반 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베이루트의 부유한 은행 가문에서 태어났다. 1952년에 브라질로 건너와 1955년 가족들과 함께 상파울루에서 금융자산 운영회사를 운영했다. 1960년대에 사프라 은행을 설립했는데 현재 브라질에서 여섯 번째로 큰 민간은행으로 키웠다.

안토니우 모라이스(Antônio E. de Moraes)는 금속, 종이, 시멘트와 냉동 오렌지 주스에 주력하는 보토티(Votorantim) 그룹 회장이면서 상파울루에 있는 Beneficência Portuguesa 병원 소유주이기도 하다. 이 병원 소득의 60%를 빈곤층에 환원하고 있다. 빠르남부쿠 출신의 아버지가 소

로코바(Sorocoba) 시의 보도랑쥬 구에 있는 모직회사를 인수하여 창업한 그룹을 물려 받았다. 모라이스는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주로 국민보건 시스템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이 있다. 1986년에는 상파울루 주지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금도 신문이나 잡지에 주요 사안에 대해 글을 쓰기도 하는데, 상파울루 문학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마르세우 텔레스(Marcel Telles)는 조르지 파울루 레망의 동업자로 은행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암베브(AmBev)를 인수한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안호이저부시인베브(Anheuser-Busch InBev)의 주주다. 2010년에는 3G Capital이 버거킹(Burger King)을 인수했다. 또한 브라질 최대의 소매 상업인 로자스 아메리카나스(Loja Americanas)를 운영하고 있다.

호베르투 이리네우 마링뉴(Roberto Irineu Marinho)는 브라질 최대 방송사인 우 글로부(O Globo)의 회장이다. 2003년 아버지인 호베르투 마링뉴의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 세르팡징뉴(Sertãozinho)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집권기와 민주화 시기에 글로부는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맹률이 높은 브라질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글로부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브라질에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까를루스 아우베르투 시꾸삐라(Carlos Alberto Sicupira)는 주류와 소매업에 주력하고 있다. 레망, 텔레스와 함께 안호이저부시인베브 최대 주주이다. 세계 맥주 시장의 25%를 장악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약 11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역시 1929년에 설립된 로자스 아메리카나스의 최대 주

주인데 이 소매업 체인은 23개 주에 545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

노르베르투 오데브레치(Norberto Odebrecht)는 바이아의 살바도르에 오데브레치 재단(Fundação Odebrecht)를 설립했다. 오데브레치사는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과 석유화학 분야가 주력인데,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 아프리카, 유럽과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그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회사인 브라스캠(Braskem)을 거느리고 있다.

프란시스쿠 이벤스 지 사 지아 브라꾸(Francisco Ivens de Sá Dias Branco)는 포르탈레자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인 마누에우(Manuel)가 설립한 빵회사인 M. Dias Branco S.A.를 상속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아빌리우 지니스(Abilio Diniz)는 브라질 소매 체인인 브라질 배급회사(Companhia Brasileira de Distribuição)의 회장이다. 지니스 가문은 슈퍼마켓인 빵 지 아슈카르(Pão de Açúcar)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는 빵 지 아슈카르, 가자스 바이아(Casas Bahia), 뽀뚜 프리우(Ponto Frio), 엑스트라 슈퍼마켓(Extra Hipermercado)를 운영하고 있다.

10대 부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5년 연속 『에포카(Época)』 잡지가 뽑은 영향력 있는 브라질인 100인에 선정된 기업인이 있다. 이따우 은행(Banco Itaú) 은행장인 호베르투 세투발(Roberto Setubal)은 은행 설립자인 올라부 세투발(Olavo Setubal)에 이어 경영에 뛰어들어 브라질 연합은행(Unibanco)과 합병을 통해 크게 성장시켰다. 가업을 이어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따우-우니방꾸(Itaú-Unibanco)로 새롭게 출발했다. 시장 가치로 보면 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최근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에 이어 자산 규모 2위이다. 상속녀인 아나 루시아 지 마투스 바레투 비렐라(Ana Lúcia de Mattos Barretto Villela)가 2011년 세계 순위 18위를 차지할 만큼 재산이 많다.

3) 경제 관료

브라질의 경제 엘리트들 중에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들을 출신학교와 연구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는데, 경제 관료들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제 관료는 상파울루 대학교(Universidade de São Paulo) 경제대학과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de Getulio Vargas)의 경제 및 경영 출신이다. 또한 경제 관련 연구소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관료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발전 플랜을 구상하는 기관 역할을 했다. 이들 기관들로는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브라질 경제연구소(Instituto Brasileiro de Economia), 기획부의 경제사회기획연구소(Instituto de Planejamento Econômico e Social), 상파울루 대학교의 경제연구재단(Fundação Instituto de Pesquisas Econômicas) 등이 있다. 이 연구소들은 브라질의 경제발전 모델 구축, 이론적인 토대 마련 등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브라질 경제연구소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 관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브라질 경제정책 결정과 실행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동시에 경제 관료를 양성하는 연구기관으로 기능했다.

페르난두 엔히키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전 대통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헤알 플랜(Plano Real)을 추

진하면서 기존의 경제 엘리트 집단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출신들을 골고루 입각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페드루 말랑(Pedro Malan), 페르시우 아리다(Pérsio Arida), 라라 헤젠지(Lara Resende), 에지마르 바샤(Edmar Bacha), 구스타부 프랑꾸(Gustavo Franco) 등이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다. 대신에 IMF 정책에 반대하던 정책 기조에 따른 대외신인도 회복과 대외부채 상환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었다. 그래서 보스턴 은행 출신을 중앙은행장에 임명하고 중앙은행의 관리자와 재무부 장관에 금융시장 출신을 입각시켰으며 제폴리우 바르가스 재단과 히우 가톨릭 대학교(PUC-Rio)와 같은 보수주의 진영들을 경제부처에 입각시켰다. 그러면서 UNICAMP와 UFRJ 출신의 경제이론가와 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 CEPAL 출신들이 경제부처에서 물러났는데, 까를루스 레싸(Carlos Lessa)가 브라질 개발은행장에서 물러났고,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노동자당 당원인 마리아 콘세이사우 따바레스(Maria Conceição Tavares)도 물러났다. 대신 기두 만테이가(Guido Manteiga)가 재무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했다.

현재 재무부 장관은 룰라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기두 만테이가가 계속 맡고 있다. 기두 만테이가는 상파울루 대학교 출신으로 제폴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경영대학원을 거쳐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93년부터 룰라의 경제자문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 노동자당의 경제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당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입각한 이후 브라질 경제의 국제환경 개선, 내수시장 성장과 천연자원 개발 등으로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우마 당선자가 맨 먼저 장관으로 추천했다. 이로써 호세피 정권의 경제정책도 룰라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실제 호세피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이 룰라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거나 확대 발전시킨 것들이다.

지우마 호세피 정부는 중앙은행장에 알렉산드리 안또니우 퐁비니(Alexandre Antônio Tombini)를 임명했다. 브라질리아 대학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다. 취임하면서 중앙은행의 운영자율권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높은 이자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통화구매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퐁비니 은행장은 IMF의 브라질 대표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지우마 호세피 정부에서도 시장 중심의 경제운동을 담보하면서 국제신인도를 확보해나가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중요한 경제부처인 재무부, 중앙은행과 브라질 개발은행은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주의 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대외신인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도이다. 두 번째는 현재 브라질 경제운영의 중심인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경제부처 수준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호세피 정부가 룰라 전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노동자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완성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 종교 엘리트

브라질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비교적 조화로운 사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각 민족들이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식민기에 유럽인들이 가져온 가톨릭, 아프리카인들이 들여온 아프로-브라질 종교, 아랍인들의 이슬람, 아시아인들과 함께 들어온 불교와 유교까지 종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공식 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아프로-브라질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예배방식에 따라 신들에게 축복을 기원한다. 이들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도 있는데, 포스두이구아수(Foz do Iguaço)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분포하여 이슬람의 지도자가 참석한다. 이처럼 브라질에서 종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을 지키는 정체성 회복의 일환으로 혹은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엘리트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브라질 사회의 종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종교 엘리트라는 개념 정의가 선결되어야 이들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브라질은 식민지 당시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독립이후 왕정기에는 정교 분리 없이 유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가톨릭 주교와 신부들이 엘리트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다른 종교들의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타 종교의 진입은 다른 민족들이 브라질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다. 결국 종교의 수용 과정이나 형태가 곧

브라질 사회의 발전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집단을 주도하는 종교 엘리트들의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 가톨릭은 브라질 사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따라서 가톨릭 신부들이 행정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 기능했다. ‘교회 엘리트(Church Elite)’는 이반 발리에르(Ivan Vallier)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 교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교회 엘리트는 교회의 전체로 인식되는 집단이며 주어진 체제와 그 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회 엘리트를 말할 때는 대주교와 주교가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태도, 개인적 특성, 개인적 카리스마, 주요 지위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가톨릭의 성직자와 평신도들도 분석해야 한다. 발리에르에 따르면 교회가 설립되면 권위에서 사회적 통제, 사회적 억압과 전체적인 통제를 만들어내는 파워와 영향력을 끌어낸다.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특히 큰 영향력을 끼쳐왔고, 현재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세기 중반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해방신학이 등장해 빈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수적인 세력과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어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1)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관은 약 400명 이상의 주교로 구성된 브라질 주교회의(Conferência Nacional dos Bispos do Brasil)이며, 전국에 250개의 교구를 거느리고 있다. 브라질 주교회의는 1952년 리

우에 설립되었으나 1977년에 브라질리아로 본부를 이전했다. 엘데르 까마라(Hélder Câmara), 자이미 까마라(Jaime Câmara), 까를루스 모타(Carlos Mota)와 까르테아우 레미(Cardeal Leme) 등이 주축이었는데 바르가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의는 주교들의 영성체를 강화하고, 국내 교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가톨릭 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단체이지만, 브라질 사회와 종교의 관계, 가톨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가톨릭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Schallenmueller 2010, p. 10). 설립 초기에는 북동부 지역의 주교들이 조직을 장악했는데, 이것은 브라질 교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치적, 지적 세력의 등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톨릭 엘리트의 등장을 의미했다. 브라질 주교회의는 인권보호, 민주자유 수호, 농지개혁, 노동자의 권익과 재민주화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Azevedo 2004). 이런 경향은 민주화 과정으로 이어져 시민단체이자 정치단체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룰라 정부도 취임 이후 브라질 주교회의를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농지개혁, 도시폭력과 마약 밀매 근절, 국가통합, 아마존과 북동부의 원주민 공동체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문두 다마스세누 아시스(Raymundo Damasceno Assis) 대주교는 주교회의 의장이면서 라틴아메리카 사교단과 매스컴 평의회 회원이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브라질 주교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브라질 주교회의 감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 5월 9일에 4년 임기의 브라질 주교회의 의장에 당선되었다.

CNBB의 부의장은 마라냥 주 상루이스 대주교인 주제 벨리자리우 다 시우바(José Belisário da Silva)가 맡고 있다. 1999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주교로 임명했으며 2005년 9월에 베네딕토 16세가 상루이스의 대주교로 임명했다. 2007년부터 브라질 주교회의의 북동부 제5지구 비서와 기도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CNBB의 사무총장은 브라질 프란시스코파 사제이며 수도사인 프레이 레오나르주 울리시 스테이네르(Frei Leonardo Ulrich Steiner)가 맡고 있는데 보좌주교이다. 2005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마투그루수(Mato Grosso) 주의 뿌렐라 지 아지상페릭스(Prelazia de São Félix)의 주교로 임명했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브라질 주교회의의 중서부 2지구 부의장으로 주교회의 목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브라질리아 관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되었다. 여전히 CNBB가 브라질 가톨릭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7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가우방(Galvão) 수도사를 성인으로 추도하면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현재 브라질의 대주교는 동 마릴루 하무스 크리에제르(Dom Murilo Ramos Krieger)이다. 2011년 1월 12일 베네딕토 16세가 바이아의 상사우바도르(São Salvador)의 주교로 임명하여 3월 25일에 취임했다. 대주교는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마링가(Maringá) 주교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2002년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ópolis) 주교를 맡았다. 대주교는 브라질 가톨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위로 가톨릭 엘리트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톨릭의 엘리트는 상파울루 교구의 제5대 대주교를 지낸 동

파울루 에바리스투 아르니스(D. Paulo Evaristo Arns) 명예주교인데 그는 형제가 13명이나 된다. 그를 비롯한 네 명이 성직자로 봉직하고 있어 종교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명 중에 여자 형제 3명은 수녀로 봉직하고 있고 남동생 한 명은 프란체스코 수도회 수도자이다. 브라질 교구 어린이 위원회설립자였던 소아과 의사인 동생 지우다 아르니스(Zilda Arns)는 2010년 아이티 지진으로 사망했다. 파울루 에바리스투 아르니스 신부는 해방신학을 옹호했고, 빈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화 운동 기간에는 군부에 반대하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와 친분을 쌓는가 하면, 조지 W. 부시의 개입주의적인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런 해방신학자와 같은 정치적 행보와 사회활동으로 브라질의 시민사회 지도자로 존재감이 매우 높다. 고령이지만 종교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브라질 사회문제에 적극 참가하면서 특정 영역의 지도자를 넘어 브라질의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엘리트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2) 개신교 엘리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지만 최근 20년간 개신교의 성장으로 가톨릭 신도가 급격하게 줄고 대신 개신교 신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가 브라질에 들어온 지 약 150년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이다. 2010년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의 64.7% 정도로 나타났고 반면 개신교는 22.2%으로 나타나 브라질 종교와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알 수 있다.⁸⁾

브라질 최초로 개신교도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바르가스가 자살한 이후 쿠비체크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약 1년 2개월 정권을 잡았던 카페 필류(Café Filho)였다. 개신교가 근대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정치적 세력화나 사회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나타나면서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개신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개신교도들의 경제적 특성 외에 개신교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이나 빈민구제를 위한 개인의 근면성실 강조 등이 교세 확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개신교에도 브라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이 있다. 에지르 마세두(Edir Macedo) 목사가 개신교 엘리트라 할 수 있다. 가톨릭에 입문하였지만 1970년에 가톨릭을 떠나 오순절 개신교로 전향해 신오순절과 교회인 하나님의 왕국교회(Universal Church of the Kingdom of God)를 리우 주에 설립했다. 공개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경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번영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를 통해 빠르게 교세를 확장했다. 교회를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여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방송사인 헤지 헤꼬르지(Rede Record), 헤지 파밀리아(Rede Família), 헤지 뉴스(Rede News), 헤지 라인을 비롯한 64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거느린 언론 재벌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종교서적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Orixás, Caboclos e Guias, Deuses ou Demônios*가 베스트셀러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인리 크리스투(Inri Cristo)는 스스로 예수의 재림이라 주장하면서 종교적 지도자로 성장했다. 1969년에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자와

8) 무교 8%, 정령숭배 2%, 기타 종교 3.2%.

점술가의 모습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1971년부터 텔레비전에 등장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이나 논리는 진화론(evolutionism), 채식주의(vegetarianism), 인구과잉(overpopulation), 산아제한(birth control), 낙태(abortion), 무신론(atheism),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3차 세계대전 등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런 발언으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을 확보해 거대 교회로 성장시켰다.

호밀두 히베이루 소아레스(Romildo Ribeiro Soares)는 신의 은총 국제교회(Igreja Internacional da Graça de Deus)를 설립한 사람으로 브라질을 대표할 정도의 전자전도사이다. 1977년에 처남인 에지르 마세두와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만들었으나 분리하여 1980년에 신의 은총 국제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도자로 있다. 반데이란찌 방송국의 ‘Show da Fé’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자신의 교회 소유인 국제텔레비전망(Rede Internacional de Televisão)을 통해 텔레비전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방송국 외에도 1983년에 인수한 그라사 아르찌 그라피까 출판사(Graça Artes Gráficas e Editora Ltda.), 가스펠 전문 음악사인 Graça Music, 출판사인 그라사 출판사(Graça Editorial), 2010년 창업한 그라사 영화사(Graça Filmes) 등이 있고, SBT, RIT, Nossa Radio, Nossa TV를 소유하고 있다. 교회 재산이 상당하며 종교 방송계에서는 언론 재벌과 같다. 이런 배경으로 전자전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 군부 엘리트

식민 기간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는 핵심 세력이었

다. 왕정 기간에는 지방 반란 진압과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 권력에 가까워졌고, 결국 리우 군사학교를 중심으로 혁명군을 조직하여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이런 전통으로 군부는 브라질 정치에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1964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985년 민주화될 때까지 약 20년간 브라질 정치를 좌우했다. 군부의 특권적 지위는 민주화 이후 1998년까지 지속되어 병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다. 군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면서 행정부 주요 보직을 군인들이 장악함에 따라 국방부(Ministério de Defesa)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방부를 대신해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of-Staff)와 대통령 산하의 군사보좌관실(Chefe da Casa Militar)이 국방부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 관련 업무를 나누어 3군 사령관과 보좌관실 등을 포함한 다섯 개의 행정조직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브라질 군부는 그 성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군부의 힘이 약화되었는데, 군부가 병영으로 돌아갔을 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방력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부위협이 적은 국가인데, 경쟁국가인 아르헨티나와 공동시장 발효, 핵자원 부문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험성도 사라졌다. 또한 내부 위협이 상당히 낮는데, 국내에 정부 전복을 노리는 정치집단이나 무장단체들이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남미의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아마존 방어, 시민사회에서 확대되는 마약과의 전쟁에 민간 정부의 요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시민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안보위원회(CSN: Conselho de Segurança Nacional)

가 가장 중요한 엘리트 집단이었다.⁹⁾ 실질적인 군부정권을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대통령, 부통령, 3군 장관, 각 부처 장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군부정권은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특히,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군부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체된 기관이 국가안보위원회였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관이었으며 동시에 군부집권기에 권력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육군이 많은 정치권력을 행사했다. 국가정보원(SNI: Serviço Nacional de Informações)은 군부정권이 1964년 6월에 브라질 국내외에서 보급되는 비판적인 정보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신설했다. 1990년까지 군부정권의 검열기관으로 활용되면서 언론 통제에 적극적이었다. 민주화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라졌다. 대신에 1999년 페르난두 앙히키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전 대통령이 브라질 정보국(Agência Brasileira de Inteligência)을 신설했다. 브라질 정보국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 옹호, 주권과 민주적 권리 보호가 목적이다. 따라서 이전의 국가정보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군부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민선 정부가 1998년 말에 행정조치를 실시하면서 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를 신설했다. 민주화 이후 국방부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군부 내의 관계, 즉 해군과 육·공군 간의 대립 때문에 설치가 늦어졌다(Castro, pp. 22-23). 사실 군부정권 기간에는 육군이 해군과 공

9) Wendy Hunter(1992).

군에 비해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웠으나 민주화 이후 군부의 주축이었던 육군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3군 간의 대립이 표면화했다.

이런 관계를 반영하듯 초대 국방부 장관은 군부 출신이 아닌 이스빠리 푸산투의 엘시우 아우바레스(Élcio Álvares) 상원의원이 임명되었다. 그는 학생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기자와 변호사를 거쳐 주 하원에 당선된 정치인으로 최초의 비군부 출신 국방부 장관이었다. 『에포카(Época)』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부와 사법부 장관을 비난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해임되었다. 실질적인 군부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국방부 장관에는 제라우두 키타웅(Geraldo Quintão)이 임명되어 육군의 임금인상과 장비구입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역시 군부에는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더구나 브라질 항공사(Embraer)를 프랑스 컨소시엄에 판매하는 것에 찬성하여 군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0년에 룰라 전 대통령이 국방부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Estado Maior Conjunto das Forças Armadas)를 신설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사령관은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합참본부는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초대 합참본부사령관으로 주제 까를루스 지 나르지(José Carlos De Nardi) 장군을 임명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한 외교관 출신 세우수 아모링(Celso Luiz Nunes Amorim)이다. 아모링 장관은 히우 브라꾸 외교 아카데미(Instituto Rio Branco) 출신으로 외교 전문가이다. 2011년 8월 네우송 조빙(Nelson Jobim)의 뒤를 이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군부정권 기간에는 참모본부(EMFA: Estado Maior

das Forças Armadas)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참모본부에서 정치적 결정과 감찰이 결정되었다. 때문에 어떤 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에 신설한 합동참모본부는 3군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 육·해·공군에서 추천한 장군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군부정권 기간의 권력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군부에서는 중요한 역할과 걸맞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4.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과 통치방식

가. 권력조직망형 정치 지배 연합

식민 기간은 포르투갈 왕정이 파견한 총독청, 군대, 대농장주와 종교 지도자가 엘리트를 구성했고, 이들은 식민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연합을 이루기가 매우 용이했다. 독립 이후 왕정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질서가 정치의 시금석이었다. 지배연합은 왕, 농장주, 군대가 주도했다. 제1공화정은 군부가 왕정체제를 유지하던 지배연합을 붕괴시키고 만든 정체였다. 공화정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가 요구되었는데 각 주의 엘리트들을 중앙으로 집결시킨 것이었다. 이런 과정은 일견 엘리트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로의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신국가체제를 거쳐 제2공화정 기간은 일반대중의 참여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엘리트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이 전통

적 엘리트 계층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적 체제였다면 군부정권은 민주주의를 벗어난 신흥 세력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관료 및 군부, 국내자본가와 외국자본가의 연합이었다. 관료와 군부의 간격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일정 기간 제한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기간을 거친 후 민주주의 제도화가 확립되었다. 민주화 이전까지의 체제변화는 결국 지배연합의 변화이다.

브레세르 페레이라는 브라질이 1945년부터 1964년까지 경험한 민주주의 체제를 엘리트 민주주의(Elite Democracy)라고 정의한다. 브라질 사회가 귀족, 군부, 관료와 종교 엘리트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Bresser-Pereira 2000). 일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인구만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화정 2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이와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바르가스스의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정치세력들이 주도했고, 정치적 동원화의 현상이 뚜렷했다는 측면에서 민중주의 민주주의(Populist Democracy)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다소 개념에 차이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되었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엘리트들의 연합이 매우 용이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브라질 엘리트들은 정치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엘리자 헤이스(Reis 1996)는 브라질 민주화 과정에서 관료 엘리트와 정치 문화를 분석할 때 브라질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집단을 고위 관료, 선출된 정치인(의원), 비즈니스 리더(경제엘리트)와 노조 운동지도자로 구분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엘리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분석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

정치권 혹은 NGO의 영향은 점점 증가한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트 분석에는 노조운동을 포함한 환경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단체들의 지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브라질 정부 여당이 노동운동에 토대를 두고 시민운동의 강력한 지원으로 창출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과 정치적 이익을 달리는 엘리트 집단들이 어떤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통치하는지는 매우 흥미롭다.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엘리트 집단의 규모와 다양성이 낮을수록 지배연합을 구성하기가 수월하고 통치 방식도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선악의 문제를 떠나 엘리트 집단의 결속력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출신 지역에 토대를 두고 정치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통적 엘리트 집단들은 과두제 지배를 위해 정치적 온정주의,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배 정당에 대한 과두적 지배, 정치적 경쟁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한다(Frances Hagopin 1987, p. 4). 또한 이들은 엘리트 집단과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정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충원을 통제하고, 정책 통합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은 지방 정치 무대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동시에 제한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인정하는 엘리트들만이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따라서 지방 정치는 정치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방 정계로의 진출은 지방 엘리트 집단 내에서 결정되는 구조여서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은 주(estado)에 토대를 두고 있고,

각 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자기권력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와 규범을 스스로 만든다. 결국 엘리트들이 주 행정부와 정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주 간의 협력을 통해 연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정치 구조는 주로 상원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의회의 많은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지배 엘리트 출신들이다. 상원과 하원의 투표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중앙정당의 영향력보다는 주정부와 주정당의 지원이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제도 마련과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나스 제라이스의 정치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지배 엘리트들인데 특히 유명한 정치 가문들이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엘리트의 지배력이 훨씬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북동부 후보라도 오히려 더 변함없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gopian 1987, pp. 2-3). 이런 체제는 정치적 후견주의, 중앙집권적인 주정부와 연계된 지배정당의 과두적 지배와 정치적 경쟁 제한을 근간으로 했다.

전통적인 정치 풍토가 PT당 집권 이후에 얼마나 바뀌었을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북동부와 중서부 주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룰라 이전의 대통령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배출되었지만 계층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치 엘리트 집단의 지원으로 당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페르난두 콜로르 전 대통령은 룰라의 당선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수 지배집단이 선택한 카드였고, 사임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파마르 프랑꾸는 콜로르가 약소 정당과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은 유효했다. PT당 집권 이후 대통령은 지역색이 희석되었고 전통적 지배 엘리트가 아닌 새로운 계층에서 당선되었다. 특히 룰라 전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였고,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은 노동자 계급 출신은 아니지만 중산층 출신으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 세력으로 기존의 엘리트 집단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다.

이런 변화들이 짧은 기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과연 통치방식도 변화했을까? 아쉽게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기존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과 울루를 비롯한 남동부에는 경제 활동만큼이나 정치적 역동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에서도 좌우를 넘나들고 있고 계층적인 부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지만, 북동부와 북부 주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통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두 가지 방향의 정치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의회 엘리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인 노동자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의회 엘리트들은 주지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곧 주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은 여전히 주지사의 정치를 하고 있다. 둘째는 새롭게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다. 초선 의원들이 연방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친밀감과 정치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의원 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이 곧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운영하는 관료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정치인들을 정부요직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네트워크형 경제 권력과 지배

경제 엘리트들도 역시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와 신흥 경제 엘리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 엘리트들은 활동영역이 전통적인 산업 영역, 즉 농축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신흥 엘리트들은 금융, 광업, 맥주와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과 신흥 엘리트들이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신흥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 엘리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출발 토대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흥 엘리트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연대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고, 같은 사업으로 출발해서 특정한 시기를 지나면서는 독립하여 경제 엘리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과 경제 엘리트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다. 공기업 CEO는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브라질이 많은 기업을 민영화했음에도 여전히 공기업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브라질 석유공사처럼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기업의 사업 방향과 정책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관료들도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서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공기업이 경제정책 추진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

서 경제 관료의 선택에 DAS 5등급과 6등급 그리고 NES를 통해 임용하는 것이다.

대자본가의 경우에는 여기서 상위 10위까지만 다루었다. 그런데도 브라질의 기업구조가 특정한 대기업이나 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BX 그룹은 석유와 광업투자로 급성장한 기업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에너지자원부 장관이었던 부친의 후광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맥주와 투자회사를 공동 경영한 기업인 세 명이 나란히 상위 10위에 위치한 것도 특이한 사례이다. 공동창업자들이 동일한 영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현상이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부도 특정 집단에 편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이 세습되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언론기업부터 금융에 이르기까지 자본 세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경제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으로 정치적 연대가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위권은 다루지 않았지만 범위를 확대하면 세습을 통한 자본의 집중은 더 많은 경우를 찾을 수 있다.

1938년에 설립된 브라질 산업연맹(CNI: 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운 경제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경제력을 활용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인 단체로 성장했다.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히우그란지두술과 히우지자네이루의 컨소시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브라질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유사 정치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브라질 모든 산업가와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브라질 산업연맹의 회원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유사하다. 때문에 정치력을

활용하여 국가 정책 입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기에도 경제적 다양성 확보와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부정권에 로비를 펼쳐 경제구조 변화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Wells 2010, p. 666). 또한 민주화 이후 브라질 산업연맹은 생산성 증대, 세계시장 진입과 ‘브라질 비용(Custo Brasil)’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에는 무역개방, 세계시장 진입, 산업기술 발전과 같은 산업시설 확대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브라질 산업연맹은 국가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국가정책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력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으로 브라질을 움직이는 경제 엘리트 집단이다. 브라질 전역에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을 고려해할 때 각 주와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인 연합이나 산업협회를 통해 시장진입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주와 지방 수준의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지배연합과 같이 지방에서는 경제지배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주와 지방의 시장 진출에는 정치와 경제 엘리트들의 지배연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엘리트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엘리트가 모든 정치 재원인 자본을 제공한다. 때문에 정부가 엘리트들의 접근을 허용한다. 둘째, 엘리트가 정부와 협상 전략적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행정부와 입법부 구성원들이 바로 엘리트 자신이

다. 예를 들어 의원 중 세 명이 백만장자로 나타났다. 자유전선당은 의원의 50%에 해당하는 38명이 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브라질 민주운동당은 37명, 사회민주당은 21명, 노동자당조차도 여섯 명이 백만장자였다. 지역적으로는 남동부 지역이 62명이었는데, 상파울루 출신 의원이 29명, 미나스제라이스 출신이 25명에 달했다(Wells 2010, p. 671). 이와 같이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이다.

5. 결론

본 장에서는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을 통해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역별 엘리트 집단들이 어떤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들을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종교 엘리트, 군부 엘리트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어떤 특성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통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브라질 엘리트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국가 형성, 제도 수립과 개혁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 브라질 엘리트들은 식민기 포르투갈의 지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적 열등감 콤플렉스, 문화적 모조품, 헤게모니 국가들에 의한 인정이나 수용적인 태도, 정책결정의 자율성 부족, 경제정책의 전략수립, 국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불완전한 국가 건설, 불충분한 경제성장, 불균형적인 소득 분배, 약간의 실질적 정치 발전을 이룬 것이 전부였다. 독립과 함께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정적과도 정치적 연

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충돌도 감수했다. 가산 관료들은 대농장주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라질의 모든 지식층들이 이 계층에서 나왔다. 왕정 초기에는 상업·가부장 부르주아지와 연합했으나 후반에는 커피농장주들의 방계 가족이 관료로 임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력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30년대 바르가스가 집권하면서 현대적인 관료체제가 도입되면서 가산관료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현대적 의미의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 커피 부르주아지는 19세기에 등장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1930년대 이후 점점 쇠퇴했는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부장적 부르주아지와 커피농장주들은 농촌 비즈니스맨, 금융과 서비스 그룹과 통합되었다. 상업과 근대적 자본가계급의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대신에 분야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중·고 부르주아지로 나뉜다. 산업화되면서 세습 관료들은 부분적으로 근대 국가 관료로 전환되거나, 중간계급에 통합되기도 했다. 이들이 1970년대 기술관료(technobureaucracy)로 성장했다. 1980년대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으로 발전주의 전략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매우 협소한 지배 엘리트들에게는 저항 세력이었지만 일반대중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 등장이었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왔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화에 적극 동조했다. 물론 군부 엘리트들은 자유화를 통해 통제된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경제 엘리트들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화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

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외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엘리트 노조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1980년대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엘리트 지배 연합의 붕괴였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기존 정치 엘리트 집단 출신과 사회운동 출신으로 구분된다. 민주화 이후 페르난두 엔리케 까르도주 대통령 집권기까지 기존 엘리트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했다. 이런 정치 메커니즘은 물론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변했다. 노동자당의 약진으로 좌파 정치인들이 악마적 형상이거나 브라질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좌파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과였다.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책임감, 충성도, 능력이 뛰어나다. 각 부처와 청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연방공무원은 베버리언 모델을 수용하고 있어 종신고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관료경력직은 26개가 있는데 그러한 경력직 관료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된다. 1995년 이후 경력직들의 능력개발이 공공관리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 정책으로 경력직들은 주요 부처에서 핵심 인력이 되는데 경력직들은 세무행정, 공공재정, 회계감사와 무역 분야에 유리하다. 특히, 외교와 국방 분야에는 전통적으로 경력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직들은 특정한 고위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치조직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 공공서비스 조합주의가 강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위급 및 전문가 위원회가 중앙 관리방식을

통해 각 부처의 장관 이하 주요직관리나 고문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명직은 정년도 연금도 보장되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특채 공무원 제도가 있어 정치 협약을 통해 통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있다.

주지사도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째,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입법부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브라질은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을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 후보들이 대통령보다는 주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정당의 공천권이 중앙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정당에 있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요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선거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지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지사의 영향력이 상원이나 하원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헌법이 정하는 세금 수정권인데 헌법이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주정부과 시정부로 이관하면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주정부의 영향이 증가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브라질의 상하 의원들을 입법부의 주요 직위, 조직과 사회 이익의 대표성, 전문성,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여 의회 엘리트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의회 엘리트는 의원들이 이익집단을 대표하면서 의회에서 뚜렷한 활동을 보이는 의원들 중 선택된 집단이다. 이와 같이 의회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지속적인 득표를 통해 상·하원으로 선출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동

부와 북부권역의 경우가 이런 장기집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영향력 있는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영기업들이 브라질 산업발전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금융을 담당하는 브라질 개발은행, 심해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로 기업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브라질 석유공사, 브라질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브라질 전력공사,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었음에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브라질 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 많은 공기업도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과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주영기업으로 구분된다. 국영기업체제가 유지될 때는 주마다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도 항만관리회사는 주마다 설치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장관이 추천 임명하는 DAS와 NES를 통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관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농장주들이 농산물 무역을 통해 상업자본으로 성장하고 다시 산업화에 편승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고 금융자본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 상파울루 커피 대농장주들이 성공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통해 대자본가들이 양산되었다. 물론 자본 성격의 변화없이 농업자본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있지만 이들은 점차 대농장주의 자본만으로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연방정부에는 중요한 경제부처로서 재무부, 중앙은행과 브라질 개발은행이 있는데,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이들 기관은 여전히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이런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대외신임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도이다. 두 번째는 현재 브라질 경제운영의 중심이 분배와 성장의 균형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처 수준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호세피 정부가 룰라 전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르게 보면 노동자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완성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브라질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비교적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각 민족들이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식민기에 유럽인들이 가져온 가톨릭,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로-브라질 종교, 아랍인들의 이슬람, 아시아인들과 함께 들어온 불교와 유교까지 종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공식 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아프로-브라질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예배방식에 따라 신들에게 축복을 기원한다. 이들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도 있는데, 포스두이구아수(Foz do Iguaço)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분포하여 이슬람의 지도자가 참석한다. 이처럼 브라질에서 종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을 지키는 정체성 회복의 일환으로 혹은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개

신교의 성장으로 가톨릭 신도가 급격하게 줄고 대신에 개신교 신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가 브라질에 들어온 지 약 150년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이다. 2010년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톨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64.7%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는 22.2%으로 나타나 브라질 종교와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기간에는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지배의 핵심 세력이었다. 왕정기간에는 지방 반란 진압과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 군부가 권력에 가까워졌고, 결국 리우 군사학교를 중심으로 혁명군을 조직하여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이런 전통으로 군부는 브라질 정치에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196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985년 민주화될 때까지 약 20년간 브라질 정치를 좌우했다. 군부 엘리트들은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민선 정부가 조직하는 정부부처 내에서 군부 엘리트들이 조직되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육군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군 중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최근 해양산업이 성장하면서 해군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3.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4.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
5. 결론



1. 서론

멕시코는 19세기 초 스페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1910년에 시작되어 1920년대 초반 물리적 분쟁이 종식되고 정치적 상징성으로 지속된 멕시코 혁명을 계기로 정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에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한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독특한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었다. 멕시코 혁명의 제도화를 명목으로 발전시킨 제도혁명당 중심의 멕시코 정치체제에서 엘리트 집단은 식민시대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멕시코 특유의 정치적 주종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즉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가들의 집단으로 지도자 중심의 이익 교환 시스템인 카마리아(Camarilla)는 멕시코 정치의 핵심 단위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표적인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단일 집권정당이며 멕시코 국가조합주의 체제의 핵심인 제도혁명당 권력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카마리아들과 멕시코 국가체제의 관계는 타국과 차별되는 멕시코 정치 엘리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이다.

혁명 이후 이른바 혁명 패밀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멕시코의 엘리트 집단은 1970년대 이후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심화되는 성장 모멘텀의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상황의 악화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멕시코의 성장 모델이 되어 온 수입대체산업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결국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수용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은 경제지식과 정책능력을 겸비한 기술관료 엘리트 그룹의 부상을 가져왔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민영화와 경제자유화는 새로운 경제 엘리트 그룹을 구

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민영화와 경제자유화로 부상한 대표적인 경제 엘리트이다. 결국 멕시코의 엘리트 집단은 식민지배, 독립, 혁명과 제도혁명당, 민주화와 시장주의의 확산 같은 역사적 계기를 거치며 변화를 겪어 왔다.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역사적 형성과정은 주를 이룰 본 절에서는 식민시대 이후 멕시코 엘리트 그룹의 형성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 절은 멕시코 혁명과 혁명 이후 성립된 멕시코 정치체제와 엘리트 집단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중대한 변화를 겪은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형태에 대한 추적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세기 멕시코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마리아’라 불리는 전통적 정치 엘리트 그룹의 형성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절에서는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 그룹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관료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 그룹의 등장과 형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덧붙여 본 절에서는 2000년대 폭스 정권을 계기로 진행된 제도혁명당 일당집권의 종식과 민주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3절에서는 멕시코의 부문별 엘리트 집단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절에서 다룰 멕시코의 부문별 엘리트 집단들로는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관료 엘리트와 더불어 지식 엘리트, 언론인, 노동조합, 그리고 종교 부문의 엘리트 등이다. 제4절에서는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통치 방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변모한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구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지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가. 식민시대, 독립 그리고 19세기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가 정복활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리고 콜롬부스가 첫 항해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멕시코 중앙고원을 지배하던 아즈텍 제국은 붕괴되었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식민 건설자들은 본국인 스페인의 제도와 체제를 모방하여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했다. 한편 식민지에서 정복의 대상이자 노동력의 원천이었던 원주민 인구는 질병과 노동 그리고 탄압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식민시대 이전인 1519년 2,500만에 달하던 멕시코의 원주민 인구는 1523년 1,680만으로 줄고, 다시 1580년에는 190만으로, 그리고 1605년에는 100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 인구의 축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수입했다. 1518년부터 1870년 사이 스페인 식민지에서 수입한 흑인노예는 150만 명 이상에 달했다(Skidmore and Smith 2001, p. 19).

정복과 이민 그리고 흑인 노예의 수입으로 스페인 식민지에는 유럽 출신의 백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는 세 개의 대표적인 인종그룹이 형성되었다. 16세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 총 인구의 2% 미만이었던 백인 그룹이 가장 강력한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

다. 백인 그룹은 3% 미만의 흑인과 메스티소 및 플라토, 그리고 총인구의 95%를 차지했던 원주민을 지배했다. 한편 본토 출신의 백인인 페닌슐라레스(peninsulares)와 식민지 출신의 백인인 크리오요(criollos) 간의 갈등도 무시될 수 없었다(Skidmore and Smith 2001, p. 19).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성은 식민 말기에 이르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825년에 이르면, 크리오요를 중심으로 백인 인구는 20%에 이르며, 혼혈인 메스티소는 28%로 증가하는 반면 원주민은 42%로 줄어든다. 또한 흑인은 총인구의 12%로 늘어난다(Skidmore and Smith 2001, p. 21).

크리오요들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시켜갔다. 광업과 상업에서 영역을 넓혀갔으며, 스페인 왕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를 확대해갔다. 대토지를 소유한 크리오요들이 늘어갔으며, 아시엔다와 같은 대농장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에 비하여 크리오요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18세기까지도 크리오요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방 또는 지역에 국한되었다. 정치적 고위직은 여전히 페닌슐라레스들의 차지였다. 결국 이러한 엘리트 세력들의 정치와 경제 권력 간의 부조화는 크리오요들이 독립을 추구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멕시코의 독립운동은 크리오요 신부 미겔 이달고(Miguel Hidalgo y Costilla, 1753~1811)가 주도한 무장봉기로 시작되었다. 이달고 신부가 처형되며 봉기는 실패로 끝났으나, 독립의 열망은 스페인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더욱 강렬해졌다. 결국 1822년 멕시코는 독립을 쟁취했고 아구스틴 이투르비데가 초대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왕정은 곧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었고 공화국이 세워졌다.

독립운동의 주체들은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크리오요였다. 크리오요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페닌슐라레스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독립을 원하기는 했지만 식민시대 사회구조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새롭게 세워진 공화국은 농산물과 광물 수출을 경제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였는데, 대농장과 광산을 소유하던 크리오요들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였다. 식민시대에 존재했던 인종적 지위에 따른 사회 계급구조인 카스타(Casta) 제도가 독립과 함께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식민시대의 사회구조는 존속되었다. 독립 이후에도 백인 중심의 엘리트가 농장과 광산에서 노동하는 원주민과 흑인을 지배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도 잇달았다. 1847년 유카탄에서 일어난 원주민들의 반란인 카스타 전쟁은 이러한 저항의 한 사례였으며,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백인 엘리트들은 불안에 떨었다.

한편 법과 질서의 붕괴에 따른 독립 초기의 사회 혼란은 사회의 군사화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우디오(Caudillo)라고 불리는 군사적 배경을 가진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부상하였다. 대부분이 독립 영웅으로 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 명성을 떨친 카우디오는 독립 초기는 물론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 리더십을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의 하나이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카우디오로 산타 아나(Antonio López de Santa Anna, 1794~1876)를 꼽을 수 있다. 멕시코 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 산타 아나는 독립 이후 멕시코 정치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하나였으며, 그의 실책으로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토의 절반을 잃었다(O'Toole 2007, p. 23).

한편 독립 이후 멕시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들 간의 정치적 합의의 부재였다. 엘리트 그룹들은 각각의 이익에 따라 서로 연합과 갈등을 반복했다. 특히 왕정의 폐지를 후회하며 옛 질서를 그리워하는 대지주, 군인,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엘리트들과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와 같이 대의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와 법질서를 존중하며 주권을 천명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원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커져갔다(O'Toole 2007, pp. 20-21).

결국 산타 아나 이후인 1855년 멕시코는 ‘개혁(La Reforma)’이라 불리던 자유주의 정치의 약진을 이루었다. 보수주의자들의 반란을 격퇴하고 자유주의 헌법인 185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된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1861-72)는 자유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메스티소와 원주민을 포함하는 세속적 국가를 발전시켰다.

1872년 베니토 후아레스가 사망하고 집권한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는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재산 불가를 내세우며 집권했지만 철권통치를 휘두르며 35년간 집권했다. 디아스의 시기는 수출과 수입의 팽창을 중심으로 멕시코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으며 동시에, 멕시코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디아스 시기의 빠른 국제화와 성장은 멕시코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95%를 5% 미만의 대지주가 소유한 불평등한 토지 구조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특히 수출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수요는 커져갔다. 이에 따라 당시 많은 수를 차지하던 대농장 농민들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채 때문에 대농장에 예속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 엘리트와

결합한 농민과 광부 등은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부를 전복하는 혁명에 성공했다.

디아스 독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야권의 반란에 사파타(Emiliano Zapata)와 같은 혁명적 농민운동 지도자가 가세하여 전개된 멕시코 혁명은 결국 자유주의 엘리트가 농민, 노동자, 광부 등의 혁명적 사회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혁명의 제도화 체제를 성립하며 마무리되었다.

멕시코 혁명은 멕시코 지배 엘리트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토지개혁의 실시로 지주계급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또한 성장 모델이 수출주도형에서 수입대체산업화로 전환되며 산업자본가와 조직 노동자가 영향력을 확대했다. 한편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들은 혁명 과정에서 보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치 참여 에너지를 체제 내로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혁명의 제도화를 표방한 제도혁명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체제 내로 포괄하는 멕시코식 코포라티스트(Corporatist) 체제를 성립하였으며, 이러한 대중동원 체제는 이후 70년간 제도혁명당 중심의 일당 지배 정치체제 확립의 기반이 되었다.

나. 멕시코 혁명과 혁명 패밀리

멕시코 혁명 이후 멕시코 정치를 좌지우지한 정치 엘리트는 ‘혁명 패밀리’라고 불리는 강력한 그룹이었다. 혁명 패밀리는 다양한 개인, 부문, 이익 그리고 이념을 포괄하는 그룹으로서, 이러한 그룹의 다양성은 때때로 내부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 패밀리는 균형, 조화 그리고 상호인정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응집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또한 혁명 패밀리는 각기 다른 이념 그룹이 번갈아 집권하며 강력한 내구

성을 과시했다. 혁명 패밀리의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좌파, 국가주의, 중앙 집권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카르데나스 그룹(Cardenista) 과 우파, 보수주의, 연방주의 그리고 친자본 노선을 중시하는 알레만 그룹(Alemanista)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 그룹은 카마리야(camarilla)라고 불린다. 중앙집권적인 피라미드형의 권력체계인 혁명 패밀리는 지역, 계급, 부문, 제도 그리고 이념을 망라하여 지배하고 조정하였다. 혁명 패밀리가 지니는 이러한 통제능력은 역으로 혁명 패밀리를 구성하는 엘리트들의 결집력을 높여주는 근간이 되었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정치가들은 혁명 패밀리와 공존했는데, 이는 이 체제가 각 개인에게 정치적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은 체제 자체가 가진 이념적 유연성 때문에 향후 각 개인이 지향하는 체제로 발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선택이 유동적인 것처럼 보였던 멕시코 혁명체제의 특징은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고전적인 유형의 멕시코 혁명 패밀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88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고 엘리트 그룹의 결속력은 과거가 되었다 (Ronfeldt 1988, p. 1-2).

이러한 혁명 패밀리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카마리야로 불리는 정치 엘리트 집단들이다. 카마리야는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가들 집단으로 그들의 목표는 이러한 집단을 통하여 각자의 정치적 커리어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카마리야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가 있었다. 이러한 카마리야는 역사적으로 멕시코 정치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온 주종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의 한 변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

서 카마리야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의 카마리야 동료들은 정치적 지위를 부여받아 성공을 공유하게 된다. 물론 가장 성공적인 카마리야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카마리야일 것이다. 한편 하나 이상의 카마리야에 소속되는 것도 가능하며, 어느 카마리야의 리더가 정치적으로 침체될 때 해당 카마리야를 떠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카마리야들로는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 1934~40) 대통령과 알레만(Miguel Alemán, 1946~52) 대통령에 의해 형성된 것들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카마리야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시대에 따라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군사 경험이 카마리야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에는 법 관련 배경이 중대한 요인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또는 재무가 카마리야 구성원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Coerver, Pasztor and Buffington 2004, p. 206).

카마리야는 이념적 지향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념은 집단을 결집시키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뚜렷한 이념은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카마리야는 특정한 제도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동질성 또한 집단을 결집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너무 강력한 제도적 동질성은 카마리야의 장점이 되지 않는다. 즉 인물, 제도, 부문, 이념, 계보 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하고 여러 가지 이해와 연결된 카마리야가 강한 카마리야이다. 멕시코에서 정치는 지도자들 간의 권력과 다른 보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의 결과이다. 따라서 멕시코 정치에서 자신의 카마리야를 구축하지 못하고 다른 중요한 카마리야와 커넥션을 갖지 못한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멕시코 정치에서, 특히 집권 제도혁

명당 내에서 이념 투쟁으로 보이는 수많은 개인들 간의 갈등은 대부분이 카마리아 간의 갈등이다(Ronfeldt 1988, p. 5-7).

멕시코 정치에서 이러한 혁명 패밀리는 1950~6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이 시기의 혁명 패밀리는 수직적으로 볼 때 세 개의 층위로 구분되었다. 즉 최고위층은 대통령과 측근들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층은 주요 이익단체의 지도자들로, 그리고 마지막 층은 정부 관료와 유관 기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강력하고 결속력이 확고한 카르테나스 그룹과 알레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혁명 패밀리의 구성원들은 대통령과 제도혁명당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 전반에 대해 확고한 충성심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카마리아 그룹에 기반을 둔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인 혁명 패밀리는 최소한 1970년까지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이렇게 합의를 이룬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혁명 패밀리 내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합의는 점점 힘들어졌으며, 이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결국 차기 대통령의 선택과 정권 교체의 과정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연합을 결성하는 시기가 되었다(Newell and Rubio 1984, pp. 76-77).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는 강력한 대통령과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 계층을 포괄하는 단일 패권정당에 의해 유례 없이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이러한 멕시코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제도혁명당의 포괄적 성격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통치체제를 들 수 있다. 체제는 반대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

는 한편 여러 분파가 체제 내에서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지되었다.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부문으로 불리는 각각의 상부조직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체제의 최고 지도층들은 각 부문 지도자들의 권력 접근을 조절하면서 각 부문 대중의 요구를 포괄하였다. 한편 제도혁명당 체제 밖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사회조직에 대하여 제도혁명당은 미래의 침묵을 대가로 그들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선별적 폭력을 통해 진압했다. 따라서 체제는 단지 재량껏 수용하는 것을 통하여 관리할 뿐 전체 계급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었다 (Langston 2002, p. 64).

제도혁명당 집권 시기 멕시코 대통령의 권력은 네 가지 요소에서 기인한다. 즉 헌법조항,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제도혁명당의 능력, 집권당 내의 규율 그리고 당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선거 규칙과 선거 감시 등의 선거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제도혁명당은 다득표 방식의 지역구 선거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며 쉽게 의회를 장악했다. 따라서 야당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었으며 당원과 지지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였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희망하는 지망생은 제도혁명당에 가입해야 했고, 다른 그룹들과 연합을 맺어야 했으며, 규칙을 따라야 했다(Langston 2002, p. 64).

하지만 견고해보이기만 하던 멕시코의 정치체제는 서서히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 혁명 패밀리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서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1970년대 이전에 보여준 체계적 모습이 아니었다. 지방 행정부, 특히 주정부 행정 관료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이익단체들의 정책결정력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앞선 시기의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의 영향력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크게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의회가 점점 중요해졌다. 게다가 일부 엘리트가 제도혁명당을 유일한 성공의 도구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일부는 아예 당적을 갖지도 않았다. 결국 197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 부문 엘리트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더욱이 1988년 대선에서 당내 후보 선출에 불복한 쿠아테모크 카르데나스(Cuahtemoc Cárdenas)의 탈당과 출마를 계기로 제도혁명당 내에 존재했던 기존의 역사적 카마리야는 붕괴되었고 느슨한 ‘경향’ 정도만 남게 되었다(Ronfeldt 1988, pp. 14-15).

다. 위기, 기술 관료 그리고 민주화

20세기 말 멕시코 정치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정치 엘리트 영역에서 기술 관료(technocrat)의 약진이다. 즉 정당원으로서 선서를 통해 단련된 기존의 정치가가 아닌,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기술 관료의 정치적 성공이 혁명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 엘리트 그룹을 위협하며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88),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1988~94) 그리고 세디오(Ernesto Zedillo, 1994~2000) 행정부 시기에 두드러졌다. 이 시기 주요 정부 각료 자리의 대부분이 기술 관료로 채워졌다. 따라서 1990년대 멕시코 정치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갈등은 기술 관료들과 공룡(los dinos)이라고 불리던 전통적인 정치가들 간에 빚어진 것이다. 멕시코 엘리트 연구자 중 한 명인 캠프(Roderic Camp)도 지적했듯이, 기술 관료들(técnicos)이 전통적인 정치가들을 대체하였다. 기술 관료들은 전통적 정치가들이 가진 선거와 정당 경험과 같은

기술과 경험의 가치를 폄하했으며, 전통적 정치가들의 진보적이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반대하며 현대화된 정치와 경제를 위한 대안을 추구하였다(Camp 1999, p. 122).

멕시코 기술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은 수도 멕시코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국립과학기술원(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또는 멕시코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해외 명문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귀국 후에는 중앙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중간 이상의 고위직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전문 교육과 해외 문화를 경험한 이들은 서구 과학기술이 대부분의 인간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기술 관료들은 효율성과 동일시되는 좋은 행정이 멕시코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들은 전통적인 정치가와 비교할 때, 대중에 대한 직접 교감과 경험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다른 정치가들과 타협과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실 기술 관료 집단은 단일 계급 집단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들에 대한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였다. 사실 기술 관료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의사결정 그룹에 들어가는 표준 티켓이라는 점뿐이다(Li 2001, p. 69).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정치 영역에서 기술 관료가 부상한 원

표 5-1. 멕시코의 지배 엘리트와 기술관료: 멕시코 기술 관료의 부상과 쇠퇴

시기	1980년 이전	1980-2000년	2000년 이후
지배 엘리트	정치가(políticos)	기술 관료(técnicos)	기술 관료로부터 선거로 선출된 대중정치인으로 전환기

자료: Li(2001), p. 70에서 재구성.

인과 요소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와 정치 위기를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대공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성장 모델인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며 심각한 축적의 위기를 겪게 된다. 또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앞두고 수백 명의 시위학생과 시민을 살해한 사건은 멕시코 혁명 이후 집권해온 제도혁명당 정통성의 근간을 뒤흔들었다(Li 2001, p. 71).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관료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전문지식은 경제 분야였다. 즉 위기에 따라 실시한 경제 개혁의 성패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지배 엘리트가 지닌 전문능력에 대한 의존이 크게 높아졌다(Li 2001, p. 72).

1980년대 이후 기술 관료가 멕시코 정치 엘리트로 부상한 세 번째 요소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카마리아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카마리아 시스템은 정치 영역에서 생소한 기술 관료가 권력에 접근하는 고속 통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카마리아 지도자의 리더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지식을 배경으로 한 기술 관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 1970~76) 대통령은 젊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다수의 기술 관료를 등용하기 위하여 기존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한 세대 전체를 건너뛰기도 하였다. 또한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ópez Portillo, 1976~82) 대통령은 그의 학생이었던 데 라 마드리드를 후계자로 지명함으로써 기술관료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았다. 데 라 마드리드는 중앙 경제 부처에서만 근무한 전문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았다.

표 5-2. 세디요 정권 시기 내각 구성원의 일반적 특징(1994~2000)

출생지	멕시코 시(Distrito Federal)		지방
	68%		32%
재학 대학	사립		공립
	18%		82%
대학(학부) 전공	경제	법	기타
	36%	32%	32%
해외 대학원 수학	미국		영국/유럽
	50%		32%
살리나스 정권에서 행정 경험	장관		차관
	9%		36%
선거 경험	선출직 경험		무경험
	23%		77%

자료: Camp(1999), p. 123.

데 라 마드리는 취임 후 자신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기술 관료들로 내각을 채웠는데 이는 주로 1950~69년 사이에 태어난 멕시코의 현대 기술 관료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기술 관료 시대는 살리나스 고르타리 시대에 정점을 이루었으며, 뒤이은 세디요 정권에서도 지속되었다(Li 2001, p. 72).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기술 관료의 성장 원인은 집권 제도혁명당이 가지는 권력기반의 변화이다. 즉 1990년대 들어 제도혁명당의 권력 기반은 기존의 농민과 노동조합에서 자본가와 전문가 계급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비록 살리나스의 대통령 당선은 멕시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정치적 자유화를 옹호하였고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평가받는다. 즉 정치 과정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의 확대와 선거 영역에서의 경쟁 확대를 유도했던 살리나스의 정치개혁 시

도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쟁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Li 2001, p. 77). 1994년 정치 개혁으로 선거관리위원회(Instituto Federal Electoral)의 자율성은 확대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제도혁명당이 2000년까지 권력을 유지했지만, 정치 개혁의 결과 선거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 조작이 가능했던 제도혁명당의 능력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어 집권한 세디요 정권에서 정치 개혁은 가속화되었다. 선거 체제를 민주화하고자 했던 세디요 정권의 노력은 1996년 7월 네 개의 주요 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봄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합의사항은 선거 공영제의 확대와 접근 장벽의 축소,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완전한 헌법적 독립, 선거재판소의 제도화 등이다. 또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중앙 및 지방 선거법의 헌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했으며 해외 동포에 대한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였다(이상현 2011, pp. 223-224; Li 2001, p. 78).

정치 개혁의 효과는 빠르고 컸다. 1989년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제도혁명당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 하나의 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2000년 7월 2일 야당인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의 폭스(Vicente Fox Quesada, 2000~06)는 71년 만에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제도혁명당 일당 집권체제의 종말을 고한 것이다. 폭스의 승리는 멕시코 민주주의 역사의 중대한 사건인 동시에 멕시코 정치 엘리트 집단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3.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가. 정치 엘리트

1) 민주화 이후 정치 엘리트와 혼종형 정치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 집단은 민주화 이후 달라진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캠프(Camp 2002)도 주장했듯이, 혼종형 정치가(hybrid político)의 부상이 주목할 만하다. 민주화 이후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특징으로 전문 관료 출신 정치가들의 부상을 주목한 분석들과 달리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혼종형 엘리트는 민주화 이후 달라진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멕시코 정치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 엘리트인 혼종형 정치가는 1941년 이전에 태어난 전통적 정치가의 특징과 젊은 기술 관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종형 정치가는 도시적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수도인 멕시코 시 출신보다는 지방 도시 출신이 많으며, 부모는 전문직 중산층인 사례가 많다. 한편 이러한 혼종형 정치가들은 과거 1970년대 이전의 멕시코 정치가들이 보여주었던 특징들을 재현하고 있다. 즉 주로 지방에서 태어난 이들은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정당 경험이 있으며, 선출직에 당선된 적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 관료로서 정치 또는 경제 기관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Camp 2002, p. 257).

캠프는 그의 연구(Camp 2002)에서 혼종형 정치가의 전형적인 인물로 2000년 대선에서 제도혁명당 후보였던 프란시스코 라바티스타 오초아(Francisco Labatista Ochoa)를 꼽고 있다. 시날로아 주의 로스 모치스

(Los Mochis)에서 출생한 라바티스타는 부모와 함께 멕시코 시로 이주하였다. 라바티스타는 멕시코 시에서 국립대학교를 다녔다. 1960년 멕시코 국립대학교 학생으로 제도혁명당에 입당한 라바티스타는 졸업 전에 이미 정부부처인 재무부에서 분석가로 일을 시작하였다. 라바티스타는 이후 5개의 연방정부직을 거쳐 1982년 장관을 지냈다. 라바티스타는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던 대부분의 기간에 제도혁명당 경제 관련 직책을 수행하였다. 장관을 역임한 후 1986년 라바티스타는 고향인 시날로아 주에서 주지사에게 당선되었고, 이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는 시날로아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멕시코 정치 엘리트 중 혼종형 엘리트의 부상은 이후 더욱 확인해졌다. 특히 2012년 제도혁명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 정치에서 혼종형 엘리트의 성공을 확인해주었다.

1966년 수도 멕시코 시에서 북쪽으로 약 88킬로미터 떨어진 멕시코 주의 아틀라코물코(Atlacomulco)에서 태어난 페냐 니에토는 전기기술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페냐 니에토는 열한 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멕시코 주 주도인 톨루카(Toluca)로 이주하였다. 페냐 니에토는 열여덟 살 때 멕시코 시에 있는 판아메리카 대학에 입학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멕시코 주에 있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ITESM)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대학을 입학한 1984년에 제도혁명당에 입당한 페냐 니에토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인 멕시코 주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아갔다. 멕시코 주 제도혁명당에서 여러 하위 당직을 거친 페냐 니에토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발전부 수석보좌관, 주정부 보좌관, 내무차관 등의 멕시코 주정부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후 멕

시코 주의회 의원을 거친 페냐 니에토는 2005년 그의 멘토인 전임 주지사 몬티엘 로하스(Montiel Rojas)의 뒤를 이어 멕시코 주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2012년 마침내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페냐 니에토는 2012년 7월 1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페냐 니에토는 캠프가 정의한 혼종형 정치가에 비교적 잘 부합되는 인물이다. 페냐 니에토는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정당 경험이 있으며, 선출직에 당선된 적이 있다. 또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 관료로서의 경험 또한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민주화 이후 멕시코 정치 엘리트 그룹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주지사 출신 정치인의 약진이다. 민주화와 함께 강화된 지방분권화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지방 정치에서 선거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주지사 출신들은 멕시코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주지사 출신의 대표적인 중앙 정치가로는 앞서 설명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제도혁명당의 70년 일당독재를 종식시킨 국민혁명당 출신의 대통령 비센테 폭스(Vicente Fox)를 꼽을 수 있다. 페냐 니에토와 폭스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각각 멕시코 주와 과나후아토 주에서 주지사를 역임하였다.

2) 현재 멕시코의 주요 정치 엘리트

본 연구에서는 [표 5-3]와 같이 현재 멕시코의 주요 정치 엘리트를 선정하였다. 현재 주요 정치 엘리트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우선 첫 번째 그룹은 현재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의 주요 권력자들이다. 제도혁명당의 주요 권력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와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를 포함한다. 또한 제도혁명당과 페냐 니에토의

표 5-3. 현재 멕시코의 주요 정치 엘리트*

이름	출생연도	주요 경력	비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1966	전 멕시코주(Estado de México) 주지사 (2005~11) 현 멕시코 대통령(2012~18)	PRI
카를로스 살리나스 (Carlos Salinas de Gortari)	1948	전 멕시코 대통령(1988~94)	PRI
말리노 파비오 벨트로네스 (Manlio Fabio Beltrones)	1952	전 소노라 주 주지사(1991~97) 전 상원 의장(2006~07, 2010~11)	PRI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 (Elba Esther Gordillo)	1945	2006년 새로운동맹당(Partido Nueva Alianza, PANAL) 창당 현 멕시코 교원노조 대표이자 정신적 지도자	PANAL
디에고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스 (Diego Fernández de Cevallos)	1941	1994년 국민행동당 대통령 후보 전 상원의장	PAN
에밀리오 감보아 파트론 (Emilio Gamboa Patrón)	1950	전 교통통신 장관, 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현 상원의원(2012~18) 제도혁명당 상원 원내대표	PRI
베아트리스 파레데스 랑헬 (Beatriz Paredes Rangel)	1953	전 제도혁명당 총재, 툴락스칼라 주 주지사 2006년 제도혁명당 멕시코 시장 후보	PRI
프란시스코 로하스 (Francisco Rojas Gutiérrez)	1944	전 PEMEX 대표(1987~94) 제도혁명당 하원 원내대표(2009~12)	PRI
비센테 폭스 (Vicente Fox)	1942	전 과나후아토 주 주지사(1995~99) 전 멕시코 대통령(2000~06)	PAN
펠리페 칼데론 이노호사 (Felipe Calderón Hinojosa)	1962	전 연방하원의원, 에너지 장관 전 멕시코 대통령(2006~12)	PAN
루이스 알바레스 (Luis H. Álvarez)	1919	1958년 국민행동당 대통령 후보 1987년 국민행동당 총재 전 연방상원의원(1994~2000)	PAN
구스타보 마데로 무뇨스 (Gustavo Madero Muñoz)	1955	전 국민행동당 상원 원내대표, 상원의장 전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데로의 종손 국민행동당 총재(2010~13)	PAN
쿠아테мок 카르데나스 (Cuauhtémoc Cárdenas Solórzano)	1934	전 미초아칸 주 상원의원, 미초아칸 주 주지사, 멕시코 시 시장(1997~99) 1988년 국민민주전선 대통령 후보, 2000년 민주혁명당 대통령 후보	PRD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1953	전 멕시코 시 시장(2000~06) 2006년 2012년 민주혁명당 대통령 후보	PRD
마르셀로 에브라드 (Marcelo Luis Ebrard Casaubón)	1959	전 멕시코 시 시장(2006~12)	PRD
미겔 앙헬 만세라 (Miguel Ángel Mancera)	1966	전 멕시코 시 사회발전 장관, 멕시코 시 검찰총장 현 멕시코 시 시장(2012~18)	PRD

* 필자가 선정 및 구성.

집권에 큰 역할을 한 제도혁명당 내외의 인사, 특히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측근과 동맹 세력을 포함했다. 멕시코의 주요 정치 엘리트의 또 다른 축은 야당 세력들이다. 국민행동당(PAN)과 민주혁명당(PRD)의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야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야당이지만 멕시코 정치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페냐 니에토 행정부의 내각을 비롯한 측근 세력 또한 영향력이 막강한 정치세력이다. 한편 페냐 니에토의 내각과 측근 그룹은 관료 엘리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¹⁰⁾

그럼 현재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면면을 살펴본다. 우선 현재 대표적인 멕시코 정치 엘리트로는 제도혁명당 소속의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를 들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예산장관을 거쳐,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한 살리나스는 1980년대 대표적인 기술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1988년 살리나스가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제도혁명당을 탈당하고 민주혁명당을 창당하여 출마한 쿠아테мок 카르데나스에 대항하여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살리나스가 승리하자 많은 멕시코인들로부터 부정선거로 의심 받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결과 집계 중 일어난 컴퓨터의 충돌과 정전 등의 혼란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편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멕시코 국민의 공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오랜 망명 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재임 기간 중 1980년대 초부터 추진된 멕시코의 신자

10) 각 엘리트에 대한 설명은 PODER 360의 설명과 각종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했다.

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을 정점에 올려놓은 살리나스는 재임 기간 중 국영 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거대한 이익동맹 그룹을 형성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살리나스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페냐 니에토의 대통령 당선에 일등 공신이다. 이러한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조카 아드리아나 살리나스의 페냐 니에토 행정부 진출로도 증명된다. 전 게레로 주(Guerrero) 주지사인 프란시스코 루이스 마시에우(José Francisco Ruiz Massieu)와 아드리아나 살리나스(Adriana Salinas de Gortari)의 자녀로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조카인 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에우 살리나스(Claudia Ruiz Massieu Salinas)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페냐 니에토 정부에서 관광장관에 임명되었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여러 경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멕시코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활용되는 인적 네트워크로는 제도혁명당의 프란시스코 로하스(Francisco Rojas Gutiérrez)와 에밀리오 감보아(Emilio Gamboa Patrón), 국민행동당의 디에고 페르난데스 데 카바요(Diego Fernandez de Cavallo) 그리고 제도혁명당 출신으로 새로운 동맹당(PANAL: Partido Nueva Alianza)을 창당한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 등이 있다.

우선 프란시스코 로하스 구티에레스와 에밀리오 감보아 파트론은 제도혁명당 소속으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로하스 구티에레스는 살리나스 시절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tróleos Mexicanos)의 대표(1987~94)를 역임하였으며, 2009~12년까지 제도혁명당의 하원 원내대표를 지냈다. 한편 감보아 파트론은 살리나스 정권 시절 통신교통 장관, 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등을 지냈다.

2012년 상원의원(2012~18)에 재선되었으며 제도혁명당 상원 원내대표이다. 이렇게 제도혁명당의 상하 양원을 대표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살리나스는 야당인 국민행동당과 새로운동맹당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야당 인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국민행동당의 디에고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스와 새로운동맹당(PANAL)의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가 있다. 살리나스와 연대를 표명한 국민행동당 분파 중 하나를 대표하는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스는 정치인이자 영향력 있는 로펌의 대표이다.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스는 국민행동당의 1994년 대통령 후보였으며 상원의장을 지냈다. 한편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야당 네트워크인 에스테르 고르디요는 제도혁명당 소속이었다가 2006년 새로운동맹당을 창당한 인물로, 14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노동조합인 멕시코 교원노조(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의 대표이자 정신적 지도자이다. 한때 멕시코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었으나 2006년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제도혁명당 내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신당을 창당했다. 최근에는 살리나스와 연대하여 제도혁명당과 페냐 니에토를 지원했다.

그 외에도 제도혁명당 소속으로 영향력 있는 주요 정치 엘리트들로는 베아트리스 파레데스 랑헬(Beatriz Elena Paredes Rangel)과 만리오 파비오 벨트로네스(Manlio Fabio Beltrones)를 들 수 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의 한 명인 파레데스 랑헬은 툴락스칼라 주(Tlaxcala) 출신으로 제도혁명당 총재와 툴락스칼라 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그녀의 툴락스칼라 주 주지사 경력은 툴락스칼라 주 최초이자 멕시코 역사상 두 번째의 여성 주지사였다. 파레데스 랑헬은 2006년 멕시코 시장 선거에 출마했

으나 민주혁명당(PRD)의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Ebrard)에게 패했으며, 2012년 제도혁명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이었으나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한편 또 다른 제도혁명당 소속의 유력 정치 엘리트로는 파비오 벨트로네스를 들 수 있다. 파비오 벨트로네스는 소로나 주 출신으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소노라 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2006~07년과 2010~11년에 상원의장을 지냈다. 2012년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군 중 한 명이었으며, 차기 제도혁명당 총재로도 유력하다.

한편 2000년 제도혁명당의 70년 집권을 종식시킨 국민행동당은 1939년에 창당되어 멕시코의 보수정치를 대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멕시코 북부 지방에서 성공을 거둔 국민행동당 출신의 대표적 정치 엘리트로 우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국민행동당 소속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한 비센테 폭스는 멕시코 혁명 이후 제도혁명당 출신이 아닌 최초의 대통령이다. 폭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 코카콜라 멕시코 사장과 과나후아토 주 주지사를 지냈다. 국민행동당 출신의 폭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자당의 대통령 후보인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Josefina Vázquez Mota)를 제치고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후보를 지지하여 국민행동당으로부터 출당되었다. 한편 2012년 11월 임기를 마친 펠리페 칼데론 이노호사(Felipe Calderón Hinojosa)는 폭스의 뒤를 이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 칼데론은 연방 하원의원과 에너지 장관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당과 일정 거리를 두게 된 국민행동당은 멕시코 혁명 영웅의 하나로 1911년부터 191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프란시스코 마테로(Francisco Indalecio Madero González)의 종손인 구스타보 마

데로 무뇨스(Gustavo Madero Muñoz) 총재가 당을 이끌고 있다. 2010년 12월 국민행동당 총재로 선출된 구스타보 마데로는 치와와 주의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행동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민행동당을 대표하는 원로 정치인 중 하나인 루이스 알바레스 (Luis H. Álvarez) 또한 멕시코를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이다. 1919년생인 루이스 알바레스는 1958년 국민행동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으며, 치와와(Chihuahua) 시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에는 국민행동당 총재에 당선되어 연임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치와와 주를 대표하여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1988년 쿠아테목 카르테나스가 제도혁명당을 탈당하여 대통령에 출마한 것을 계기로 제도혁명당 출신의 명망가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결합하여 세운 민주혁명당은 창당 이후 멕시코의 좌파 정치를 대표한다. 수도인 멕시코 시와 게레로 주 그리고 미초아칸 주 등지에서 강력한 기반을 가진 민주혁명당의 대표적인 엘리트로는 쿠아테목 카르테나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Luis Ebrard Casaubón) 그리고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Ángel Mancera) 등이 있다. 이들 민주혁명당 엘리트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도 멕시코 시의 전현직 시장이라는 점이다.

우선 민주혁명당의 대표적 정치 엘리트이자 멕시코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의 한 명인 쿠아테목 카르테나스는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한 라사로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 del Río, 1934~40)의 아들로써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라사로 카르테나스는 멕시코 석유 국유화와 제도혁명당의 창당, 그리고 멕시코 혁명의 제도화 확립

등 멕시코 현대사를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세기 멕시코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아테묵 카르테나스는 정치적 고향인 미초아칸 주에서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하고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원했으나 우파 성향의 카를로스 살리나스에게 제도혁명당의 후보직을 빼앗기고 제도혁명당에서 사실상 쫓겨나서 대통령 선거에 독자 출마하였다. 많은 멕시코 국민이 쿠아테묵 카르테나스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가운데 선거개표 시스템의 이상종료 등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당선되었다. 안타까운 선거 패배를 딛고 이듬해 민주혁명당을 창당한 쿠아테묵 카르테나스는 1997년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뽑은 멕시코 시장에 당선되었다. 쿠아테묵 카르테나스는 1999년 멕시코 시장직을 사임하고 두 번째로 도전한 1994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패배하며 사실상 현실정치를 떠났다. 민주혁명당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카르테나스는 민주혁명당의 원로정치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쿠아테묵 카르테나스의 아들 라사로 카르테나스 바텔(Lázaro Cárdenas Batel)은 미초아칸 주를 근거지로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주지사(2002~08)를 역임하며 명문 정치 엘리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안타까운 선거 패배는 쿠아테묵 카르테나스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타바스코 주 출신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민주혁명당(PRD) 후보로 2006년과 2012년 각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두 번 모두 2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6년에는 집권당이었던 국민혁명당 후보 펠리페 칼데론에게 0.58% 차이로 패배하였다. 이에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공식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오랜 항의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선거에서도 페냐 니에토 후보에 6.67%라

는 비교적 적은 표차로 낙선하였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수도 멕시코 시의 시장(2000~05)을 역임했으며, 중앙 정치를 하기 이전인 젊은 시절에는 고향 타바스코주에서 정치적 경험을 쌓으며 원주민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2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민주혁명당에서 탈당하였다.

쿠아테묵 카르데나스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민주혁명당의 과거를 상징하는 엘리트라면 마르셀로 에브라드와 미겔 앙헬 만세라는 민주혁명당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정치 엘리트들이다. 1959년생인 마르셀로 에브라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시(Distrito Federal) 시장을 지냈다. 2012년 민주혁명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패하여 후보가 되지 못한 마르셀로 에브라드는 2018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혁명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다. 또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63%의 득표율로 멕시코 시 시장에 당선된 만세라 또한 민주혁명당의 중요한 정치 엘리트이다. 1966년생인 만세라는 변호사이자 정치가로서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대학교수와 전임 멕시코 시장인 마르셀로 에브라드의 시행정부에서 사회발전장관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나. 경제 엘리트

1) 경제 엘리트의 특징

멕시코의 대표적인 자본가와 그들의 자녀는 멕시코인 소유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많은 자본가와 그의 직계 가족은 멕시코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들이다.

조합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국가체제에서 민간 특히 경제부문의 엘리트들은 멕시코 정치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에서 경제 엘리트와 민주주의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멕시코에는 민주주의적인 경제 엘리트의 전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예컨대 1968년 틀랄텔롤코(Tlatelolco) 학생운동 학살 같은 경우에서도 비즈니스 공동체는 주저하지 않고 권위주의 정권 편에 섰다. 그러나 이러한 멕시코 경제 엘리트들의 탈정치적 성향은 1982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민간 은행의 몰수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은행 국유화를 계기로 변했다. 많은 경제 엘리트들은 그들을 위한 정치적 공간과 그들의 뜻을 대신할 정치 시스템의 결핍을 느꼈다. 결국 1980년대 은행국유화를 계기로 멕시코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경영자조정위원회(CCE: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와 같은 그들의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 엘리트들의 진정한 대의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희망은 많은 경제 엘리트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국민행동당(PAN)에 가입했으며, 이후에는 제도혁명당에 그리고는 마침내 민주혁명당에까지 가입하며 경제 엘리트의 정당 활동은 확대되었다. 한편 경제 엘리트들의 이러한 정치적 동원이 멕시코 민주주의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Tirado 1998, p. 204).

이후 멕시코의 경제 엘리트는 신자유주의 경제기조 속에 실시된 민영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더욱 강력해져서 그들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멕시코 정치에서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유권자가 되었다(Worthman 2012). 살리나스 정권(1988~94)

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영기업 민영화는 멕시코 경제 엘리트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멕시코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살리나스 정권 시기에 만도 통신, 철강, 철도, 항공, 조선, 전기와 가스 유통, 보험 그리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약 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헌법으로 민영화를 제한했던 석유 분야를 제외하고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진 멕시코 민영화는 이후 규모는 살리나스에 비하여 작아졌지만 세디요(1994~2000) 정권, 폭스(2000~06) 정권, 그리고 칼데론 정권까지 지속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은 소수의 새로운 경제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수의 경제 엘리트들은 정부의 관료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Hogenboom 2004). 살리나스 정권에서 실시한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카를로스 슬림과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이다.

멕시코 경제 엘리트 그룹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가족적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유산 등의 형태로 대를 이어 소유하고 경영한다. 따라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멕시코 경제 엘리트들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이는 멕시코 사회 특유의 가부장적 전통인 마치스모(Machismo)와도 관련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가족 경영적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 멕시코 경제 엘리트 그룹의 세 번째 특징은 다수의 경제 엘리트가 독점 또는 보호 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부각되는 멕시코 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한 이윤의 달성은 멕시코 경제 엘리트 그룹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멕시코 경제와 경제 엘리트 그룹의 특징은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

고 있다. 즉 멕시코 경제 엘리트들은 스티브 잡스보다는 데이비드 록펠러로 채워져 있다(Corcoran 2007).

2) 현재 멕시코의 주요 경제 엘리트

[표 5-4]는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현재 멕시코의 주요 경제 엘리트들이다. 주요 경제 엘리트의 선정 기준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멕시코 상위 10명의 인물 또는 가문을 우선 포함하였다. 재산 규모의 크기와 순위는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12년 세계 부자 순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이들 10명의 인물 또는 가문 이외에도 멕시코 경제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요 경제 엘리트들을 대상에 포함했다.¹¹⁾

우선 멕시코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이 있는 경제 엘리트로는 2007년에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천문학적인 재산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Helú)을 들 수 있다. 슬림은 1940년 레바논 이민자의 아들로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포브스』에 따르면, 카르소(Carso) 그룹을 이끌고 있는 슬림과 그의 가족 재산은 약 690억 달러에 달하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20여 개에 달한다. 슬림은 그의 소유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과 사위와 같은 가족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 슬림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11개국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통신회사 아메리카모빌(América Móvil)이다. 또한 슬림은 멕시코의 대표적 통신회사인 텔멕스

11) 각 경제 엘리트에 대한 설명은 *Forbes*의 설명과 각종 언론보도 그리고 Zepada Patterson(2011)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했다.

표 5-4. 현재 멕시코의 주요 경제 엘리트*

이름	출생연도	기업 또는 소속	비고 (재산총액)**
카를로스 슬림과 가족 (Carlos Slim Helú)	1940	Grupo Carso	세계 1위, 멕시코 1위 (690억 달러)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와 가족 (Ricardo Salinas Pliego)	1956	Grupo Salinas & Grupo Elektra	세계 37위, 멕시코 2위 (174억 달러)
알베르토 바이에레스와 가족 (Alberto Bailleres)	1951	Grupo Bal	세계 38위, 멕시코 3위 (165억 달러)
헤르만 라레라 모타 벨라스코와 가족 (Germán Larrera Mota-Velasco)	1941	Grupo México	세계 48위, 멕시코 4위 (132억 달러)
헤로니모 아랑고와 가족 (Jerónimo Arango)	1927	Grupo CIFRA	세계 276위, 멕시코 5위 (40억 달러)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Emilio Azcárraga Jean)	1968	Grupo Televisa	세계 634위, 멕시코 6위 (20억 달러)
로베르토 곤살레스 바레라와 가족 (Roberto González Barrera)	1930	Gruma & Banorte	세계 683위, 멕시코 7위 (19억 달러)
카를로스 Hank 론과 가족 (Carlos Hank Rhon)	1956	Grupo Financiero Interacciones	세계 913위, 멕시코 8위 (14억 달러)
로베르토 에르난데스 라미레스 (Roberto Hernández Ramírez)	1942	전 Banamex 대표	세계 960위, 멕시코 9위 (13억 달러)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 (Joaquín Guzmán Loera)	1954 또는 1957	시날로아 마약 카르텔	세계 1153위, 멕시코 10위 (10억 달러)
알프레도 하프 헬루와 가족 (Alfredo Harp Helú)	1944	Grupo Marti	세계 1153위, 멕시코 10위 (10억 달러)
올레가리오 바스케스 라나와 가족 (Olegario Vázquez Raña)	1935	Grupo Empresarial Angeles	
마리아 아순시온 아람부르자발라 (María Asunción Aramburuzabala)	1963	Grupo Modelo	
로렌소 세르비트헤 (Lorenzo Servitje)	1918	Grupo Bimbo	
호르헤 베르가라 (Jorge Vergara)	1955	Grupo Omniflife	
알레한드로 라미레스 마가나와 가족 (Alejandro Ramírez Magana)	1970	Cinépolis	
로렌소 삼브라노 (Lorenzo Zambrano)	1944	Cemex 대표	
클라우디오 X 곤살레스 (Claudio X González)	1939	김벌리 클락(Kimberly Clark) 멕시코 회장	

자료: *필자가 선정 및 재구성, ** 『포브스(Forbes)』 2012년 순위와 재산 총액 기준.

(Telmex)를 소유하고 있는데, 슬림은 1990년 멕시코 전화시장을 독점하던 국영기업인 텔멕스 민영화에 참여하여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였다. 또한 슬림은 멕시코의 다른 통신회사 텔셀(Telcel), 인터넷 서비스 기업 프로디지(Prodigy), 광산, 인부르사(Inbursa) 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기관, 석유 플랫폼, 건설 및 인프라스트럭처(IDEAL), 유통회사 시어스(Sears)와 산본스(Sanborn's)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뉴욕타임스』 지분 6.4%를 인수하기도 했다. 한편 2012년에는 멕시코의 프로축구팀 레온(Leon) 및 파추카(Pachuca) 그리고 스페인의 프로축구팀 레알오비에도(Real Oviedo)를 인수했다.

슬림은 개발도상국 출신으로는 최초의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원동력의 하나는 독점적 영업이다. 예를 들어, 슬림의 아메리카모빌은 멕시코 무선전화 시장의 70%를 장악하였으며, 또 다른 슬림의 통신회사인 텔멕스는 멕시코 유선전화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결국 슬림의 경제적 성공은 멕시코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독점적 시장지배가 증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부를 소유한 경제 엘리트는 살리나스 그룹(Grupo Salinas)과 엘렉트라 그룹(Grupo Elektra)의 소유주이자 대표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Ricardo Salinas Pliego)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살리나스 플리에고의 재산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74억 달러이며, 이는 멕시코 2위이자 세계 37위에 해당한다. 아즈테카 텔레비전(TV Azteca), 엘렉트라(Elektra), 루사셀(Lusacell), 우네폰(Unefon) 그리고 아즈테카 은행(Banco Azteca) 등 통신과 유통 그리고 미디어 부문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살리나스 플리에고 소유의 아즈테카 텔레비전은 멕시

코에서 두 번째로 큰 텔레비전은 방송국이다. 또한 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엘렉트라는 무려 154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업체이다. 살리나스 플리에고는 혈연관계는 없지만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의 형라울 살리나스(Raúl Salinas)와의 친분으로 구설에 올랐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제 엘리트는 발 그룹(Grupo Bal)의 소유주 알베르토 바이에레스(Alberto Bailleres)이다. 아버지 라울 바이에레스에 이어 발 그룹을 운영하는 알베르토 바이에레스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회사인 페놀레스(Peñoles), 백화점 체인 팔라시오 데 이에로(El Palacio de Hierro), 순수 멕시코인 소유의 유일한 보험회사 나시오날 피난시에로 그룹(Grupo Nacional Financiero), 연금 회사 프로푸투로 그룹(Grupo Profuturo) 등을 지배하고 있다. 2012년 『포브스』에 따르면, 멕시코 3위이자 세계 38위의 부자이다.

『포브스』가 선정한 멕시코의 네 번째 부자인 경제 엘리트는 헤르만 라레라 모타 벨라스코(Germán Larrera Mota-Velasco)이다. 헤르만 라레라는 멕시코 최대의 광업회사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구리 생산자이자 은 생산자인 멕시코 그룹(Grupo México)의 대표이다. 2012년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가문의 총재산은 142억 달러이다.

다음 경제 엘리트는 CIFRA 그룹의 헤로니모 아랑고(Jerónimo Arango)이다. 헤로니모 아랑고는 두 동생 마누엘, 플라시도와 함께 슈퍼마켓 체인 아우레라(Aurrerá)의 공동 창업자이다. 그의 가족 기업인 CIFRA 그룹은 슈퍼마켓 체인인 아우레라와 수페라마(Superama), 레스토랑 체인인 뵘스(VIPs)와 엘포르톤(El Portón) 그리고 패션스토어인 수브르비아(Suburbia) 등이 있다. 한편 아랑고는 미국의 월마트(Wal-Mart)와 제휴하여 월마트

의 멕시코 진출에 앞장섰다. 1997년 아랑고 가족은 CIFRA의 주식 과반을 월마트에 매각하였다. 『포브스』에 따르면, 아랑고 가족의 재산은 40억 달러에 달하는데 멕시코 5위에 해당한다.

다음 경제 엘리트는 에밀리오 아스카라가(Emilio Azcárraga Jean)이다. 에밀리오 아스카라가는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밀모(Emilio Azcárraga Milmo)의 아들이자 텔레비사(Televisa)를 설립한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비다우레타(Emilio Azcárraga Vidaurreta)의 손자로서 현재 텔레비사의 소유주이자 대표이다.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비다우레타는 바스크 출신 이민자로 멕시코 방송계의 개척자인 라울 아스카라가 비다우레타(Raúl Azcárraga Vidaurreta)의 동생이다. 에밀리오 아스카라가는 멕시코 7위의 부자로 재산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에밀리오 아스카라가가 소유한 텔레비사는 브라질의 글로보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그리고 스페인어권에서는 최대의 미디어 그룹이다. 텔레비사는 카블레비시온(Cablevisión), 라디오 방송국(Televisa Radio), 출판사 등의 미디어 자회사뿐만 아니라 아즈테카 경기장(Estadio Azteca)과 프로축구팀 아메리카(Club América), 네카사(Club Necaxa), 산루이스(San Luis FC), 아틀란테(Atlante FC) 등을 소유하고 있다.

멕시코 미디어 시장을 대표하는 텔레비사는 멕시코 사회에서 재산 규모를 능가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있다. 또한 텔레비사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이었던 제도혁명당 성향의 정치적 보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도혁명당 후보 페냐 니에토를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방송보도로 반(反)텔레비사 학생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19억 달러의 자산으로 멕시코 일곱 번째 부자인 로베르토 곤살레스 바

레라(Roberto Gonzalez Barrera)는 세계 최대의 토르티야와 옥수수 가루 생산자인 그루마(Gruma)의 대표이자, 멕시코인 소유 최대의 민간은행인 반노르테(Banorte)의 소유주이다. 바레라는 ‘토르티야 왕’ 또는 ‘돈 마세코(Don Maseco)’로 불리며 멕시코인의 주식인 토르티야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립했는데, 팔리는 토르티야 네 개 중 한 개가 그의 회사 마세카(Maseca)가 생산한 것이다. 한편 바레라는 정치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로도 유명했다. 바레라는 정치권과 관계를 발판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했다. 바레라는 2012년 8월 25일 질병으로 사망했다.

14억 달러로 멕시코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진 경제 엘리트는 카를로스 행크 론(Carlos Hank Rhon)과 그의 가족이다. 인테르악시오네스 금융 그룹(Grupo Financiero Interacciones)을 이끄는 카를로스 행크 론은 정치가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행크 곤살레스(Carlos Hank González)의 아들이다. 제도혁명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 멕시코주 지사, 멕시코 시 시장, 관광장관, 농업장관 등의 요직을 거친 행크 곤살레스는 특히 카를로스 살리나스 재임 시기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아버지가 독일인 이민자였던 행크 곤살레스는 멕시코 대통령이 되려면 부모 모두가 멕시코에서 태어난 멕시코인이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카를로스 행크 곤살레스가 리더이자 멘토의 역할을 했던 멕시코 주 출신의 제도혁명당 소속 정치가 그룹인 아틀라코몰코(Atlacomulco) 그룹은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배출하며 멕시코 정치에서 최대 파워 그룹으로 떠올랐다. 2001년 행크 곤살레스가 사망한 후에는 카를로스 행크 론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카를로스 행크 론 가족은 멕시코 최대의 스포츠 도박 업체인 칼

리엔테(Caliente)를 포함하는 인테르악시오네스 금융 그룹 이외에도 인테르 악시오네스 은행과 에르메스 인프라스트럭처(Grupo Hermes Infraestructura)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카를로스 행크 론 또한 정치가로서도 능력을 발휘 했는데, 제도혁명당 소속으로 티후아나 시장을 역임하였다. 카를로스 행크 곤살레스 가족의 사례는 정치와 경제가 중첩되는 멕시코에서는 드문 엘리트 사례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멕시코의 경제 엘리트는 엠프레사리알 앙헬레스 그룹(Grupo Empresarial Angeles)의 올레가리오 바스케스 라냐(Olegario Vázquez Raña)이다. 엠프레사리알 앙헬레스 그룹은 바스케스 라냐의 아들 바스케스 알디르(Olegario Vázquez Aldir, 1972년생)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엠프레사리알 앙헬레스 그룹은 금융,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마헨(Imagen) 그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라디오 방송국, 일간지 『엑셀시오르(Excelsior)』, 텔레비전 방송국 카데나 트레스(Cadena Tres), 호텔 체인 카미노 레알, 금융 그룹 멀티발로레스 금융 그룹(Multivalores Grupo Financiero) 등이 있다.

13억 달러로 멕시코에서 아홉 번째로 재산이 많은 로베르토 에르난데스 라미레스(Roberto Hernández Ramírez)는 멕시코를 대표했던 은행 바나멕스(Banamex)의 전 대표이사이다. 2001년 바나멕스가 시티은행에 인수되며 재산을 형성한 에르난데스 라미레스는 현재 시티 그룹의 운영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10억 달러의 재산으로 멕시코에서 열 번째 부자인 알프레도 아르프 헬루(Alfredo Harp Helú) 또한 2001년 바나멕스가 시티은행에 매각되며 재산을 형성한 사례이다. 아르프는 바나멕스의 대표이자 주주였다. 현재 스

포츠용품 유통 체인 마르티 그룹(Grupo Marti)의 대표이자 멕시코 프로 야구단 디아블로 로호스(Diablos Rojos) 구단주이다. 한편 아르프는 세계 최고의 부자 카를로스 슬림의 사촌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제 엘리트는 마리아 아순시온 아람부르사발라 라레기(María Asunción Aramburuzabala Larregui)이다. 마리아 아순시온 아람부르사발라는 트레살리아 캐피털(Tresalia Capital)의 대표이자 모델로 그룹의 부회장이다. 1925년 창립된 멕시코의 대표적인 맥주회사인 모델로 맥주(Cervecería Modelo)의 공동 창업자인 펠릭스 아람부르사발라(Félix Aramburuzabala)의 손녀인 마리아 아순시온 아람부르사발라는 약 2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산되며,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다.

또한 로렌소 세르비트헤(Lorenzo Servitje)는 빔보 그룹 창업자이자 대표이다. 빔보 그룹은 멕시코 최대의 제빵업체이며 13개국에서 영업 중이다. 포장 빵과 토르티야 그리고 제과 분야 등에서 멕시코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도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민행동당을 지지하는 기업인으로 노조에 적대적이며 보수적인 정치관으로 유명하다.

한편 알레한드로 라미레스 마가나(Alejandro Ramirez Magan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영화관 체인인 시네폴리스(Cinépolis)의 대표이다. 시네폴리스는 1947년 라미레스 마가나의 할아버지 엔리케 라미레스 미겔(Enrique Ramírez Miguel)이 창립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경제 엘리트는 사업가이자 영화 프로듀서인 호르헤 베르가라(Jorge Vergara)이다. 옴니라이프(Omnilife) 그룹의 창업자이다. 옴니라이프 그룹은 허벌 제품을 판매하는 모회사 이외에도 유명 프로축

구팀인 과달라하라 치바스(Chivas de Guadalajara)의 구단주이다. 호르헤 베르가라는 또한 영화제작사로도 유명한데, 리처드 닉슨의 암살(The Assassination of Richard Nixon)과 오스카상을 받은 이투마타탐비엔(Y Tu Mamá También)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멕시코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 엘리트로는 세계 최대의 시멘트 회사이자 건축 재료 회사인 세멕스(Cemex)의 대표 로렌소 삼브라노(Lorenzo Zambrano)와 김벌리 클락(Kimberly Clark) 멕시코의 회장인 클라우디오 엑기스 곤살레스(Claudio X González)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클라우디오 엑기스 곤살레스는 살리나스 고르타리 정권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민영화 작업을 이끌었으며, 기업을 옹호하는 활동으로 ‘기업인들의 피델 벨라스코(Fidel Velazquez)’라고 불린다.

다. 관료 엘리트

현재 멕시코의 관료 엘리트 그룹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페냐 니에토 행정부의 내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5-5]는 페냐 니에토 정부의 내각 명단이다. 2012년 12월 1일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페냐 니에토 정부의 내각은 젊은 그룹과 베테랑 정치인의 조화가 강조되었다. 페냐 니에토 내각에서 가장 큰 그룹은 페냐 니에토의 고향이자 페냐 니에토가 주지사를 지내며 정치적으로 성장한 멕시코 주를 발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페냐 니에토 내각의 특징은 여성이 단지 세명에 불과한 남성 중심의 내각이라는 점이다(Grayson 2012).

페냐 니에토 내각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재무장관 루이스 비데가라이 카소(Luis Videgaray Caso)이다. 대내외 경제정책을 주도할 ‘슈퍼

표 5-5. 페냐 니에토 정부 내각

이름	직책	출생연도	주요경력
Miguel Ángel Osorio Chong	내무장관(SEGOB)	1964	연방하원의원, 이달고주(Hidalgo) 주지사
José Antonio Meade Koribreña	외무장관(SRE)	1969	에너지 장관 (2011~12)
Salvador Cienfuegos Zepeda	국방장관(SEDNA)	1948	지역사령관
Vidal Francisco Soberón Sanz	해양장관(SEMAR)	1953	해군
Manuel Mondragón y Kalb	공공치안과 제도계획 차관	1933	멕시코 시 치안장관
Luis Videgaray Caso	재무장관(SHCP)	1968	멕시코주 재무장관(2005~09) 하원의원(2009~11)
Ildelfonso Guajardo Ortiz	경제장관	1957	하원의원(2000~03)
Pedro Joaquín Coldwell	에너지장관(ENER)	1950	제도혁명당 대표(2011~2012) 상원의원(2006~12)
Rosario Robles Berlanga	사회발전장관(SEDESOL)	1956	하원의원 멕시코 시 시장(1999~2000)
Emilio Chuayffet Chemor	교육장관(SEP)	1951	틀루카 시 시장(1987~89) 멕시코 주 주지사(1993~95) 내무부 장관(1995~98) 하원의원(2003~06, 2009~12)
Gerardo Ruiz Esparaza	통신교통장관(SCyT)	1949	전기위원회 행정처장 멕시코 주 통신장관
Mercedes Juan López	보건장관(SSP)	1943	의사, 하원의원(1997~2000)
Juan José Guerra Abud	환경천연자원장관(SEMA RNAT)	1952	멕시코녹색당(PVEM) 정치가 멕시코 주 경제발전장관
Enrique Martínez y Martínez	농업·목축·농촌발전수 산·식량장관(SA)	1948	하원의원(1988~91, 1997~99) 코아우일라 주 주지사(1999~2005)
Jorge Carlos Ramírez Marín	농지개혁장관(SRA)	1961	하원의원(2000~03, 2009~12)
Alfonso Navarrete Prida	노동장관(STPS)	1963	멕시코 주 법무장관, 도시발전 장관
Claudia Ruiz Massieu Salinas	관광장관(SECTUR)	1972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의 조카 하원의원(2009~12)
Julián Alfonso Olivás Ugalde	공공기능장관(SFP)	1954	대법원 행정처장
Jesús Murillo Karam	검찰청장(PGR)	1947	이달고 주 주지사(1993~98) 상원의원(2006~12)
Emilio Lozoya Austin	Petróleos Mexicanos (PEMEX)	1974	IDB와 세계은행 근무
Euardo Medina Mora	주미국대사	1957	법무장관(2007~09) 주영국 대사(2009~12)
Aurelio Nuño Mayer	대통령실장	1977	정치가, 페냐 니에토 비서관

자료: Grayson(2012)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비데가라이 카소는 MIT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페냐 니에토의 멕시코 주 정부에서 재무장관과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고 페냐 니에토의 대통령 선거 캠프를 이끌었다. 비데가라이 카소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각 내에서도 외무장관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코리브레냐(José Antonio Meade Koribreña)와 대통령실장 아우렐리오 누뇨 메이어가 비데가라이 카소와 밀접한 관계이다. 비데가라이 카소는 2018년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비데가라이 카소는 경제장관 일테폰소 구아하르도 오르티스 및 안토니오 메아데 외무장관과 함께 수출 주도형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Grayson 2012).

주목할 다음 인물은 정치인 출신의 교육장관 에밀리오 추아이펫 체모르(Emilio Chuayffet Chemor)이다. 추아이펫 체모르 교육장관은 장관의 정치 역량을 이용하여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가 버티는 교원노동조합을 상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같은 멕시코 주 출신으로 톨루카 시 시장과 주지사를 역임한 추아이펫 체모르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포함한 멕시코 주 출신 정치인 그룹을 칭하는 아틀라코물코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부를 제외하고는 에밀리오 감보아 파트론, 만리오 파비오 벨트로네스, 이본 오르테가 파체코(Ivonne Ortega Pacheco), 그리고 베아트리스 파레데스 랑헬과 같은 제도혁명당 유력 정치엘리트의 측근들은 페냐 니에토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Grayson 2012).

덧붙여 정권을 초월하여 멕시코 관료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세 명의 대표적인 전문 경제 관료를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은 프란시스코

힐 디아스(Francisco Gil Díaz)이다. 1943년생으로 전문 경제 관료인 힐 디아스는 살리나스 정부에서 재무차관, 세디요 정부에서 중앙은행 부총재, 폭스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바나멕스와 아반텔(Avantel)을 거쳐 텔레포니카(Telefónica)의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회장이다. 두 번째로 기예르모 오르티스(Guillermo Ortiz)는 1948년생으로 역시 전문 경제 관료이다. 국제통화기금 멕시코 대표를 지냈으며, 세디요 정부에서 교통통신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또한 폭스 정부에서도 중앙은행 총재에 재선되었다. 마지막으로 페드로 아스페(Pedro Aspe)는 1950년생으로 살리나스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멕시코 공과대학교(ITAM) 경제학과 학과장을 지냈고, 통계청(INEGI) 초대 회장이다. 또한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정부에서 기획부 차관과 예산장관을 지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정부를 넘나들며 경제 요직에서 능력을 발휘한 전문 경제 관료란 사실이다.

라. 기타 엘리트 그룹

본 섹션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기술 관료 이외에 살펴볼 엘리트 집단으로는 언론인을 포함한 지식인 그룹과 종교인이 있다. 또한 멕시코 혁명 이후 세워진 멕시코식 코포라티스트 체제를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온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고찰도 포함할 것이다. 덧붙여 좁은 의미의 엘리트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현재 멕시코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집단인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본 섹션에서 살펴볼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그리고 조직범죄 그룹의

표 5-6. 현재 멕시코 기타 집단 엘리트

그룹	이름	출생연도	주요 경력
지식인	Enrique Krauze Kleinbort	1947	El Colegio de México 교수 출판사 Editorial Clío 대표 잡지 <i>Letras Libres</i> 편집장
지식인	Denise Dresser Guerra	1963	멕시코공과대학교(ITAM) 정치학과 교수
지식인	Héctor Aguilar Camín	1946	일간지 <i>La Jornada</i> 공동 발행인
언론인	Carmen Aristegui Flores	1964	CNN en Español의 뉴스프로그램 Aristegui 진행자 MVS 라디오 아침뉴스 진행자
언론인	Joaquín López-Dóriga	1947	Canal de las Estrellas의 저녁뉴스 El Noticiero con Joaquín López-Dóriga 진행
노조	Carlos Romero Deschamps	1943	PEMEX 노동조합(STPRM) 위원장(1996~) 상원의원
노조	Víctor Fuentes del Villar	1938	멕시코 전기산업 노조 (SUTERM) 위원장
교회	Norberto Rivera	1942	가톨릭 추기경 (1998~)
조직범죄	Joaquín Guzmán Loera	1954 / 1957	마약범죄조직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자
조직범죄	Los Zetas	-	마약 카르텔

선정은 2011/2012년 권력을 뜻하는 『PODER 360』 잡지가 선정한 멕시코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의 명단을 기준으로 필자가 선정하였다.¹²⁾

우선 지식인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본 섹션에서 언급한 세 명의 지식인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먼저 엔리케 크라우제 클레인보르트(Enrique Krauze Kleinbort)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장 존중받는 역사학자이고 수필가이며 출판가이다. 멕시코 국립대학교(UNAM)에서 산업공학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멕시코 대학(El Colegio de México)에서 역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멕시코 대학의 역사학센터(Centro de Estudios Históricos)에서 교수이자 연구자로

12) 각 엘리트 개인에 대한 설명은 『PODER 360』의 설명과 언론 보도를 참조했다.

재직 중이다. 1992년 출판사 에디토리알 클리오(Editorial Clío)를 설립했으며, 1999년부터 문화잡지 『레트라스 리브레스(Letras Libres)』를 발행하고 있다.

데니스 드레서 게라(Denise Dresser Guerra)는 정치평론가이자 문필가이며 현재는 멕시코 기술대학교(ITAM: Instituto Tecnológico Autónomo de México) 정치학과 교수이다. 데니스 드레서는 멕시코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데니스 드레서는 멕시코의 언론과 통신 등에서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비판하고 인권을 증시하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텔레비사 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공공연한 반대를 피력했는데, 이 법안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두 방송사인 텔레비사와 아즈텍 텔레비전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엑토르 아길라르 카민(Héctor Aguilar Camín)은 문필가이자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이다. 아길라르 카민은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Universidad Iberoamericana)에서 정보과학기술로 학부를 졸업하고, 멕시코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간지 『호르나다(La Jornada)』 공동 발행인이며, 『우노마스우노(Unomásuno)』, 『밀레니오(Milenio)』, 『넥소스(Nexos)』 등에 글을 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멕시코의 영향력 있는 언론계 엘리트는 멕시코에서 상대적으로 신문보다 파급력이 큰 방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카르멘 아리스테기 플로레스(Carmen Aristegui Flores)를 꼽을 수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카르멘 아리스테기는 CNN en Español의 뉴스 프로그램 ‘아리스테기’와 MVS 라디오의 아침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언론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카르멘 아리스테기는 앵커와 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2001, 2002, 2004년에 멕시코 기자클럽이 선정한 ‘기자상(National Award)’ 그리고 2003년에는 ‘최고의 앵커상(Best national Anchor)’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멕시코 정치 전문으로 때때로 좌파 정치 운동에 공감대를 나타내곤 한다.

한편 멕시코의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엘리트 언론인으로는 호아킨 로페스 도리가(Joaquín López-Dóriga)가 있다. 1947년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인 로페스 도리가는 18세가 되던 해에 멕시코 일간지 *El Heraldo de México*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2년 후 멕시코 최초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앵커인 하코보 사블루도프스키(Jacobo Zabłudovsky)와 합류한 로페스 도리가는 2000년부터 ‘Canal de las Estrellas’에서 저녁뉴스 ‘El Noticiero con Joaquín López-Dóriga’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멕시코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해졌지만 20세기 초 혁명 이후 세워진 멕시코식 코포라티스트 체제를 통해 조직노동자와 그 지도자는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제도혁명당을 통해 구현되는 멕시코 조직노동자의 이러한 영향력은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매개로 한다. 현재 멕시코 조직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는 세 명이다. 세 명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는 석유노조의 카를로스 로메로 데스참프스(Carlos Romero Deschamps), 전기노조의 빅토르 푸엔테스 델 비야르(Víctor Fuentes del Villar) 그리고 앞서 정치 엘리트 섹션에서 살펴본 교원노조의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를 들 수 있다.

카를로스 로메로 데스참프스는 타마울리파스 주 탐피코 출신으로

1996년부터 26,561명의 조합원을 가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의 노동조합(STPRM: Sindicato de Trabajadores Petroleros de la República Mexicana)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20년간 멕시코 노동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노조지도자이다. 로메로 데스참프스는 2012년에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201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로메로 데스참프스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의 라바티스타 후보를 돕기 위하여 석유노조에 할당된 국고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페멕스게이트(Pemexgate)의 연루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조사 끝에 로메로 데스참프스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로메로 데스참프스는 제도혁명당 소속의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빅토르 푸엔테스 텔 비야르는 2005년부터 60,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멕시코 전기산업노조(SUTERM: Sindicato de Trabajadores Electricistas de la República Mexicana)의 위원장이다. 앞서 30년간 전기산업 노조위원장을 수행한 레오나르도 로드리게스 알카이네(Leonardo Rodríguez Alcaine)의 후임으로 위원장이 된 푸엔테스 텔 비야르는 지난 수년 동안 빠르게 권력의 강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받는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페냐 니에토를 공공연히 지지했다.

한편 가톨릭 신자가 절대 다수인 멕시코에서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노르베르토 리베라(Norberto Rivera)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톨릭 추기경이다. 툀랄네판틀라(Tlalneptla) 주교 카를로스 아길라르 레테스(Carlos Aguilar Retes)와 과달라하라(Guadalajara) 주교 후안 산도발 이니게스(Juan Sandoval Iniguez)와 함께 바티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멕시코 교회 엘리트인 노르베르코 리베라 추기경은 멕시코시 대

주교이며 1998년에 추기경이 되었다.

멕시코 사회의 엘리트들을 살펴보는 본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대상은 멕시코 주요 범죄조직과 지도자들이다. 통상적인 의미의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범죄조직 지도자이지만 최근 이들이 멕시코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특히 콜롬비아 마약조직에 대한 미국의 공세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멕시코의 마약 범죄조직과 이들이 일으킨 범죄의 증가는 칼데론 정권에서 마약 조직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을 촉발했으며 이는 마약 범죄조직과 그 지도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본 섹션에서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카르텔인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과 로스세타스(Los Zetas)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우선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Joaquín Guzmán Loera)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시날로아 카르텔의 지도자이다. 2003년 라이벌 걸프 카르텔의 두목 오시엘 카르데나스(Osiel Cárdenas) 체포 이후 가장 위험한 마약 거래상이다. 『포브스』에 의해 2009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2009년 41위, 2010년 60위, 2011년 55위)로 꼽히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재산 규모는 멕시코 10위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2012년 시날로아 카르텔은 멕시코의 약 16개 주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화폐로 3,000만 페소 그리고 미화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구스만 로에라는 1993년 과테말라에서 체포되어 1995년 멕시코에 투옥되었으나 2001년 교도소를 탈출한 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시날로아 카르텔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로스세타스는 멕시코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걸프 카르텔의 무장조직으로 시작되

었다. 로스세타스는 2010년 걸프 카르텔에서 독립하여 자체 조직을 구성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했으며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로스세타스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와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약 11개 주를 통제하고 있다.

4.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

만약 권력구조가 조직들의 네트워크이며 이들의 역할이 일반적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내에서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른바 ‘파워 엘리트’는 권력구조 내의 일단의 개인들로서, 이들은 그들의 영향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엘리트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들이다. 이에 근거하여 파워 엘리트를 두 개 이상의 사회 분야에서 중첩되는 지위가 있거나 영향을 끼치는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면, 멕시코에서 이런 종류의 파워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멕시코 파워 엘리트에 관한 주요 연구자 중 하나인 캠프의 관찰이다(Camp 2002, p. 12). 즉 캠프에 따르면, 멕시코의 파워 엘리트는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회 분야에서 중첩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영향을 끼치는 엘리트가 멕시코 사례에서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멕시코의 파워 엘리트는 각각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캠프의 관찰은 앞서 살펴본 과거와 현재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선 현재의 멕시코 엘리트 중에서 두 분야 이상의 사회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러한 엘리트로는 제도혁명당 출신의 정치가이자

기업가로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중첩되어 활약을 펼친 카를로스 행크 곤살레스와 그의 아들 카를로스 행크 론 가족이 있다. 인테르악시오네스 금융 그룹을 소유하고 멕시코 10대 부자인 그의 아들 카를로스 행크 론은 아버지처럼 정치가이자 기업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정치와 경제의 중첩 사례로는 국민행동당의 구스타보 마데로 무뇨스 총재 사례를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가 출신이 눈에 띄는 국민행동당에서 두 분야 이상에서 활약하는 엘리트를 대표하는 치와와 주의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행동당의 핵심 정치인이다. 마데로 무뇨스는 멕시코 혁명 영웅으로 1911년부터 191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프란시스코 마데로의 종손이기도 하다. 한편 두 분야의 사회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례로는 노조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석유노조의 카를로스 로메로 데스참프스와 교원노조의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를 들 수 있다. 또한 비합법적이지만, 경제와 조직 범죄의 영역을 망라하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도 이 범주에 포함이 가능할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멕시코 엘리트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사회 분야에서 중첩되는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가족관계를 포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family)이다. 정치와 경제 심지어 범죄와 같은 영역에서조차도 공히 가족은 멕시코 엘리트 그룹의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19세기말부터 멕시코 혁명 전에 이르는 포르피리아토(Porfiriato) 시기에 약 300개의 가족집단이 멕시코를 지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혁명당의 후보로 두 번이나 도전한 대선에서 실패한 정치가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쿠아테목 목테수마 맥주회사(Cervecería Cuauhtémoc-Moctezuma)와 멕시코의 명문 사립대학 몬테레이 공과대학교(ITESM)를 설립한 가르사 사다(Garza Sada) 패밀리는 여전히 몬테레이는 물론 누에보 레온 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약 30명의 개인이 멕시코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López Obrador 2010). 그가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들은 멕시코 최대 기업가인 카를로스 슬림,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 그리고 악명 높은 마약 조직범죄 지도자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 등을 포함한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개의 부자 가족은 멕시코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Worthman 2012).

우선 정치 영역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정치 가족으로는 카르테나스(Cárdenas) 가족을 꼽을 수 있다. 멕시코 혁명군으로 1928년에 미초아칸 주지사가 되었고 1934년에 20세기 멕시코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라사로 카르테나스는 1938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혁명군이 장악했던 멕시코 정치의 전통을 종식시켰다. 한편 라사로의 아들인 쿠아테목

표 5-7. 멕시코 경제 지배 엘리트의 네트워크 원천

네트워크 원천	비율
가족	45
기업 이사회	37
동업	7
경력	4
학연	3
시민단체	2
사회사업	2

자료: Camp(2002), p. 40.

표 5-8. 멕시코의 정치가와 가족 전통

정부 부처	가족 관계(%)				
	정치인 아버지	핵가족	Porfirian 가족과 관계	혁명 가족과 관계	기타 엘리트
행정부 장관	15	47	6	13	12
행정부 차관	16	37	4	5	8
의원	13	35	3	5	4
재선 의원	13	35	2	3	3
대법원	15	45	9	3	10

자료: Camp(2010), p. 197.

카르데나스는 1988년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카를로스 살리나스에게 패하기도 했다. 쿠아테묵은 1994년과 2000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멕시코시 시장과 미초아칸 주의 주지사를 지냈다. 한편 쿠아테묵 카르데나스의 아들인 또 다른 라사로 카르데나스도 쿠아테묵 카르데나스가 제도혁명당에서 분리하여 창당한 민주혁명당(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의 일원으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초아칸 주 주지사를 지냈다. 한편 멕시코의 또 다른 정당인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 PAN)의 경우에도 가족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으로 그 자신이 국민행동당 창당 멤버의 아들이다(*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년 2월, p. 2).

한편 가족은 멕시코의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범죄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티후아나(Tijuana), 시날로아(Sinaloa), 골포(Golfo) 등 대표적인 멕시코의 조직범죄 그룹은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티후아나 조직은 알레한드로 펠릭스(Alejandro Felix) 패밀리가 조직을 창설했는데, 조직을 운영하던 형제와 자매들이 죽거나 체

포되자 조직의 리더십이 삼촌과 조카들에게 이양되었다. 한편 시날로아 그룹의 한 분파는 벨트란 레이바(Beltrán Leyva) 형제가 그리고 다른 분파는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 지휘했는데, 이들은 공히 조직의 권력 장악을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축출했다(*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년 2월, p. 1).

멕시코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가족 관계는 정치와 사회는 물론 경제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을 결정지었다. 가족 자본을 중심으로 멕시코의 경제활동 특히 대규모 기업 집단이나 지주회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족 중심적 현상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소외시켰으며, 결국 규제 약화와 시장 축소와 같이 경제에 부정적 역할을 끼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은 정치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이념적 일관성보다 이름이 더 큰 역할을 하였다(*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년 2월, p. 3). 『라틴아메리카 뉴스레터』는 특집기사(*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년 2월)에서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자질과 신념보다는 가족 관계가 정치는 물론 경제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에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족과 함께 멕시코 엘리트의 특징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예상하듯이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캠프(Camp 2002)의 조사에 따르면, 1970~2000년 사이 기간을 중심으로 선정한 398명의 멕시코 엘리트 중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비율은 86%에 달하는데, 이는 멕시코 총인구 중 10% 미만의 인구가 대학 졸업

표 5-9. 멕시코 엘리트의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엘리트 그룹				
	정치	지식	경제	군부	교회
고등	12	28	23	6	0
대학	46	19	60	60	42
대학원	24	19	15	31	14
박사	18	34	2	3	44

주: * N(사례) = 398개
 자료: Camp(2002), p. 126.

자인 점에 비추어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대학원에서 학위를 획득한 멕시코 엘리트의 비중이 3분의 1(석사 22%, 박사 15%)에 달한다. 한편 이 비율은 미국 엘리트들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멕시코 엘리트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 엘리트와 교육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치와 교회 엘리트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예상과 달리 지식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지 않았다. 이는 경제와 지식 엘리트는 정규 교육보다 해당 분야에서의 도제식 교육이 엘리트로 발돋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멕시코 엘리트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학부 교육기관은 멕시코 국립대학교(UNAM)이다. 통계에 따르면, 약 30%의 멕시코 엘리트가 학부교육을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받았다. 특히 정치, 경제 및 지식 엘리트 그룹은 60%가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도쿄 대학교에 엘리트 그룹의 학부교육이 집중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다(Camp 2002, p. 129). 한편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엘리트의 사회화와 네트워크 그리

고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은 경제학부이다.

하지만 멕시코 파워 엘리트 그룹에서 사립대학교 학부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멕시코 사회가 정치적·경제적·이념적 변화를 크게 겪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엘리트 그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멕시코 공과대학교(Mexico Autonomous Institute of Technology, ITAM),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교(Universidad Iberoamerican)¹³⁾ 그리고 멕시코 대학¹⁴⁾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몬테레이 공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멕시코 시에 있다. 공립대학과 달리 주로 상류층 출신이 다니는 사립대학교들은 높은 학비와 제한된 장학금 때문에 입학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제약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멕시코의 공립과 사립 대학교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커리큘럼과 일반 환경의 차이가 커서 매우 다른 관점의 교육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멕시코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멕시코 엘리트 그룹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Camp 2002).

우선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 주 몬테레이 시의 경제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몬테레이 공과대학교는 자유방임 경제를 강력히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멕시코의 MIT로 불린다. 따라서 지역과 이념이 겹치는 국민행동당 정치 엘리트나 북부 출신의 경제 엘리트 중에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출신이 많다.

13) 예수회(Jesuit) 소속의 교육기관이다.

14) 공공기금이 투입된 기관이지만 사립대학처럼 운영되어 본 글에서는 사립기관으로 분류했다.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의 멕시코 시 버전인 멕시코 공과대학교는 1946년 경제 및 지식 엘리트들이 세웠다. 국가주의 경제로부터 자유주의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엘리트 양성이 설립목적의 하나인 멕시코 공과대학교는 멕시코의 시카고 대학교라고 불리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진한 밀턴 프리드먼 제자들의 존재 때문이다. 멕시코 공과대학교 졸업생들은 초기에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금융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멕시코 공과대학교 출신의 대표적인 엘리트로는 멕시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설계자인 페드로 아스페(Pedro Aspe Armella)와 멕시코 중앙은행장 출신의 미겔 만세라(Miguel Mancera)를 들 수 있다.

1948년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의 설립은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반발과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기독교민주주의 이념의 결과였다. 예수회 소속으로 설립된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는 가톨릭 기부자와 국민행동당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졸업생들은 국민행동당과 관계가 깊은 편이다.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출신의 대표적인 엘리트로는 1994년 국민행동당 대통령 후보인 디에고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Diego Fernández de Cevallo)가 있다.

멕시코 대학은 멕시코 유일의 공립-사립 혼합형 대학이다. 멕시코 대학은 1940년 멕시코 중앙은행, 정부출판사인 경제문화펀드(Fondo de Cultura Económica) 그리고 스페인의 집(Casa de España) 등 정부와 시민기구가 연합하여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연구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하는 멕시코 대학은 지식인 지도자 준비, 대학교수 양성,

그리고 연구 풍토 진작의 목적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 최고의 교육 여건을 지닌 멕시코 대학 출신은 대부분이 저명한 지식 엘리트로 성장했다.

한편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해외유학은 멕시코 엘리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엘리트의 절반은 중고등교육 또는 대학 이상의 교육시기에 한 번 이상 해외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가졌다.

멕시코 엘리트 그룹의 해외 유학 경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특징은 모든 교육을 해외에서만 받은 엘리트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 교육기관이 여전히 교육적 사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표 5-10. 멕시코 엘리트와 유학

(단위: %)

엘리트 그룹	엘리트가 교육 받은 국가			
	오직 멕시코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정치가	53	29	15	3
지식인	49	32	17	2
자본가	40	50	8	2
군인	25	53	0	2
사제	21	7	72	0

주: 약 5%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공부를 하였다. N=398

자료: Camp(2002), p. 154.

표 5-11. 멕시코 엘리트의 해외유학과 세대 차이

(단위: %)

출생연도	엘리트가 교육 받은 국가			
	오직 멕시코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1945년 이후	28	50	20	2
1945년 이전	47	35	16	2

주: 약 5%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공부를 하였다. N=398

자료: Camp(2002), p. 160.

표 5-12. 멕시코 관료 엘리트의 해외 유학과 출신 학교

근무 기관과 근무 기간		대학교	학위
재무부			
1977~82	David Ibarra	스탠퍼드	경제
1982~86	Jesús Silva Herzog	예일	경제
1986~88	Gustavo Petricoli	예일	경제
1988~94	Pedro Aspe Armella	MIT	경제
1994	Jaime Serra Puche	예일	경제
1994~98	Guillermo Ortiz Martínez	스탠퍼드	경제
기획예산			
1979~81	Miguel de la Madrid	하버드	행정
1982~87	Carlos Salinas de Gortari	하버드	정치경제
1987~88	Pedro Aspe Armella	MIT	경제
1988~92	Ernesto Zedillo	예일	경제
상업 및 공업발전			
1988~94	Jaime Serra Puche	예일	경제
1994~00	Herminio Blanco Mendoza	시카고	경제
멕시코 중앙은행			
1982~97	Miguel Mancera	예일	경제
1997~00	Guillermo Ortiz Martínez	스탠퍼드	경제

자료: Camp(2002), p. 184.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멕시코 엘리트 해외 유학 경향의 두 번째 특징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엘리트의 세 명 중 한 명은 미국에서 공부하였다. 특히 미국 유학의 경향은 경제 엘리트 그룹에서 두드러진다. 세 번째 특징은 세대일수록 해외 유학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러한 해외 유학 증가의 경향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관료 엘리트는 미국의 우수 사립대학 중심의 그리고 경제학 중심으로 해외 유학 출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Camp 2002).

마지막으로 멕시코 엘리트의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 특징으로는 출신 지역을 들 수 있다. 출신 지역은 멕시코 엘리트가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정치 엘리트는 출신 지역에서의 선출직 또는 행정직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경력 창출의 수단이다. 특히 선출직의 연임이 불가능한 멕시코 정치제도에서 출신 지역에서의 확고한 지지는 선출직의 종류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경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앞서도 살펴본 카르테나스 가족을 보면 라사로 카르테나스와 아들 쿠아테묵 카르테나스 그리고 쿠아테묵의 아들인 또 다른 라사로 카르테나스는 모두 미초아칸 주에서 주지사를 지내며 정치적 경력을 축적했다. 한편 출신 지역은 중앙정치에서 중요한 네트워크의 매개체이다. 즉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멕시코 엘리트 그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도혁명당은 물론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 모두 당내의 동일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그룹이 존재하며 정치 행위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현 페냐 니에토 정권 내각의 여러 구성원이 페냐 니에토의 출신 지역이자 페냐 니에토가 정치적 경력을 축적한 멕시코 주 출신이다. 한편 페냐 니에토의 정치적 멘토였던 정치가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행크 곤살레스는 멕시코 주 출신의 제도혁명당 소속 정치인 그룹인 아틀라코몰코의 리더이다. 이는 멕시코 정치에서 출신지역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엘리트는 두 개 이상의 사회분야 보다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또한 멕시코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그리고 행동 방식은 가족, 교육, 출신 지역 같은 요소들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5. 결론

본 장은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한 고찰이 목적이다. 먼저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엘리트는 일부 예외가 존재하지만 두 개 이상의 사회 분야에서 중첩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멕시코의 파워 엘리트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은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역사적 과정에서 주목할 키워드는 혁명과 위기 그리고 민주화이다. 식민시대를 거쳐 독립을 이루었지만 식민화와 함께 세워진 인종 중심의 사회 계층구조에 큰 변화를 겪지 않았던 멕시코 사회는 19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개혁과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그리고 이에 대한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반발과 노동계급의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로 발발한 20세기 초의 혁명과 함께 의미있는 변화를 겪는다. 멕시코 현대사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멕시코 혁명은 멕시코 엘리트, 특히 정치 엘리트 형성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멕시코 혁명으로 탄생한 제도혁명당 중심의 안정적 집권 체제는 카마리야로 불리는 혁명 패밀리 중심의 정치 그룹을 형성시켰다. 이후 경제위기로 부상하게 되는 전문 관료 그룹과 민주화를 통하여 정당정치가 전면화될 때까지 카마리야는 멕시코 정치 엘리트 그룹의 구심점이었다.

한편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된 경제위기는 정치를 포함한 멕시코 엘리트 영역에서 전문 관료가 약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전통적 정치가들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반

대하며 현대화된 정치와 경제 모델을 추구한 전문 관료 집단은 경제 정책의 기초 변화와 정치 자유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전문 기술 관료가 부상한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된 정치 개혁은 자유화와 개방 그리고 지방 분권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2000년 국민행동당의 폭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도혁명당 일당 집권체제가 종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혁명당 일당체제의 붕괴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멕시코 민주화는 멕시코 엘리트 그룹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제도혁명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경로를 통한 정치 엘리트의 등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민주화와 이에 따른 지방분권화 그리고 선거 정치의 활성화는 행정과 선거 경험을 두루 갖춘 혼종형 정치가가 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멕시코 엘리트, 특히 경제 엘리트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로는 독점과 안정을 들 수 있다. 즉 멕시코 경제 엘리트 그룹의 특징은 독점적으로 보호된 시장의 수혜자들이다. 이러한 독점과 보호는 멕시코 정치와 경제에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20세기 말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소수에게 특혜가 집중된 민영화 정책은 이러한 독점을 가속화했다.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로는 가족과 교육 그리고 출신 지역이 있다. 우선 멕시코의 가족 관계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정치 가문의 대물림, 가족 자본 중심의 기업 집단 또는 가족 중심의 조직범죄 그룹 등 멕시코

에서 가족관계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범죄와 같은 영역에서조차 엘리트 형성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멕시코 엘리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교육이다. 멕시코에서 교육은 엘리트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멕시코 엘리트의 학력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사립대학교와 해외 유학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출신 지역 또한 엘리트 형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출신 지역은 정치 엘리트 그룹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각국 엘리트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각국 엘리트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

라틴아메리카는 그 어떤 대륙보다 동질성이 강한 곳이다. 이들 국가들이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은 분명 한 민족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의 특징에서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백인 엘리트가 지배하고, 지주·교회·군부 등 전통적 엘리트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엘리트가 주로 가문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등의 특징은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개별 국가로서 200년 이상이 흘렀고, 각국의 인종구성이나 지리적 특성, 정치경제 발전 양상이 상이함으로써 각국 엘리트의 특징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글에서 분석한 4개국(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 엘리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 엘리트의 특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비교는 주로 각국 엘리트의 단일성과 다원성의 문제, 그리고 다원적이면 엘리트들의 분열과 통합의 문제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부문별 엘리트 비교에서는 이들 엘리트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엘리트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식민지시대의 엘리트 구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식민지 권력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다. 칠레는 식민지시대의 권력 중심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스페인 귀족들의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았고, 따라서 17세기에 이주해온 바스크 출신 이주자들이 순전히 개인적 노력으로 엘리트로 부상했다. 따라서 칠레의 크리오요들은 페닌슐라레스와 큰 갈등 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스페인 식민

지 권력의 중심지였던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식민지 권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페닌술라레스와 크리오요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고, 그러한 엘리트 간의 갈등은 독립 시기에 왕당파와 독립파, 독립 이후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 종교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이들 엘리트 간의 갈등은 매우 컸다. 브라질에서도 식민지 권력은 매우 컸다. 따라서 브라질 식민지 시기의 엘리트 구조는 왕실을 대신하는 관료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대농장주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듯 식민지 시기의 엘리트 구성은 식민지 권력의 크기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독립 이후 19세기 엘리트 집단의 변화 과정에서도 국가 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칠레는 지주 엘리트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광업 엘리트, 상업 엘리트 등이 기존의 지주 엘리트와 혼인 등의 관계를 맺고 단일한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나갔다면, 페루에서는 그 반대로 엘리트 그룹들이 극단적 갈등 관계였다. 페루에서 엘리트 그룹은 리마를 중심으로 페루의 중앙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30~40개 가문 위주의 중앙 엘리트 그리고 구아노와 초석을 생산하는 광산업자 중심의 지방 엘리트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 엘리트들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그것이 페루 정치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기원이 되었다.

한편 브라질과 멕시코의 엘리트 그룹은 칠레보다는 다원적이었지만 페루보다는 더 통합적 관계였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천도로 인해 왕실 관료 엘리트인 가산관료 엘리트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북동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토지에 기반한 지방 지주 엘리트가 각 지역에

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엘리트 그룹이 단일성을 이루기보다 중앙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로 다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실의 권위가 있어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다. 한편 멕시코는 각 지방의 지주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포르피리오 시대에 이러한 갈등은 힘에 의해 봉합되고 최소한 겉으로는 평화 관계가 유지되었다.

20세기 들어서 각국 엘리트들의 차이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칠레의 엘리트 그룹이 여전히 단일성을 보여주었다면 페루의 엘리트 그룹은 여전히 분열되는 양상이었다. 칠레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업가, 금융업자, 지주 등 주요 경제 엘리트는 여전히 혼인 관계 등을 통해 하나의 친족 그룹을 형성했다. 실제 칠레에서는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유착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 둘을 다른 계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형성된 친족 그룹은 칠레 엘리트 그룹의 핵심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나아가 정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지배세력이 되었다. 따라서 칠레는 서로 연결된 7개에서 11개 정도의 거대 친족 그룹이 정치 경제 모두를 지배하는 단일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페루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군부 엘리트가 엘리트 형성에 개입함으로써 엘리트 구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진보적 성격의 벨라스코 군부정권은 기존의 엘리트 구조를 붕괴시켰다. 그로 인해 기존의 지주 엘리트는 소멸하고, 대신 산업화 과정에서 광업, 금융업, 어업, 건설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이주민 출신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경제 엘리트로 부상함으로써 페루의 실질적 지배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경제 엘리트는 진보적 성격을 지닌 군부 엘리트와 항상 갈등과 불신의 관

계에 있었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 엘리트는 벨라운데 테리나 알란 가르시아와 같은 정치 엘리트들과 분열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했다. 페루 엘리트 그룹의 이러한 분열이 바로 페루 정치 불안정성의 가장 큰 요인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국가 규모에 걸맞게 엘리트 그룹도 다원화되었지만 그들 간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통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브라질은 왕정 이후 군부가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파울루와 리우데 자네이루 주의 커피 경작자와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목축업자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중앙정치와 경제를 장악했다. 브라질 엘리트 그룹은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독립적 권력을 가진 각 주의 주지사들, 그리고 주 정치 차원에서는 주내 개별 도시의 지배 세력인 코로넬들이 각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페루와 같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르가스 이후 자본가계급과 중간계층의 성장으로 그러한 엘리트 연합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민자 출신의 산업자본가들은 기존의 지주 엘리트를 대체했으며, 노동자계급과 중간계층의 성장도 기존 엘리트 그룹의 특징에 변화를 가져왔다. 군부도 소장장교 그룹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한편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리아스주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권력도 남부의 리우그란지두술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시기에 브라질의 엘리트 그룹이 칠레와 같이 단일화되기보다 국가의 규모에 걸맞게 다원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멕시코의 엘리트 그룹도 20세기 초에 발생한 멕시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매우 특이한 형태로 발전했다. 멕시코 혁명 이후 엘리트 그룹은 이른

바 ‘혁명 패밀리’라 불리는 그룹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혁명 패밀리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끌어들이며 응집력 있는 강력한 하나의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면서 20세기 멕시코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도혁명당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결속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카마리아 그룹을 형성하여 경쟁 관계를 유지했다. 사회에서 다양한 부문의 리더들은 각각의 상부조직인 카마리아에 의해 조직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엘리트 그룹은 칠레에 비해 훨씬 다원적이지만 페루와 같이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제도혁명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통합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통합적 성격은 서로 다른 정당들의 연합을 통한 브라질식 통합보다 더 강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성격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칠레에서는 미국에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경제 관료 엘리트들이 사회의 새로운 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동업조합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로 성장했다. 경제부문에서도 기존 엘리트 가문이 쇠퇴하고 이민자 출신의 새로운 엘리트 가문이 부상했다. 그러나 칠레의 이들 새 엘리트 그룹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주요 가문 출신들이거나 중산층 출신이라도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칠레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엘리트 그룹의 단일성이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페루에서는 후지모리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분열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APRA 등 전통 정당에 소속된 전통적 정치 엘리트들은 정당정치의 약화로 소멸되어간 반면 경제 엘리

트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힘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페루의 경제엘리트는 확고하게 정치 엘리트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후 페루의 정치 엘리트들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등 확고한 입지를 확립하지 못했다.

브라질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개혁 그리고 그 후 룰라의 등장 등으로 엘리트 그룹이 더욱 다원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헌법 개혁으로 지방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최초의 서민 출신 대통령인 룰라의 등장으로 보수 정치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성의 엘리트들이 등장했다. 그를 통해 브라질 엘리트는 칠레와 페루에 비해 더욱 다원적으로 발전했다.

멕시코에서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을 통해 정치 엘리트 그룹이 기존 정치 엘리트와 신기술 관료 엘리트로 분열되었다. 게다가 1988년 선거 전에는 제도혁명당이 분열했고, 2000년에는 제도혁명당의 71년 장기집권이 붕괴됨으로써 제도혁명당의 일당 지배구조가 소멸되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야당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 엘리트로 부상함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다원성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마약산업이 발전하면서 주요 마약 카르텔의 리더들도 멕시코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을 통해 멕시코 엘리트 그룹은 보다 다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4개국 엘리트의 특징을 엘리트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 엘리트를 살펴보면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정치 엘리트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거부권, 정당의 공천권, 세금 징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지방정치를 지배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치까지도 장악하는 주지사 중심의 지방 정

치 엘리트들은 국가의 지배력이 강한 브라질에서 경제 엘리트들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브라질에서 노조지도자나, 무토지 농민운동, 환경운동 지도자와 같은 사회 엘리트들의 영향력도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 특히 룰라 정부의 등장 이후 이러한 사회 엘리트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멕시코에서도 혁명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가 경제 엘리트나 그 밖의 다른 엘리트 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도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각 주의 주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방 엘리트가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조합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노조지도자나 야당정치인들도 일정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요 정치 엘리트로 간주된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는 다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엘리트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한편 칠레의 정치 엘리트는 비록 경제 엘리트를 포함한 다른 엘리트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주요 가문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엘리트들의 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노체트 이후 성장한 동업조합주의자 중심의 정치 엘리트들은 주요 경제 엘리트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경제 엘리트 가문 출신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칠레에서 정치 엘리트는 막강한 경제 엘리트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경제 엘리트가 실질적 파워를 장악하고 있기는 페루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러나 페루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칠레처럼 단일성을 가지기보다 경제 엘리트와 갈등관계이다. 따라서 페루의 정치 엘리트는 인물 중심으

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떴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페루 정치 엘리트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 엘리트 부문에서는 칠레와 페루의 경제 엘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이민자 출신으로 구성된 양국의 경제 엘리트들은 칠레에서는 단일성을 통해, 페루에서는 정치권력의 견제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칠레의 경제 엘리트를 형성하는 주요 가문들은 스스로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를 배출하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단일한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칠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 엘리트가 되기도 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언론엘리트가 되기도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칠레를 지배한다. 이런 단일성을 통해 칠레의 경제 엘리트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페루의 경제 엘리트들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적 군부정권 등 정치 엘리트들과 지속적 갈등 관계에서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정치 엘리트가 응집력과 지속성 없는 세력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에 비해 경제 엘리트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그들과 견제와 연합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가 권력이 강력한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경제 엘리트의 파워는 크긴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혁명 패밀리와 국영기업이 지배했던 멕시코에서 민간 기업 경제 엘리트들은 사실 국가 권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의 중첩은 칠레나 브라질에 비해 멕시코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 멕시코 경제 엘리트들은 경영자조정위원회(CCE)와 같은 조직을 통해 정치적 개입을 시작했고,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에는 정책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살리나스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멕시코에서도 경제 엘리트들의 성장이 정치 엘리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주도권은 여전히 정치 엘리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에서 성장한 경제 엘리트 뒤에는 핵심 정치 엘리트들의 후원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괄목할 정도로 성장한 경제 엘리트들은 독자적 세력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경제 엘리트들은 민간기업 엘리트보다 BNDES, Petrobras, Eletrobras와 같은 공기업 경영자들이 국가 정책결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 경영자들은 정치 엘리트들이 임명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제 엘리트들은 정치 엘리트들에 비해 아직까지 영향력이 작다.

관료 엘리트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칠레이다. 이른바 ‘시카보보이스’라 불리는 칠레의 관료 엘리트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또 피노체트 정부의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칠레 경제를 사실상 주도해 왔다. 또 이들 스스로가 경제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칠레의 신자유주의 관료엘리트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 지도자들과 합의하여 지속적으로 경제를 주도했으며, 최근 경제 엘리트 출신의 피네라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영향력을 회복했다.

멕시코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과 함께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적 기술 관료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행동당 정부를 지나 제도혁명당이 재집권하면서 주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치 엘리트들이 다시 부상했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 관료 엘리트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브라질의 경제 관료 엘리트들은 외국 대학 출신보다 국내 상파울루대학이나 제툴리오 바르가스재단 출신들이 주를 이룬다. 카르도주 대통령도 국내의 대학출신들을 중용했으며, 룰라 대통령도 헤툴리오 바르가스 재단 출신과 히우 가톨릭 대학 출신들을 주로 관료로 임명했다. 브라질의 관료 엘리트는 스스로 응집력 있는 세력을 형성하기보다 정치 엘리트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페루의 관료 엘리트는 하나의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군부 엘리트는 국가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많다. 페루에서 군부는 경제 엘리트와 함께 엘리트의 양대 축을 형성하지만 멕시코의 군부 엘리트는 혁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엘리트 그룹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브라질과 칠레에서 군부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정치 엘리트나 경제 엘리트에 비해 지배적 파워를 가지지는 않는다. 페루에서 군부엘리트는 단순히 경제 엘리트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독립 이후 페루의 73명의 대통령 중 51명이 군부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페루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군부는 민주화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후지모리 정부에서 발생한 군부의 스캔들은 페루 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군 장교 출신인 우말라 대통령 당선으로 군부엘리트의 정치 개입이 다시 시작되는 것

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브라질 군부엘리트는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민주화 이후 그의 그러한 영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독립 직후 펜콘 출신의 카우디요들이 권력을 잠시 장악한 이후 전반적으로 문민정치의 전통에 따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피노체트 정권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칠레에서 군부는 여전히 주요 엘리트 그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제 엘리트 중심의 문민정치 지향이 칠레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있다.

특히 멕시코에서 군부는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멕시코 혁명 이후 소노라 그룹을 중심으로 한 혁명 카우디요들은 1946년 마누엘 아벨라 카마초 정부까지 대통령을 맡으면서 멕시코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다음 미겔 알레만 대통령 이후로는 민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군부는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견제되면서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종교 엘리트 또한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교 엘리트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칠레이다. 1925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교회의 특권은 사라졌지만 칠레는 아직까지 가톨릭 국가로 분류될 만큼 교회의 권력이 막강하다. 칠레의 다양한 엘리트 그룹들은 종교기관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회를 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의 장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엘리트 가문이 가톨릭 교회의 주요 직책을 맡는 등 교회 엘리트와 다른 엘리트들과의 단일성도 두드러진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칠레 가톨릭 교회가 급진화하면서 지배엘리트

가문들이 보다 보수적인 Opus Dei나 그리스도 군단과 같은 교회 조직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를 통한 종교적 보수성은 칠레 엘리트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한편 브라질에서도 종교 엘리트들은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종교 엘리트들은 비단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에 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브라질의 종교 엘리트 그룹은 매우 다원적이다. 페루에서도 교회의 영향력은 크나 그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다. 멕시코에서도 교회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나 그것이 경제 엘리트나 정치 엘리트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특히 멕시코 혁명을 거치면서 종교 엘리트의 영향력은 많이 감소했다.

언론 엘리트들도 각국에서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칠레에서 『엘 메르쿠리오』와 『라테르세라』 신문사는 각각 경제 엘리트 가문이 소유한 언론사로서 칠레의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주도한다. 이들 언론 엘리트들은 동시에 경제 엘리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칠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실제 그들의 소유주는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위와 6위에 각각 올라 있기도 하다. 멕시코에서 언론엘리트는 엔리케 크라우제와 엑토르 아길라르 카민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은 보수와 진보 세력을 대변한다. 멕시코에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은 칠레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서는 강력하다. 한편 브라질과 페루에서 언론 엘리트는 하나의 세력으로 분석하기에는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엘리트 그룹의 분열과 통합 양상을 비교해보면 칠레의 엘리트들이 가장 단일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통합성

도 크다. 칠레의 엘리트들은 출신 학교도 유사하고, 출신 지역도 같고, 거주하는 지역도 같다. 게다가 종교적 보수성이라는 삶의 형태나 가치관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단일한 권력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면서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다.

반면 브라질의 엘리트 그룹은 매우 다원적이다. 브라질에서는 야당 지도자와 노조지도자들까지도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에 포함된다. 산티아고 중심의 칠레 엘리트에 비해 엘리트의 출신 지역도 매우 다양하다. 북동부나 북부 출신의 보수정치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이 여전한 한편 상과 울루 등 남동부 주 출신의 신흥 정치세력의 등장도 눈에 띈다. 그러나 브라질의 엘리트는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통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정치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멕시코의 엘리트 그룹도 브라질만큼이나 다원적이다. 멕시코에서도 브라질처럼 노조지도자나 야당 지도자 심지어 마약 카르텔까지 정치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에서는 두 개의 사회 분야에서 서로 중첩되는 지위를 가지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엘리트가 칠레처럼 많지 않다. 엘리트 간의 통합은 제도혁명당 시절에는 당내 게임 규칙을 통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도혁명당이 분열되고,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면서 엘리트 간의 분열 현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민주혁명당 후보의 선거 불복종 같은 사태는 멕시코 정치가 엘리트 간의 분열로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페루는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 군부 엘리트가 각각 다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들 엘리트 그룹들은 서로 통합하기보다 빈번히 분열하고 갈등하는 양상이다. 그로 인해 페루의 정치는 조사 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비교 분석들을 [표 6-1]로 정리하였다.

표 6-1. 라틴아메리카 주요 4개국 엘리트 특성 비교

	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
식민지 권력	약	강	강	강
독립 이후 19세기 엘리트의 단일성	강	약	중	중
20세기 신자유주의 개혁 이전까지 엘리트의 단일성	강	약	중	중
신자유주의 이후 엘리트 그룹의 특징	단일성 유지	정치 엘리트 쇠퇴, 경제 엘리트 강화	다원화	다원화
엘리트의 출신 지역적 특징	산티아고 출신	리마 출신	다양한 지역 출신	다양한 지역 출신
정치 엘리트의 파워	중	약	강	강
경제 엘리트의 파워	강	강	중	중
정치와 경제 엘리트의 중첩 정도	강	약	중	약
관료 엘리트의 파워	강	약	중	중
군부 엘리트의 파워	중	강	중	약
종교 엘리트의 파워	강	중	중	약
언론 및 지식인 엘리트의 파워	강	약	약	중
현재 엘리트 그룹의 단일성	강	약	약 (다원성 큼)	약 (다원성 큼)
현재 엘리트 그룹의 통합성	강	약	강	중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시사점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레에서는 우선 카스티야-바스크 엘리트 그룹에 주목해야 한다. 17

세기에 형성된 이들 지주 엘리트 그룹은 다양한 엘리트 그룹과 통합함으로써 확대된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 엘리트 가문은 특히 오늘날 ‘와인 가문’으로 불릴 정도로 칠레의 와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 와인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들 바스크 출신 엘리트 그룹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바스크 출신 이민자들은 지주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라 칠레에 이주해서 상업이나 광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족적 사치와 태만에 빠지기보다는 근검절약하는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이 스스로 지주 귀족이 된 다음에도 지속되었다. 오히려 부를 통해 귀족 작위를 획득한 하급귀족인 이달고(hidalgo)로서 바스크 지주 엘리트들은 전통 귀족 가문에 비해 도덕적으로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실천했다. 바스크 엘리트 그룹의 근검절약성은 오늘날 칠레 엘리트들을 두고 중남미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검소한 엘리트들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과 접촉하고자 할 때는 그들의 그러한 전통과 특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칠레 경제 엘리트들이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칠레 핵심 가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등에서 칠레로 이주해 온 이민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매우 유연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그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기 보다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자본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핵심 엘리트들일수록 외국 기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진출에 보다 긍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칠레와 접촉할 때 일을 쉽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관료에 접근하기보다 이러한 핵심 가문들을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이 때 외국 기업들은 칠레의 이러한 가문들과 합작 등을 통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료 엘리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까지 칠레 엘리트는 대부분 칠레 대학 법학부 출신들이었다면 피노체트 이후에는 시카고보이스를 비롯해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전문 경제학자들이 주요 관료 엘리트로 부상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이전 칠레 엘리트 그룹의 지배 정당성의 근거가 게임의 룰인 법률에 대한 지식과 가문의 전통적 명성이었다면, 1980년 이후 정당성의 근거는 경제적 전문지식과 해외 네트워크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칠레의 경제 관료 엘리트들과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미국 대학을 통한 인맥의 형성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료 엘리트 집단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포드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의 중남미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그러한 지원은 칠레 지배 엘리트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이 적절하다. 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달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칠레 대학에 대한 지원이 칠레 가톨릭 대학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았음에도 전자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반면 칠레 대학의 지배적 영향력에 맞서 경제학적 전문지식을 통해 새로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칠레 가톨릭 대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큰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가 칠레와 관계 심화를 위해 연구나 교육기관

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재 지배 엘리트를 이미 배출하고 있는 기관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려는 의욕이 강한 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대학으로는 기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Universidad del Desarrollo나 Universidad Finis Terrae 등이 있다.

한편 한국적 교육방식과 IT 기술을 접목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중산층의 능력 있는 학생들을 모아 한국식 교육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칠레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한국의 IT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칠레인들은 한국의 성장 모델과 IT 선진 기술에 대해 매우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곳을 파고드는 것은 앞서 본 시카고 대학의 지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 엘리트와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우파 정당들의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앞선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과거 우파가 의회를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고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고수하는 데 집착했다면, 이들 신정치 엘리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필요에 따라 군부를 마지막 카드로 고려하기도 한다. UDI와 RN은 기본적으로 지배 엘리트 그룹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UDI가 RN에 비해 더 이데올로기적이고, 보다 권위적이며, 도덕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UDI는 정권 획득이라는 정당의 실리적 목적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의 유지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우

리나라 정당과 칠레 정당의 관계 설정에서 UDI와 RN 그리고 그들 정당 내부 분파의 핵심 인사들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료 엘리트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칠레 대학과 칠레 가톨릭 대학에 주목해야 한다. 칠레 엘리트들의 대부분은 칠레 대학이나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이다. 특히 피노체트 이후 핵심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칠레 가톨릭 대학 출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학부 수준에서 칠레 대학이나 칠레 가톨릭 대학과 교수 및 학생과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칠레 엘리트와의 관계 증진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칠레 관료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미국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대학에서 그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대학에서 칠레 엘리트 그룹과의 인맥 형성은 우리가 칠레 엘리트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칠레 엘리트와 관계형성을 위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종교적 루트를 통한 접근이다. 1960년대에 가톨릭이 급진화됨에 따라 칠레의 엘리트 그룹의 대부분은 보다 보수적 가톨릭 단체인 Opus Dei나 그리스도 군단에 접근했다. 따라서 칠레의 엘리트 그룹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보수적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종교관에 따라 칠레의 엘리트 그룹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엄격함(근면성과 정직성), 일관성(원칙주의), 소박함(검소함, 절약정신), 가족에 대한 헌신성(이혼 반대, 다자녀 가정) 등이다. 이러한 보수적 종교성과 도덕성, 그리고 그의 실천을 통해 칠레 엘리트들은 그들 그룹의 배타성을 유지하고, 지배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칠레 엘리트 그룹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러한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칠레에서 사업을 한다면 당사자

가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족에 대한 헌신성은 칠레 엘리트 그룹이 높이 평가할 만한 덕목이므로 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도덕적 가치를 적극 알릴 필요도 있다.

한편 칠레의 기업가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CPC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제 부문의 엘리트들을 통합하는 CPC는 지주와 기업가 등 다양한 경제 부문 엘리트들의 이익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경제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CPC의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칠레의 CPC와 직접 교류관계를 맺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CEP이나 ILD 같은 연구기관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그룹이 주도하는 이들 연구기관들은 엘리트 그룹이 원하는 정치 경제 모델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ILD의 주요 인사들은 현재 피네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기관들 간의 교류에서 기존의 CEPAL과 같은 기관보다 이러한 연구기관들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페루 엘리트들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페루 사회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 경제 엘리트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페루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 따라서 경제 엘리트들 특

히 알란 가르시아 1기 정부부터 ‘경제계의 12사도’라고 불린 주요 경제 그룹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들 경제 엘리트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페루의 주요 경제인연합회를 통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그룹들과 직접 교류를 강화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는 달리 페루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페루의 정당정치가 아직 취약하고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또한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막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페루의 정책적 결정이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부와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뿐 아니라 법안의 통과마저 행정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한다.

셋째, 페루의 엘리트들은 주로 리마에 거주하며 리마 중심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페루의 리마 대 쿠스코 혹은 리마 대 비리마의 오랜 권력 분배 구조는 페루의 권력이 지나치게 리마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리마의 각종 사교 클럽에서는 페루 사회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고 때에 따라서는 결정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마 중심의 권력 구조는 최근 페루 사회에서 저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후지모리, 톨레도, 우말라로 이어지는, 전통적 리마 엘리트가 아닌 아웃사이드들의 등장은 리마와 비리마 지역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쿠스코 엘리트와 같은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고찰 및 협력 또한 중요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군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페루

군부는 정치에 강력히 개입하고 권력을 휘둘렀다. 후지모리와 톨레도 그리고 가르시아를 거치며 군부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군부 엘리트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군부 엘리트들이 예전과 같이 정치 전반에 등장할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2011년 대선부터 군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군부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군사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군부 엘리트들의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찰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 등장한 칠레에 대한 다소 공격적인 레토릭들이 어떻게 정치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엘리트 연구가 주는 정책 시사점으로는 다음 내용들을 지적할 수 있다. 밀스가 주장하는 파워 엘리트들은 개별 국가의 사회 전반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한 영역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브라질의 파워 엘리트들도 이와 같은 네트워크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 엘리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브라질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와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엘리트와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이다.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은 각 주의 주립대학교, 상파울루 대학교, 히우자네이루 연방대학교와 제 딸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다. 사실 이들 대학들은 브라질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최근 정치 분야에서는 브라질리아 연방대학 출신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경제 분야에서는 캄페나스 대학 출신들이 등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학으로 유학생들을 파견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외교적인 접근 통로의 확보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외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교 아카데미 출신들이 외교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따마라찌 외교 아카데미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지도가 높다. 외교통상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외교아카데미 운영 부분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고 상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정부에 접근하는 문제이다. 그를 위해서는 의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상·하원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출신 주의 정·재계를 장악한 경우가 많다. 한국과 브라질 의원친선협회 의장인 시세루 루세나(Cícero Lucena) 상원의원은 빠라이바 주 주앙 뻘소아(João Pessoa) 시의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친선협회 의장 자신이 속한 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줄리우 헤데케르(Julio Redecker) 전 하원의원의 노력으로 히우그란지두술주와 한국의 관계 확대와 기업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예이다.

넷째, 경제 관료를 통한 진출이다. 최근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프라 파이낸스를 책임지고 있는 브라질 개발은행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브라질 개발은행은 브라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들과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정보 확보의 문제이다. 브라질은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 석유공사가 석유 시추뿐만 아니라 석유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유조선 건조에 대한 공개입찰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학술적 정보 교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제 관료들은 상파울루 대학교 경제대학과 제뮐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경제 및 경영학과 출신들이다. 또한 경제 관련 연구소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관료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발전 플랜을 구상하는 기관 역할을 했다. 제뮐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브라질 경제연구소, 기획부의 경제사회기획연구소, 상파울루대학교의 경제연구재단 등이 있다. 이 연구소들은 브라질의 경제발전 모델 구축, 이론적인 토대 마련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 경제인 단체를 활용한 접근이다. 브라질 산업연맹은 브라질 모든 산업가와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회원으로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유사한 조직적 특성이 있다. 때문에 정치력을 활용하여 국가 정책 입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기에도 경제적 다양성 확보와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부정권에 로비를 펼쳐 경제 구조변화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따라서 브라질 산업연맹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기업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파울루 산업연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상파울루 기업가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엘리트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멕시코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 엘리트의 주축이 기존의 전문 관료 집단으로부터 이른바 하이브리드 정치가로 불리는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41년 이전에 태어난 전통적 정치가의 특징과 젊은 기술 관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혼종형 정치가는 지방 도시 출신이 많으며, 부모는 전문직 중산층이 많다. 또한 이들은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중앙 정치에서도 정치 또는 경제 분야의 기관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 비추어볼 때, 멕시코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출신 지방과 지방 정치에서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 페냐 니에토의 고향이자 주지사를 지낸 멕시코 주 출신들이 내각과 요직에 대거 포진한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멕시코 엘리트들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미국 중심의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엘리트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덧붙여 눈에 거볼 만한 특징은 멕시코의 많은 엘리트들이 해외 유학 경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이 국내교육을 병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멕시코 엘리트의 학력 현상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멕시코 엘리트들은 멕시코 지역(local)의 관점과 국제적(global) 관점을 동시에 지닌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멕시코 엘리트들은 멕시코 고유의 국가적,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지닌 존재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멕시코 엘리트의 파트너가 될 우리의 정책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이러한 다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시사점은 멕시코 엘리트 집단에서 가족의 중요성이다. 즉 견고하고 때로는 폭 넓은 멕시코의 가족제도는 그 어떤 사회적 제도보다 엘리

트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멕시코 엘리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증된 가족관계의 이해는 멕시코와의 외교 및 통상협력 그리고 나아가 민간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덧붙여 이를 위한 멕시코의 가족과 엘리트에 대한 심도 깊고 세심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 시사점은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에 관한 것이다. 1988년 집권하여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퇴임 직후 발발한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해외를 전전하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앞서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페냐 니에토 신임 대통령의 후견인이자 제도혁명당의 막후 실세로서 멕시코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자로 부활했다고 평가받는다. 멕시코 정치에 혼재된 변화와 연속성은 멕시코 정치연구자들에게도 언제나 놀라운 일이지만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떤 엘리트의 몰락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몰락했을 것 같은 엘리트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둔 외교적,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올바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장기적 전망을 가진 폭넓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덧붙이자면 이는 제도혁명당의 부활과도 일맥상통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영철 · 임두빈 · 김우성. 2011. 『브라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수잔 로라프 · 로라 카마초. 2005.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칠레』. 휘슬러.
- 아담 쉐보르스키. 1993. 『민주주의와 시장』. 한울아카데미.
- 이브 드잘레이 · 브라이언트 가스. 2007. 『궁정전투의 국제화. 국가 권력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경쟁과 지식 네트워크』. 그린비.
- 이상현. 2011. 「분권화와 민주화: 멕시코 신연방주의 사례」. 『중남미연구』. 제30권 1호.
- C. W. 밀스. 1979. 『파워엘리트』. 한길사.

[영문자료]

- Adriano Codato. “A formação do campo político profissional no Brasil: uma hipótese a partir do caso de São Paulo.”
<http://br.monografias.com/trabalhos914/campo-politico-profissional/campo-politico-profissional2.shtml>
- _____. “Elites, políticos e instituições políticas: o Estado Novo no Brasil, de novo.”
http://ufpr.academia.edu/AdrianoCodato/Papers/159137/CODATO_Adriano_Elites_politicos_e_instituicoes_politicas_o_Estado_Novo_no_Brasil_de_novo.
- Angélica Thumala, Maña. 2007. *Riqueza y Piedad. El catolicismo de la elite económica chilena*. Santiago de Chile: Debate.
- Azevedo, Dermi. 2004. “A Igreja Católica e seu papel político no Brasil”. *Estudos Avançados*, vol. 18, No. 52. São Paulo. (Sept/Dec)
- Bauer, Arnold. 1975. *Chilean Rural Society from the Spanish Conquest to 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mar, Daniel. 2012. "Encuesta Top: Quién gobierna Chile?" The Clinic on line. *Chilean News*. 31 de enero. www.theclinic.cl/chilean-news.
- Birle, Peter, Wilhelm Hofmeister, Günther Maihold, and Barbara Potthast eds. 2007. *Elites in América Latina*. Iberoamericana·Vervuert.
- Bresser-Pereira, Luiz Carlos. 2000. "After the Elites, Civil Society's Democracy in Brazil, at the IPSA." *International Political Association Congress*. Quebec. (August 1-5)
- Camp, Roderic Ai. 1985a.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Twenties-Century Mexico, Latin American Monographs*. No. 65.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85b. "The Political Technocrats in Mexico and the Survival of the Political System."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0, No. 1, pp. 97-118.
- _____. 1989. *Entrepreneurs and Politics in Twentieth-Century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Politics in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Political Recruitment across Two Centuries. 1884-1991*.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99. *Politics in Mexico: The Decline of Authoritarianism*.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Mexico's Mandarins: Crafting a Power Elit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10. *The Metamorphosis of Leadership in a Democratic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1a. *Mexican Political Biographies, 1935-2009*, 4th edition. Teresa Lozano Long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2011b. *Mexico: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 Cardoso F. H. y Enzo Faletto. 1986. *Dependencia y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20a. ed.* México: Siglo XXI.
- Carrière, Jean. 1981. *Landowners and politics in Chile: a study of the Sociedad Nacional de Agricultura, 1932-1970*. Centrum voor Studie en Documentatie van Latijns-Amerika.
- Castro, Celso.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Brazil: 1964-2000."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Brazilia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 Centeno, Miguel A. and Sylvia Maxfield. 1992. "The Marriage of Finance and Order: Changes in the Mexican Political Elit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4, No. 1, pp. 57-85. (February)
- Coerver, Don M., Suzanne B. Pasztor and Robert Buffington. 2004. *Mexico Today: An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ABC-CLIO.
- Collier, D. ed. 1979.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ntreras, Rodrigo. 2002. "La actualidad de viejas temáticas: familias, riqueza y poder en América Latina. Algunas consideraciones a partir del caso de Chile."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64, No. 4, pp. 3-52. (Oct.-Dec)
- Corcoran, Patrick. 2007. "Mexico's Rich and Powerful are Leaving Science Behind." *Mexidata.Info*. Dec. 17, 2007. <http://mexidata.info/id1653.html> (2012년 9월 15일 검색)
- Cornelius, Wayne A. and Ann L. Craig. 1991. *The Mexican Political System in Transitio*. Monograph Series 35.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Correa Sutil, Sofia. 2011. *Con las riendas del poder. La derecha chilena en el siglo XX*. Santiago de Chile: DEBOLSILLO.

- Cristi, Renato. 2000. *El pensamiento político de Jaime Guzmán. Autoridad y Libertad*. Santiago de Chile: Lom Ediciones.
- D'Araujo, Maria Celina. 2009a. *A Elite Dirigente do Governo Lula*. Rio de Janeiro: Fundação Getulio Vargas.
- D'Araujo, Maria Celina, Lameirão. 2009b. "Social Scientis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Lula da Silva Government." *Brazili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 No. 1, pp. 11-39.
- Dargent Bocanegra, Eduardo. 2009. *Demócratas precarios: Élités y debilidad democrática en el Perú y América Latina*. IEP: Lima.
- Debray, R. 1970. *Strategy for Revolution*, London: Jonathan Cape.
- De la Cadena, Marisol. 2001. "the Racial Politics of Culture and Silent Racism in Peru." Racism and Public Policy Conference Paper. Washington, D.C.: UNRISD.
- Dietz, Henry. 1992. "Elites in an Unconsolidated Democracy: Peru during the 1980s." In John Higley and Richard Gunther eds.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niz, Eli. 2000. *Globalização, reformas econômicas e elites empresariais - Brasil anos 90*. Rio de Janeiro: Ed. FGV.
- Dogan, M. and J. Higley eds. 1998. *Elites, Crises, and the Origins of Regimes*. Boulder, CO: Rowman & Littlefield.
- Drake, Pau. 1992. *Socialismo y populismo en Chile, 1936-1973*. Valparaíso: Instituto de Historia, Vicerrectoría Académica, Universidad Católica de Valparaíso.
- Durand, Francisco. 1992. *The Political Formation and Consolidation of Peak Business Association: the Case of Peru*. Working Paper #170. The Kellogg Institute.

- Durand, Francisco. 1998. "Collective Action and the Empowerment of Peruvian Business." In Francisco Durand & Eduardo Silva eds. *Organized Business, Economic Change. Democracy in Latin America*. Miami: North- South Center Press.
- _____. 2010. *La Mano Invisible en el Estado: Críticas a los neoliberales criollos*. Lima: Fondo Editorial del Pedagógica San Marcos.
- Edwards, Alberto. 1928. *La fonda aristocrática en Chile*. Santiago de Chile: Imprenta Nacional.
- Ernesto Seidl. 2008. "Elites Militares, Trajetorias e Redefinições Político-Institucionais (1850-1930)." *Revista Sociolo Politicos*, Vol 16, No. 30.
- Ewen, Linda Ann. 1971. *Ownership and control of large corporations in an underdeveloped capitalist country: a study of the capitalist class in Chile*.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Wisconsin.
- Fazio Rigazzi, Hugo. 2005. *Mapa de la extrema riqueza al año 2005*. Santiago de Chile: LOM Ediciones.
- _____. 2011. *Un País gobernado por uno de sus dueños*. Santiago de Chile: LOM Ediciones/CENDA.
- Ferner, Anthony. 1979. "The Dominant Clas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Peru." *The Journal of Developmnt Studies*, Vol. 15, No. 4, pp. 268-288.
- Fox, Jonathan. 1994. "The Difficult Transition from Clientelism to Citizenship: Lessons from Mexico." *World Politics*, Vol. 46, No. 2, pp. 151-184. (January)
- Gayson, George. 1968. *El Partido Demócrata-Cristiano Chileno*. Buenos Aires: Editorial Francisco de Aguirre.
- Gazmuri, Cristián. 2000. "Notas sobre las elites chilenas, 1930-1999." *Academia Chilena De La Historia*, Año LXVII, No. 110, pp. 105-129.
- Grayson, George W. 2012. "Mexico: Enrique Peña Nieto's Cabine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csis.org/blog/mexico-enrique-pena-nietos-cabinet>. 2012년 12월 5일
검색.

- Grier Robin M. and Kevin B. Grier. 2000. "Political Cycles in Nontraditional Settings: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Case of Mexico."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3, No. 1, pp. 239-264. (April)
- Grindle, Merilee S. 1977. "Patrons and Clients in Bureaucracy: Career Networks in Mexic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12, No. 1, pp. 37-66.
- Gouvêa, Julio Cesar. 2008. *A lógica de nomeação e o perfil sociopolítico das elites burocráticas: um estudo comparativo entre os governos FHC e Lula*, 32º ANPOCS.
- Gumucio, Rafael Agusfin. 1994. *Apuntes de medio siglo*. Santiago de Chile: Ediciones ChileAmerica CESOC.
- Haggard, S. and R. Kaufman.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gopian, Frances. 1987. *The Traditional Political Elite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Brazil*. Working Paper. Kellogg Institute.
- Haller, Archibald O. & Godfrey, Darames S. 1981. *Elite Stratum Analysis: Brazilian Data*. Staff Seminar paper. Department of Sociology. Australis National University.
- Hilgers, Tina. 2008. "Causes and Consequences of Political Clientelism: Mexico's PRD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50, No. 4, pp. 123-153. (Winter)
- Higley, John and Richard Gunter eds. 1992.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enboom, Barbara. 2004. "Economic Concentration and Conglomerates in Mexico."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Vol. 20, No. 3-4, pp. 207-225.

- Hughes, Sallie. 2005. "Post-Authoritarian Politics in Mexico: Beyond 2000. Elections, and the Formal Political Aren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0, No. 3, pp. 429-442.
- Joignant, Alfredo y Patricio Navia. 2003. "De la política de individuos a los hombres del partido, socialización, competencia política y penetración electoral de la UDI. 1989-2001." *Estudios Políticos*, No. 89, pp. 129-171. (verano)
- Klesner, Joseph L. 2007.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 Evidence from Argentina, Chile, Mexico, and Peru."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2, No. 2, pp. 1-32.
- Lagos, Ricardo. 1962. *La concentración del poder económico. Su teoría y realidad chilena*. Santiago de Chile: Universidad de Chile.
- Langston, Joy. 2002. "Breaking Out Is Hard to DO: Exit, Voice, and Loyalty in Mexico's One-Party Hegemonic Regim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4, No. 3, pp. 61-88. (Autumn)
- Larraín V., Fanor. 2004. "Internacionalización de las elites chilenas." *Revista de Estudios Internacionales*. Vol. 37, No. 147, pp. 133-145. (octubre-diciembre)
- Leigh A. Payne. 1992. *Brazilian Business And the Democratic Transition: New Attitudes And Influence*. Kellogg Institute.
- Levitt. 2012. *Power in the Balance: Presidents, Parties and Legislatures in Peru and Beyond*.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Li, He. 2001. "Technocrats and Democratic Transition: the Cases of China and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8, No. 2, pp. 67-86.
- Lindau, Juan D. 1996. "Technocrats and Mexico's Political Eli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 No. 2, pp. 295-322. (Summer)
- Lipset, S. M. and A. Solari eds. 1967. *Elites in Lat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ópez Obrador, Andrés Manuel. 2010. *La mafia que se adueñó de México...y el 2012*. Grijalbo Modadori.
- Luna, Matilde and Ricardo Pozas. 1991. *Las Empresas y los empresarios en el Mexico contemporaneo*. Grijalbo.
- Malerba, Jurandir. 2001. "The Constitution of The Elites in the Rise of Brazilian Imperial State." *Diálogos Latinamericanos*, No. 4.
- Mauceri, Philip. 2004. "State, Elites, and the Reponse to Insurgency." In Jo-Marie Burt & Philip Mauceri ed. *Politics in the Andes: Identity, Conflicts, Reform*.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eléndez, Carlos ed. 2011. *Post Candidatos*. Lima, Perú: MITIM.
- Melnick, Sergio and Jaime Hales. 2009. *Los 100 que mandan en Chile*. Santiago de Chile: Aguilar.
- Mendez G. Cecilia. 1996. "Incas Sí, Indios No: Notes on Peruvian Creole Natinalism and Its Contemporary Crisi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1), pp. 197-225.
- Messenberg, Débora. 2007. "A Elite Parlamentar Brasileira(1989-2004)." *Sociedade e Estado*, Brasília, Vol. 22, No. 2, pp. 309-370.
- Millas, Hernan. 2005. *La Sagrada Familia. La historia secreta de las diez familias más poderosas de Chile*. Santiago de Chile: Planeta.
- Miller, Rory. 1982. "The Coastal Elite and Peruvian Politics, 1895-1919."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4(1), pp. 97-120.
- Monteiro, Lorena Madruga. 2011. "A Companhia de Jesus e a Formação das Elites Católicaas no Sul do Brasil." *Revista de Estudos de Religiãao*, Vol. 2, No. 1, pp. 136-152.
- Moraga, Javiera. 2003. "Anacleto Angelini." Gerardo Reyes. (coord). *Los dueños de América Latina*. México: Ediciones B. pp. 185-198.

- Muecke, Ulrich. 2004. *Political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Peru: The Rise of the Partido Civil*.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usacchio, Aldo and Ian Read. 2006. "Bankers, Industrialists, and their Cliques: Elite Networkd in Mexico and Brazil during Early Industrializ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06-048.
- Newell, Robert and Luis Rubio. 1985. *Mexico's Dilemma: The Political Origins of Economic Crisis*. Westview Press.
- O'Donnell, G. 1979.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O'Toole, Gavin. 2007. *Politics Latin America*, Pearson Education Limited.
- Paulo Roberto Neves Costa, Icaro Gabriel da Fonseca Engler. 2008. "Elite Empresarial: Recrutament e Valores Politicos." *Opinião Público*. Campinas
- Paulo Roberto Neves Costa, Tiago Junior Roks, Guatimozin de Oliveira Santos Filho. 2012. "Recrutamento, valores e padrões de ação política da elite empresarial." Working papers/textos para discussão número 3. agosto. Vol. 14. No 2.
- Peeler, John A. 2010. "Elites, Structures, and Political Ac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 No. 2, pp. 231-246.
- Pérez Lizaur, Marisol. 2010. *Empresa y Familia en México: Una Visión desde la Antropología*. Universidad Iberoamericana.
- Ratcliff, Richard Earl. 1973. "Kinship, Wealth, and Power: Capitalists and Landowners in the Chielan Upper Cla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Reis, Elisa P., Cheibub, Zario B. 1996. "Bureauratic Elite,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Nova Economia*, Vol. 6, No.1.
- Remmer, K. 1991. "New wine or old bottlenecks? The study of Latin American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Vol. 23, pp. 479-495.
- Renato Boschi, Eli Diniz, Fabiano Santos. 2000. *Elites Politicas e Econômicas no*

Brasil Contemporânea. Sao Paulo: Konrad Adenauer.

- Reyna, Carlos. 1997. "Peru: Oligarchs with new fac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30(6), pp. 32-37.
- Ricupero, Rodrigo. 2008. "*A Formação da Elite Colonial: Brasil c.1530-1630.*" São Paulo: Alameda.
- Ronfeldt, David. 1988. *Whither Elite Cohesion in Mexico: A Comment*. The Rand Corporation.
- Rosas, Fernando. 2010. *A Brief History of Peru*. Ediciones el Lector. Peru: Arequipa.
- Rueschemeyer, D. *et al.*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allenmueller, Christian Jecov. 2010. "A Conferência Nacional dos Bispos do Brasil-CNBB(1952-1964): Emergência de Uma Nova Elite Católica e Colaboração com o Desenvolvimentismo." *II Seminário Nacional Sociologia & Política, 15,16,17 de Setembro*.
- Schneider, Ben Ross. 1993. "The Career Conn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Bureaucratic Preferences and Insul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3, pp. 331-350. (April)
- Schneider, Ben Ross. 2002. "Why Is Mexican Business So Organized?"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7, No. 1, pp. 77-118.
- Schwaller, John F. 1994. "Natives and Spaniards in Early Colonial Mexico and Peru."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9, No. 2, pp. 249-261.
- Secretaria de Gestão Público. 2012. *Boletim Estatístico de Pessoal*, Volume 17. Nr. 195. Julho de 2012.
- Shimizu, Tatsuya. 2004. "Family Business in Peru: Survival and Expansion under the Liberalization." Working Paper.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Sigmund, Paul E. 2000. "Chile," Howard J. Wiarda and Harvey F. Kline ed. *Latin*

-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5th ed.* UK: Westview Press. pp. 164-197.
- Silva, Eduardo. 1996. *The State and capital in Chile. Business Elites, Technocrats, and Market Economics.* Colorado: Westview Press.
- Skidmore, Thomas E. and Peter H. Smith. 2001. *Modern Lat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 Soares, Gláucio Ary Dillon. 1979. *Military Authoritarianism and Executive Absolutism in Brazil.*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 Stabili, María Rosaria. 2003. *El sentimiento aristocrático. Elites chilenas frente al espejo. 1860-1960.* Santiago de Chile: Editorial Andrés Bello.
- Stevens, Daniel, Benjamin G. Bishin and Robert R. Barr. 2006. "Authoritarian Attitudes, Democracy, and Policy Preferences among Latin American Eli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pp. 606-620. (July)
- Tirado, Ricardo. 1998. "Mexico: From the Political Call for Collection to a Proposal for Free market Economic Reform." In Francisco Durand and Eduardo Silva, *Organized Business, Economic Change,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orth-South Center Press at University of Miami.
- Tironi, Eugenio. 1999. *La irrupción de las masas y el malestar de las elites. Chile en el cambio de siglo.* Santiago de Chile: Grijalbo.
- Valdés, Juan Gabriel. 1989. *La Escuela de Chicago: Operación Chile.* Buenos Aires: Grupo Editorial Z.
- _____. 1995. *Pinochet's Economists: The Chicago School in Chile. Historical Perspectives on Modern Econom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squez H., Henrique. 2000. *Estrategias del Poder: Grupos Economicos en el Peru.* Lima: Universidad del Pacifico.

- Wells, Stephen Coakley. 2010.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rs: the democratic, institutional and socio-political influence of Brazil’s elite.*” Cad. EBAPE.BR, [online]. 2010. vol. 8, n. 4, pp. 661-675.
- Wendy Hunter. 1992. “Back to the Barracks? The Military in Post-Authoritarian Brazil.” *XVII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Los Angeles. (September 24-27)
<http://observatory-elites.org>
- Worthman, Shaye. 2012. “The Role of the Economic Elite in Mexico’s Democratic Development.”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www.e-ir.info/2012/01/09/the-role-of-the-economic-elite-in-mexicos-democratic-development/>
- Zeitlin, Maurice and Richard Earl Ratcliff. 1988. *Landlords & Capitalists. The Dominant Class of Chil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epada Patterson, Jorge ed. 2011. *Los Amos de México*. Temas de Hoy.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ko.wikipedia.org

Alex Sánchez, 2006. “Peru Elections: The Military Issues.”

<http://www.coha.org/peru-elections-the-military-issue> 2012.12.9 검색

El Diario Internacional. 2007. “Los Ricos del Peru.” 2007.08.05.

<http://www.eldiariointernacional.com/spip.php?article1288>. 2012.12.14. 검색

El Mercurio. 2012. “Los 100 colegios con mejor promedio Lenguaje-Matemáticas.” 4 de enero.

<http://www.emol.com/noticias/nacional/2012/01/04/519968>.

El Mercurio. 2012. “Si mi opción contribuye a un segundo gobierno de la Alianza, estoy disponible.” 7 de julio. p. C2.

El Mercurio. 2012. Popular o Populista?. 7 de julio. p. C4.

Globo. 2012. “Gobierno federal já tem 22 mil cargos de confiança.” 2012.11.16

- La Brujula. 2011. "Democracy and the Armed Forces in Peru: Inoperative at Any Cost?." Cynthia Sanborn. 2011.9.3.
- Latin American Newsletters. 2009. "Latin American Special Report. Dynasties: Part One. Why families are important," SR-2009-02.
- La Tercera. 2010. "Descifrando al presidente número 38." 26 de diciembre.
<http://www.latercera.com/noticia/politica/2010/12/674-333507-9>.
- Poder 360. 2011. "Los Hombres del Presidente."
http://www.poder360.com/article_detail.php?id_article=6123. 2012.12.6 검색
- Poder 360. 2012. "Los + Poderosos 2011/2012." December.
http://www.poder360.com/article_detail.php?id_article=6209 2012년 9월 15일 검색.
- The Economist. 2012. "Progress and its discontents," 2012.04.14.
- The Economist. 2012. "By the right, March." 2011.12.17.
- The Economist. 2003. "Military mutters: the Grievances of a Humbled Army." 2003.1.9.

[인터뷰]

- Diana Seminario(El Comercio 정치부 부장). 2012. 7.18. Lima, Perú.
- Tania Vasquez(IEP, 연구원). 2012. 7. 19. Lima, Perú.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Elites

Ki Hyun Kim, Yun Joo Park, Young Chul Kim, and Sang Hyun Yi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elites focusing on Mexico, Brazil, Peru and Chile. The reason why these four countries have been chosen for the study is not because they represent the region but because they are relatively the most significant countries in terms of their relation with Korea. Therefore, what we found in this study regarding the 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ites are not duplicable to the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topic as well as the diverse context of Latin America, the further research on elites in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will be important to foster more complex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lites in Latin America.

This study does not aim at establishing a new theory on Latin American elites. Rather, it practically approaches to the subject of elites in order to contribute to better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 and Korea since the elites are such an important social actors. As a result, this study turns out to differ from recent development of elite studies literature which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 of conflicts or cooperation among the elites on democratization process.

Each case study shares the following structure. First, it analyzes the elite formation process. In order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ites, the elite formation process is an important element to look at. The elite formation process is not just a simple historical fact yet it prove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oday's elites. Various historical factors such as the strength

of colonial power, the role of local elites in independence, the existence of powerful regional elites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the power of rural elites,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of elites result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lites in each country. Therefore, looking at the elite formation with emphasis on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we tri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elites in each case.

Second, we examine various sectors of the elite structure. As mentioned before, due to different historical formation, different sector of the elite in each country has different level of power. For example, in Chile and Peru, economic elites have stronger power among others, while political elites are relatively more predominant in Mexico and Brazil. Furthermore, when Mexico and Brazil, whose size is rather big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have stronger local elites such as governors, relatively smaller countries in this study such as Peru and Chile turn out to form stronger elite concentration around each capital, Lima and Santiago, respectively. In Peru, the military elite maintains its power to some extent while in Mexico the military does not form a part of power elite because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nflicts. Chile, which appears to have a strongly unified elites, tends to have powerful media elites which play a major role in national politics with its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power. However, Peruvian as well as Brazilian media did not grow into such power. In case of religious elites, Peru and Chile where the society in general is socially conservative possess relatively more powerful religious elites than Mexico and Brazil.

Such diversity in Latin American elites led us to focus this study on specific elite groups depending on each country's context instead of researching same groups in each case. Political elites and economic elites were commonly discussed in each case while military elites, media elites and religious elites were chosen depending on its significance in the case. This approach is appropriate

for the study because its purpose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have power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rom power elite perspective.

Finally, this study surveys how elites act to realize their interests. We analyzed Chilean case, which seems to have unified elites, in terms of how the unity could be maintains by looking at their recruiting methods, their religious conservatism, and their strategy of alliance. In Peruvian case, this study scrutinizes the power relations among principal elite groups such as economic elites, political elites and military elites. In addition, the interactions among the elites were carefully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ir style of governing. Meanwhile, Brazilian case, where we can find rather more diversified elites, gave us insights on how power has been shared among different sectors of elites. Mexico, which also appears to have a more diversified elites, elucidates how different sectors of elites could acquire governance by internal integration.

As a result, this study contributes to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atin American elites by looking at their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their characteristics as well as current status of their power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offers a base for future researches on Latin American elites as well as politics of the region in general. It also provides a practical knowledge on the elites in Latin America wh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 · 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재영 · 제성훈 · 김홍진 · 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 · 성원용 · 이상준 · 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 · 설병수 · 황규득 · 강경화 · 베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 · 변 용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 광성일 · 전해린 · 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박미숙 · 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 · 박운주 · 김영철 · 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 · 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 · 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혜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2011년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래·강대창·김유미·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 11-13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김영진·김일검·김안국·홍미희·성동기·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2010년

- 10-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 · 강명구 · 김계환 · 김한철 · 성원용 · 이시영
- 10-2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 · 문창권 · 변현섭 · 이성훈 · 장세진 · 주진홍 · 최 호
- 10-3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박상남 · 손영훈
- 10-4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 은기수 · 박수미 · 박 건 · 장원봉
- 10-5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0-6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정치 · 문화
- 10-7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 · 자원 · 과학

김기현(金起賢)

한국의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멕시코국립대학교(UNAM) 중남미지역학 박사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
(現, E-mail: drkhkim@sunmoon.ac.kr)

저서 및 논문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2012)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공저, 2011) 외

박윤주(朴允姪)

한국의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텍사스오스틴대학교 중남미학 석사
텍사스오스틴대학교 사회학 박사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現, E-mail: yunjoopark@kmu.ac.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공저, 2011)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공저, 2010) 외

김영철(金永哲)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교수, 지역원장
(現, E-mail: latin@bufs.ac.kr)

저서 및 논문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공저, 2012)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 정부 조직구조』(공저, 2011) 외

이상현(李相鉉)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학 석사
텍사스오스틴대학교 중남미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HK 교수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現, E-mail: shyi@jbnu.ac.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공저, 2011)

『볼리비아 천연가스 산업과 국유화의 결정요인』(2010)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2-15
연구보고서 12-36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02-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419-1 94320

정가 12,000원

978-89-322-1072-8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회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과 자원개발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4개국(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의 엘리트층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통치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가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설립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